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부산발전 비전 및 전략 2050 BUSAN PLAN

부산발전 비전 및 전략

2050 BUSAN PLAN

CONTENTS

I 왜 부산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가?

-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2
- 2. 계획수립 전략 8
- 3. 계획수립 범위 10
- 4. 계획수립 체계 11

II 미래사회 이슈와 도시들의 전략은 어떠한가?

- 1. 글로벌 트렌드 분석 16
- 2. 글로벌 도시 비전 및 전략 분석 31
- 3. 요약 및 시사점 51

III 부산의 오늘과 부산시민이 바라는 미래는 어떠한가?

- 1. 주요 지표 분석 54
- 2. 부산 시민·전문가 조사 82
- 3.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100
- 4. 요약 및 시사점 106

IV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 1. 이머징 이슈 연구 110
- 2. 이머징 이슈 키워드 도출 117
- 3. 2050 부산 이머징 이슈 및 전략 126
- 4. 요약 및 시사점 138

V 꿈을 위한 2050 BUSAN PLAN의 비전 체계

1. 미래 가치 및 비전 도출 142
2. 2050 BUSAN PLAN 비전 체계 145

VI 2050 부산의 꿈을 위한 Big 프로젝트

1. 15분 행복 도시 150
2. 디지털·혁신 도시 164
3. 그린·안전 도시 178
4. 물류·금융 허브 도시 192
5. 문화·관광 도시 206

VII 2050 부산의 꿈을 위한 MEGA 프로젝트

1. MEGA 프로젝트 222
2. MEGA 프로젝트가 바꿀 부산의 미래 235

VIII 2050 BUSAN PLAN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1.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한 추진주체별 역할 240
2. 모니터링 관리체계 241

부록 _ 244

참고문헌 _ 246

I. 왜 부산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가?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2. 계획수립 전략
3. 계획수립 범위
4. 계획수립 체계

0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배경

(1) 영광과 회한의 시대

- 6.25 전쟁 임시수도 부산, 우리나라 제2도시의 시작
 - 부산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서울이 점령당하면서 남쪽으로 후퇴한 정부에 의해 1950년 8월 18일부터 1953년 8월 15일까지 총 1023일간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역할
 - 전쟁으로 인해 부산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2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인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6.25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건물
- 부산에서 출발한 대기업, 수도권으로 유출
 - 부산은 1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
 - LG화학은 락희화학이라는 이름으로 1947년 부산 서대신동에서 출발, 1954년 연지동에 락희화학공업이라는 근대식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삼성그룹의 최초 제조 시설이자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CJ제일제당은 1953년 부전동 동천 변에 제일제당공업(주) 부산 1공장을 설립하는 등 부산은 여러 대기업의 시작점이었으나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출

<그림 1-1> 부산에서 출발한 대기업 전경



주 : 제일제당 부산공장, 부산진구 연지동의 럭키비누 공장, 금성사 라디오 생산모습
자료 : 경인일보, 국제신문, 전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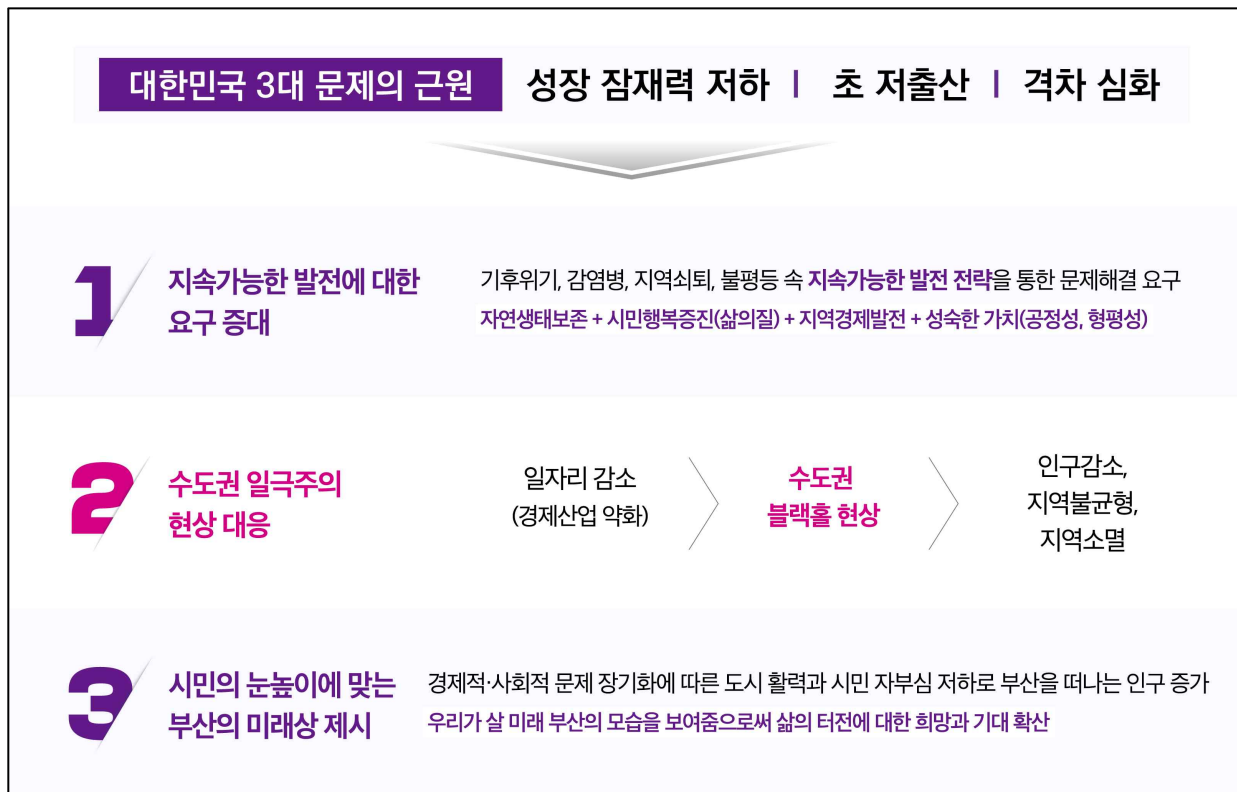
(2) 위기와 전환 그리고 부산의 미래

-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부산
 - 세계 인구와 도시화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영향은 인구감소 및 지역사회의 활력 감소 유발
 - 특히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330만 명인 부산 인구는 2050년 25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은퇴 연령이 늦춰지는 한편,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연결의 욕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 국가 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교육, 환경, 도시공간,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
 - 이 같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우리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 공동체 분열과 같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로 진입
- 기후위기에 따른 도시 변화
 -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한파, 폭염, 태풍 및 호우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건축적 공간 전환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
 - 특히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환경오염, 식량위기 등 새로운 위협요인들은 부산의 기업 생태계를 탄소중립 환경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하는 외부요인으로 작동
 -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 역시 능동적 대응(Proactive)이라는 비전 하에 부산의 기업 생태계를 탄소중립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도시 구축
 - 인공지능 알고리즘,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향후 발현될 변화를 예측하여 최적의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의 시대 도래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로봇 등 딥테크(DeepTech) 분야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에 집중 필요

(3) 2050 BUSAN PLAN의 주요 배경

-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 잠재력 저하, 초 저출산, 격차 심화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 대응,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상을 시급하게 제시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 증대
 - 현재 사회는 기후위기, 감염병, 지역쇠퇴, 불평등 속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공정하고 성숙한 가치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요구 증가
-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 대응
 -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지역소멸 위기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강화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산의 미래상 제시
 - 부산은 경제적·사회적 문제 장기화에 따른 도시 활력 및 시민 자부심 저하로 부산을 떠나는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
 - 이에 삶의 터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확산되는 부산의 미래상 및 비전 제시 필요

<그림 1-2> 2050 BUSAN PLAN의 주요 배경



2) 계획수립의 방향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방향

- 2050 부산 플랜(BUSAN PLAN)에서는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에 대응,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상 제시를 위해 그동안의 비전계획들과 몇 가지 차별점 제시
 - (해양수도 전략에서 탈피한 새로운 실천 전략) 해양수도 전략에서 탈피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래설계 및 새로운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수립
 - (글로벌 선진 도시 목표)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남부권 중심도시, 나아가 글로벌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한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수립
 -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포함한 단계적 도시 성장 전략)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포함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단계적 도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수립
 - (도시 철학이 깃든 시민행복도시 전략) 보편적 담론으로서 도시 철학이 깃든 시민행복도시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수립

〈그림 1-3〉 부산광역시 비전계획의 역사



- 기존 비전계획과의 차별화된 2050 부산 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하여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세계화 전략 추진
- 또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도시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및 미래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발전 전략 수립
-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과 투명하고 성숙한 도시로의 방향 전환을 통해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 해소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

(2) 계획수립의 목적

- 글로벌 선진 도시 수준의 라이프 스타일 도시 전환
 - 지역이 국가의 한 영역에 그치면 지속성장이 어려우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글로벌 자유도시로의 진입을 통해 도시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중요
 -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다변화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도 섬세하게 전환
 - 특히 글로벌 경계가 사라지면서 국가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비전 및 전략 모색
 - 글로벌 선진 도시 수준의 라이프 스타일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은 공인된 글로벌 지표를 통해 도시 인프라 수준 및 삶의 수준을 모니터링 및 관리
- 첨단산업 및 순환경제를 통한 경제 체질 혁신
 - 지방이 직면한 인구감소는 저출산이라는 자연적 감소와 교육이나 일자리 등을 위해 떠나는 사회적 감소분과 더불어 지역소멸 위기를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닥친 기후위기 또한 도시의 생존권과 지속 여부를 위협
 -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도시로의 전환이 안전한 미래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되고 있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전환 전략으로 대두
 -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후테크 산업 등 기술혁신 및 경제 체질 전환을 통해 도시에서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수립 요구

- 도시공동체 회복과 시민행복 실현
 - 성장주도의 사회에서는 양적인 성장이 주요 가치였으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 공정, 회복, 포용, 공유, 지속가능성 등 도시미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
 - 무엇보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미래 가치를 반영한 세대 공감 전략 모색, 미래세대 실천의 도시 발전 과제 마련
 -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안전, 문화 등 시민 참여형 미래 정책을 수립할 체계의 구축이 지역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지역의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상을 즐기며, 희망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부산의 핵심 시정 방향이 행복도시이므로 2050 부산 플랜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지향
 - 그간 공급 중심의 행정서비스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보다 확대하여 시민 체감형 행복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비전 및 희망 제시

02

계획수립 전략

1) 수도권-남부권 양축의 국토대전환 전략¹⁾

- 남부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선도하고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발전 축 전략은 수도권의 일극주의에 대응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전략
- 균형잡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부산에서 시작하여 동남권, 그리고 남부권으로의 공간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초광역권을 아우르는 지역성장 전략의 추진 시급

2)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

-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남부권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 수립과 글로벌 도시 위상에 걸맞은 경쟁력 확보 전략이 중요
 - (자연환경) 자원순환 도시생태계 조성
 - (삶의질) 근거리 생활권 구축
 - (경제발전) 지역특화 첨단산업 기반 마련
 - (공동체회복) 전 영역 성숙한 가치 반영

3) 남부권 발전을 위한 단계적 혁신 전략

- 부산은 남부권의 중심도시이자 발전 축이 되기 위해 단계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
- 근래에는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혁신을 목표로하며, 2050년까지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성장도시로의 글로벌 행복도시 부산을 단계적 혁신을 통해 추진

1) Double-Axis National Transformation Development Strategy

〈그림 1-4〉 2050 BUSAN PLAN의 전략



03

계획수립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50 부산 플랜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2050년까지 시간적 범위 설정
 - 기존 비전계획은 5~10년 정도의 시간적 범위를 두었다면 본 계획은 보다 장기적인 부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범위 설정
- 2050년은 6.25 전쟁 100년을 맞이하는 해로 부산의 발전 계획수립에 있어 특별한 의미
 - 부산은 근현대 역사 속, 특히 전쟁의 역사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도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발생지이지만 지금은 앵커기업의 부재로 지역의 성장동력 육성이 어려운 상황
 - 도시 공간은 전쟁 시기에 생성된 가로(街路)와 주거단지들로 인해 도시재생과 재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난시기에 만들어진 원도심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2050년을 기준으로 미래 좌표 설정, 2050 부산 플랜 추진

2)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우선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2050 부산 플랜에서 제시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더 넓게는 남부권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지향
 - 기존 비전계획은 대부분 부산광역시에 한정하고 일부 부울경 광역권 수준에서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고려
 - 물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타 지역 간 연계-협력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동남권을 넘어 남부권까지 확대하여 해석
 - 가덕도신공항의 경우도 단순히 부산에 건설되는 공항이 아닌 남부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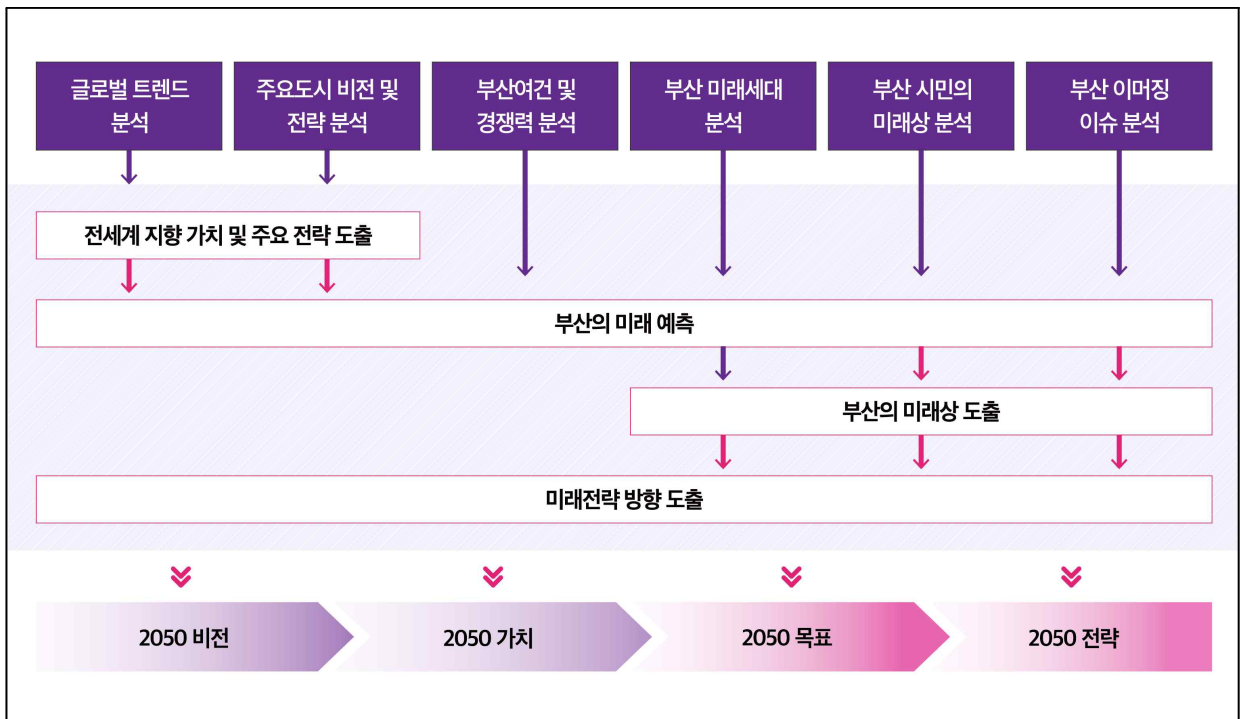
04

계획수립 체계

1) 계획수립 도출 과정

- 2050 부산 플랜 수립을 위하여 글로벌 트렌드 분석, 세계 도시 비전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의 지향점을 도출함
 - 부산이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비전 및 전략 도출
-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요 맞춤형 전략 발굴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서 도출된 이슈들이 도시의 가치와 비전 등에 반영
 - 미래비전 전략 도출을 위해 시민, 전문가, 정책결정권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논의 및 협의의 장으로 운용
- 이번 계획수립에서 가장 차별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머징 이슈 분석
 - 아직 닥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대하여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해 활용
 - 단순히 사업들의 열거가 아닌 부산이 가야 할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여 비전계획의 방향 제시
- 미래 전략은 Big 프로젝트와 10대 MEGA 프로젝트로 구성함
 - 부산시가 추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와 향후 수십 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부산의 중장기적인 발전상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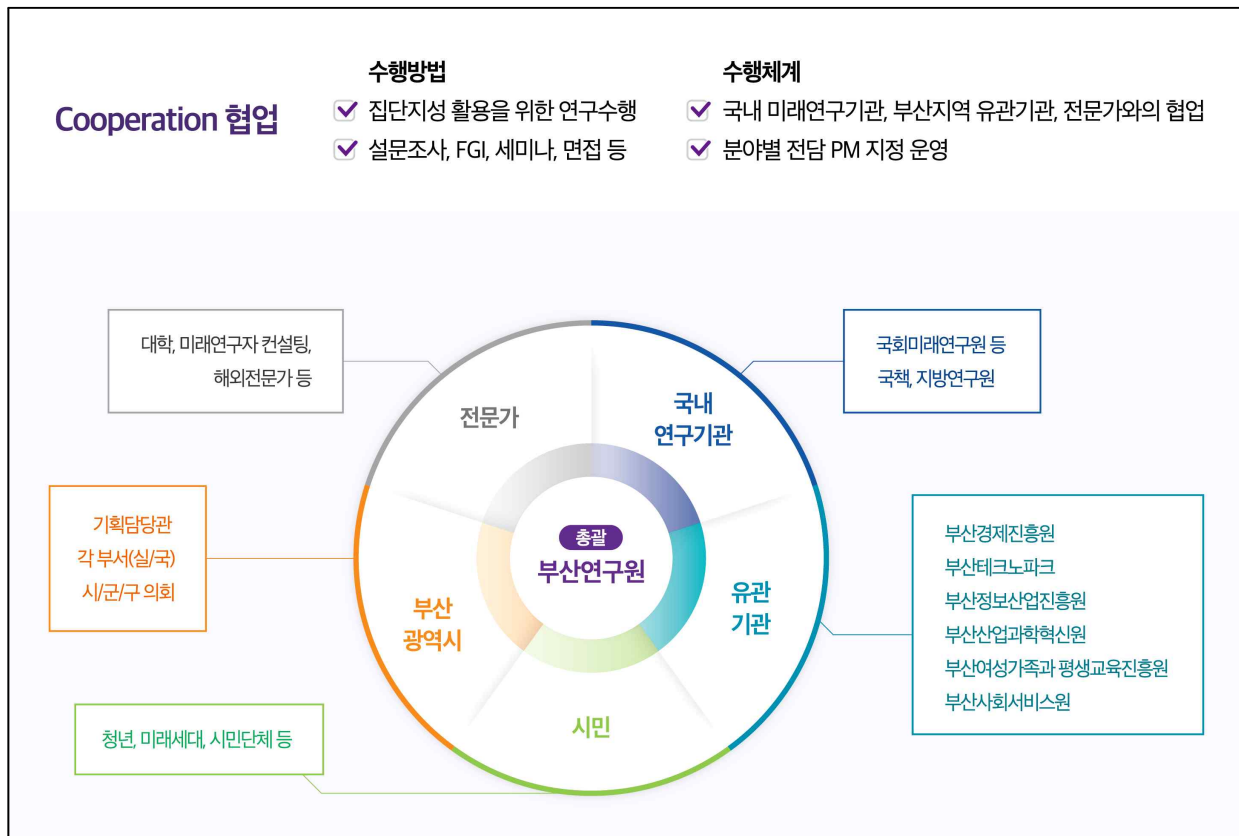
〈그림 1-5〉 2050 BUSAN PLAN의 도출 과정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

- 2050 부산 플랜은 부산연구원이 총괄 기관으로 참여하며, 분야별 전담 PM이 참여하도록 체계 구축
- 부산시는 기획담당관이 전담부서이며, 각 부서 및 의회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부산지역 내 유관기관으로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참고 및 협업하였으며, 미래상 도출을 위한 부산 이머징 이슈 분석과 시민과 미래대화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 참여
- 이외에 지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비전계획의 방향과 추진 프로젝트 발굴
- 무엇보다 비전계획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 조사 및 정책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원하는 비전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림 1-6〉 2050 BUSAN PLAN의 추진체계



II. 미래사회 이슈와 도시들의 전략은 어떠한가?

1. 글로벌 트렌드 분석
2. 글로벌 도시 비전 및 전략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01

글로벌 트렌드 분석

-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탈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경제 강대국들의 자국우선주의 및 국가 안보 등이 강화되며,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등에 많은 변화 예상
 - 글로벌 도시들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인구감소 및 과밀화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대응력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변화,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 개발 등을 확산 및 구축
- 2050 부산 플랜에서는 경제(Economy), 사회(Society), 공간(Space), 교통(Traffic),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정치(Politics) 영역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여 미래 부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

〈그림 11-1〉 주요 글로벌 트렌드



1) 경제(Economy) 영역

(1) 세계 경제질서 변화

- 2021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에 이르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 유럽 등 기존 선진국에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로 이동 예상
- 지난 40년 동안 아시아 국가는 극빈층의 감소, 인구 성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40년까지 지속되어 인구가 많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유럽, 미국 등 기존 선진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점유율은 2020년 44.5%에서 2040년 37.2%로 7.3%p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세계 GDP 점유율은 2020년 25.2%에서 2040년 35.1%로 9.9%p 증가하며 중국이 세계 GDP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2) 탈세계화

- 2022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한 세계 기업인들은 세계화가 후퇴하고 탈세계화로의 이행 및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 부분 동의¹⁾
- 탈세계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브렉시트, 미국 우선주의(트럼프주의)를 거치며 확산되었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경제 제재,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훼손시키며 탈세계화 가속화²⁾
- 향후 무역 제한 및 보호 무역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 관련 이유로 1)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 보호, 2) 주요 산업의 핵심 원료, 의약품 등에 대한 보호, 3) 미국, 중국 등 경제 대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국가 안보 보호, 4) AI와 같은 핵심 디지털 기술 보호 등³⁾

1) WEF(2022)
2) 이지현(2022)
3) NIC(2021)

(3) 디지털 경제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2045년의 미래사회를 전망하며, 미래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경제”를 제시하고 6가지 세부 이슈 도출⁴⁾
 -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비대면 사회가 확산됨에 따라 1)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 2) 플랫폼 자본주의 확산, 3) 디지털 재화 시장의 성장, 4) Cashless 사회 도래, 5)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6) 디지털 제조기술 확산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4)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변화

-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대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대응에 따라 점차 산업별, 규모별로 다양한 기업의 탈탄소화 동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⁵⁾
-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 방향 및 10대 과제 제시⁶⁾

〈그림 11-2〉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

기술 · 전자	구글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넷제로 달성 선언 • 2017년부터 연간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2030년까지 전세계 데이터센터와 구글캠퍼스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와 사업부문을 무탄소 에너지로 운영할 계획
	애플 (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넷제로 달성 선언 • 10개년 기후변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탄소 제품 디자인,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공정 및 소재 혁신, 탄소 제거 추진 예정
	소니 (S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제조 과정 내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 애플, 페이스북 등 고객사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조설비를 해외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
소비재	유니레버 (Unile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9년 까지 넷제로 달성 및 별목 없는 공급망 구축 목표
	네슬레 (Nes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넷제로 달성 선언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공급망 개선으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
	구찌 (Guc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말, 공급망과 운영 측면에서 100% 탄소중립을 달성했다고 발표함 • EP&L (환경손익분석, Environmental Profit and Loss Account)을 활용한 측정 및 모니터링

자료 : Deloitte(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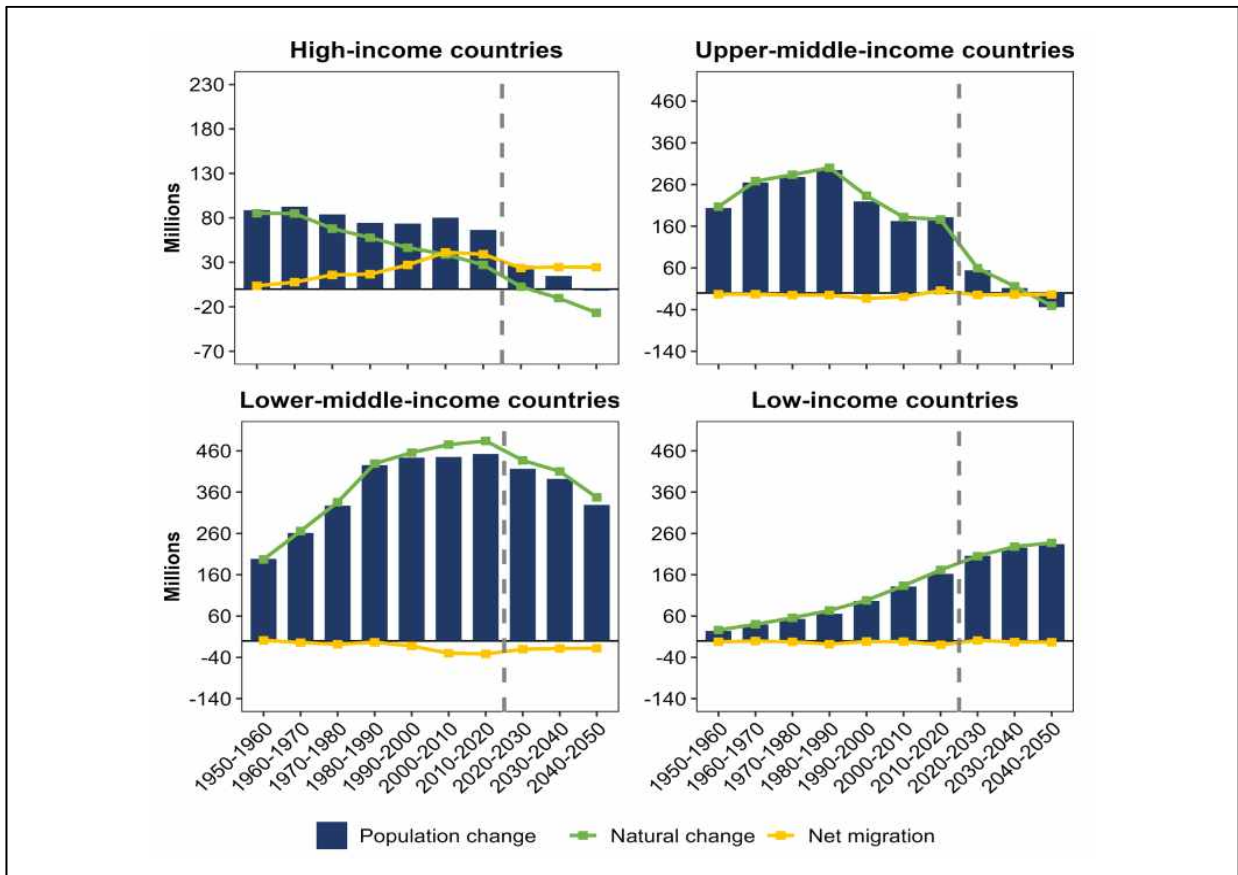
4) 정의진 외(2021)
5) Deloitte(2021)
6) 관계부처합동(2020.12.07)

2) 사회(Society) 영역

(1) 인구구조 변화)

-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출생 시 기대수명이 2019년 72.8세에서 2021년 71.0세로 감소하였으며, 국제 이주를 포함한 인구의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
-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2022년 80억 명에 도달하였으며, 2030년에는 85억 명, 2050년에는 97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선진국의 경우 2050년까지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이주민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 등 후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II-3〉 소득 그룹별 인구 및 출생, 이민 거주인구 추이 (1950-2050년)



주 :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점차 초과,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주가 고소득 국가 인구 증가의 유일한 동인이 될 전망, 가까운 미래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의 인구증가는 사망보다 출생의 지속 증가
 자료 : UN(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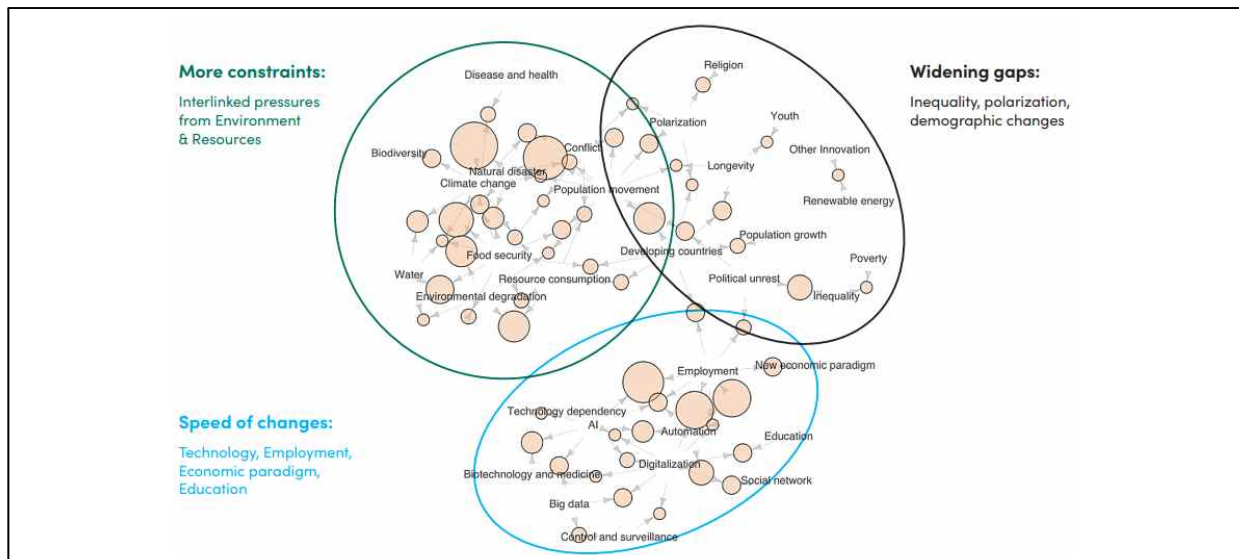
(2) 사회구조 변화

-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된 정치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기술, 교육, 환경, 도시화, 이주,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할 예정

(3) 라이프 스타일 변화⁸⁾

- 자원 부족으로 인한 제약, 식품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우려로 식습관의 변화
- 기후변화의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이 강조되며 기후위기는 새로운 탈성장 체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
-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노동이 대체되고 개인의 여가 및 웰빙에 초점을 맞추게 되나, 동시에 고용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사회의 불안정성 증식
-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은퇴 연령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 증대

〈그림 11-4〉 미래사회의 변화



자료 : Caixia Mao et al.(2019)

8) Caixia Mao et al.(2019)

3) 공간(Space) 영역

(1) 미래도시 패러다임의 현실화⁹⁾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공간 인프라의 녹색 전환(Green City)
 - 탄소중립과 화석연료 소비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식량안전성 및 생산기술 지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그린시티 패러다임에 따라 녹지 및 수변공간 확대, 그린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효율 녹색건축, 수직 정원 및 옥상녹화 등을 도시·건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확대될 전망
- 재난·재해 대응의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ce City)
 - 대설한파(북극진동영향), 폭염(역대최고 평균기온), 태풍호우(가을태풍, 최대강수일수 경신) 등 이상 기상현상의 잦은 발생과 사스(SARS), 메르스(MERS), COVID-19 팬데믹(pandemic) 등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도시건축적 공간 전환 모색, 보행생활권 중심 자족도시, 수변녹지공간의 일상생활권 도입 등
- 스마트도시(Smart City)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
 - 디지털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며, 도시 기능을 최적화하는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에너지, 사물인터넷 장치, 스마트시티 교통, 스마트시티 인프라,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등의 기술로 구성
 -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 확산, 스마트교통,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동형태 변화 등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 모색, 물류 및 대중교통의 지하공간 활용, 지상공간의 보행전용화, 비행교통을 위한 수직 정거체계 등

9) 강명수(2022), 김묵한(2018), 이은석 & 지석환(2020)

(2) 도시공간 변화¹⁰⁾

- 2050년 도시화율이 68%를 넘어서는 전망치를 보임에 따라 서비스 집적지인 대도시 중심으로 밀도가 증가하고, 중소도시 쇠퇴 및 대도시와의 네트워크화 예상
- 대도시 고밀화에 따른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일용도에서 혼합용도로, 수평·수직 복합토지이용 활성화 중요
 -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사용자의 이용 행태에 따라 단일공간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전통적 용도지역제가 무의미해지고 있어 주거,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이용은 더욱 혼합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
- 공유경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택, 사무실, 주차장, 유희공간 등 도시내 공유공간 증가 및 공유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의료, 돌봄, 취미 등 다양한 목적의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공유공간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1인 가구 중심의 생활공간 공유 시스템 증가
- 삶의 질이 중요해짐에 따라 그린시티, 건강도시와 팬데믹 등에 대응하는 공원수요 등을 기반으로 녹지·수변 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 및 경제생활,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기능 고도화에 따라 하이퍼루프, 초고속 철도 등의 교통체계를 중심으로 개발 진행
- 건축기술 고도화에 따른 다기능 복합공간의 수요 증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도시, 지하물류시설 개발 등 지하공간 활용의 확대 전망

(3) 미래도시 실험 확산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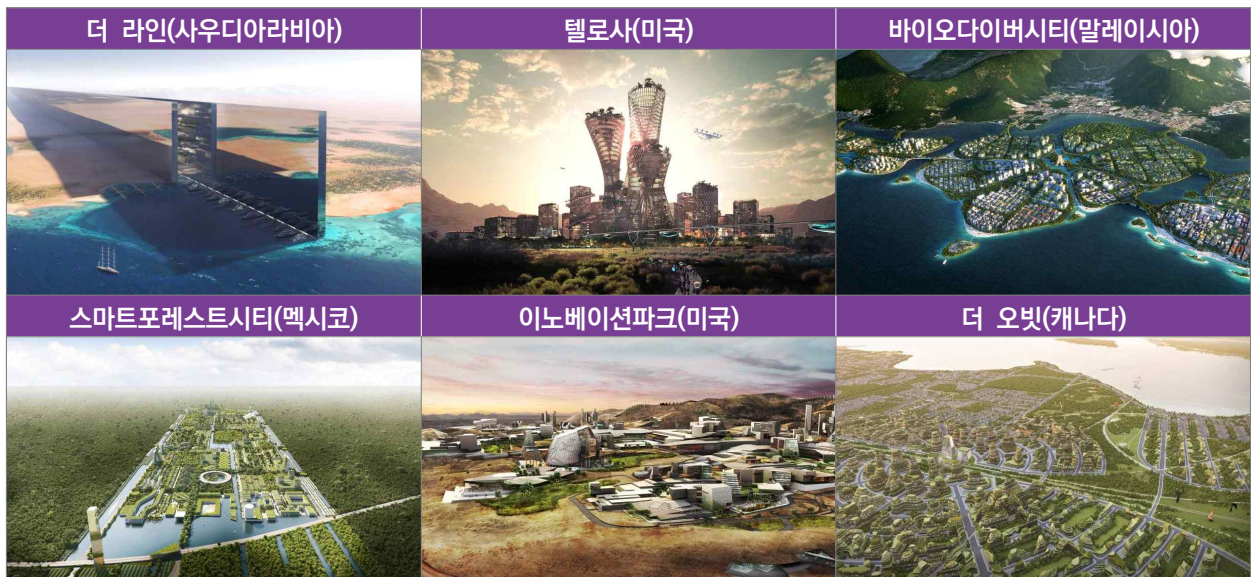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미래도시 패러다임과 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건설 실험 계획
 - 더 라인(사우디아라비아) : 스마트 선형도시로 자동차, 거리, 탄소배출이 없도록 설계. 보행자용 지상층, 기반시설용 지하층, 교통용 지하층 등 3개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길이 170km, 높이 500m, 인구 900만 명 거주 목표의 규모. 에어택시와 고속철도가 집과 학교 직장을 5분 안에 잇고, 인공지능을 통한 도시 거주민의 건강을 관리. 그린수소 등 녹색전력이 1년 내내 도시 기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도시 목표

10) 김선희(2010), 김인희 외(2021), 윤정중 외(2019), 조성수 외(2019)

11) Nat Barker(2022.08.01)

- 텔로사(미국) : 녹지로 뒤덮인 주거용 건물과 풍부한 오픈스페이스로 구성된 사막의 500만 인구 규모 도시. 도시 내 화석연료 자동차 금지,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쿠터, 랜드마크 에퀴티즘 타워(Equisitism Tower)에 저수지, 수경재배 농장, 태양광 발전 지붕 등을 갖춘 도시 계획
- 바이오다이버시티(말레이시아) : 15,000~18,000명 거주인구 규모의 인공섬 3개로 구성된 1821ha 개발계획으로 진행 중으로 섬을 연결하는 자율교통망을 통해 차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나무와 목재, 그린콘크리트로 건물을 시공하고 구역별로 생태적 완충지를 두어 생물다양성 지원 계획
- 스마트포레스트 시티(멕시코) : 칸쿤 인근의 557ha 지역, 750만 그루 나무와 식물을 심어 공기중 탄소를 줄이고 식물로 우거진 주택을 저렴히 공급하는 현대 도시 속 식물원 목표
- 이노베이션 파크(미국) : 네바다 사막 27,113ha 규모에 블록체인 기술로 돌아가는 스마트도시로 정부나 제 3자 개입 없이 금융활동과 투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로 진행 중
- 더 오빗(캐나다) : 캐나다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섬유광학, 드론,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 개발계획 수립

〈그림 II-5〉 미래도시 사례



자료 : Nat Barker(2022.08.01.)

4) 교통(Traffic) 영역

(1) 교통기술의 고도화

- 현재 교통기술의 특성은 지능화, 클린화, 디지털화, 고속화로 정의되며,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점점 고도화될 전망
- 장래 국토교통기술의 메가트렌드 구성은 ‘이동혁명’으로 ‘모빌리티 진화’, ‘첨단 신교통수단 보급’,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일상화’,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
- 완전 자율협력 주행¹²⁾은 차량 기술, 도로교통 관리, ICT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의 융합으로 자율주행 생태계를 마련하고 Level 5 수준의 자율주행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
- 초고속 신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¹³⁾의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사회, 국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
 - 초고속 교통수단은 심리적인 거리를 대폭 감소시켜 수도권 집중 및 지방권역 축소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감소,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래 교통체계는 지상, 지하,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 교통체계 기술의 고도화로 UAM¹⁴⁾시장 및 생태계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전기로 추진하는 UAM항공기(eVTOL)는 탄소제로 이동수단이며 미래에는 조종사가 없는 인공지능 자율비행으로 이동서비스 제공

12) 여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와의 통신으로 각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13) 2012년, 엘론머스크(Elon Musk)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하이퍼루프(Hyperloop)는 아진공 튜브에서 캡슐이 초고속(1,200km/h)으로 이동하는 신교통수단

14)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시교통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로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된 이동수단

(2) 미래 모빌리티¹⁵⁾ 환경

- 미래 모빌리티는 ICT 기술과의 고도화된 융합으로 자율주행, 연결성, 공유 모빌리티 중심으로 진화
 - 자동차 관련 여러 하드웨어 업체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동수단' 개념에서 이동서비스 부가가치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확신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율주행기술은 이동 중 문화콘텐츠 이용, 업무·커머스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대
-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은 자동차 범주를 넘어 미래 교통수단의 전반적 확장
 - 기존 교통수단(버스, 철도, 항공 등)과 더불어 미래 교통수단(극초음속 여객기, 하이퍼루프 등)은 디지털화된 인터페이스로 통합관리

〈그림 II-6〉 한국형 버티포트(VertiPort) 컨셉디자인



주 : 현대건설에서 국내 도심입지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컨셉디자인 최초 공개
 자료 : 조선일보(2022.11.10)

15) 현대사회에서 모빌리티(Mobility)는 사람들의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동서비스'로 모든 이동수단의 서비스를 의미

5) 혁신기술(Innovative Technology) 영역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 분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딥테크(DeepTech)¹⁶⁾ 분야가 혁신기술로 대두
 - 미국에서는 2010년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자율주행·반도체·로켓·AI(인공지능) 등 다양한 딥테크 분야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기업들의 증가 추세
- 혁신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미·중·일·EU 등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익에 필수적인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국가적 역량 결집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 완성

〈그림 11-7〉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10대 사업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02.01)

16) 고급 기술과 과학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 분야를 가리키는 용어

〈표 II-1〉 주요 국가별 혁신기술 전략

국가	주요 내용	주력 혁신기술
한국	정부와 민간 최고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위’와 ‘기술별 실무조정위’를 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구성하여 범정부 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전략기술 지정·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역량 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시행 2023. 9. 22.)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 첨단 모빌리티(자율주행시스템, 전기·수소차 등)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등) 우주항공·해양(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등) 사이버보안(데이터·AI 보안 등) 수소(수전해 수소생산, 수소 저장·운송 등) 차세대 통신(5G 고도화, 6G 등) 인공지능(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등) 첨단로봇·제조(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등)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미국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반도체 및 10개 핵심기술에 집중 지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2022.8) NSF 내에 기술혁신·연구보안 조직 신설, 백안관 주도로 과학기술전략(4년 주기) 수립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배터리), 생명공학 이니셔티브 등 제조·원부자재 자립화 추진	AI, 머신러닝, 자율화(Autonomy)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첨단컴퓨터 HW·SW 양자정보과학기술 로봇공학, 자동화, 첨단제조 자연/인공 재해 예방·완화 첨단통신, 실감기술 생명공학, 의료기술, 유전체학, 합성생물학 데이터 저장·관리, 사이버보안 첨단에너지(배터리, 첨단 원자력 발전 등) 첨단소재과학(복합재, 2D 소재 등)
중국	핵심 원천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 집중 육성 내수 공급망 확보 및 개도국 대상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	인공지능 양자 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 탐사
EU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가속화 6대 신산업 육성, 미국과 기술·무역 위원회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	원재료 배터리 의약품 원료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엣지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경제안보법」 제정(2022.5) 및 경제 안보상 신설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 설치로 20개 특정 중요기술 선정 및 연구 지원	수송·이동(극초음속, 수송) 컴퓨터(AI·머신러닝, 첨단컴퓨팅, 반도체, 양자) 인체(의료·공중위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Domain(우주, 해양) 에너지(첨단에너지, 화학·생물·방사성 물질 및 핵) 네트워크(첨단감시·측정·센서, 데이터 과학 등) 공학·소재(바이오, 로봇공학, 첨단재료 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11)

- 과학기술예측조사¹⁷⁾에 따르면 15대 미래혁신기술의 최고기술은 모두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확산점¹⁸⁾은 2025년에서 2031년에 걸쳐 도달할 예정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자율주행, 백신 등 미래혁신기술의 확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확대

〈표 11-2〉 첨단기술 확산 시기

분석대상기술	기술확산점 정의	도달예상시기		
		최고기술 보유국	세계	국내
완전 자율 비행체	완전 자율 비행체가 기존의 비행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가 되는 시점	미국	2031년	2036년
완전 자율 주행차	Level4+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가 되는 시점	미국	2030년	2033년
맞춤형 백신	병원체의 확산으로부터 임상시험 진입까지 백신개발이 통상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시점	미국	2025년	2029년
수소에너지	수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고효율의 저장 및 운송 기술로 전환,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240만톤 이상의 수소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	미국	2030년	2032년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디바이스에서 개인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비율이 16%가 되는 시점	미국	2029년	2031년
생체칩	금융서비스의 개인인증방법에 생체인증기술이 적용되는 비중이 16%가 되는 시점	미국	2030년	2033년
복합재난 대응시스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복합재난 신속대응시스템이 처음 등장하여 구축되는 시점	미국	2029년	2032년
양자암호통신기술	네트워크 기반의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이동통신사들이 양자암호통신망의 통합연동과 양자중계기 없이 보안 데이터를 100km 이상 전송하는 시점	미국	2030년	2034년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반도체 전체시장에서의 비중이 5%가 되는 시점	미국	2028년	2030년
자율작업로봇	제조업(생산 자동화, 물류 등)에서 자율 이동 및 작업 로봇의 보급률이 10% 이상이 되는 시점	미국	2028년	2030년
소형 원자력 배터리	소형원자력배터리(또는 초소형원자로)가 인허가를 받고 에너지(전력 또는 열) 공급을 실증하는 시점	미국	2030년	2035년
재난재해예측	개별 재난요소 예측 정확도의 평균이 70% 이상 도달하는 시점	미국	2029년	2033년
탄소중립연료	탄소중립연료가 신재생연료로 인증되고,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10% 이상 되는 시점	미국	2030년	2034년
탄소순환관측기술	지상, 항공, 드론, 위성관측 등에 의한 탄소관측이 가능하여 통합 관측망이 실현되는 시점	미국	2029년	2033년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노화 관련 질환 치료제로 공공보험 적용을 받는 시점	미국	2030년	2034년

자료 : 박창현 외(2022)

17) 박창현 외(2022)

18) 기술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용자수 확보 및 제품 최초 사용 시점, 관련 제도 성립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결정

6) 환경(Environment) 영역¹⁹⁾

(1)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 전망

- 현재 정책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온실가스는 2030년 57tCO₂eq./년이며, 2050년 약 60tCO₂eq./년의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30 NDC 이행은 2030년 54GtCO₂eq./년 배출전망이 되며 향후 2°C이하 달성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만 20tCO₂eq./년 이하 배출이 가능하더라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는 불가능
- 2020년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비중이 총 80.1%를 차지하지만 2050년에는 약 25%로 감축되는 반면 수력과 신재생에너지는 2020년 14.9%에서 약 65%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글로벌 넷제로 달성
- 에너지 및 자원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로 16개 시나리오의 2050년 1차 에너지 소비는 평균 16,000백만TOE 전망

(2) 기후변화 및 자원위기

- 지구 지표온도는 적어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2050년 즈음까지 증가하며 1.5°C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일하게 SSP1-1.9 시나리오만 2100년 1.5°C 이하 상승 예측
 - 지구 해수면 상승은 2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최선의 시나리오(SSP1-1.9)에서는 1960년 0.08m 해수면 고도에서 0.54m로 6배 증가하며 최악 시나리오(SSP5-8.5)에서는 0.93m로 약 11배 증가할 전망
- 21세기 후반부에서는 글로벌 육상영역과 인구의 약 20%는 급격히 증가하는 가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예외적으로 극단적 수준이 21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높은 확률로 최대 10%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
- 기후변화는 농축산업과 어업 및 양식업에 큰 영향을 미쳐 곡물, 가축, 해산물 등 식량생산 손실 증가는 인류의 식량안보 위협과 수백만 명의 영양실조로 연결
-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식량생산 손실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적인 원인불명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

19) IPCC(2021), IPCC(2022), Resource for the Future

7) 정치(Politics) 영역

(1) 2050년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

- 탈냉전시대의 종언과 함께 신냉전 시대 등장, 미-중 전략경쟁 등 패권 경쟁 심화
 -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획득을 향한 갈등과 협력이 지속될 것이고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락과 새로운 '냉전적' 국제질서가 재수립
 - 지정학의 부상에 따라 전략지역(남중국해, 북극항로, 북방4개성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고조
- 경제와 안보의 결합, 배타적 국제경제 질서가 재정립
 - 진영과 이념을 떠나 자유롭게 교환되고 교류하던 경제, 기술, 투자, 인재들이 미중전략 경쟁의 승리를 위해 안보적 고려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기업 경영과 기술개발 협력에서 안보가 주요한 고려 요인
 - 경제가 안보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어 다문화주의가 위협받고 민족주의를 국내정치적으로도 활용할 것
-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환경오염, 식량위기 등 새로운 국제적 안보위협 요인 증가
 -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재난이 국제적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 증가
 - 중국의 황사, 후쿠시마 원전사고, 온실가스 배출 등 요인들이 과거와 달리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가
 -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생산 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저개발 국가들은 식량공급의 위기, 나머지 국가들은 식량 가격 상승이 나타날 전망

02

글로벌 도시 비전 및 전략 분석²⁰⁾

1) 글로벌 리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

- 글로벌 리더 도시들은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 인재, 경제력 등을 활용해 미래 선도
- 대표적인 도시로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 뉴욕은 '강하고 공정한 도시 구축(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비전 제시
 - 런던은 '공정, 안전, 친환경적이며 더 번영하는 도시(A fairer, safer, greener, and more prosperous city)' 비전 제시
 - 파리는 비전으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파리(Smart and Sustainable Paris)' 제시
 - 도쿄는 '사람이 빛나는 도시', '안전한 도시', '세계 선도 도시', '아름다운 도시', '즐거운 도시', '협력 도시' 비전 제시

<그림 II-8> 글로벌 리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



20) 본 연구에서는 부산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도시별 적합한 비전 및 전략을 기술함

(1) 뉴욕(New York)²¹⁾

- (도시 여건) 오늘날 뉴욕시는 성장과 번영의 상징이며, 기회와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전 세계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나 이러한 번영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 증가
 - 뉴욕시는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인구 증가를 이뤄낸 대표적인 세계 도시로 꼽히나 인종, 성별, 계급 등의 불평등, 기반시설 부족, 기후변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
 - 뉴욕시는 국가 및 세계적 수준 도시 유지를 위해 2050년 장기발전계획 수립
- (비전) '강하고 공정한 도시 구축(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 (전략) 'OneNYC 2050'을 위한 전략으로 8개의 목표와 30개의 이니셔티브로 구성
 - 역동적인 민주주의(A Vibrant Democracy)
 - 포용적 경제(An Inclusive Economy)
 - 번영하는 동네(Thriving Neighborhoods)
 - 건강한 삶(Healthy Lives)
 - 평등하고 우수한 교육(Equ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 살기 좋은 기후(Livable Climate)
 - 효율적인 이동(Efficient Mobility)
 - 현대적인 인프라(Modern Infrastructure)

〈그림 11-9〉 OneNYC 2050의 목표



21) 「NYC(2019). OneNYC 2050」를 기반으로 작성

(2) 런던(London)²²⁾

- (도시 여건) 런던은 세계적인 도시로서 영국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런던 및 나아가 영국의 미래를 위해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며 정책 추진
 - 런던은 과거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제의 허브 도시로서 위상 유지
 - 이러한 경제 성장 이면에는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 간의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오염원 배출 등의 사회적 문제 직면
- (비전) ‘공정, 안전, 친환경적이며 더 번영하는 도시(A fairer, safer, greener, and more prosperous city)’
- (전략) 비전 달성을 위해 10가지의 우선순위 선정
 - 1) 모든 런던 시민들은 일상 필수품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하며, 2) 상태가 좋고 공간이 충분하여 안전한 주택을 가져야 함 3)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4) 공공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5)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함 6) 탈탄소화 경제를 채택하고, 7)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연결 도시가 되어야 하며, 8) 어디서나 안전하고, 9) 방문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환영 도시로서 10)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시장 보유

〈그림 II-10〉 Greater London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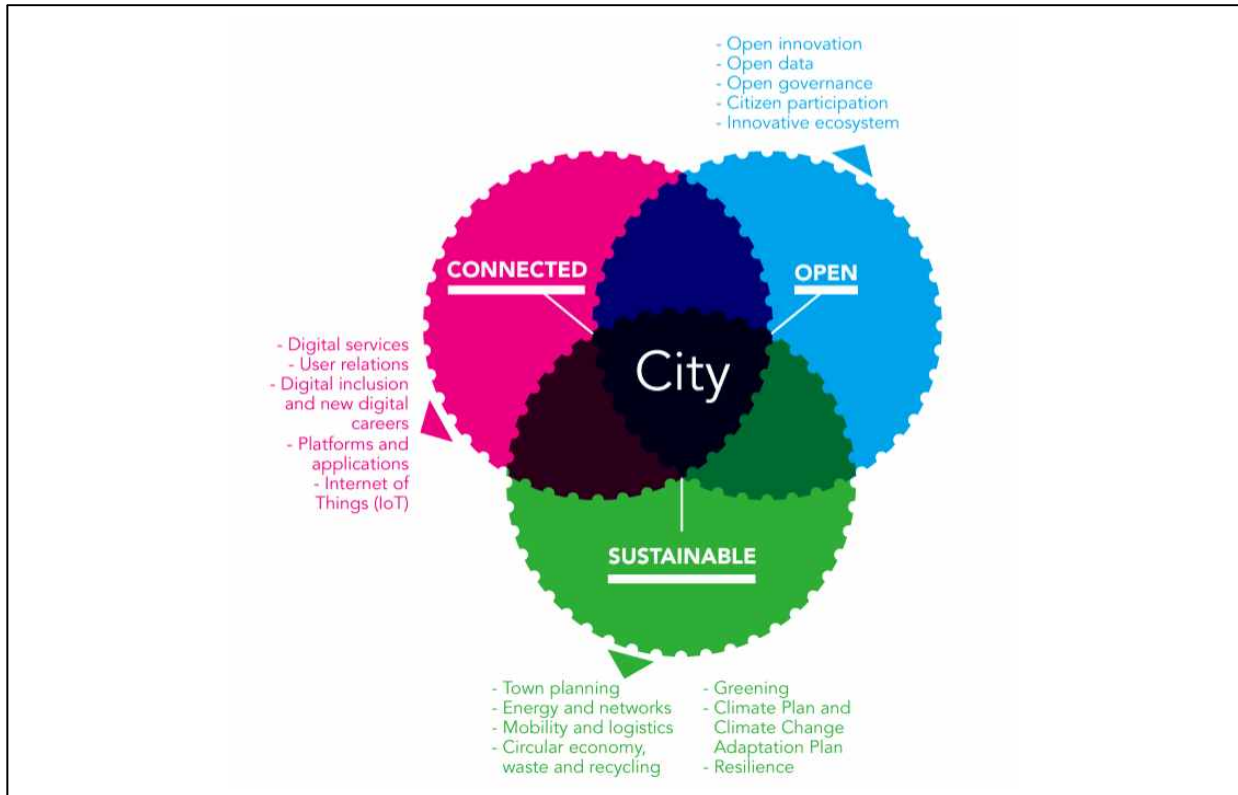


22) 「Centre for London(2021). Greater London: A new vision for a better city」를 기반으로 작성

(3) 파리(Paris)²³⁾

- (도시 여건)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도시 중 하나이며, 유럽 최대의 경제 중심지 및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인정받으며, 외국인 비율이 높은 도시
 - 파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의 문제해결 의지를 통해 타 세계 도시의 선진 모델로서 입지 강화
- (비전)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파리(Smart and Sustainable Paris)
 - 파리는 안 이달고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도시 비전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파리(Smart and Sustainable Paris)’ 발전 전략 발표
- (전략) 3대 전략으로 열린도시, 연결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설정
 -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열린 도시(The Open City)’, ‘연결 도시(The Connected City)’, ‘지속가능한 도시(The Sustainable City)’로 세부 도시 전략 설정

〈그림 II-11〉 Paris Smart and Sustainable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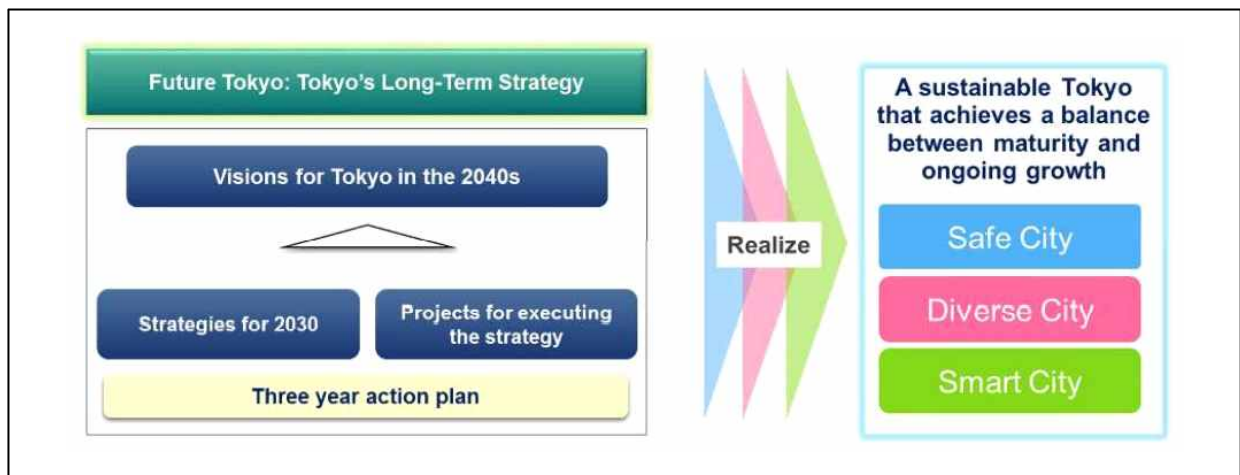


23) 「Mairie de Paris(2020). Paris Smart and Sustainable」을 기반으로 작성

(4) 도쿄(Tokyo)²⁴⁾

- (도시 여건)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며, 일본 인구의 약 11%가 거주, 일본 GDP의 19.5%를 차지하는 JPY 107 trillion 수준의 GMP를 달성한 대도시
 - 도쿄는 인구 대도시에 속하지만 2060년까지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약 22.7%를 차지하여 2035년에는 2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젊은층과 노동인구의 비중은 2015년 대비 2060년까지 각각 30%와 2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과거 거품경제, 아시아 외환위기, 2008 세계경제위기 등의 여파와 고령화, IT 중심의 세계 트렌드에 늦은 대응 등으로 경제 저성장
- (비전 및 전략) 2040년 비전으로 6대(세부 20개) 비전, 20+1전략, 122개 프로젝트 제시
 - 사람이 빛나는 도시(A City where People Shine)
 - 안전한 도시(A Safe and Secure City)
 - 세계 선도 도시(A Leading City in the World)
 - 아름다운 도시(A Beautiful City)
 - 즐거운 도시(A Fun City)
 - 협력 도시(A City of Nationwide Cooperation)

〈그림 II-12〉 Tokyo Sustainability Action의 전략



24)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2021). Tokyo Sustainability Action」을 기반으로 작성

2) 두 바퀴 축을 담당하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

- 글로벌 국가들은 행정·정치·경제·금융·문화 등의 중심인 수도뿐 아니라 제2도시와 함께 두 바퀴 축을 이루며 성장
- 여러 국가의 제2도시들은 항만, 공항 등을 활용한 관문도시로서 수출입, 제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
- 특히, 제2도시는 입지적 여건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육성되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규모 항만을 보유한 관문도시와 금융, 관광산업 등에 특화된 도시 유형으로 구분
 - (유형1) 대규모 항만을 보유한 관문도시로서 물류 운송의 강점으로 인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도시로 다국적 기업 및 기구가 입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이 대표적
 - (유형2) 경제, 산업적으로 국가의 수도와 동등한 인지도를 가진 도시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금융, 콘텐츠, 관광산업 등에 특화된 글로벌 매력도시로 맨체스터, 오사카 등이 대표적

〈그림 11-13〉 두 바퀴 축을 담당하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



(1) 로테르담(Rotterdam)²⁵⁾

- (도시 여건)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이며, 현대적인 건축물과 문화적 다양성이 어우러진 무역과 예술, 관광의 도시
 - 네덜란드는 무역 중심의 경제로 로테르담항이 허브 및 스포크 역할 담당
 - 로테르담의 성장 핵심이 잘 담겨있는 로테르담항 비전(Port Vision Rotterdam)에서는 항구와 산업 클러스터를 미래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 제시
- (비전) 글로벌 허브 및 유럽의 산업 클러스터(Global Hub and Europe’s Industrial Cluster)
- (전략) 로테르담은 7가지 주요 아이টে을 선정하여 13개 세부과제 제시
 - ‘유럽에서 중요한 로테르담 요소’, ‘디지털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허브’, ‘경쟁력 있고 전환 중인 유럽 산업 클러스터’, ‘항구, 도시, 지역의 연결’, ‘개발을 위한 공간’, ‘인적자본’, ‘혁신 생태계’를 중심으로 세부과제 제시

〈그림 II-14〉 Port Vision Rotterdam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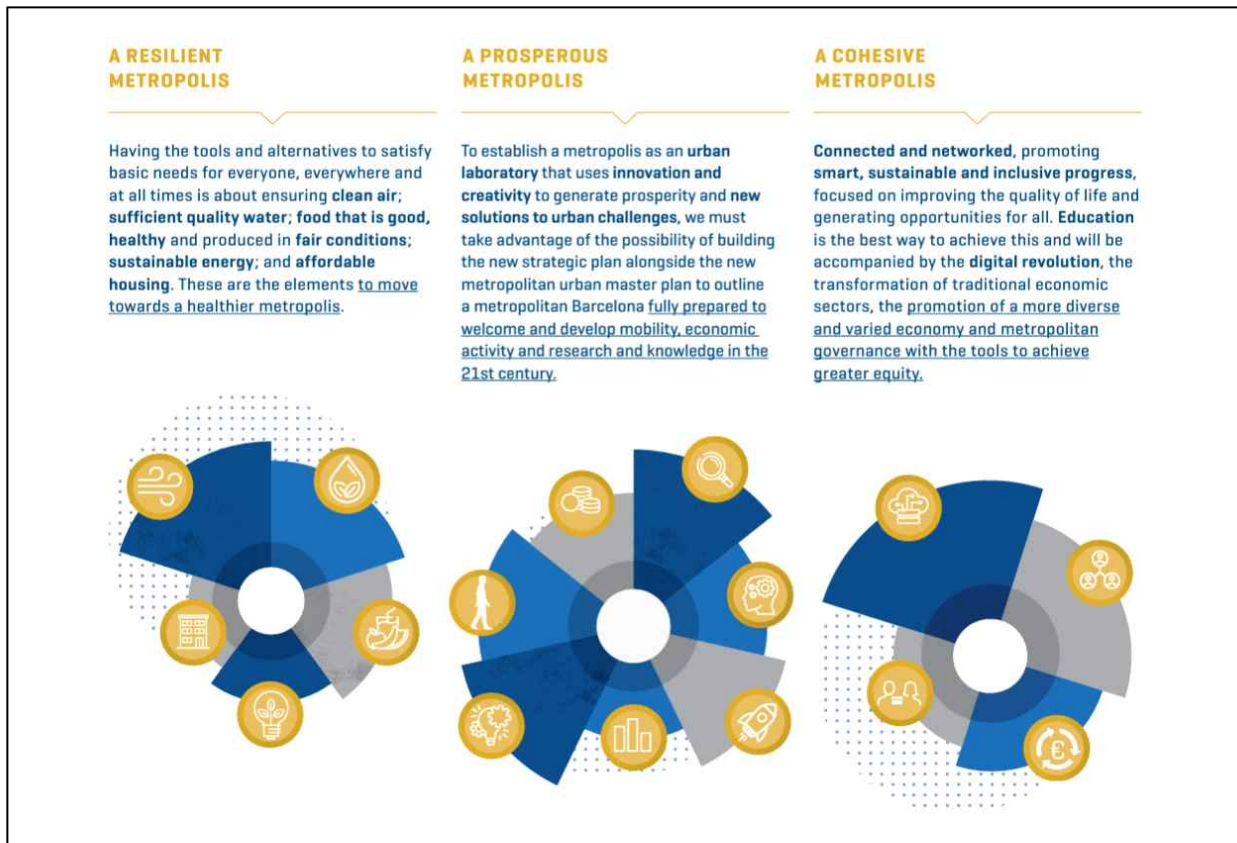


25) 「Rotterdam Port Authority et al.(2019). Port Vision Rotterdam」을 기반으로 작성

(2) 바르셀로나(Barcelona)²⁶⁾

- (도시 여건)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로 지중해와 인접하며 관광업, 교육, 의료, 상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도시
 -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된 도시로서 관광업이 발달하고 바이오, 나노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유럽판 실리콘밸리 지역 중 하나
 - 바르셀로나는 1988년부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바르셀로나의 전망과 전략을 수립
- (비전) 바르셀로나는 2030 미래 비전의 핵심을 혁신과 지속가능성으로 표현(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 (전략)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틀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제시
 - 회복력 있는 도시(A Resilient Metropolis)
 - 번영하는 도시(A Prosperous Metropolis)
 - 화합하는 도시(A Cohesive Metropolis)

〈그림 II-15〉 2030 Barcelona를 위한 비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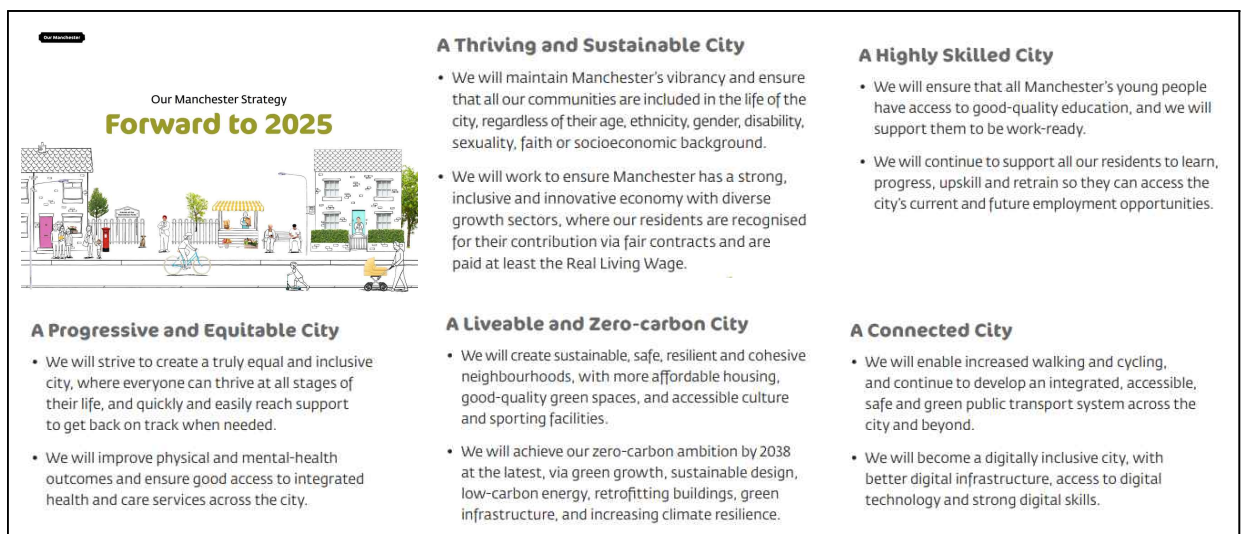


26) 「Pla Estratègic Metropolità de Barcelona(2020). Barcelona Metropolitan Strategic Plan」을 기반으로 작성

(3) 맨체스터(Manchester)²⁷⁾

- (도시 여건) 맨체스터는 영국에서 런던, 버밍엄과 더불어 3대 대도시로 불리며, 산업혁명, 제2차 세계대전 등의 역사적인 사건 등으로 도시의 발전과 쇠퇴가 반복되었으나 최근 서비스업 중심으로 도시 경제가 전환되면서 새로운 전성기 맞이
 -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면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산업 쇠퇴로, 맨체스터 인구의 절반 가까이 감소
 - 전통적인 제조업 경제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현재 높은 인구성장률 기록
- (비전) 맨체스터는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비전 제시 (The Top Flight of World-Class Cities by 2025)
- (전략)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전략 제시
 -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A Thriving and Sustainable City)
 - 우수한 기술 도시(A Highly Skilled City)
 - 진보적이고 공정한 도시(A Progressive and Equitable City)
 - 살기 좋은 탄소 제로 도시(A Liveable and Zero-carbon City)
 - 연결된 도시(A Connected City)

〈그림 II-16〉 Our Manchester Strategy Forward to 2025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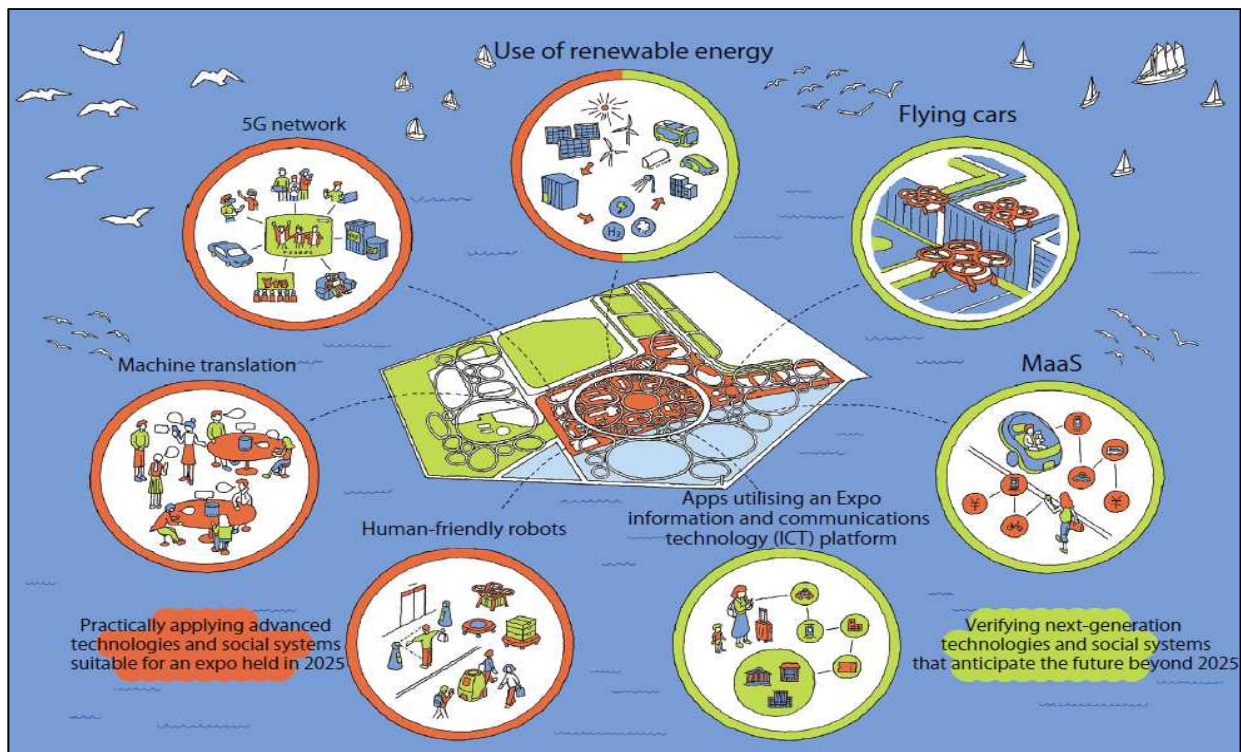


27) 「Manchester City Council(2020). Our Manchester Strategy Forward to 2025」를 기반으로 작성

(4) 오사카(Osaka)²⁸⁾

- (도시 여건) 오사카시는 일본 제2의 도시이자 간사이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수도권(도쿄권)과 두 바퀴 축 형성
 - 오사카시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과거 간사이 지역이 일본 수도일 때 상업으로 번성
 - 일본 또한 인구 및 경제의 도쿄권 집중화로 간사이 지역이 위기이나 최근 엑스포 유치 등으로 반전 도모
- (비전) 오사카는 엑스포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위한 미래사회 설계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 제시
 - 국가적 사업인 엑스포의 비전을 통해 오사카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전략)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3가지 하위 주제 및 프로젝트 제시
 - 생명 보호(Saving Lives)
 - 발전 및 번영(Empowering Lives)
 - 사회 연결(Connecting Lives)

〈그림 II-17〉 2025 EXPO의 미래사회 쇼케이스 프로젝트



28) 「Japan Association for the 2025 World Exposition(2020). EXPO 2025 Master Plan」을 기반으로 작성

3)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

- 혁신적인 도시는 지역 내 강력한 혁신클러스터 및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상품 및 지식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인재 및 자본 조달 등의 경쟁력 확보
- 글로벌 도시들을 선도할 혁신적인 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 및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도시 구현
- 대표적인 도시로는 보스턴, 싱가포르, 베이징, 두바이 등
 - 보스턴은 비전으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평한 도시(The Thriving and Equitable City)’ 제시
 - 싱가포르는 ‘스마트국가 싱가포르(Smart Nation Singapore)’ 비전 제시
 - 베이징은 ‘미래산업의 혁신적 발전(Innovative Development of Future Industries)’ 비전 제시
 - 두바이는 ‘살기 가장 좋은 도시(the best city to live in)’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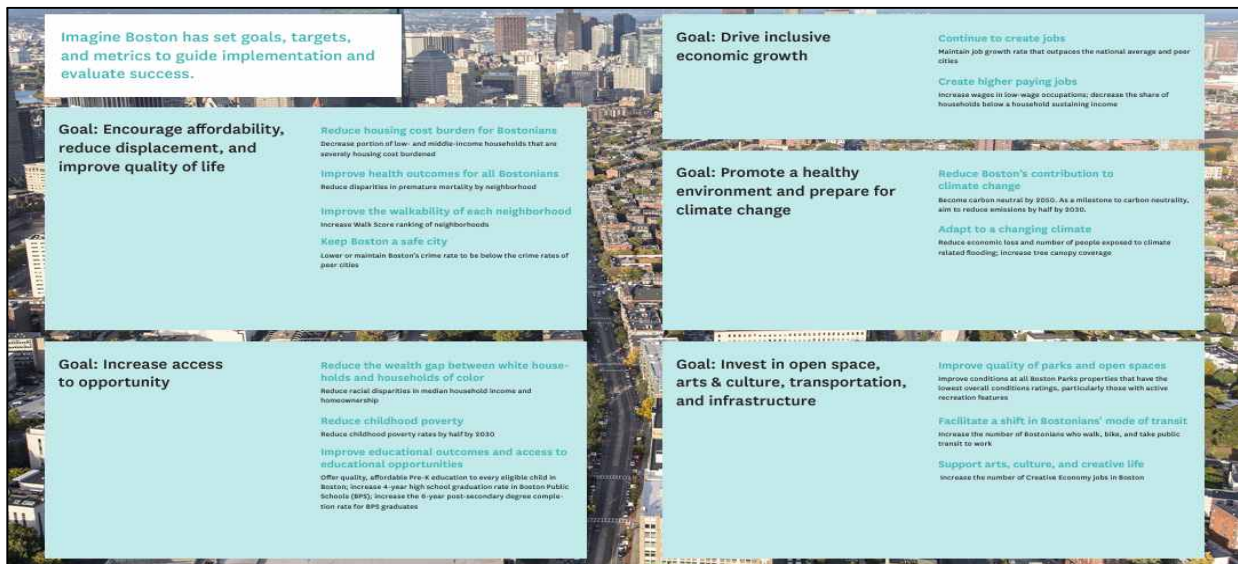
〈그림 II-18〉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



(1) 보스턴(Boston)²⁹⁾

- (도시 여건) 2022년 글로벌 혁신 허브 1위로 선정된 보스턴은 유망한 대학들로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유입에 유리하며, 광역권 내 많은 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강력한 노동시장 유지
 - 혁신 및 변혁 시장 부문 2위, 투자 시장 부문 4위, 학습 및 협업 시장 부문 15위 선정
 - 보스턴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연구 개발 및 벤처 캐피탈 투자에 가장 적합한 도시이자 모든 산업 및 기업이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평가
- (비전) 번영하고 공평한 도시(The Thriving and Equitable City)
- (전략)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전략 제시
 - 주택 문화 완화 및 삶의 질 향상(Encourage affordability, reduce displacement, and improve quality of life)
 - 기회 접근성 향상(Increase access to opportunity)
 - 포용적 경제 성장(Drive inclusive economic growth)
 - 건강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비(Promote a healthy environment and prepare for climate change)
 - 개방 공간, 예술 문화, 교통, 사회기반시설 투자(Invest in open space, arts and culture,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그림 II-19〉 Imagine Boston 2030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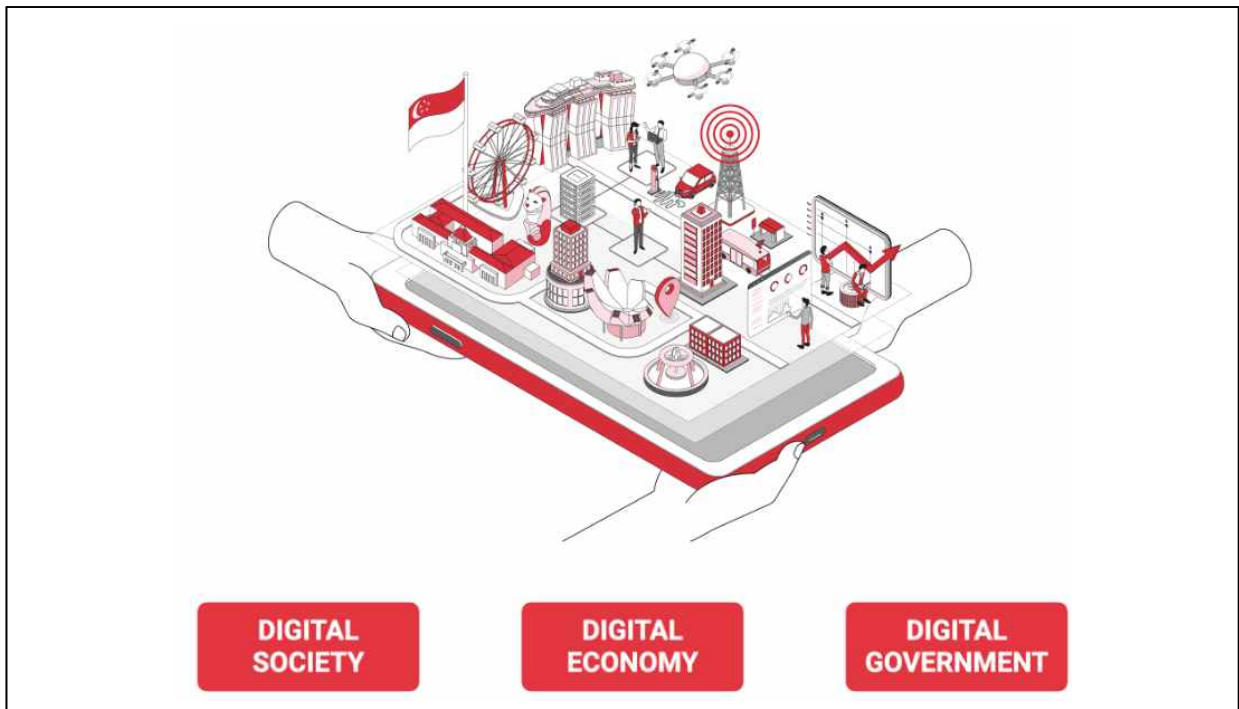


29) 「City of Boston(2021). Imagine Boston 2030」를 바탕으로 구성

(2) 싱가포르(Singapore)³⁰⁾

- (도시 여건)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천연자원 부족 등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감한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금융, 무역, 물류 등의 중심 도시로 도약
 - 싱가포르항은 세계에서 환적량이 가장 많은 항만으로 이를 기반으로 금융, 첨단산업과 연계한 도시발전 도모
 -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 방안 제시
- (비전) 스마트 국가 싱가포르(Smart Nation Singapore)
 - 2015년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일하는 방식·즐거는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기술을 통한 변화를 위해 ‘스마트 국가 싱가포르’ 비전(Smart Nation Singapore) 발표
- (전략)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및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상호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산업·비즈니스·정부 기관이 디지털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준비된 시민과 공동체 사회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운동을 추진할 계획

〈그림 II-20〉 Smart Nation Singapore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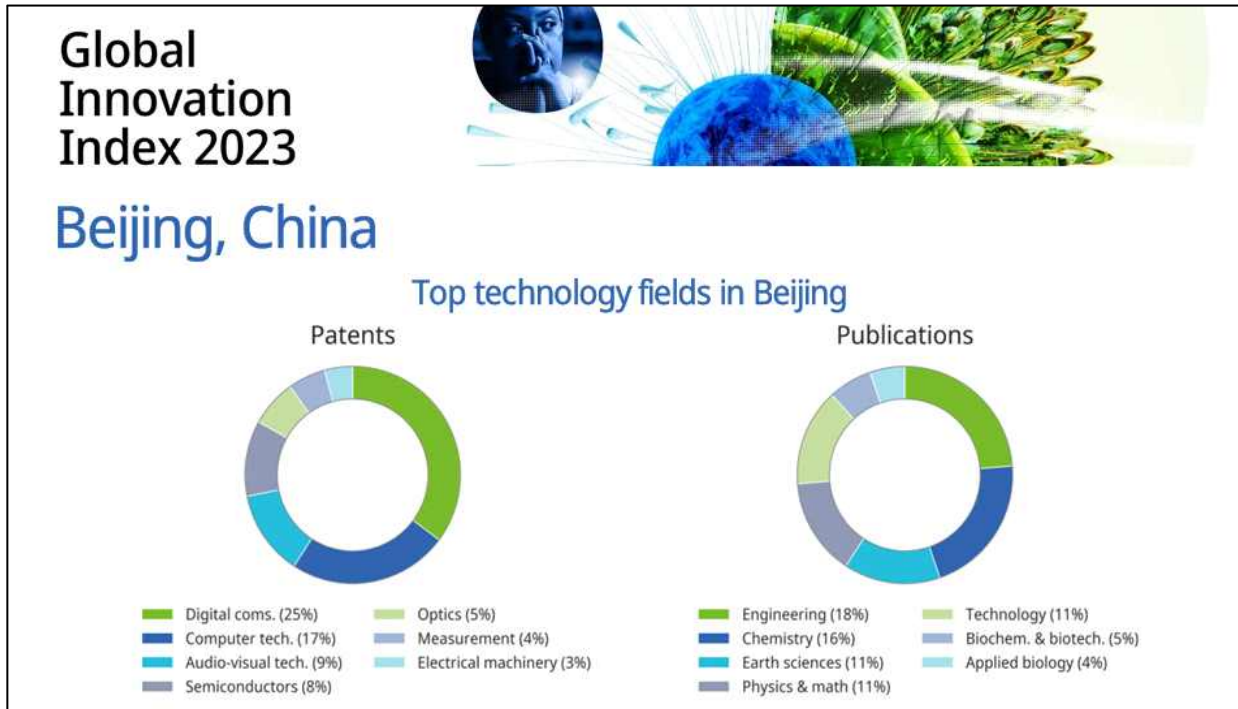


30) 「Smart Nation Singapore」를 기반으로 작성

(3) 베이징(Beijing)

- (도시 여건)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약 2,189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이자 정치 및 행정, 경제의 중심지
 - 글로벌 혁신 도시 119개 중 연구혁신 분야 2위, 혁신경제 4위, 혁신 생태계 11위로 기업 혁신 및 유니콘 기업 활성화, 약 11,200백만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로 통한 강력한 혁신 전망³¹⁾
 - 최근 5년 간 인구 100만 명당 1,973개의 해외특허 출원, 14,487개의 과학논문 발표 등 글로벌 혁신 도시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³²⁾
- (비전) 세계 최고의 미래산업 중심지(策源高地) 건설³³⁾
 - ‘미래 산업의 혁신적 발전 촉진을 위한 베이징시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S&T) 발전 및 산업 혁신 선도
- (전략) 미래의 정보, 미래의 의료, 미래의 제조, 미래의 에너지, 미래의 재료, 미래의 공간 6대 중점 분야를 통해 미래산업 창출

<그림 11-21> 베이징 최고의 기술 분야



자료: WIPO(2023)

31) CIDE & Nature Research Intelligence(2023)

32) WIPO(2023)

33) 北京市人民政府(2023.09)

(4) 두바이(Dubai)³⁴⁾

- (도시 여건)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로 손꼽히며,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기업 및 관광객 유치에 성공적인 결과 도출
 - 두바이는 불리한 기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성장 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과감한 개혁 및 개방 정책을 통해 수많은 외국 기업과 자본 유치
- (비전) 향후 20년 동안 살기 가장 좋은 도시(the best city to live in)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 계획
- (전략) 두바이는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8가지 세부 전략적 목표 제시
 - ‘공간 및 인프라 자원 활용 최적화’,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계획 및 개발’, ‘녹지 및 레저 공간을 두 배로 늘리고 품질 향상’,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이동수단 제공’, ‘더 큰 경제활동 육성’, ‘환경 지속가능성 강화’, ‘에미레이트의 문화 및 도시 유산 보호’, ‘포괄적인 입법 및 계획 거버넌스 개발’ 등으로 구성

〈그림 II-22〉 Dubai 2040 Urban Master Plan의 목표



34) 「Dubai 2040 Urban Master Plan」을 기반으로 작성

4) 지속가능한 사회를 고민하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

- 과거부터 시민의 삶의 질, 자연환경 등을 도시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세계 선진 도시들은 21세기 이후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불평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비전 및 전략 수립
 - 포틀랜드는 도시 비전으로 ‘번영하고 건강하며 평등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A Prosperous, Healthy, Equitable and Resilient City)’ 제시
 - 스톡홀름은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A Stockholm for Everyone)’을 도시 비전으로 제시
 - 빈은 ‘스마트시티 빈(Smart City Vienna)’을 도시 비전으로 선정하고 도시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전략으로 제시
 - 시드니는 ‘친환경적이고 글로벌하며 연결된 도시(Green, global and connected City)’를 비전으로 제시

〈그림 11-23〉 지속가능한 사회를 고민하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



(1) 포틀랜드(Portland)³⁵⁾

- (도시 여건) 미국 오리건주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는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이며, 광역권으로 확대할 시 약 250만 명 거주
 - 포틀랜드는 성장 관리, 환경 보호 등을 도시 정책에 초점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중 하나로 주목
- (비전) 번영하고 건강하며 평등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A Prosperous, Healthy, Equitable and Resilient City)
- (전략) 포틀랜드는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분야별 도시발전 전략 수립
 - 저탄소 경제 및 고용 확대, 공정한 분배 등
 - 부정적인 건강 영향 최소화 및 기회 확대 등
 - 지속가능한 건강한 환경 조성 등
 - 격차 축소, 부담 최소화, 지역사회 이익 확대 등
 - 위험 감소 및 복원력 강화 등

〈그림 II-24〉 2035 Comprehensive Plan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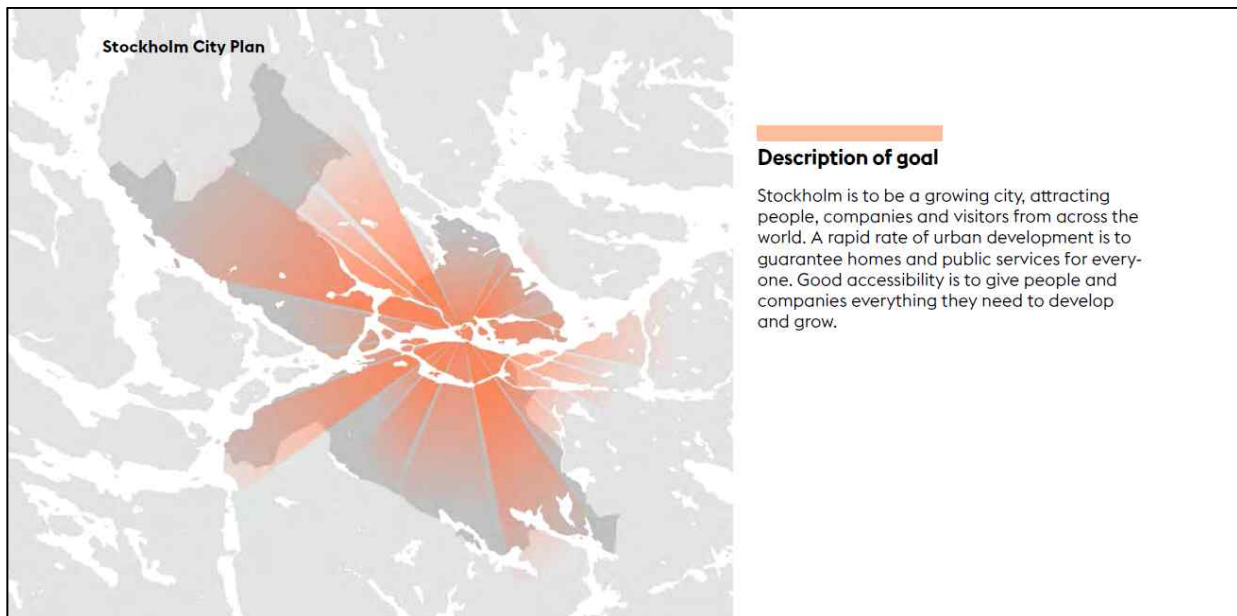


35) 「City of Portland(2023). 2035 Comprehensive Plan」을 기반으로 작성

(2) 스톡홀름(Stockholm)³⁶⁾

- (도시 여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은 유럽의 주요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 중 하나이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생태계 활성화
- (비전)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A Stockholm for Everyone)
 - 스톡홀름의 Vision 2040에서는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A Stockholm for Everyone)'이라는 비전을 통해 장기계획 추진
- (전략) 비전 달성을 위한 4가지 주요 도시계획 전략(목표) 제시
 - 성장하는 도시(A Growing City) : 스톡홀름은 성장하는 도시, 전 세계의 관광객 및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
 - 하나가 되는 도시(A Cohesive City) : 스톡홀름은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이동과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자유로운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
 - 우수한 공공 공간(Good Public Spaces) : 스톡홀름은 각각의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지역(local areas)으로 구성되는 도시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도시(A Climate-smart and Resilient City) : 효율적인 대지 활용(land use) 및 대중교통 활용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스마트하게 대응하는 도시, 도시의 기능과 기술적 시스템을 개선하여 회복 가능한 도시로 성장

〈그림 11-25〉 Stockholm City Plan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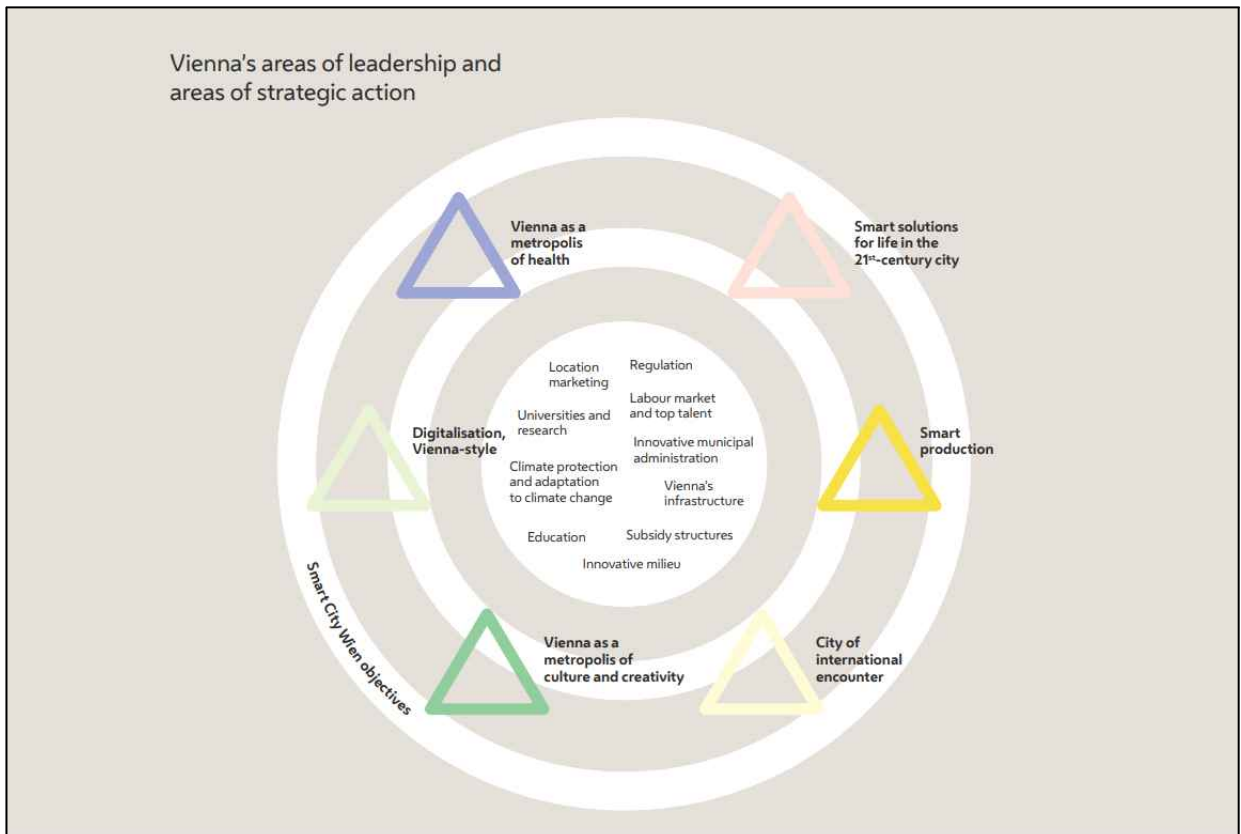


36) 「Stockholms Stadshus(2021). Stockholm City Plan」을 기반으로 작성

(3) 빈(Vienna)³⁷⁾

- (도시 여건) 오스트리아 빈은 전 세계 도시 중 삶의 질과 생활환경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도시로 유명
- (비전) 스마트시티 빈(Smart City Vienna)
 - 도시에서 발생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제시
- (전략) 스마트시티 전략과 연계하여 「빈 2030 : 경제와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에 발표
 - 빈의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도시로서 국제사회를 선도하고자 하는 영역과 전략적 행동 영역 설정
 - 선도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21세기 생활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건강의 중심지 빈', '빈형 디지털 전환', '대도시의 스마트 생산', '국제적인 만남의 장소', '문화와 창의성의 중심지' 설정

〈그림 II-26〉 Vienna 2030 Economy & Innovation의 전략



37) 「City of Vienna(2019). Vienna 2030 Economy & Innovation」을 기반으로 작성

(4) 시드니(Sydney)³⁸⁾

- (도시 여건) 시드니는 호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항만, 금융, 서비스,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기후가 온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
- (비전) 친환경적이고 글로벌하며 연결된 도시(Green, Global and Connected City)
 - 시드니는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친환경적이고 글로벌하며 연결된 도시’를 비전으로 발표
- (전략) 주요 전략이자 가치로 Green, Global, Connected 선정
 - Green은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의미
 - Global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
 - Connected는 시민들이 도시 및 상호 간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도시를 의미

〈그림 II-27〉 Sustainable Sydney 2030-2050의 미래상



38) 「City of Sydney(2022). Sustainable Sydney 2030-2050」을 기반으로 작성

03

요약 및 시사점

1) 급변하는 경제·산업·정치·사회·문화 구조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능동적 변화가 요구

- 기후위기, 감염병 등 기존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이에 따른 친환경,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필요
-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확산, 자율주행 등 새로운 모빌리티 구축, 소통과 소비 문화 등의 디지털 생활화 요구
-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경제 저성장, 에너지·기술 등을 두고 벌이는 국가 간의 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 및 안보 위협,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 요구

2) 글로벌 선진 도시들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전략적으로 대응

-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글로벌 리더 도시들은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 인재 유입 등으로 경쟁력 확보
- 국가 발전의 두 바퀴 축을 담당하는 제2도시들은 입지적 여건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육성되어 국가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 선도
 -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의 도시는 대규모 항만과 물류 운송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중심 도시로 위상 확보, 맨체스터, 오사카 등의 도시는 수도와 동등한 구조 및 인지도를 기반으로 금융, 콘텐츠, 관광산업 등에 특화된 글로벌 매력도시로 성장
- 보스턴, 싱가포르, 베이징, 두바이 등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들은 혁신적인 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 및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
-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불평등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들은 보행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며 공정하고 연결된 사회 추구

3) 세계 주요 도시들의 비전 및 전략을 바탕으로 부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산의 미래상 도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Ⅲ.

부산의 오늘과 부산시민이 바라는 미래는 어떠한가?

1. 주요 지표 분석
2. 부산 시민·전문가 조사
3.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4. 요약 및 시사점

01

주요 지표³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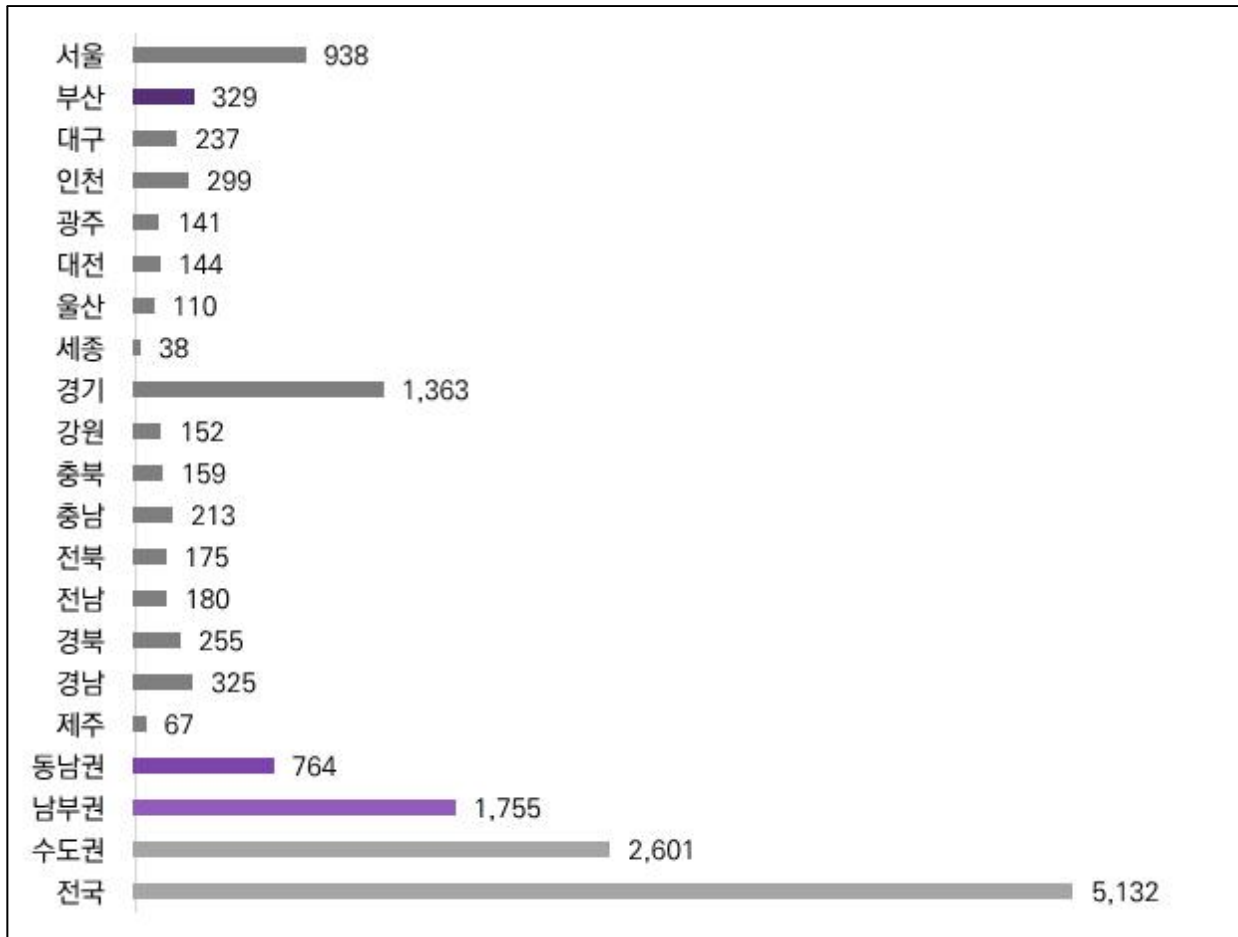
1) 인구

(1) 인구 및 가구 추이

- 2023년 기준 부산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329만 명으로 전국의 약 6.4%를 차지하며, 지난 해 보다 약 2만 명 감소
- 부산을 포함하는 동남권 및 남부권⁴⁰⁾ 인구는 각각 전국 대비 14.9%, 34.2%이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⁴¹⁾ 지역의 인구는 전국 대비 50.7% 수준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

<그림 III-1>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수 (2023년)

(단위 : 만 명)



39) 통계청 KOSIS 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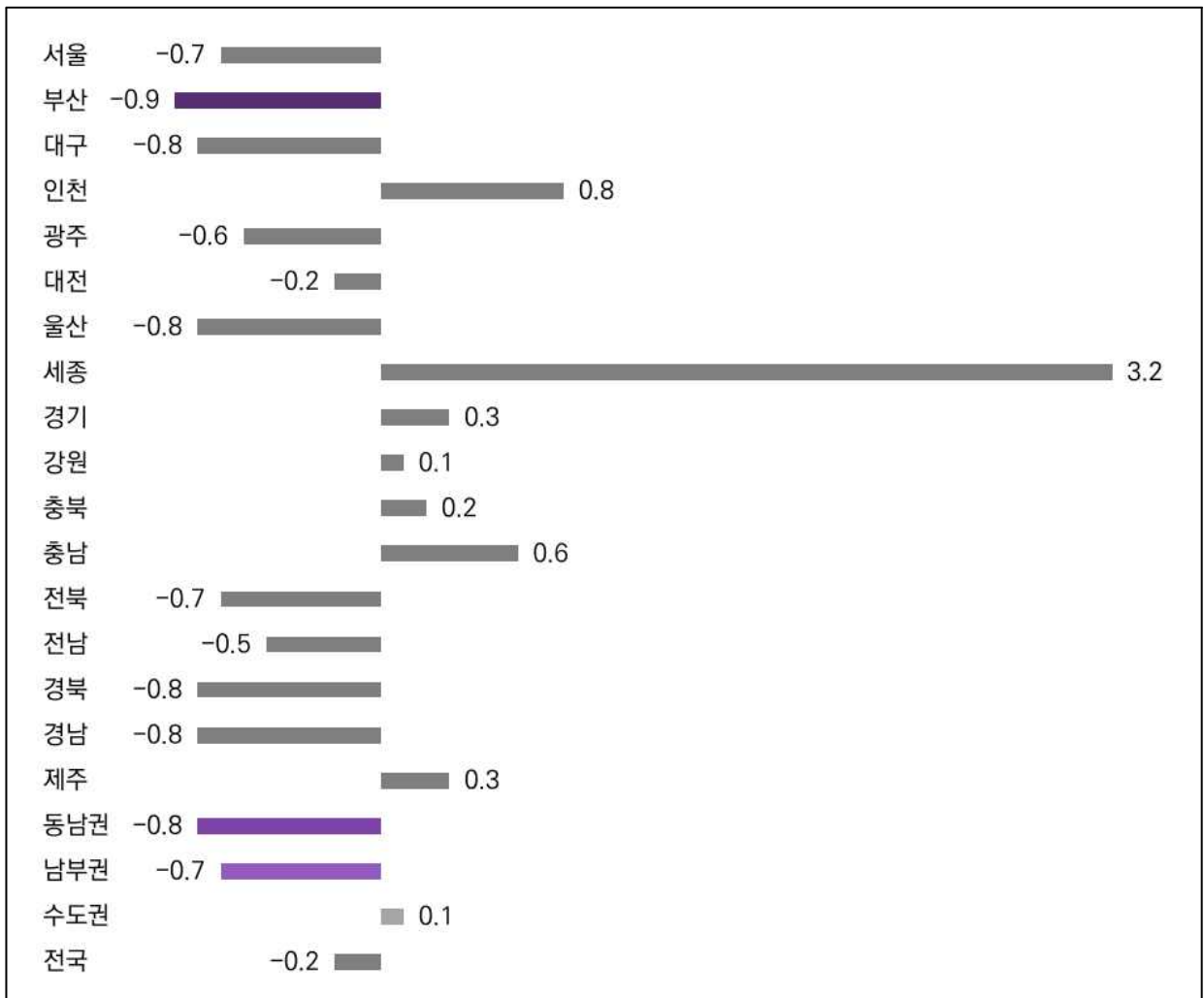
40) 본 장에서는 남부권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지역으로 기술

41) 본 장에서는 수도권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기술

- 2022년 기준 부산의 인구증가율은 -0.9% 수준이며, 부산과 함께 동남권에 속하는 울산과 경남의 인구증가율은 모두 -0.8%로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
 - 2022년 기준 세종(3.2%), 인천(0.8%), 충남(0.6%), 경기(0.3%), 제주(0.3%)의 인구증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
 - 2022년 기준 전국의 인구증가율은 -0.2%, 수도권 0.1%, 남부권 -0.7%, 동남권 -0.8%로 수도권과 비교해 남부권 및 동남권의 인구증가율이 낮은 수준

〈그림 Ⅲ-2〉 지역별 인구증가율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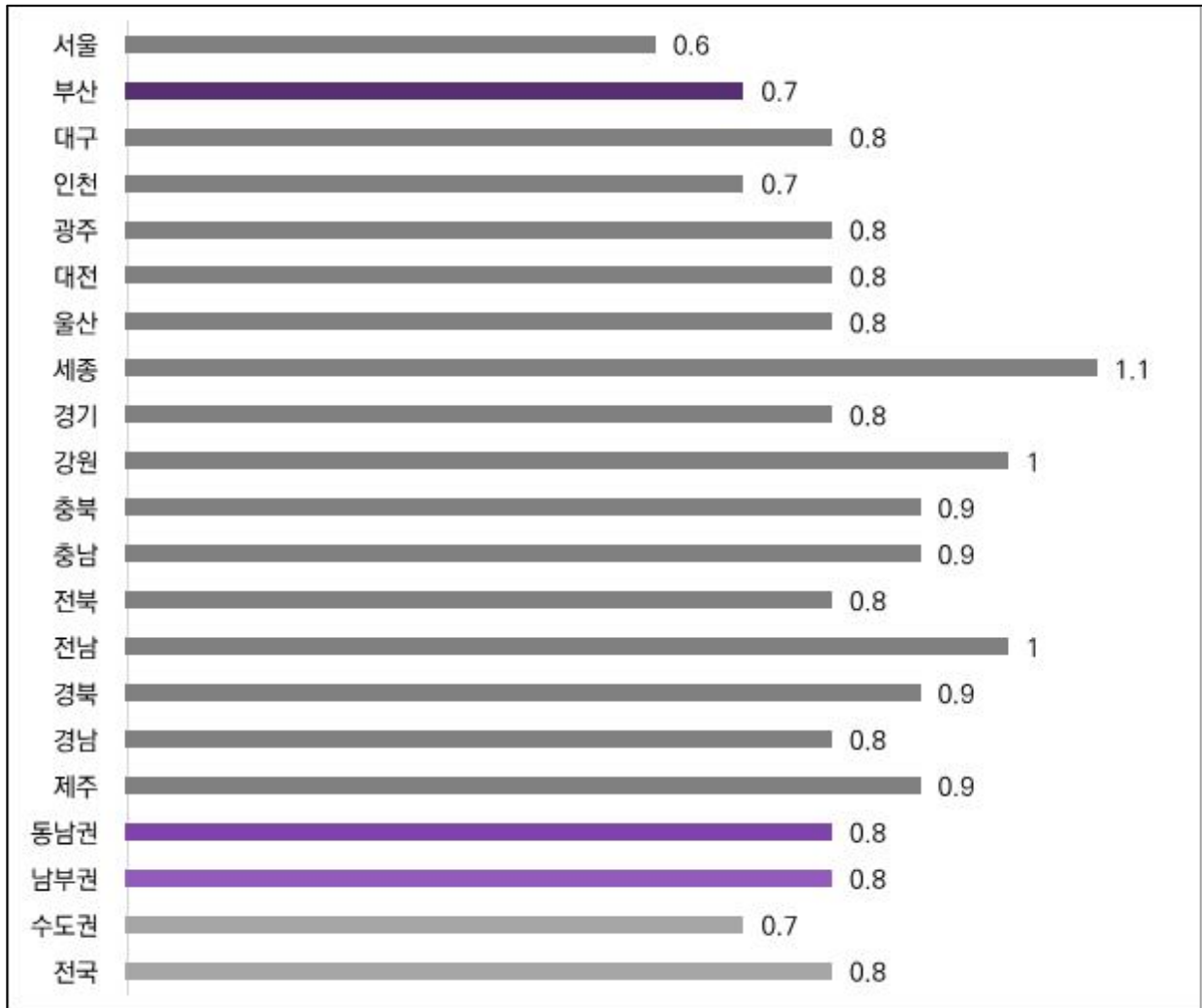
(단위 : %)



- 2022년 기준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8명)에 비해 낮은 수준
 -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0.7명, 남부권 0.8명, 동남권 0.8명으로 나타났다으며, 세종(1.1명), 강원(1명), 전남(1명), 충북(0.9명), 충남(0.9명), 경북(0.9명), 제주(0.9명) 등은 전국 평균 상회

<그림 Ⅲ-3> 지역별 합계출산율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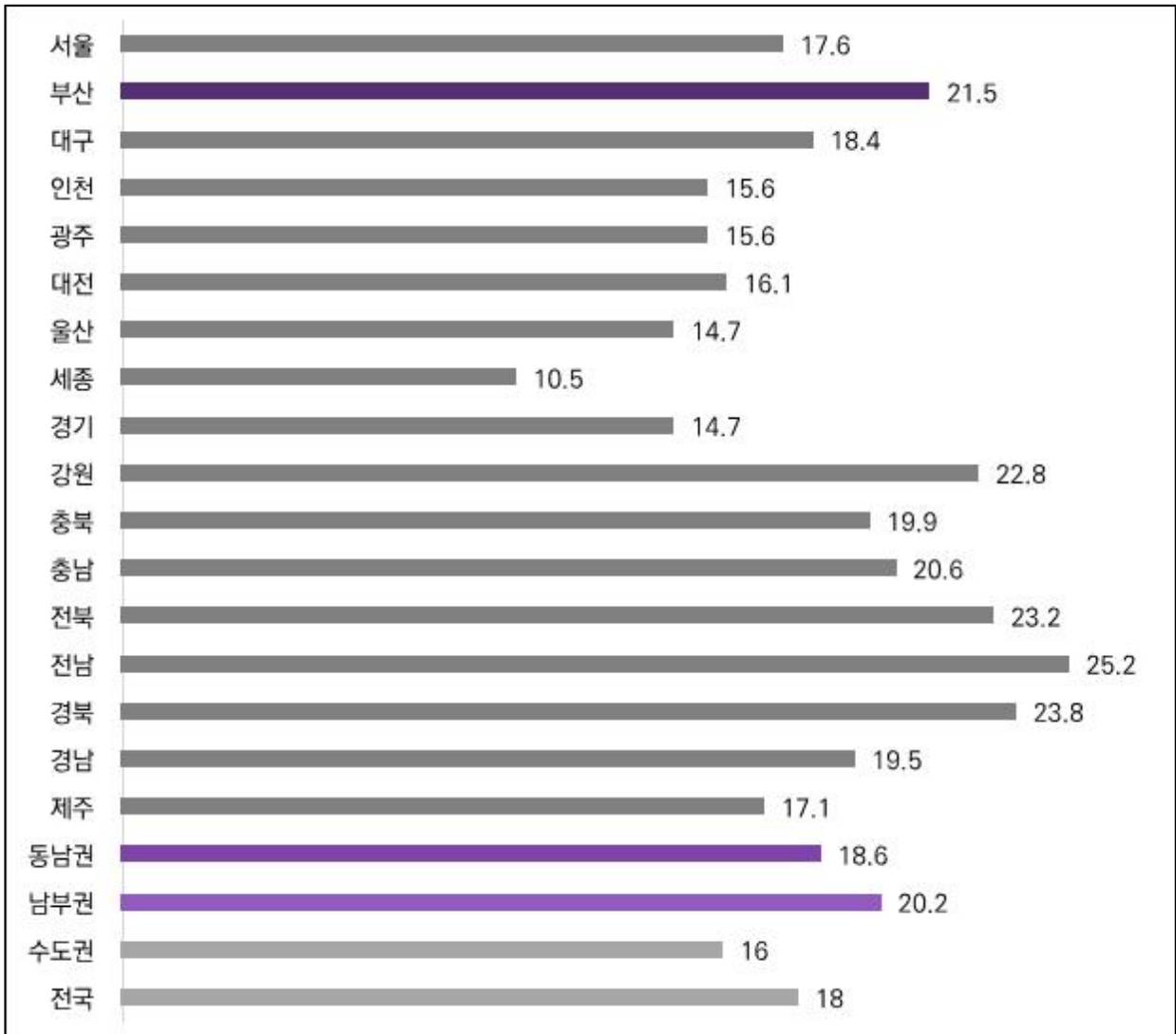
(단위 : %)



- 2022년 기준 부산의 60대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1.5%로 전남(25.2%), 경북(23.8%), 전북(23.2%), 강원(22.8%) 다음으로 높은 수준
 - 남부권(20.2%) 및 동남권(18.6%)의 고령인구비율은 수도권(16.0%) 보다 높은 수준

〈그림 Ⅲ-4〉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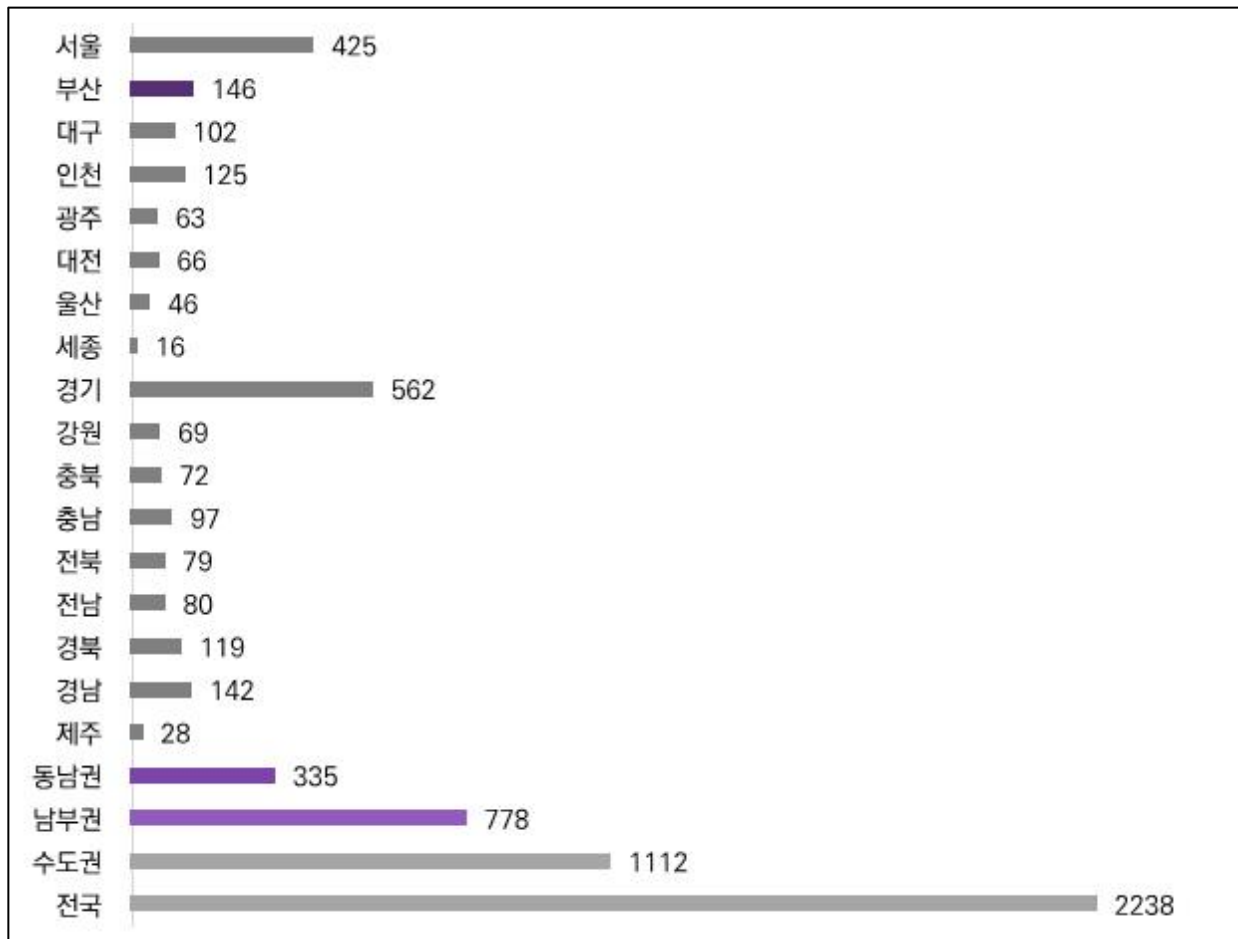
(단위 : %)



- 2022년 기준 부산의 가구수는 146만 가구로 전국의 6.5%를 차지하며, 경기(562만 가구), 서울(425만 가구)에 이어 높은 수준
 - 수도권 가구 수는 약 1,112만 가구로 전국의 49.7%에 해당하며, 남부권 34.8%(778만), 동남권 15.0%(335만)의 비중 차지

<그림 Ⅲ-5> 지역별 가구수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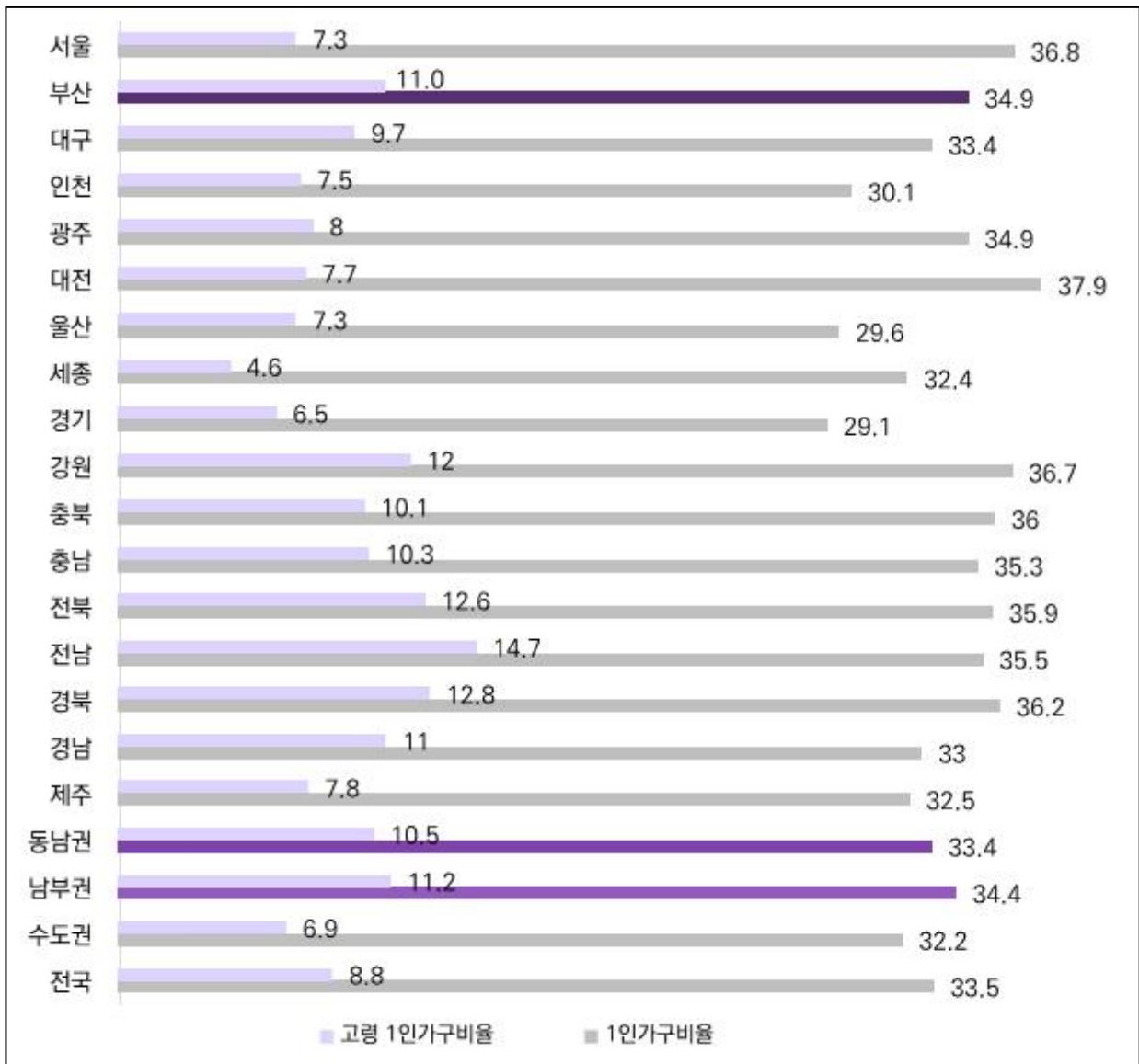
(단위 : 만 가구)



- 2022년 기준 부산의 1인가구비율은 34.9%로 대전(37.9%), 서울(36.8%), 강원(36.7%), 경북(36.2%), 충북(36.0%)에 이어 높은 수준
 - 특히 65세 이상 고령 1인가구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산(11.0%)은 전국(8.8%) 및 수도권(6.9%)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그림 Ⅲ-6〉 지역별 1인가구비율 (202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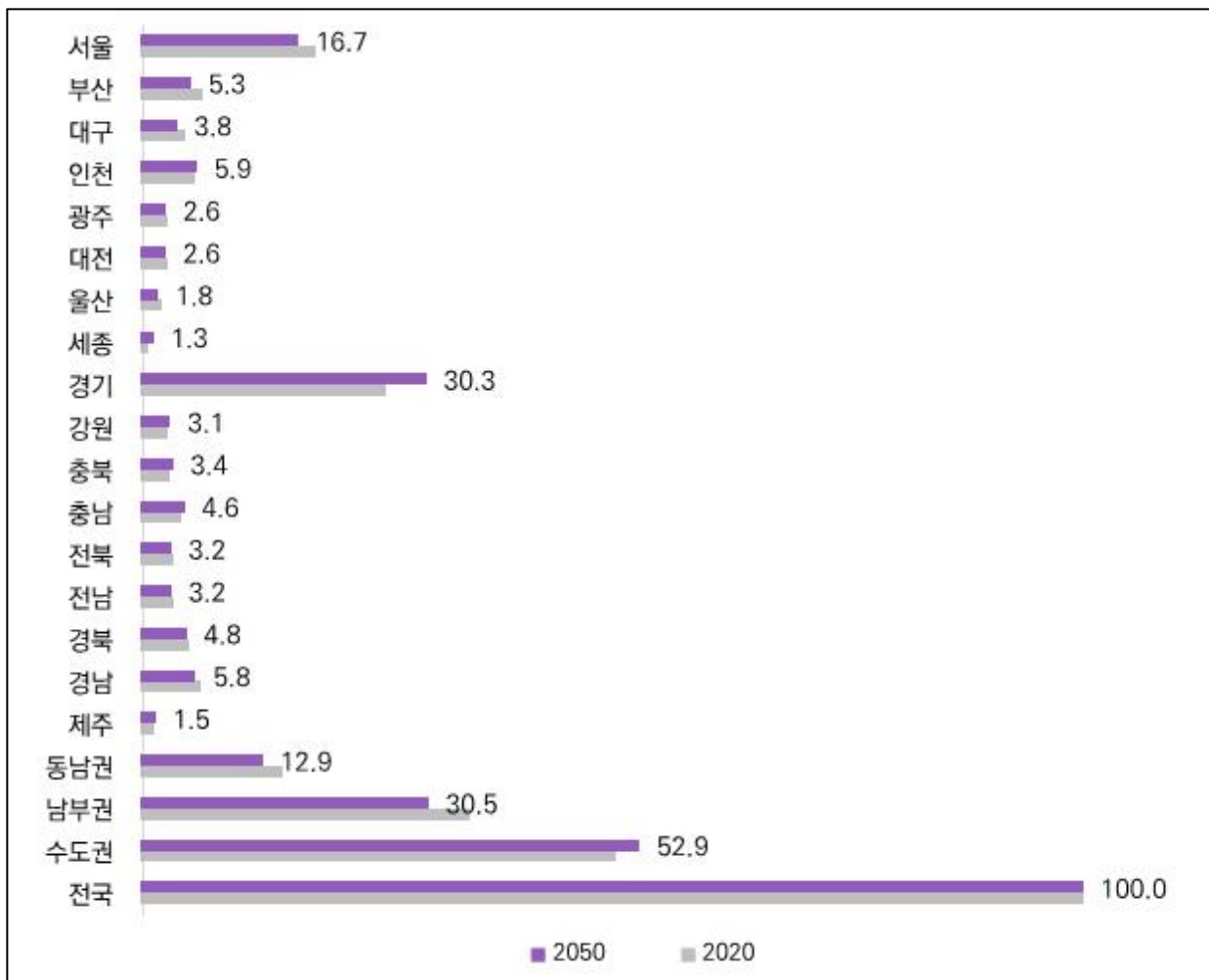


(2) 장래인구 추계

- 지역별 장래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경기도, 서울, 부산, 경남 순에서 2050년 경기도, 서울, 인천, 경남, 부산 순으로 나타나 부산의 장래인구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

〈그림 III-7〉 지역별 장래인구 비중 (2020년, 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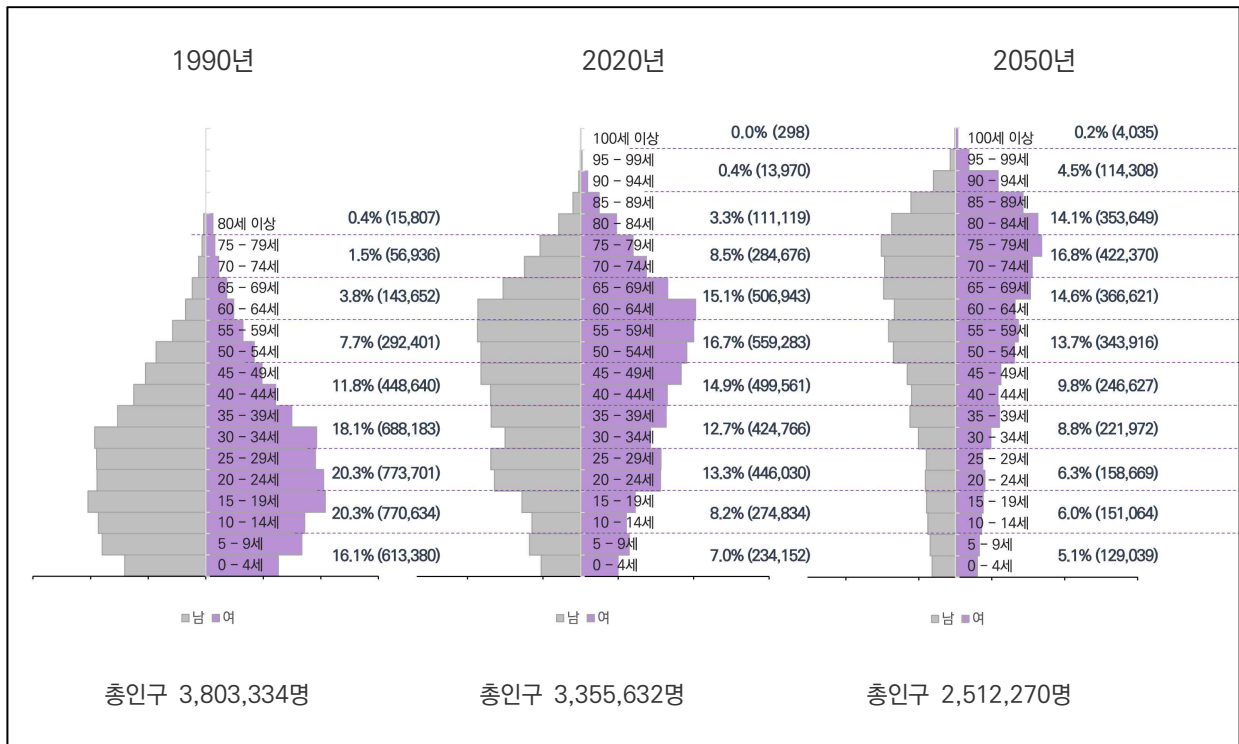
(단위 : %)



- 2020년 기준 부산의 인구는 약 336만 명에서 2050년 251만 명으로 약 2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0년 70.6%에서 2050년 48.3%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중위연령대는 2020년 46.3세에서 2050년 60.1세로 증가

〈그림 III-8〉 부산시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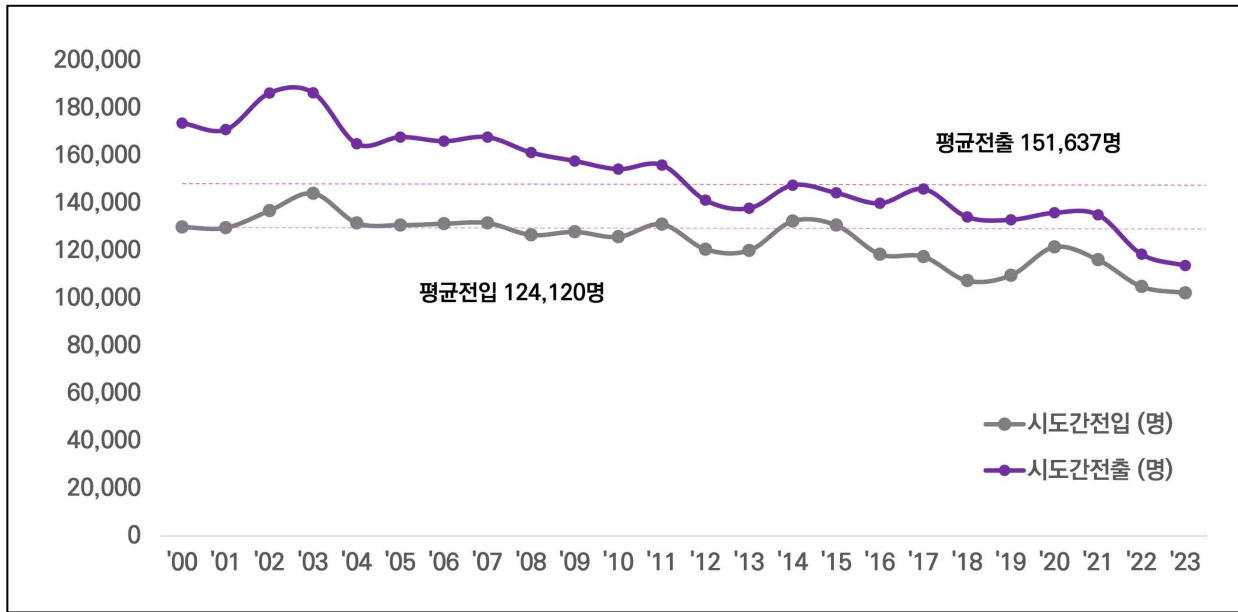
(단위 : 명)



(3) 인구이동 추이

- 2023년 부산의 시도 간 전출·전입 인구를 살펴보면, 전출 113,649명, 전입 102,217명으로 순이동 11,432명으로 나타나며, 20년간 전출·입 인구 모두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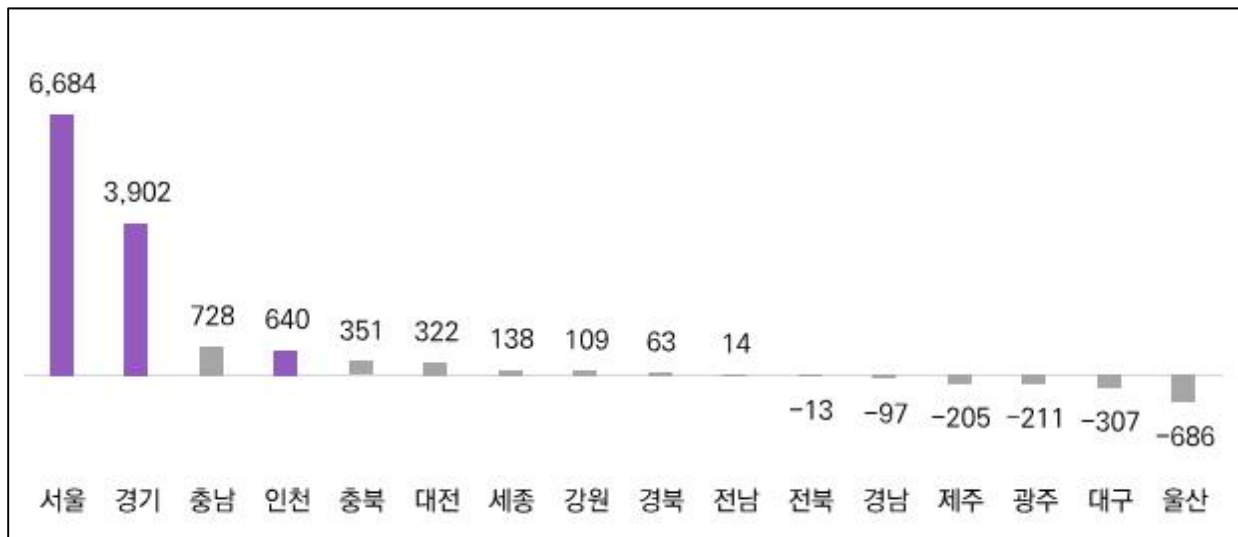
〈그림 III-9〉 부산의 전출·입인구 (2000-2023년)



- 2023년 기준 부산에서 타 도시로 순이동 인구는 11,432명으로 95.9%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함

〈그림 III-10〉 부산의 순이동 인구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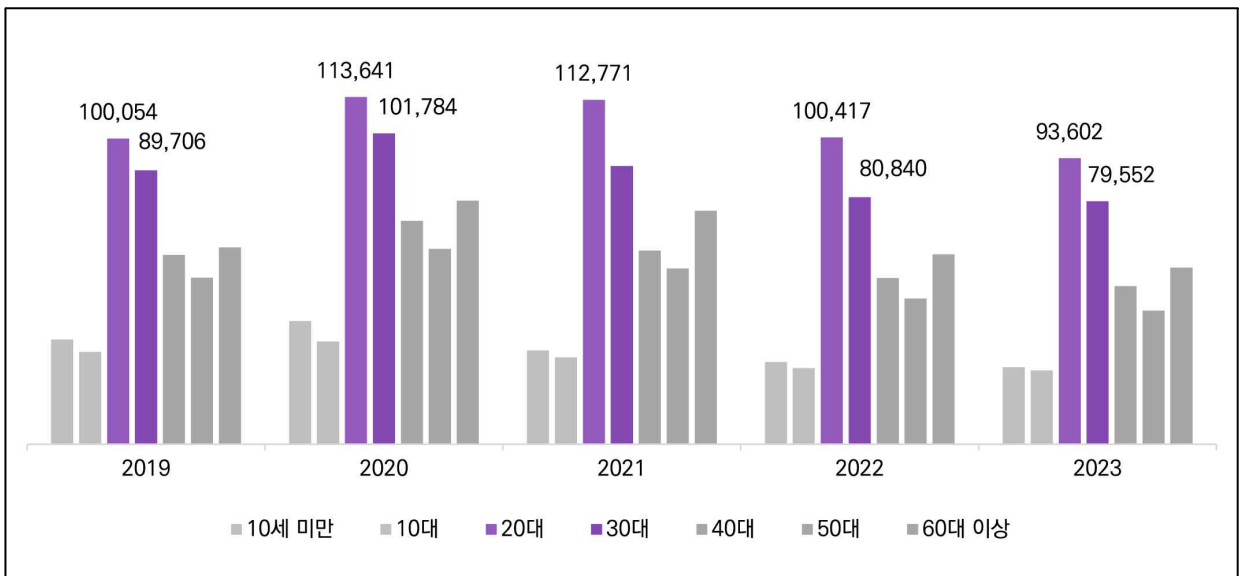
(단위 : 명)



- 2023년 부산의 시도 간 이동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출·입 인구 모두 20, 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동을 보이며, 60대 이상도 다음 순으로 많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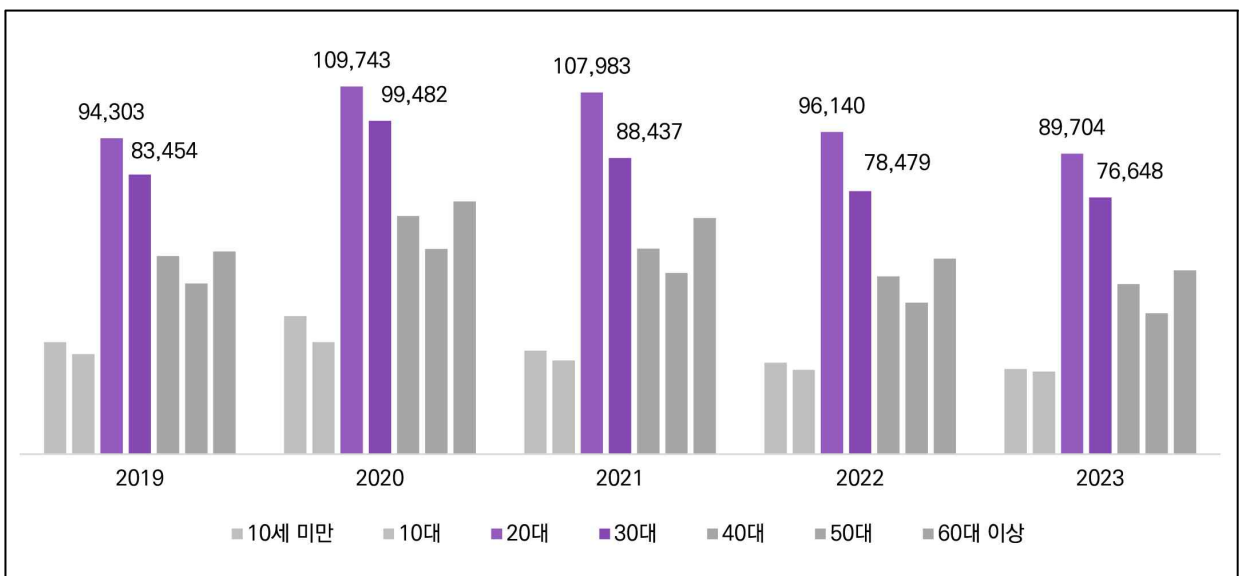
〈그림 Ⅲ-11〉 연령대별 전출인구 (2019-2023년)

(단위 : 명)



〈그림 Ⅲ-12〉 연령대별 전입인구 (2019-2023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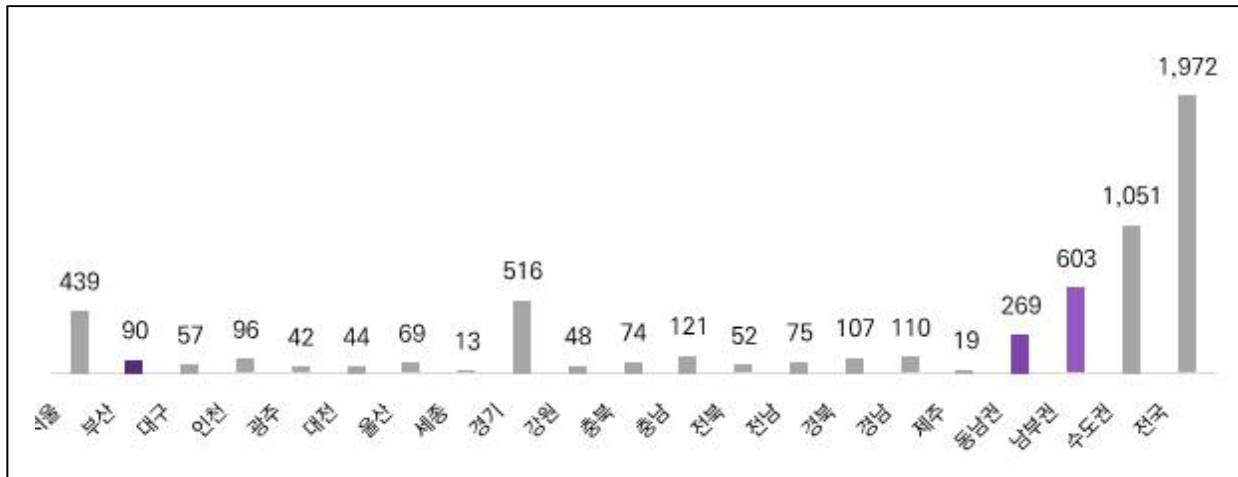
2) 경제·산업

(1) 지역내총생산(GRDP) 및 경제성장률

- 2022년 기준 부산의 GRDP⁴²⁾은 90조 원으로 17개 시도 중 7순위
 - 지역별로 경기(516조 원), 서울(439조 원), 충남(121조 원), 경남(110조 원) 등의 GRDP가 높은 수준
 - 부산이 포함된 남부권과 동남권의 GRDP는 각각 603조 원, 269조 원으로 수도권 1,051조 원에 비해 낮은 수준

〈그림 III-13〉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2022년)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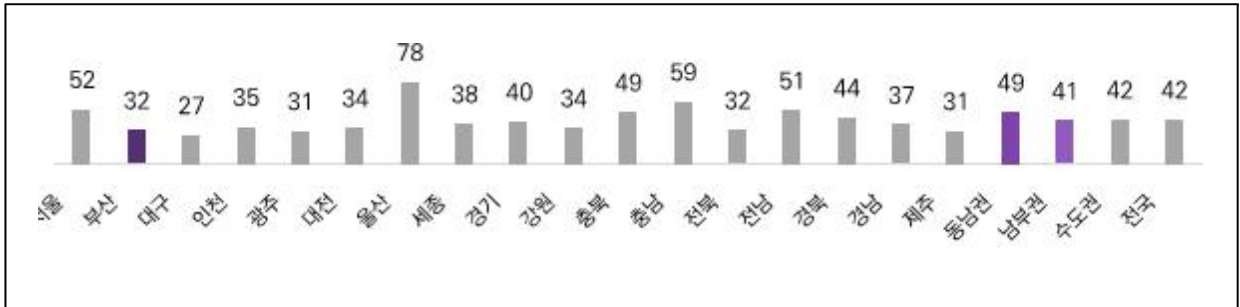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부산의 1인당 GRDP는 3천 2백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
 - 울산(7천 8백만 원)이 가장 높고, 충남(5천 9백만 원), 서울(5천 2백만 원), 전남(5천 1백만 원) 순으로 높은 수준
 - 동남권과 남부권의 1인당 GRDP는 각각 4천 9백만 원, 4천 1백만 원으로 동남권의 1인당 GRDP가 수도권(4천 2백만 원)보다 높은 수준

42) 실질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작성

〈그림 Ⅲ-14〉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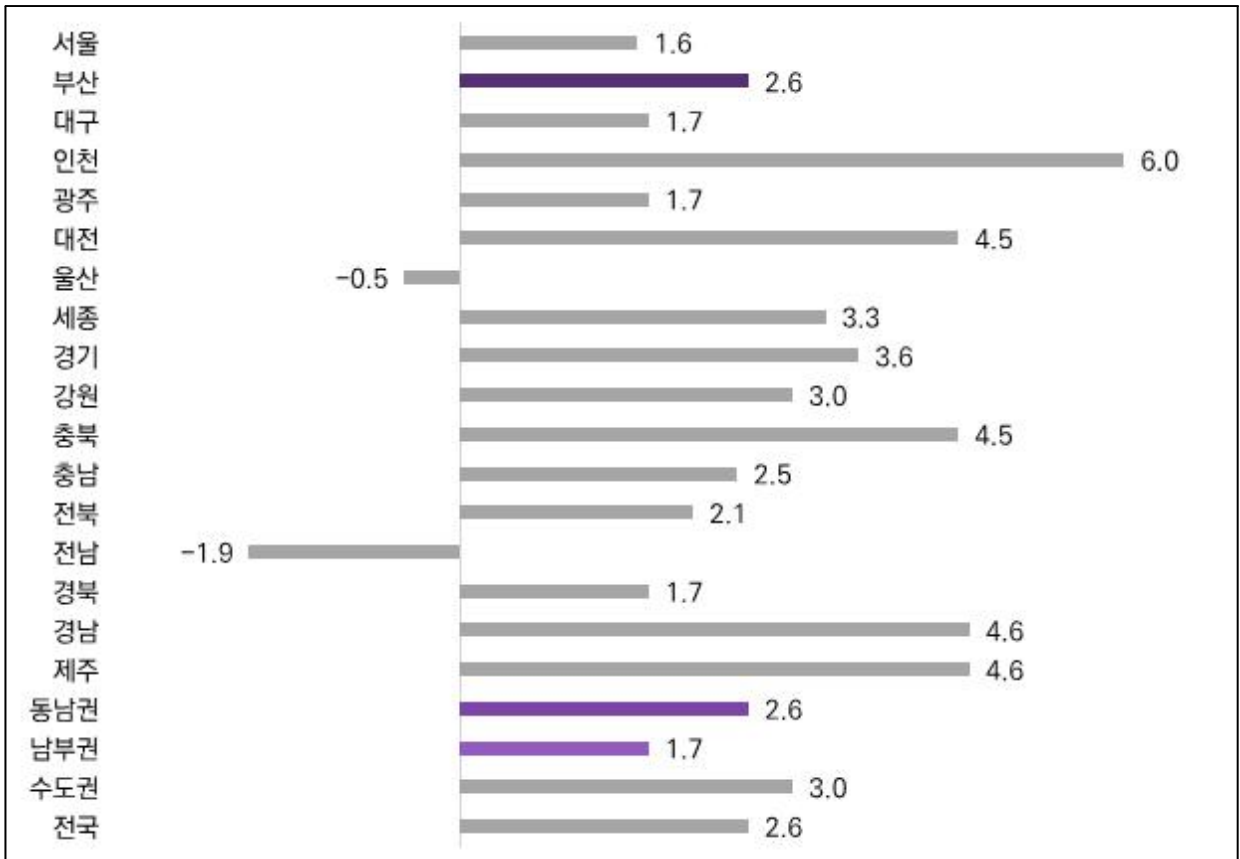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 2022년 기준 부산의 경제성장률은 2.6%로 17개 시도 중 9위
 - 인천이 6.0%로 가장 높고, 경남 4.6%, 제주 4.6% 순으로 나타남
 - 부산이 속해 있는 동남권(2.6%) 및 남부권(1.7%)은 수도권(3.0%)보다 낮은 수준

〈그림 Ⅲ-15〉 지역별 경제성장률 (202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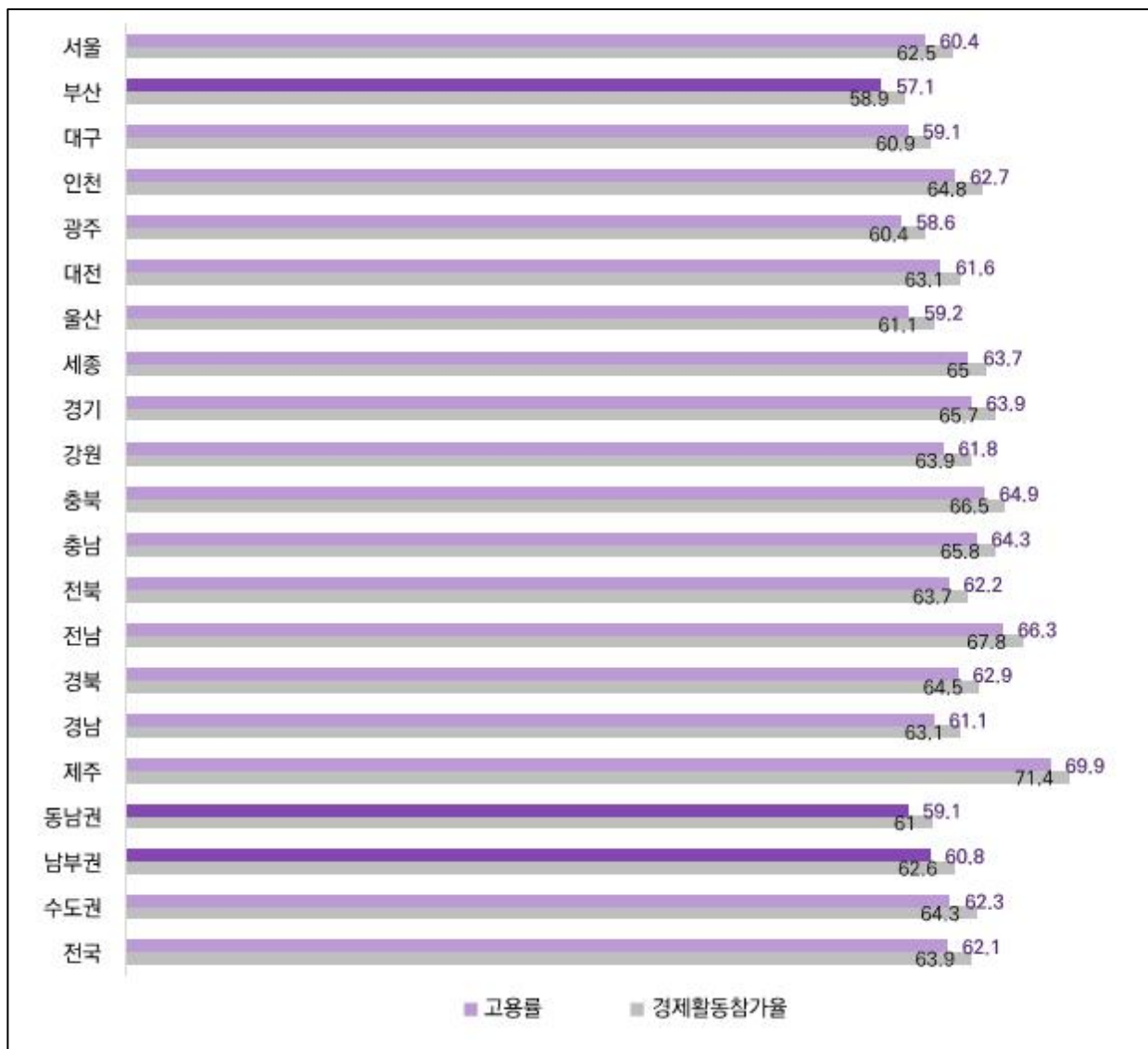


(2)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

- 2022년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
- 부산의 고용률은 57.1%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제주(69.9%), 전남(66.3%), 충북(64.9%), 충남(64.3%) 순으로 높은 수준

〈그림 III-16〉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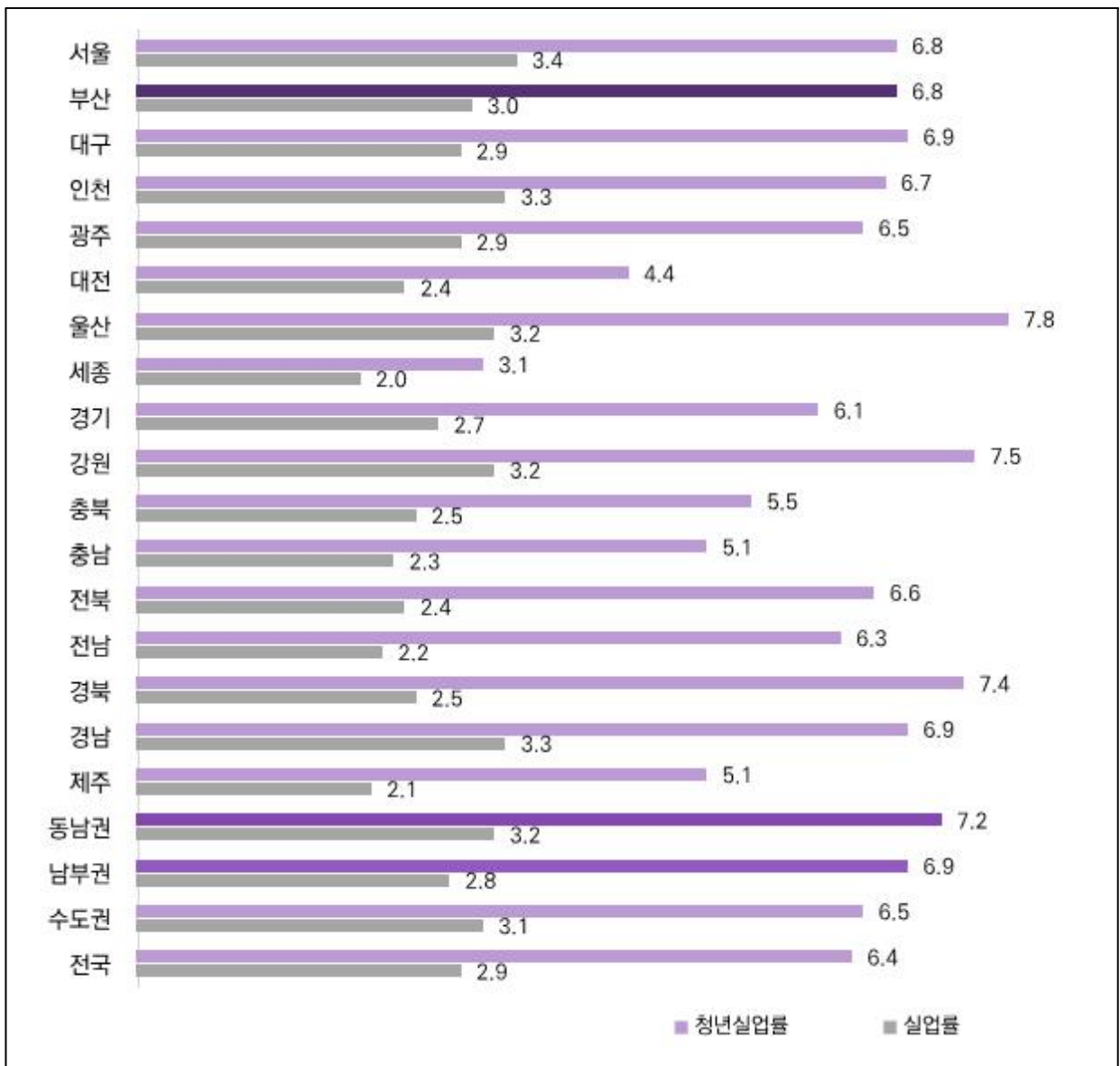
(단위 : %)



- 2022년 기준 부산의 실업률은 3.0%로 서울(3.4%), 인천(3.3%), 경남(3.3%), 울산(3.2%), 강원(3.2%)에 이어 6위
- 부산의 청년실업률은 6.8%로 울산(7.8%), 강원(7.5%), 경북(7.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부산이 속해 있는 동남권(7.2%)과 남부권(6.9%)의 청년실업률은 수도권(6.5%)보다 높은 수준

〈그림 Ⅲ-17〉 지역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2022년)

(단위 : %)



(3)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2022년 기준 부산의 전체 사업체수는 약 40만 개로 17개 시도 중 3위이며, 전국 대비 약 6.5%로 경기(24.7%)와 서울(19.2%)과 비교해 낮은 수준
 - 부산의 사업체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7.0%)’, ‘숙박 및 음식점업(14.2%)’, ‘운수 및 창고업(12.5%)’, ‘제조업(9.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8.2%)’, ‘건설업(6.6%)’ 순
- 부산의 사업체 수는 서울, 경기도에 비해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체 비중이 낮은 수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서울 35.8%, 경기 24.5%, 부산 5.6%
 - (정보통신업) 서울 46.7%, 경기 26.8%, 부산 3.4%
 - (금융 및 보험업) 서울 38.0%, 경기 15.6%, 부산 5.9%

〈표 III-1〉 동남권 및 수도권 도시의 산업별 사업체수 (2022년)

(단위 : 개)

구분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산업	6,139,899	400,565	115,784	397,699	1,180,025	317,133	1,514,951
도매 및 소매업	1,519,505	108,084	26,422	89,910	324,613	80,223	377,002
숙박 및 음식점업	858,593	56,687	20,233	68,055	139,173	42,097	182,176
운수 및 창고업	644,407	49,937	11,888	36,520	118,073	41,236	168,257
제조업	586,532	38,067	10,282	51,033	75,641	33,961	187,3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8,024	32,687	10,847	35,063	77,916	24,607	109,281
건설업	494,228	26,465	10,092	33,409	66,868	25,578	115,819
부동산업	290,074	21,414	4,840	13,771	72,058	15,081	83,322
교육 서비스업	256,060	16,472	6,080	17,434	47,002	12,365	67,4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6,570	12,707	3,241	9,426	81,166	8,961	55,4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7,062	10,719	3,157	10,427	32,319	8,571	39,55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8,183	9,083	2,608	8,187	29,595	7,466	35,0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4,915	8,177	3,209	8,350	28,242	8,047	36,601
정보통신업	127,974	4,376	858	2,696	59,783	4,704	34,324
금융 및 보험업	65,050	3,842	1,092	3,293	24,693	2,347	10,1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642	698	208	1,055	1,299	502	1,95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756	681	322	1,315	764	807	3,63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1,286	301	273	6,530	653	416	5,759
농업, 임업 및 어업	13,102	152	115	1,116	141	129	1,691
광업	1,936	16	17	109	26	35	110

- 2022년 기준 부산의 종사자수는 17개 시도 중 3위로 '도매 및 소매업 (15.6%)', '제조업(1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9%)', '숙박 및 음식점업(9.9%)' 순으로 많이 종사
 - 지역별로 전체 산업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24.2%), 서울 (23.0%), 부산(6.2%), 경남(6.1%), 경북(5.0%) 순으로 경기 및 서울은 다른 지역들과 큰 격차

〈표 Ⅲ-2〉 동남권 및 수도권 도시의 산업별 종사자수 (2022년)

(단위 : 명)

구분	전국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산업	25,217,123	1,554,664	547,780	1,529,668	5,795,417	1,250,203	6,103,213
도매 및 소매업	3,577,370	241,934	55,657	183,450	962,626	171,334	892,035
제조업	4,253,904	210,883	176,701	412,666	261,088	252,668	1,387,6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57,512	184,789	44,589	156,520	470,395	145,972	535,934
숙박 및 음식점업	2,215,219	153,289	46,257	146,388	441,817	109,781	498,796
운수 및 창고업	1,383,516	133,110	29,714	79,646	280,575	97,207	340,362
건설업	1,955,608	118,404	41,150	103,858	453,044	84,237	404,447
교육 서비스업	1,723,109	105,593	34,543	101,584	365,167	82,746	408,6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00,103	77,706	20,455	45,789	488,351	66,073	272,79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08,611	59,613	18,155	58,490	185,909	45,060	206,1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36,785	58,659	20,585	43,951	605,708	43,170	361,9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88,959	51,659	17,121	62,228	160,530	44,887	148,046
금융 및 보험업	731,176	49,857	12,412	34,298	296,873	23,694	104,084
부동산업	692,012	47,341	11,231	33,570	196,379	32,522	182,5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4,340	24,790	7,687	25,109	90,030	21,088	115,392
정보통신업	872,905	21,702	4,922	13,071	518,475	16,435	184,32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4,281	7,853	2,933	11,483	10,750	7,796	34,89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0,666	4,456	2,910	11,055	6,929	4,486	15,439
농업, 임업 및 어업	66,605	2,985	496	5,812	621	616	8,242
광업	14,442	41	262	700	150	431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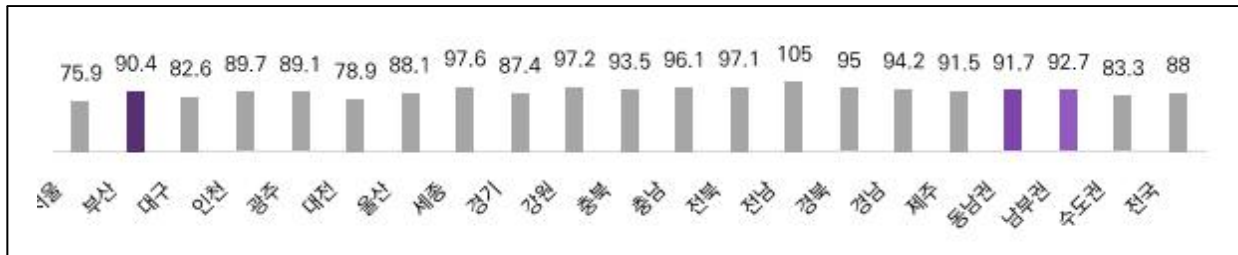
3) 정주환경

(1) 주거

- 2022년 기준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90.4%로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높은 보급률
 - 지역별로 서울(75.9%)의 보급률이 가장 낮고, 대전(78.9%), 대구(82.6%), 경기(87.4%) 순
 -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88.0%이며, 수도권 83.3%, 남부권 92.7%, 동남권 91.7% 수준

〈그림 III-18〉 지역별 주택보급률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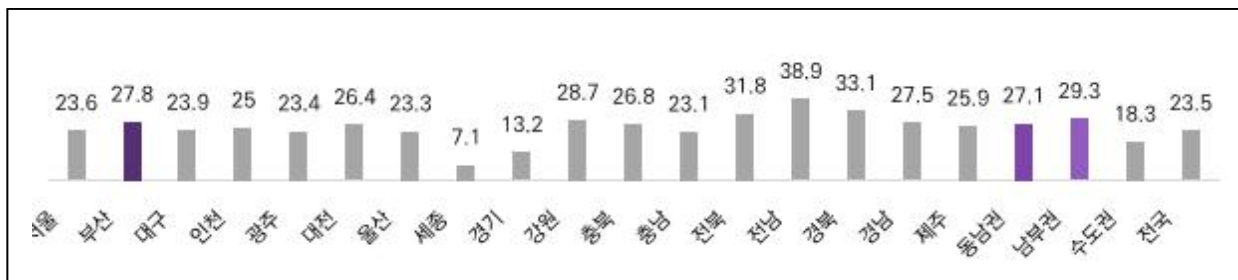
(단위 : %)



- 2022년 기준 부산의 노후주택 비율⁴³⁾은 27.8%로 전남(38.9%), 경북(33.1%), 전북(31.8%), 강원(28.7%)에 이어 높은 수준
 - 신도시가 많은 세종(7.1%)과 경기(13.2%)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노후주택 비율
 - 전국의 노후주택 비율은 23.5%이며, 수도권 18.3%, 남부권 29.3%, 동남권 27.1% 수준

〈그림 III-19〉 지역별 노후주택 비율 (202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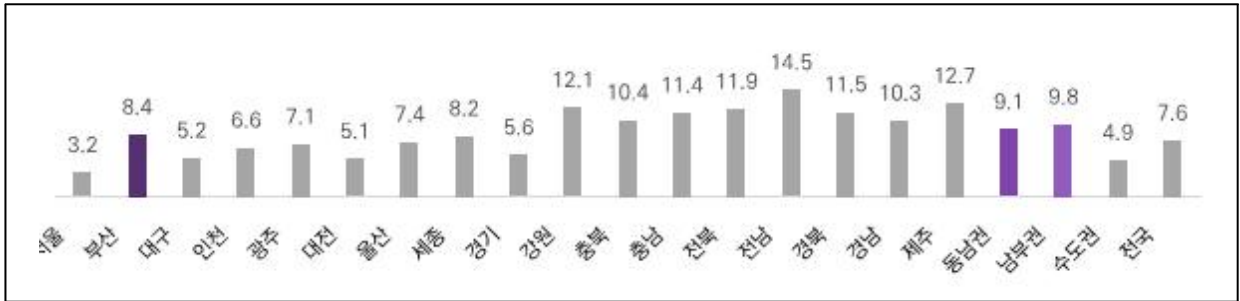


43)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

- 2022년 기준 부산의 빈집 비율은 8.4%로 전국 7.6% 대비 높은 수준
 - 지역별로 서울(3.2%), 대전(5.1%), 대구(5.2%), 경기(5.6%) 순으로 낮은 빈집 비율

〈그림 Ⅲ-20〉 지역별 빈집 비율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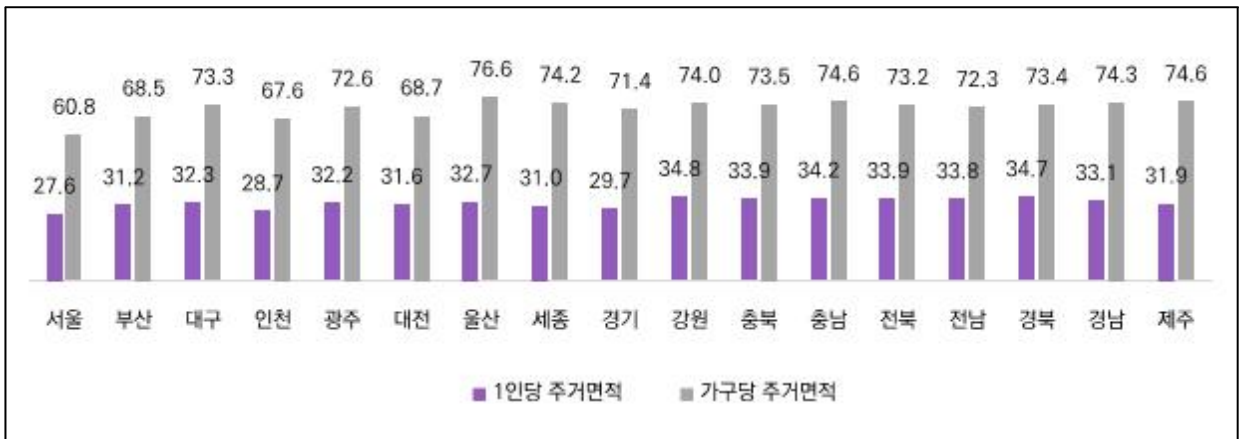
(단위 : %)



- 2022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주거면적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좁은 수준
 - 부산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68.5㎡,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은 31.2㎡로,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세종에 이어 5번째로 좁은 수준
 - 부산의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65㎡, 일본 40.2㎡에 비하여 못 미치는 수준

〈그림 Ⅲ-21〉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및 가구당 주거면적 (2022년)

(단위 : ㎡)



(2) 편의시설

- 부산의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018년 6.9천㎡로 전국(10.1천㎡)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 기준 17.3천㎡로 증가하여 전국(12.3천㎡) 평균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최근 부산시가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표 III-3〉 부산광역시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2018-2022년)

(단위 : 천㎡,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10.1(100.0)	10.5(100.0)	11.0(100.0)	11.6(100.0)	12.3(100.0)
부산	6.9	12.2	11.6	13.5	17.3

- 부산의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는 2017년 95.5개에서 2021년 103.4개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체육시설수 비율도 2017년 84% 수준에서 2021년 93.1%로 증가

〈표 III-4〉 부산광역시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2017-2021년)

(단위 : 개, %)

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113.7(100.0)	109.7(100.0)	102.1(100.0)	100.9(100.0)	111.1(100.0)
부산	95.5(84.0)	90.3(82.3)	89.8(88.0)	96.1(95.2)	103.4(93.1)

- 부산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2018년 3.1개에서 2022년 4.3개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비중도 2018년 56.4%에서 2022년 68.3%로 10% 이상 대폭 증가

〈표 III-5〉 부산광역시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2018-2022년)

(단위 : 개, %)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5.5(100.0)	5.8(100.0)	6.0(100.0)	6.1(100.0)	6.3(100.0)
부산	3.1(56.4)	3.6(62.1)	3.9(65.0)	4.1(67.2)	4.3(68.3)

- 부산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2018년 20.5개에서 2022년 21.0개로 증가하였으며, 부산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수는 2018년 3.3명에서 2022년 3.6명

〈표 Ⅲ-6〉 부산광역시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및 의사수 (2018-2022년)

(단위 : 개, 명, %)

구분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병상수	전국	13.6(100.0)	13.6(100.0)	13.8(100.0)	14.0(100.0)	14.1(100.0)
	부산	20.5(150.7)	20.5(150.7)	20.9(151.4)	21.1(150.7)	21.0(148.9)
의사수	전국	2.9(100.0)	3.0(100.0)	3.0(100.0)	3.1(100.0)	3.2(100.0)
	부산	3.3(113.8)	3.4(113.3)	3.4(113.3)	3.5(112.9)	3.6(112.5)

- 부산시 구·군별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병원이 위치한 서구 지역의 병상수와 의사수가 높은 수준

〈표 Ⅲ-7〉 부산광역시 구·군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및 의사수 (2020-2022년)

(단위 : 개, 명)

구분	병상수			의사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산전체	20.9	21.1	21.0	3.4	3.5	3.6
중구	42.4	42.9	46.8	7.2	7.1	7.4
서구	50.2	50.4	50.2	13.7	14.0	14.0
동구	33.6	33.6	33.6	5.4	5.3	5.6
영도구	17.1	17.5	17.7	2.5	2.4	2.4
부산진구	21.0	21.3	21.2	5.3	5.5	5.5
동래구	22.4	24.1	24.6	3.4	3.5	3.6
남구	12.6	13.0	13.3	2.3	2.4	2.5
북구	16.1	16.2	15.7	2.5	2.5	2.6
해운대구	14.9	15.0	15.2	3.4	3.5	3.7
사하구	23.5	24.0	24.0	2.3	2.4	2.4
금정구	25.2	24.2	24.2	2.4	2.5	2.5
강서구	3.6	3.6	3.8	1.2	1.2	1.3
연제구	23.4	24.2	23.7	3.1	3.2	3.3
수영구	23.9	24.6	21.9	3.4	3.8	3.7
사상구	30.7	31.2	31.2	2.6	2.7	2.7
기장군	10.0	9.7	9.9	1.8	1.9	2.0

(3) 15분 도시를 위한 도시 인프라 접근성⁴⁴⁾

- 2021년 주요 영역별 시설 접근성을 살펴보면, 부산은 교육·여가 시설 접근성이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하나 서울보다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
 - 하지만 공연문화시설(4.86km)을 제외하면 타 지역에 비해 교육·여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3km 미만으로 일관

〈표 III-8〉 지역별 교육·여가 시설 접근성 (2021년)

(단위 : km)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공연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생활권공원
전국	4.35	3.45	3.21	4.64	7.36	3.95	5.58
수도권	2.74	2.45	2.22	2.81	5.20	3.09	3.67
남부권	4.62	3.54	3.32	4.95	7.99	4.36	5.81
동남권	4.27	3.47	3.18	4.34	7.28	3.79	4.67
서울	0.87	1.18	1.20	1.04	2.02	1.91	1.02
부산	2.09	2.39	2.19	2.24	4.86	2.20	2.06
대구	2.94	2.59	2.60	3.35	5.56	3.60	3.22
인천	4.01	3.06	2.50	3.54	6.85	3.15	5.49
광주	2.42	2.18	2.19	2.30	5.76	2.88	2.01
대전	2.94	2.43	2.43	3.20	4.65	3.81	2.75
울산	4.27	3.61	3.37	4.93	7.17	3.16	3.93
세종	4.01	3.29	3.25	4.57	6.13	3.16	4.45
경기	3.35	3.11	2.95	3.86	6.72	4.21	4.50
강원	7.53	6.27	5.31	8.83	12.81	6.16	10.15
충북	6.15	4.51	4.33	6.31	9.55	3.14	7.21
충남	5.03	3.51	3.46	5.20	8.88	4.05	7.13
전북	5.4	3.49	3.34	5.24	9.50	4.48	8.38
전남	6.01	4.25	4.03	7.32	9.96	4.98	8.92
경북	7.39	5.40	4.82	8.35	11.29	7.54	9.91
경남	6.44	4.41	3.99	5.86	9.82	6.01	8.02
제주	3.05	2.94	2.67	2.73	3.61	2.74	5.63

44)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2021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작성

- 복지·보건·의료 인프라의 경우에도 부산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우수한 접근성을 보이며 서울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
 - 다만, 의원(2.72km)을 제외하면 교육·여가 시설보다 복지·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낮은 수준

〈표 Ⅲ-9〉 지역별 복지·보건·의료 시설 접근성 (2021년)

(단위 : km)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건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전국	14.34	12.55	3.66	5.30	11.45	15.33	12.15
수도권	12.67	7.66	3.39	3.73	6.74	9.80	8.78
남부권	15.04	11.81	3.77	5.26	10.13	15.77	11.40
동남권	9.57	10.64	3.95	4.81	8.75	14.92	9.94
서울	2.25	2.20	3.06	0.98	1.96	2.77	2.87
부산	5.27	4.49	3.52	2.72	4.44	6.83	6.47
대구	6.88	7.96	4.49	3.57	5.31	9.42	8.73
인천	20.83	9.97	3.42	5.66	9.18	11.07	10.79
광주	6.26	6.30	3.66	2.87	4.57	5.83	5.93
대전	4.98	6.42	3.83	3.16	5.70	6.48	6.48
울산	8.79	8.17	4.80	4.76	8.95	8.85	9.17
세종	9.64	10.49	3.20	4.70	13.12	10.45	10.45
경기	14.94	10.81	3.69	4.55	9.09	15.55	12.69
강원	23.77	28.99	5.08	10.75	22.60	29.28	21.36
충북	21.96	13.24	3.45	7.68	14.86	21.72	16.81
충남	16.40	14.74	3.09	6.33	18.40	17.56	14.31
전북	19.72	13.39	2.97	6.38	13.63	20.36	13.28
전남	25.10	15.50	3.29	5.95	13.79	20.44	14.29
경북	25.48	19.40	3.91	8.87	17.50	25.35	19.17
경남	14.66	19.27	3.53	6.95	12.86	29.08	14.19
제주	9.31	21.95	3.29	4.21	18.62	19.64	19.60

- 부산의 안전·교통 시설 접근성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우수하나 고속도로, 고속·고속화철도의 접근성은 서울, 광주, 대전 다음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이는 도심에서 외곽으로의 연결 교통망이 아직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특히, 가덕도신공항 개항 후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의 기능을 위해서는 부산과 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확충 시급

〈표 Ⅲ-10〉 지역별 안전·교통 시설 접근성 (2021년)

(단위 : km)

구분	경찰서	소방서	고속도로	고속·고속화철도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전국	4.71	6.52	14.15	26.26	4.17	3.04
수도권	2.96	4.45	10.36	23.69	2.54	1.88
남부권	4.45	6.84	13.21	24.76	4.19	3.19
동남권	4.48	5.89	11.24	24.27	2.98	2.96
서울	1.46	1.86	4.12	6.83	0.79	0.92
부산	2.85	3.64	8.99	15.91	1.67	1.96
대구	3.37	3.83	8.42	17.54	2.42	1.78
인천	3.21	5.33	17.32	37.01	2.38	1.94
광주	2.75	4.37	6.24	12.17	3.21	1.60
대전	4.37	4.32	6.82	9.58	2.17	2.39
울산	4.85	5.63	9.25	21.9	3.04	2.89
세종	5.01	5.23	12.95	16.86	4.62	3.59
경기	4.22	6.16	9.65	27.22	4.44	2.77
강원	8.33	10.92	21.87	43.89	8.15	5.50
충북	6.55	9.59	14.08	37.08	7.79	4.19
충남	5.72	7.20	17.00	43.57	4.52	3.78
전북	4.57	8.74	14.83	24.94	5.61	4.06
전남	5.31	9.89	21.54	35.38	6.10	4.06
경북	6.18	10.18	20.91	35.21	7.23	5.15
경남	5.74	8.40	15.49	35.01	4.24	4.03
제주	5.66	5.52	31.05	-	2.50	1.01

4) 글로벌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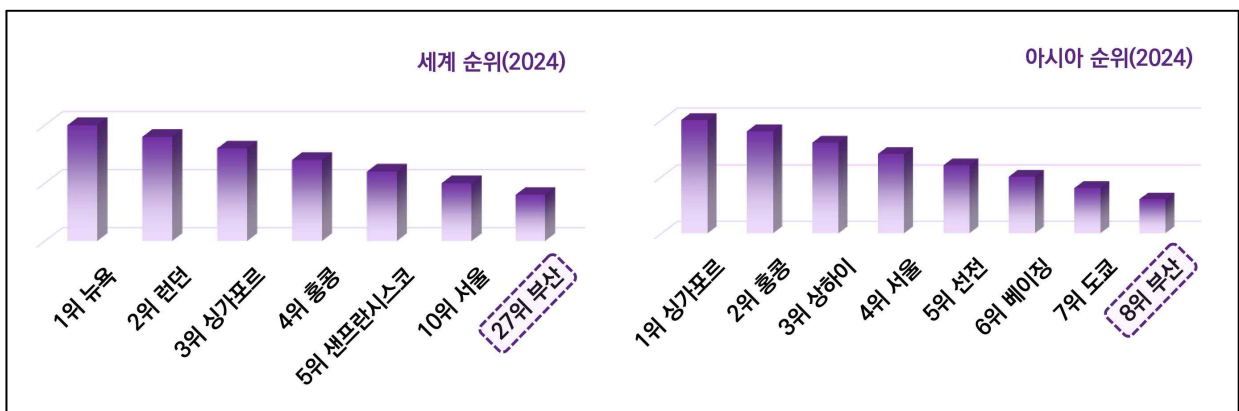
(1)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GFCI)⁴⁵⁾

-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GFCI)는 영국의 Z/Yen과 중국 선전의 China Development Institute(CDI)가 협력하여 전 세계 121개 금융센터의 미래 경쟁력 평가 및 순위 제공
- 부산은 2024년 세계 27위, 아시아 8위로 지난해 하반기 평가보다 6계단 상승하였으며, 평가항목 전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며 2022년 하반기 29위에 이어 20위권으로 재진입

〈표 III-11〉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

평가내용	도시의 금융 센터 경쟁력 평가
평가기관	Z/Yen, China Development Institute(CDI)
평가항목	5개 분야, 20개 지표 (비즈니스 환경 / 인적자본 / 인프라 / 금융부문 발전 / 평판 등)
평가대상	121개 금융 센터 도시
평가순위	2024년 세계 27위 / 아시아 8위

〈그림 III-22〉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 평가순위



45) 「Z/Yen & CDI(2024.03).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5」를 기반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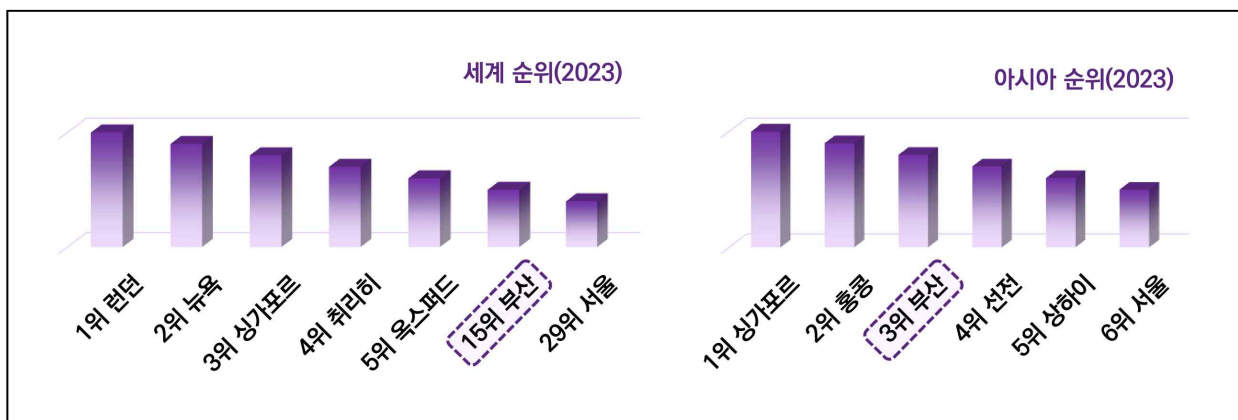
(2) 스마트 센터 지수(SCI)⁴⁶⁾

- 스마트 센터 지수(SCI)는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 Z/Yen이 상업·금융 센터들의 혁신 및 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적 요인, 금융서비스, 평판, 비즈니스 환경, 인적자본, 인프라 6개 분야의 경쟁력 평가와 혁신지원, 창의적 강도, 제공역량 3가지 차원의 평가관점을 통해 글로벌 센터 순위 발표
- 부산은 2023년 세계 15위, 아시아 3위로 처음으로 상위권 진입
 -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적 요인 11위, 비즈니스 환경 11위, 인프라 12위, 평판 15위를 차지하였으며, 블록체인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핀테크 기업 유치 등에 따라 기술 분야에서 성장세

〈표 III-12〉 스마트 센터 지수

평가내용	상업·금융 센터의 혁신 및 기술 역량 평가
평가기관	Z/Yen
평가항목	6개 영역, 24개 지표 (기술적 요인 / 금융서비스 / 평판 / 비즈니스 환경 / 인적자본 / 인프라)
평가대상	131개 상업 및 금융 센터 도시
평가순위	2023년 세계 15위 / 아시아 3위

〈그림 III-23〉 스마트 센터 지수 평가순위



46) 「Z/Yen(2023.11). The Smart Centres Index 8」를 기반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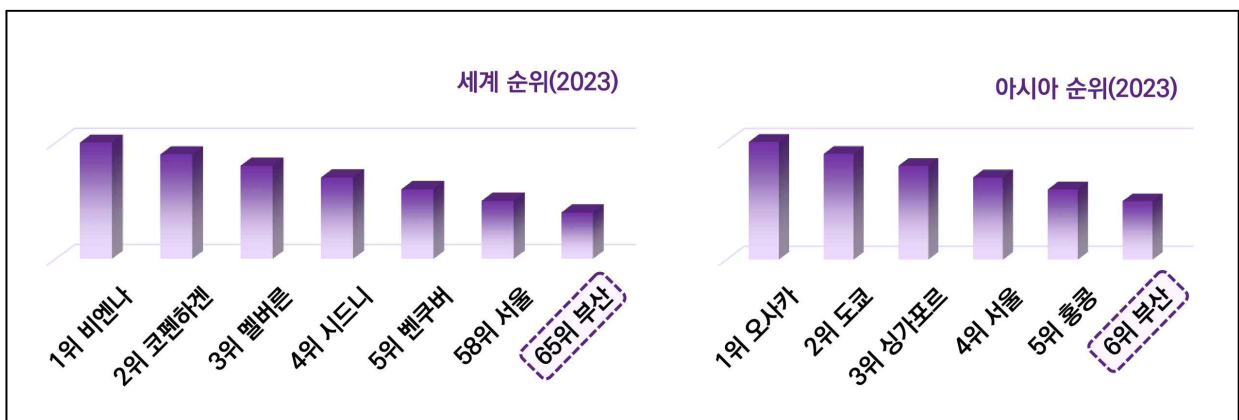
(3) 글로벌 살기 좋은 도시 지수(GLI)⁴⁷⁾

- 글로벌 살기 좋은 도시 지수(GLI)는 영국의 국제 정치·경제 분석 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에서 도시의 생활조건을 평가하는 것으로 안정성, 헬스케어, 문화 및 환경, 교육, 인프라 분야에서 도시의 글로벌 역량 측정
- 부산은 2023년 세계 65위, 종합점수 86.7점(100점 기준)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오사카, 도쿄, 싱가포르, 서울, 홍콩에 이어 6위

〈표 Ⅲ-13〉 글로벌 살기 좋은 도시 지수

평가내용	글로벌 도시의 생활조건 평가
평가기관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평가항목	5개 분야, 30개 지표 (안정성, 헬스케어, 문화 및 환경, 교육, 인프라)
평가대상	173개 도시
평가순위	2023년 세계 65위 / 아시아 6위

〈그림 Ⅲ-24〉 글로벌 살기 좋은 도시 지수 평가순위



47) 「EIU(2023.06).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2023」를 기반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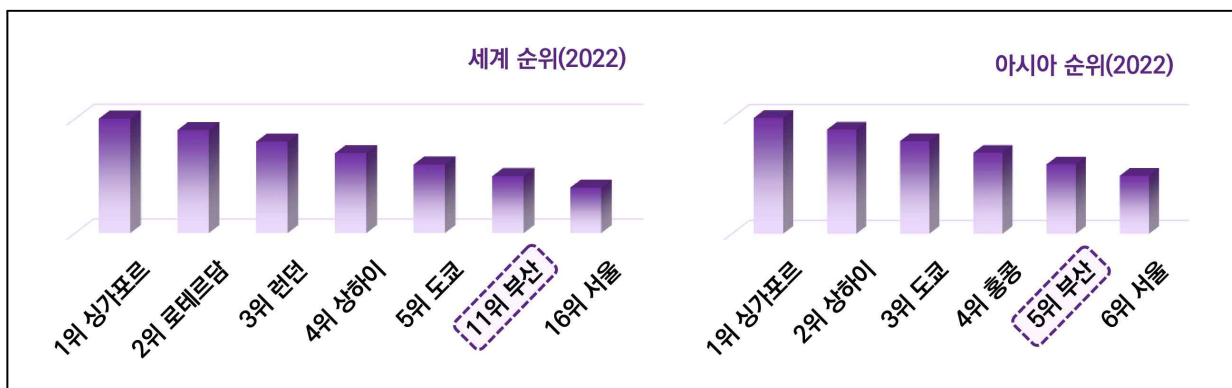
(4) 세계 선진 해양도시 지수(LMC)⁴⁸⁾

- 세계 선진 해양도시(LMC) 지수는 선진 해양도시로서의 위치와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노르웨이의 전문 컨설팅 회사 Menon Economics와 선급협회 Det Norske Veritas(DNV)가 평가
- 부산의 평가순위는 2022년 세계 11위, 아시아 5위로, 특히 해양 금융 및 법률, 해양기술, 항만 및 물류 분야에서 좋은 평가

〈표 III-14〉 세계 선진 해양도시 지수

평가내용	전 세계 해양도시 경쟁력 평가
평가기관	Menon Economics, Det Norske Veritas(DNV)
평가항목	5개 분야, 40개 지표 (해운 / 해양 금융 및 법률 / 해양기술 / 항만 및 물류 / 매력도 및 경쟁력)
평가대상	약 15,000개 이상의 해양도시
평가순위	2022년 세계 11위 / 아시아 5위

〈그림 III-25〉 세계 선진 해양도시 지수 평가순위



48) 「Menon & DNV(2022). The Leading Maritime Cities of the world 2022」를 기반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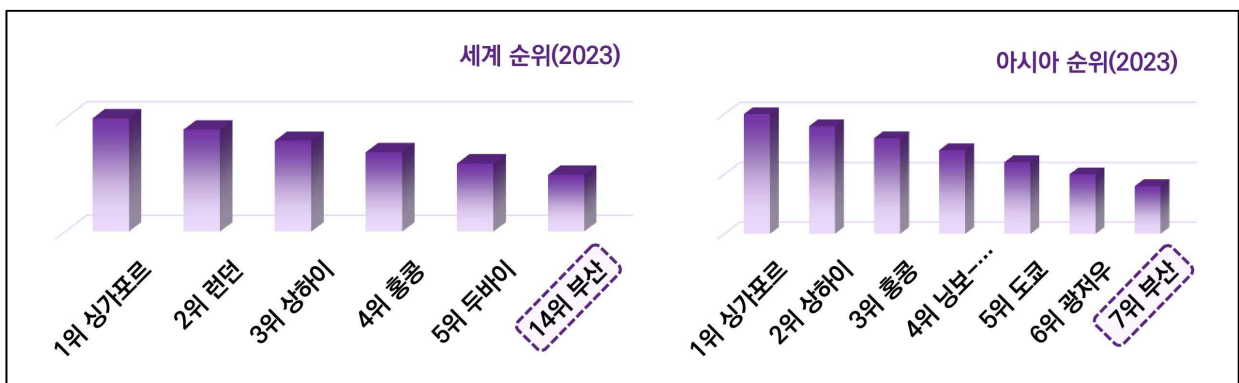
(5) 국제 해운중심 개발 지수(ISCDI)⁴⁹⁾

- 국제 해운중심 개발 지수(ISCDI)는 국제 해운중심 도시에 대한 평가로 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CEIS)와 Baltic Exchange 가 2014년부터 매년 1회, 약 40여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상위 20개 도시에 대한 순위를 발표함. 평가는 항만요인, 해운서비스, 일반 환경 분야에서 세부 지표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산정
- 부산은 2023년 세계 14위로 2022년 16위 보다 두 계단 상승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Ningbo-저우산, 도쿄, 광저우 다음으로 7위

〈표 III-15〉 국제 해운중심 개발 지수

평가내용	국제 해운중심 도시 평가
평가기관	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CEIS), Baltic Exchange
평가항목	3개 분야, 16개 지표 (항만요인 / 해운서비스 / 일반 환경)
평가대상	약 40여개의 해운 관련 도시
평가순위	2023년 세계 14위 / 아시아 7위

〈그림 III-26〉 국제 해운중심 개발 지수 평가순위



49) 「CEIS & Baltic Exchange(2023). 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ers Development Index Report 2023」를 기반으로 작성

02

부산 시민·전문가 조사

1) 조사 개요

- 부산지역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산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인식, 가치관 등을 확인하여 향후 부산의 미래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과제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부산 시민·전문가 조사 실시
- 조사 기간은 2022년 12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 1,600명과 분야별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진행
 - 조사에 응답한 1,600명의 시민 중 10대는 25.0%, 20대 13.3%, 30대 12.3%, 40대 15.4%, 50대 16.9%, 60대 10.8%, 70대 이상 6.3%로 부산에 대한 세대별 인식 확인
 - 부산지역의 전문가는 총 150명이 참여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과학/기술 37.3%, 도시 22.7%, 사회/문화 18.7%, 복지 6.0%, 경제 4.7%, 여성 3.3%, 환경 3.3%, 기타 4.0%로 부산의 현재와 미래, 가치관 등에 대해 평가
- 조사의 주요 내용은 부산의 현재, 미래발전의 잠재력,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 미래 영향력과 전망 등에 대한 부산 시민 및 전문가 평가로 구성

〈표 III-16〉 부산 시민·전문가 조사 개요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부산의 미래비전 및 전략 수립 마련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2월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민 1,600명(10대~70대) ● 부산지역 분야별 전문가 1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유형별 :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시민단체 등 - 전공 분야별 : 도시, 과학/기술, 사회/문화, 경제, 복지, 여성, 환경 등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및 설문조사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현재에 대한 평가 ● 미래발전의 잠재력과 인식 ● 사회인식과 가치관 ● 미래의 영향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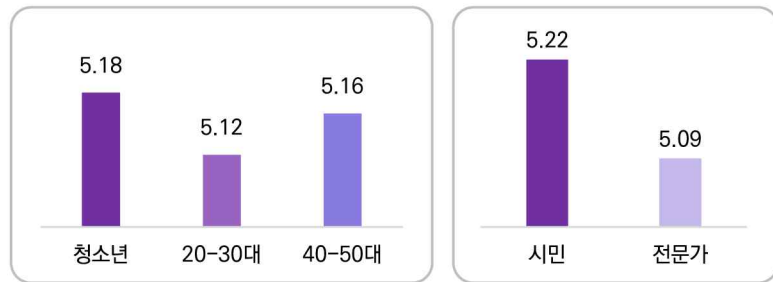
2) 조사 분석결과

(1) 현재에 대한 평가

-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부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청소년(5.18점), 20~30대(5.12점), 40~50대(5.16점) 순
- 시민과 전문가 응답에서는 시민(5.22점)이 전문가(5.09점)보다 조금 높게 살기 좋은 도시로서 부산 평가

〈그림 Ⅲ-27〉 살기 좋은 도시로서 부산에 대한 평가 (6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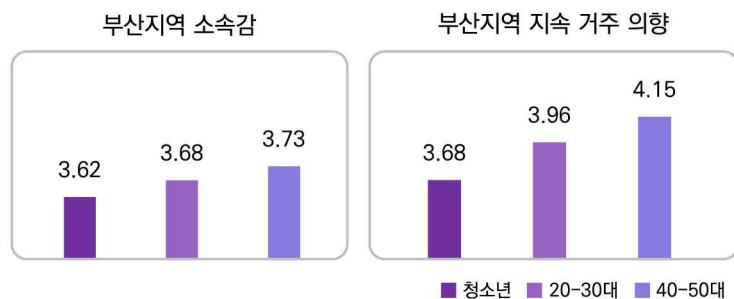
(단위 : 점)



- 부산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지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 부산지역 소속감 점수는 10대 청소년 3.62점, 20~30대 3.68점, 40~50대 3.73점 수준
 - 부산지역 지속 거주 의향 점수는 청소년 3.68점, 20~30대 3.96점, 40~50대 4.15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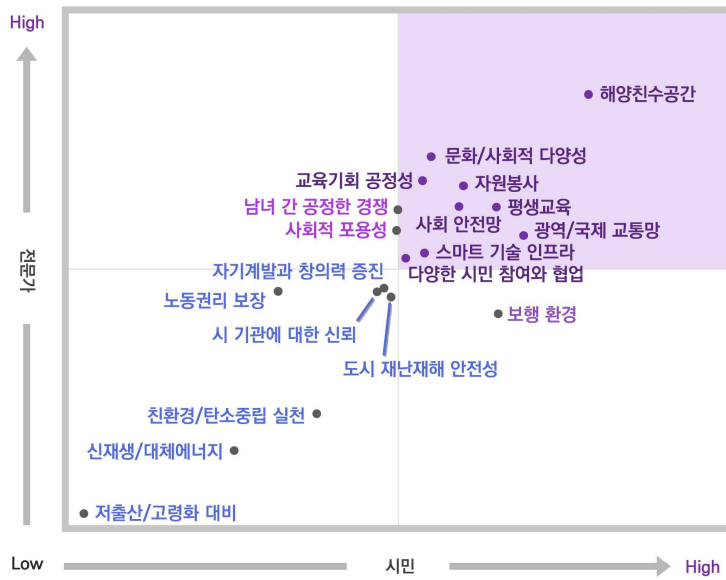
〈그림 Ⅲ-28〉 부산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지속 거주 의향 (5점 척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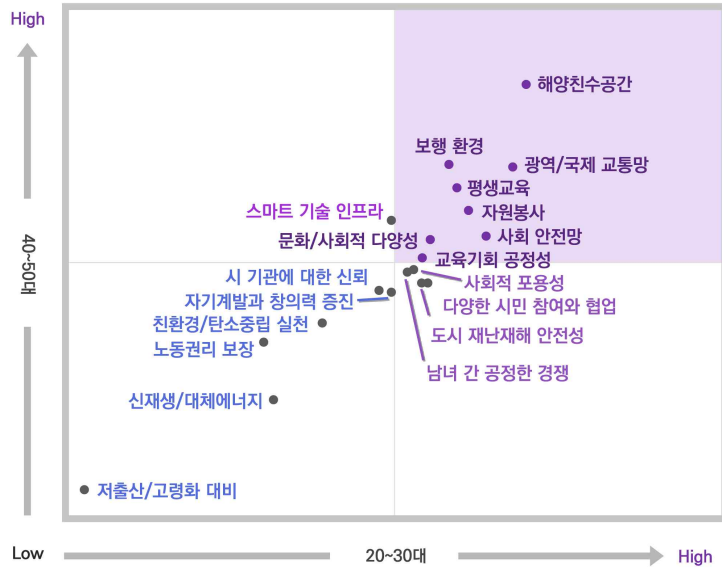
- 부산지역 현재 평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시민과 전문가 모두 해양 친수공간 조성 수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비 수준과 신재생/대체에너지 수준, 친환경/탄소중립 실천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 전문가는 시민에 비해 남녀 간 공정한 경쟁 수준과 사회적 포용성 수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시민은 전문가보다 보행 환경 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

〈그림 III-29〉 부산지역 현재 평가 - 시민·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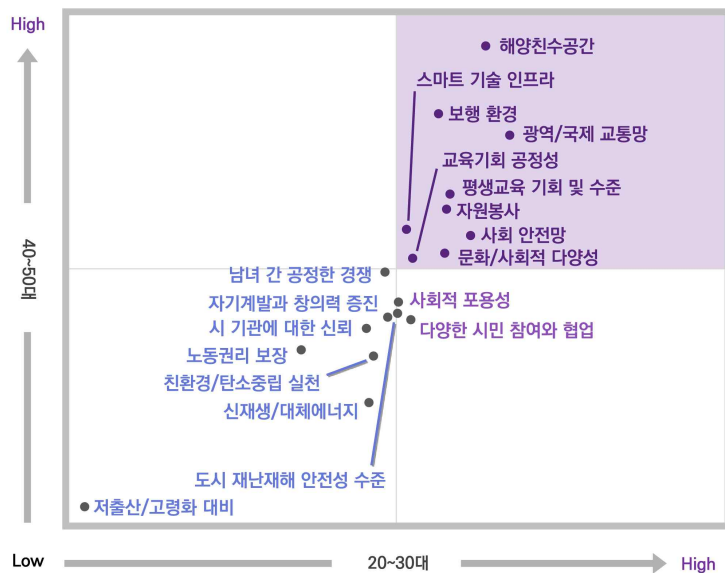
- 부산지역 현재 평가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는 스마트 기술 인프라 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한 반면, 20~30대는 낮다고 인식
- 사회적 포용성 수준과 다양한 시민 참여와 협업 수준, 도시 재난재해 안전성 수준, 남녀 간 공정한 경쟁 수준에 대해서는 20~30대는 높게 인식하는 반면, 40~50대는 낮게 평가

<그림 III-30> 부산지역 현재 평가 - 미래세대·기성세대



- 부산지역의 미래 대비정도에서는 현재 평가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사회 포용성 수준과 다양한 시민 참여·협업 수준에 대해 20~30대는 높게, 40~50대는 낮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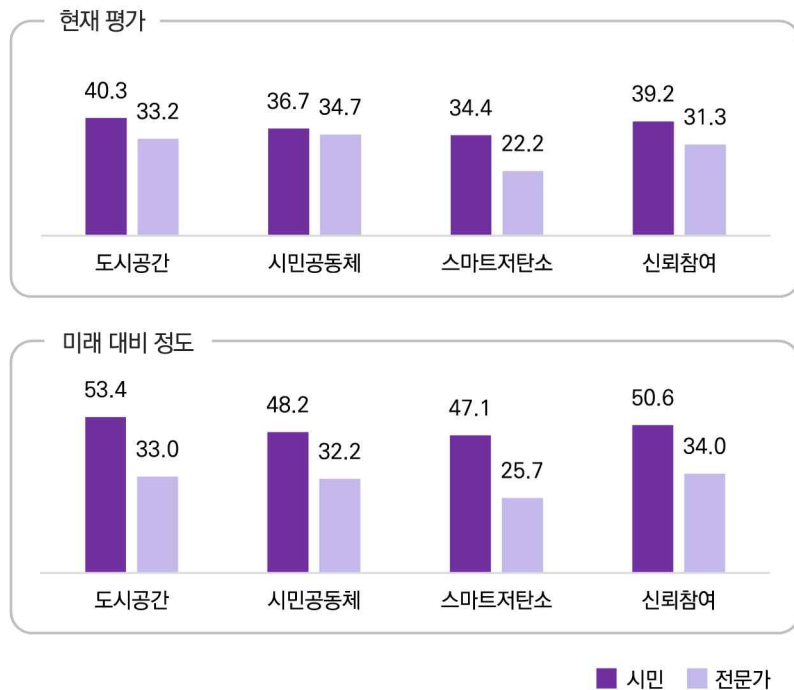
<그림 III-31> 부산지역 미래 대비정도



- 부산의 현재 평가와 미래 대비 정도의 긍정 평가 비중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현재 평가에서 시민은 도시공간(40.3%)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시민공동체(34.7%)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미래 대비 정도에서는 시민(53.4%)과 전문가(33.0%) 모두 도시공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 부산지역의 현재 평가 및 미래 대비 정도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긍정 평가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부산시민이 전문가에 비해 현재보다 미래 대비 정도를 높게 평가

〈그림 III-32〉 부산지역 현재 평가 및 미래 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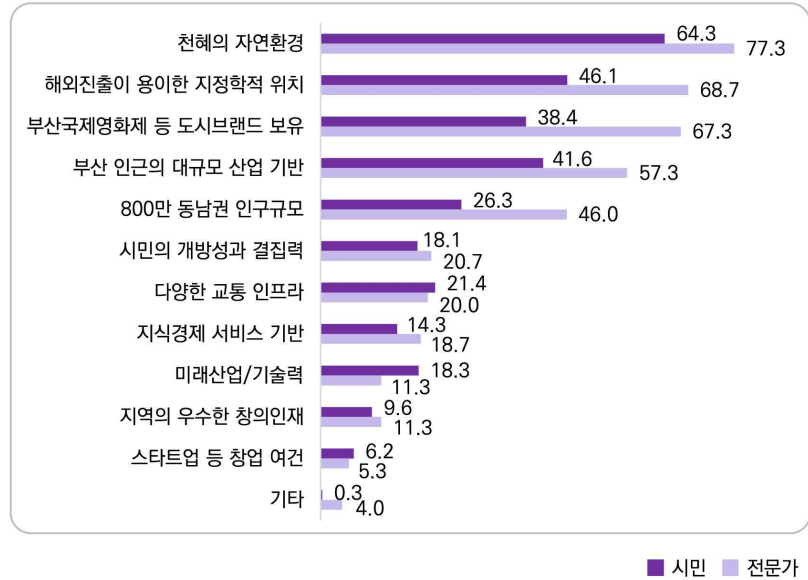
(단위 : %)



- 부산 발전을 위한 잠재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외진출이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장 높은 잠재력으로 평가하였으며, 세 번째 잠재력에 대해 시민은 부산 인근의 대규모 산업 기반, 전문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도시브랜드 보유라고 평가

〈그림 Ⅲ-33〉 부산지역 현재 평가 및 미래 대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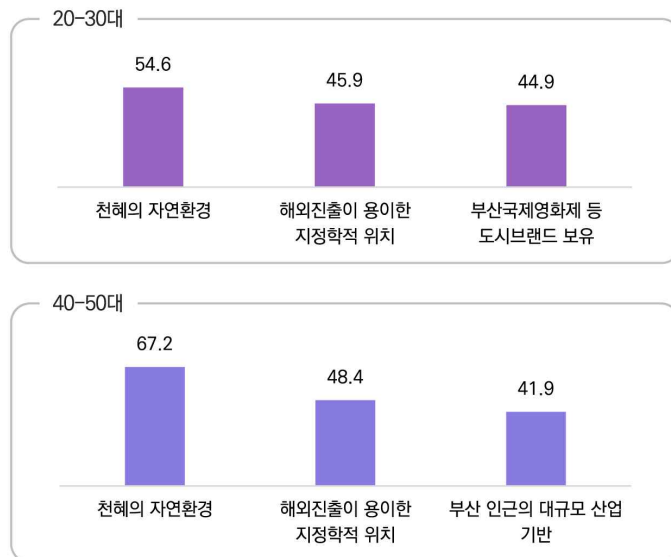
(단위 : %)



- 세대별로는 20~30대와 40~50대가 공통적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해외진출이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를 2순위로 높게 평가
 - 다만, 20~30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도시브랜드 보유, 40~50대는 부산 인근의 대규모 산업 기반을 3순위 잠재력으로 평가

〈그림 Ⅲ-34〉 부산 발전을 위한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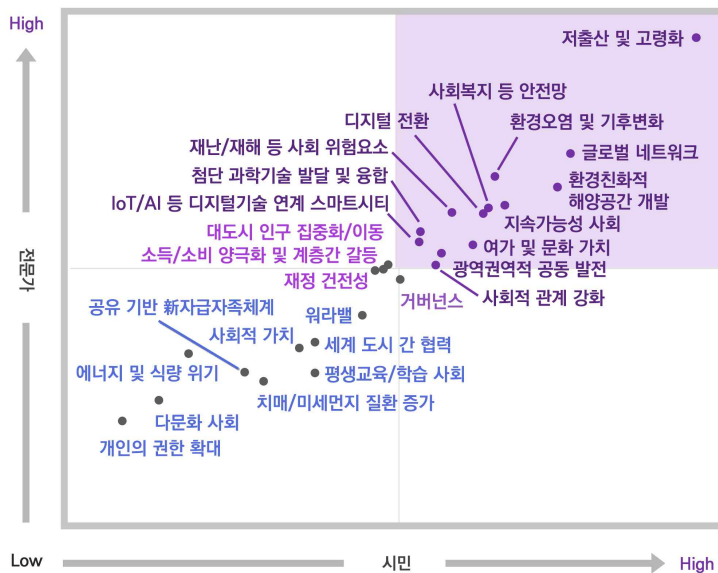
(단위 : %)



(2) 미래에 대한 평가

- 부산 발전을 위한 현재 중요도 및 미래 영향력 종합평가에서 시민과 전문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여가 및 문화 가치, 사회복지 등 안전망,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사회 위험요소, 첨단 과학기술 발달 및 융합, 디지털 전환, 사회적 관계 강화, 지속가능성 사회, 광역 권역적 공동 발전, 글로벌 네트워크, IoT/AI 등 디지털기술 연계 스마트시티, 환경친화적 해양공간 개발 등이 현재에도 중요하면서 미래에도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10대)과 미래세대(20~30대), 기성세대(40대~50대)가 공통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사회복지 등 안전망에 대해 높게 평가
 - 특히, 청소년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 및 융합, 재난/재해 등 사회 위험요소, 여가 및 문화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20~30대는 여가 및 문화가치와 소득/소비 양극화 및 계층간 갈등, 40~50대는 소득/소비 양극화 및 계층간 갈등, 재난/재해 등 사회 위험요소, 디지털 전환에 대해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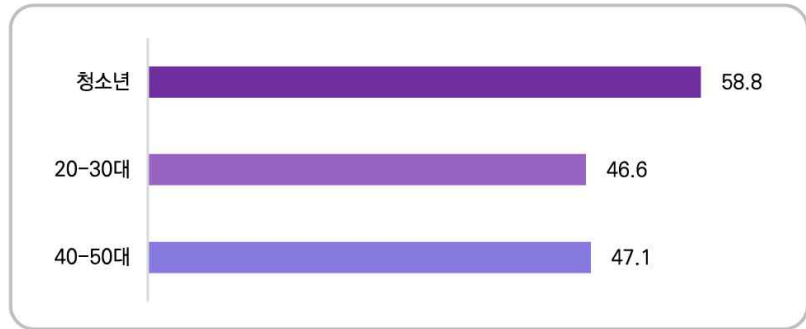
〈그림 III-35〉 현재 중요도 및 미래 영향력



- 부산의 30년 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대 청소년의 평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비율로 높게 평가

〈그림 III-36〉 부산의 발전 가능성 (5점 척도, 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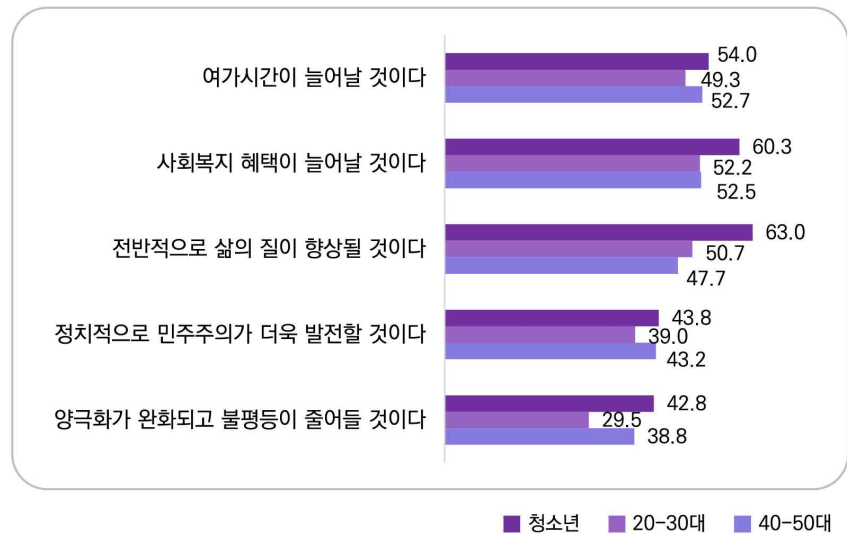
(단위 : %)



- 부산의 30년 뒤 미래 평가에 대해 10대 청소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30대는 다른 세대보다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과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 40~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부정적으로 평가

〈그림 III-37〉 부산의 30년 뒤 미래 평가 (5점 척도, 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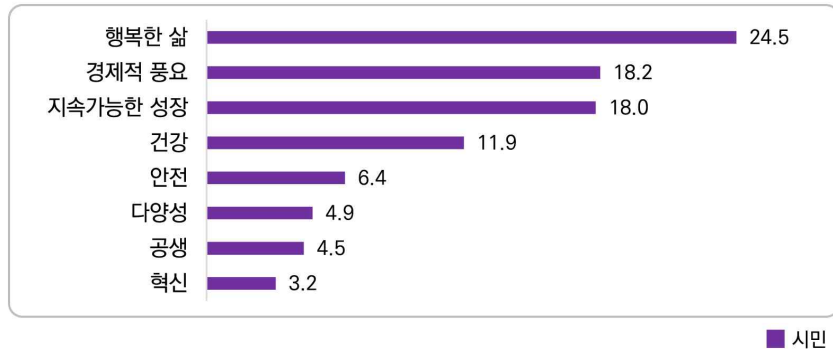
(단위 : %)



- 부산시민들의 2050년 미래 지향 가치는 행복한 삶(24.5%), 경제적 풍요(18.2%), 지속가능한 성장(18.0%), 건강(11.9%), 안전(6.4%), 다양성(4.9%), 공생(4.5%), 혁신(3.2%) 순
- 모든 세대가 2050년 부산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행복한 삶, 경제적 풍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택

〈그림 III-38〉 2050 부산시민의 미래 지향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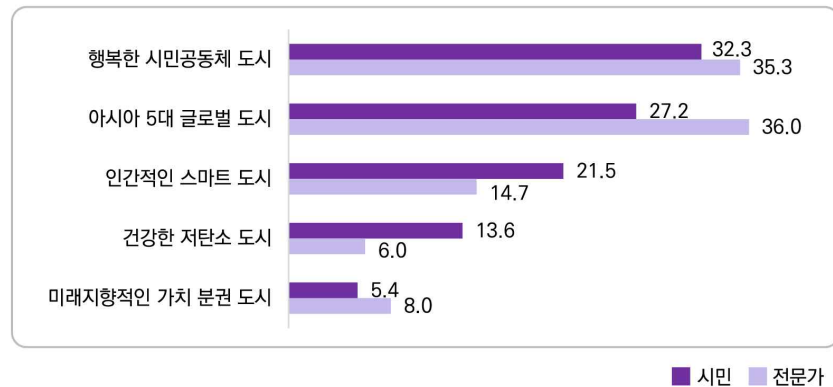
(단위 : %)



- 부산시민이 전망하는 2050년 부산의 미래상을 살펴보면, 행복한 시민 공동체 도시(32.3%), 아시아 5대 글로벌 도시(27.2%), 인간적인 스마트 도시(21.5%), 건강한 저탄소 도시(13.6%), 미래지향적인 자치분권 도시(5.4%)의 순
- 반면, 전문가들은 아시아 5대 글로벌 도시(36.0%), 행복한 시민공동체 도시(35.3%), 인간적인 스마트 도시(14.7%), 미래지향적인 자치분권 도시(8.0%), 건강한 저탄소 도시(6.0%) 순으로 전망

〈그림 III-39〉 2050 부산의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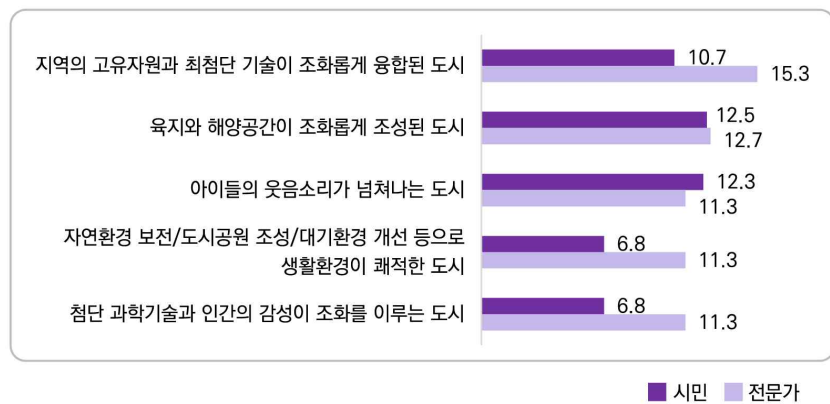
(단위 : %)



- 시민과 전문가가 희망하는 2050년 부산의 도시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면, 시민은 육지와 해양공간이 조화롭게 조성된 도시를 가장 많이 희망하며, 전문가는 지역의 고유자원과 최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융합된 도시를 가장 많이 희망

〈그림 Ⅲ-40〉 2050 부산 도시 이미지 (1순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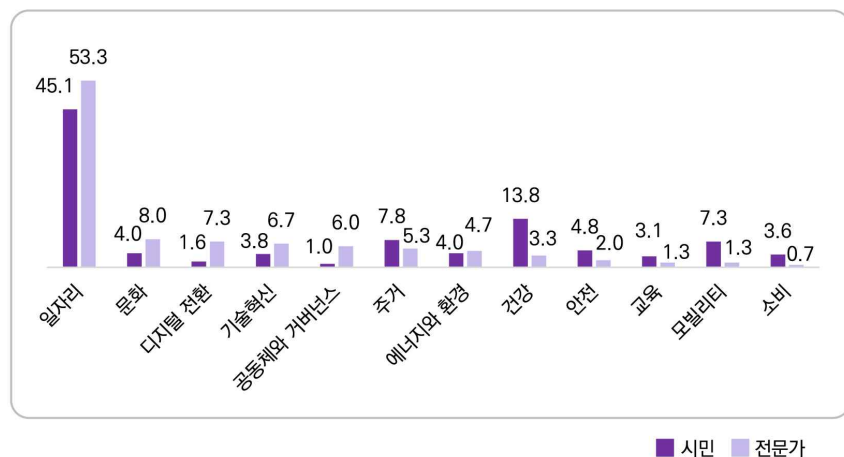
(단위 : %)



- 2050년 부산 미래를 위한 중점 실행 분야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를 선정
- 전문가는 일자리(53.3%), 문화(8.0%), 디지털 전환(7.3%)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시민은 일자리(45.1%), 건강(13.8%), 주거(7.8%) 순으로 평가

〈그림 Ⅲ-41〉 2050 부산 미래를 위한 중점 실행 분야 (1순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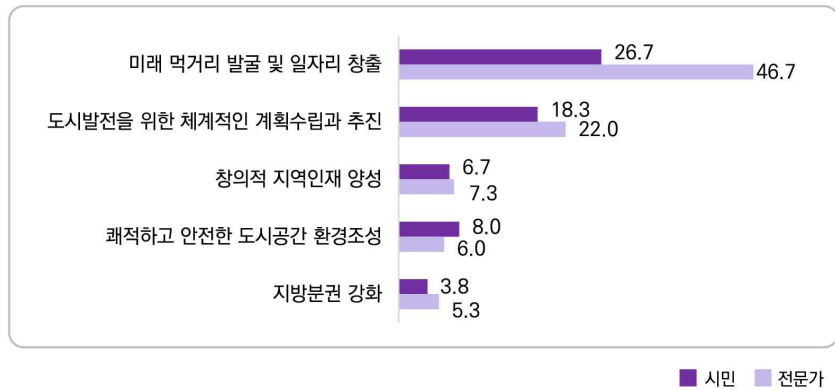
(단위 : %)



- 2050년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는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각각 26.7%, 46.7%로 가장 높게 선정했으며, 도시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을 각각 18.3%, 22.0%로 선정

〈그림 III-42〉 2050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 (1순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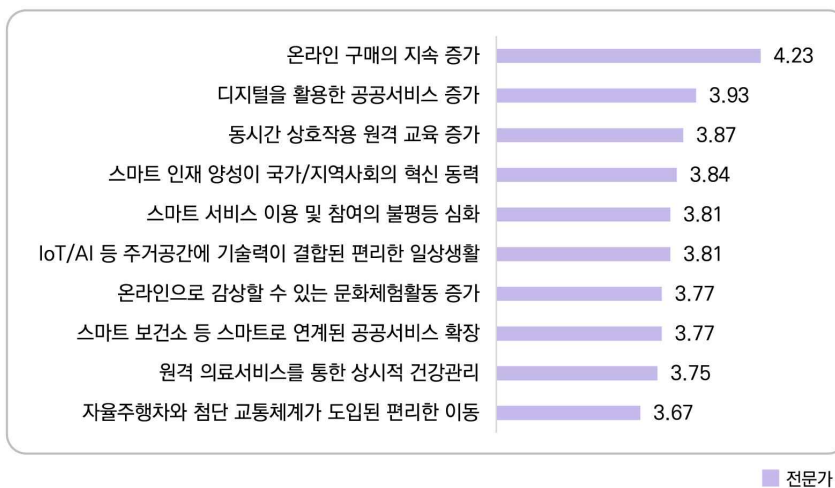
(단위 : %)



- 2050년 기술 발전의 미래 영향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 구매의 지속적 증가와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대, 원격 교육 증가 등 기술 발전이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동시에 스마트 서비스 이용 및 참여에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평가

〈그림 III-43〉 2050 기술 발전의 미래 영향력 (5점 척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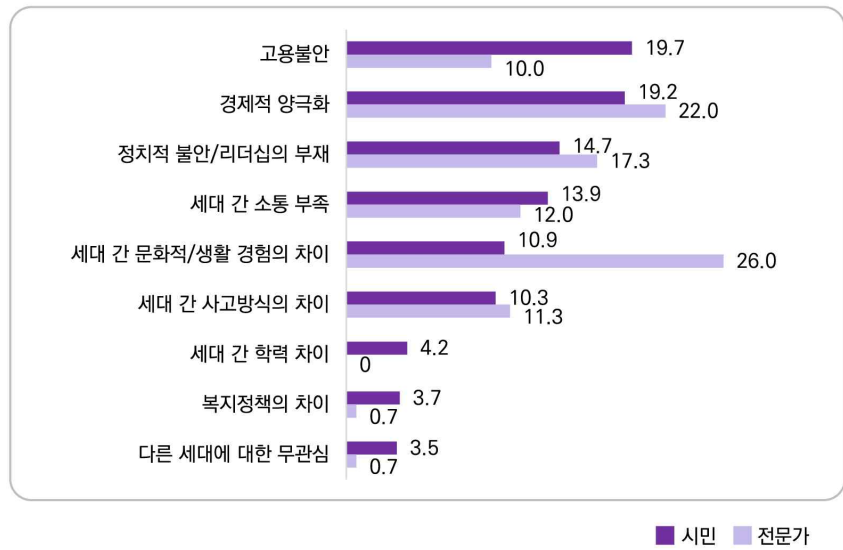


(3) 사회인식 및 가치관

-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에 대해 부산시민의 45.9%가 갈등이 심각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고용불안과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불안/리더십의 부재,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을 선정
- 반면 전문가들은 세대 간 문화적/생활 경험의 차이,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간 소통 부족,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 등을 주요 원인 선정

〈그림 Ⅲ-44〉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 원인 - 시민·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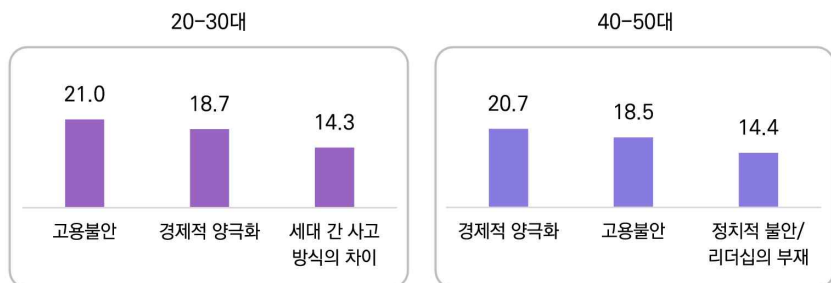
(단위 : %)



- 20~30대는 갈등의 원인을 고용불안,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간 사고방식의 차이 순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40~50대는 경제적 양극화, 고용불안, 정치적 불안/리더십의 부재 순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세대 간 이 느끼는 갈등 원인에도 차이 존재

〈그림 Ⅲ-45〉 부산지역 세대 간 갈등 원인 - 미래세대·기성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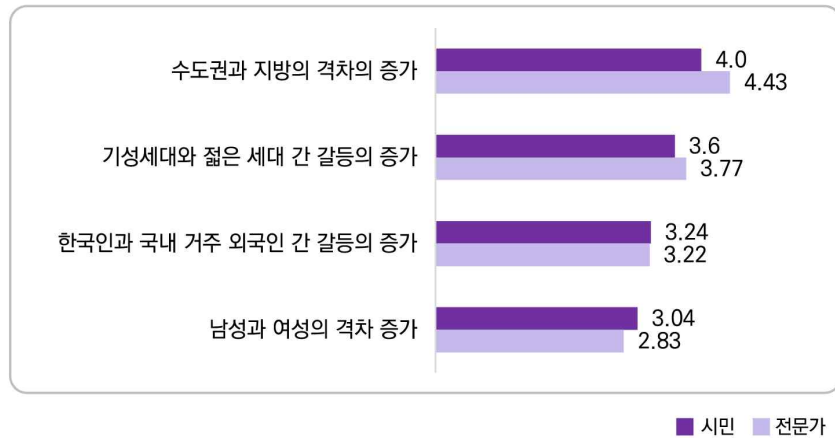
(단위 : %)



- 사회갈등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는 모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질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시민에 비해 수도권-지방의 격차, 기성세대-젊은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 전망

〈그림 III-46〉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 시민·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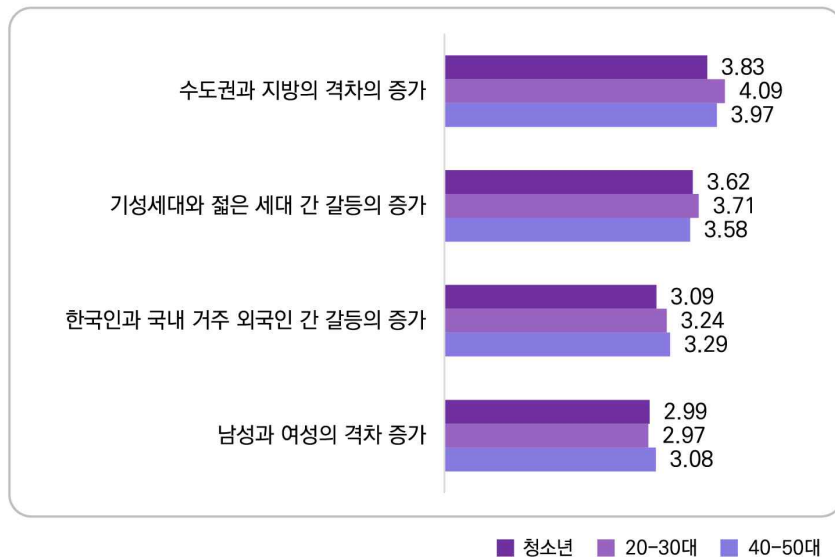
(단위 : 점)



- 사회갈등에 대해 세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다른 세대보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한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40~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성별 격차와 한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그림 III-47〉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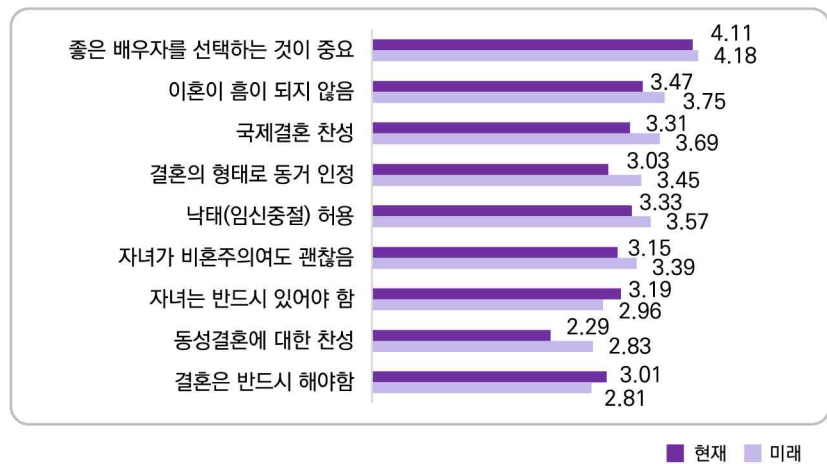
(단위 : 점)



- 결혼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혼, 국제결혼, 동거, 낙태(임신중절), 비혼, 자녀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의무, 동성결혼 등에 대해 현재보다 미래에 더 개방적일 것으로 전망

〈그림 Ⅲ-48〉 결혼 관련 가치관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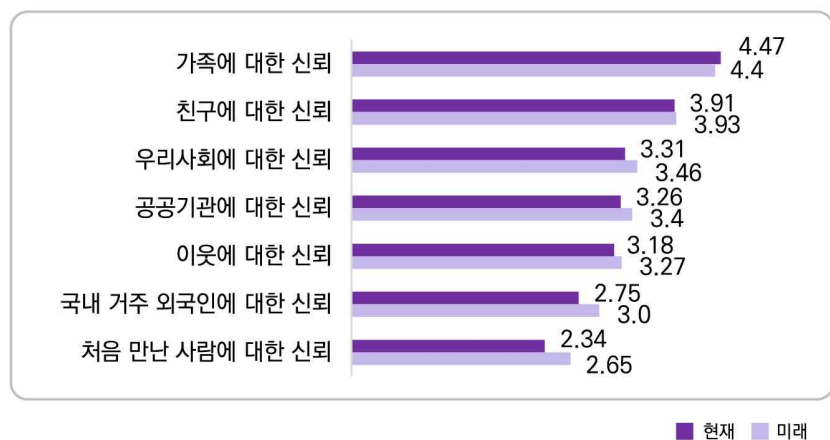
(단위 : 점)



- 신뢰에 대해 시민들은 가족에 대한 신뢰, 친구, 우리사회, 공공기관, 이웃, 국내 거주 외국인,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순으로 높게 인식
- 현재와 비교해 미래에는 가족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고 그 외 친구, 우리사회, 공공기관, 이웃, 국내 거주 외국인,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

〈그림 Ⅲ-49〉 신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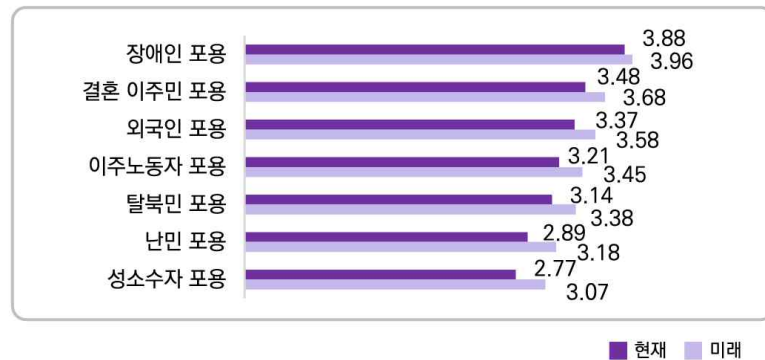
(단위 : 점)



- 부산시민의 다른 집단에 대한 포용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결혼 이주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가 낮은 수준
 - 하지만 미래에는 현재보다 모든 집단에 대해 더 포용적일 것으로 전망

〈그림 III-50〉 포용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부산시민의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해 세대별로 살펴보면, 10대 청소년과 20~30대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더 차이가 나야 한다고 여기며,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인식
 - 10대 청소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보다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20~30대는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
 - 40~50대는 정신적인 만족이나 풍요로움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

〈그림 III-51〉 부산시민의 일반적 가치관 (5점 척도, 4+5점)

(단위 : %)



- 행복에 대해 시민들은 몸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을 갖는 것이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인식
-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지고, 가족 외 다른 공동체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그림 Ⅲ-52〉 행복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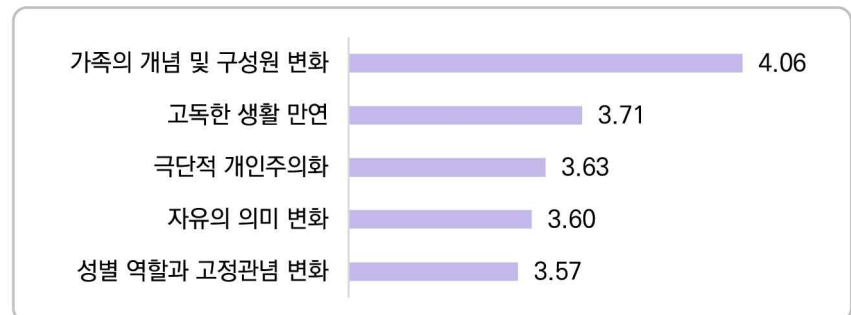


■ 시민

- 2050년 부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족의 개념 및 구성원의 변화, 고독한 생활 만연, 극단적 개인주의화, 자유의 의미 변화, 성별 역할과 고정관념 변화 등이 주요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

〈그림 Ⅲ-53〉 2050 부산의 사회적 변화 (5점 척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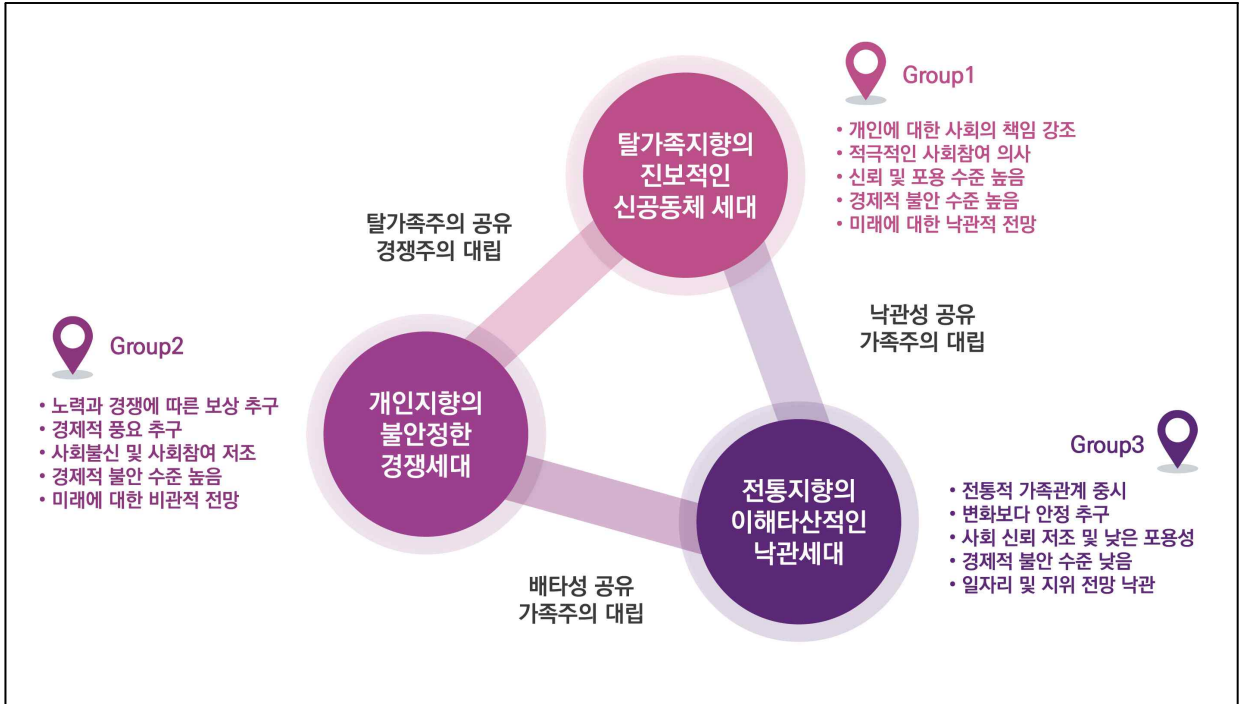


■ 전문가

(4) 2050 미래세대

- 부산시민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2030세대의 응답만 추출하여 부산의 미래세대 유형화 진행
- 분석 결과, 부산의 미래세대는 탈가족지향의 진보적인 신공동체 세대, 개인지향의 불안정한 경쟁세대, 전통지향의 이해타산적인 낙관세대로 유형화
 - (그룹1) 탈가족지향의 진보적인 신공동체 세대는 거주지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높은 수용도, 비혼주의 인정, 사회/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도, 소수집단에 대한 높은 포용도, 경제적 양극화 전망, 일자리/노후에 대한 높은 불안, 지위상승(계층이동)에 대한 낙관적 전망, 적극적 의견 주장, 사회참여, 사회활동 의향 높음, 사회 질서 준수, 현재 행복도 높음,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 가치에 대한 높은 동의 등이 특징
 - (그룹2) 개인지향의 불안정한 경쟁세대는 양극화/불평등 심화 전망, 결혼/출산 동의 정도 낮음, 사회/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도, 소수집단에 대한 낮은 포용도, 경제적 양극화, 일자리/노후에 대한 높은 불안, 지위상승(계층이동)에 대한 비관적 전망, 사회갈등에 대한 높은 민감도, 능력주의, 경쟁주의, 경제적 풍요 지향, 집단 의견 존중, 행복에 대한 관념으로써 물질주의 강조, 현재의 낮은 행복도 대비 미래 행복에 대한 기대(바람), 미래 전망에 있어 '경제적' 측면에 대한 민감도 높음 등이 특징
 - (그룹3) 전통지향의 이해타산적인 낙관세대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낮은 수용도, 비혼주의에 대한 높은 거부감, 사회/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도, 소수집단에 대한 낮은 포용도, 경제적 양극화 전망, 일자리/노후에 대한 긍정적 전망(낙관), 성별 갈등에 민감함 등이 특징

〈그림 III-54〉 2050 부산 미래세대 유형



03

부산시민과 미래대화⁵⁰⁾

1) 미래대화 개요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는 2050 부산 플랜 수립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부산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숙의토론회로 부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중장기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다가올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에 대해 논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 도출 등 시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젝트
-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그동안 ‘미래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며 시민들이 인식하는 미래사회의 모습, 희망, 기대와 걱정, 우려 등이 담긴 미래상에 대해 연구
 -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상상하고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은 기존의 전문가와 정치인,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 요구
-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장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는 시민의 해(the European Year of Citizens)를 맞이해 시민들이 유럽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이를 계기로 2014년부터 유럽의회의 모든 나라에서 시민과의 미래대화를 시작
 - 2015년 53개의 시민대화를 시작으로 2016년 73개, 2017년 317개, 2018년 818개, 2019년 1,200개의 미래대화 진행

〈표 III-17〉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구성

사전기획	미래대화	사후평가 및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23.1.~3. • 내용 - 부산연구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 기획 회의 - 시민 모집 및 홍보 - 사전자료 배포 및 설문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교육 - 사전 리허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3.18.(토). 10:00~17:00 • 장소 : 부산시청 대회의실 • 참여 : 부산시민, 부산시 기획담당관, 부산연구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 • 내용 - 중장기 미래(20년후) 변화 논의 - 미래 대응에 필요한 지역사회 과제 도출 - 4가지 관점의 미래 논의 - 가능미래, 선호미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평가회 2023.3.24.(금). • 간담회 2023.6.2.(금). - 시민 의견 공유 및 수렴 (부산시장 및 담당 공무원 등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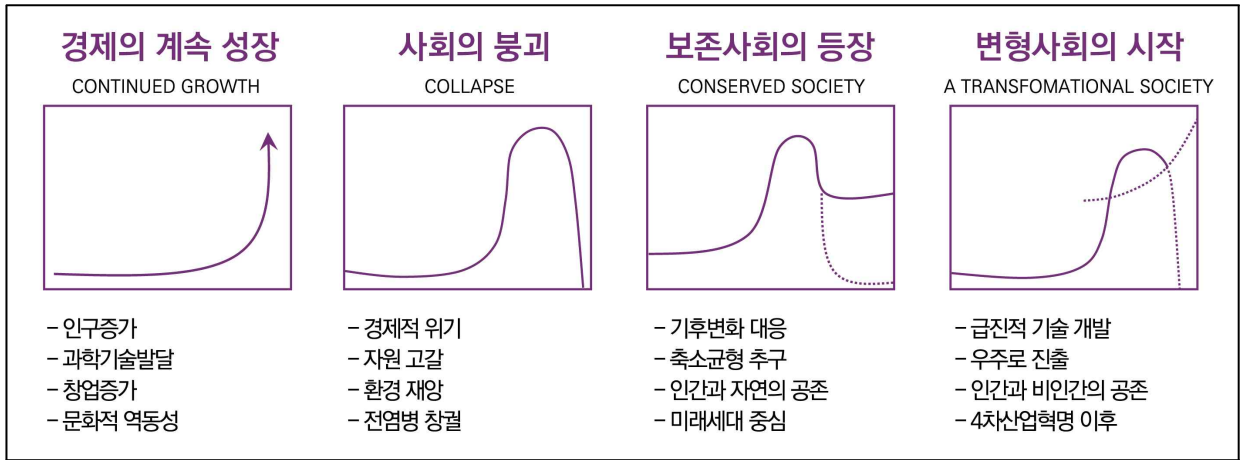
50) 「미래대화」 숙의토론회 자료, 「박성원 외(2023).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를 기반으로 작성

2) 다가올 미래에 대한 논의

(1) 4가지 미래 유형

- 부산이 맞이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국내외 미래학계에서 활용하는 예측방법론인 ‘경제의 계속 성장’, ‘사회의 붕괴’, ‘보존사회의 등장’, ‘변형사회의 시작’ 미래 유형에 대해 논의
 - (경제의 계속 성장) 이 미래는 수렵·채집 시절부터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구 및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가정. 이 미래를 예측하려면 인구의 지속적 증가, 과학 기술의 발달, 기업활동의 자유, 문화적 역동성과 같은 증거 필요
 - (사회의 붕괴) 이 미래는 경제적 위기, 자원 고갈, 환경 재앙, 전쟁, 도덕적 타락, 전염병의 창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등장하며,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경고. 이 미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맞이하는 미래로 이런 미래를 예측하려면 예측 대상이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존재감을 잃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라질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필요
 - (보존사회의 등장) 이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사회가 ‘경제의 계속 성장’과 ‘사회의 붕괴’ 사이에 놓이거나, 놓여야 한다고 주장, “이대로 가다가는 붕괴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믿음. 과거의 경제개발 방식이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경제적 양극화를 확대함에 따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 1970년대 로마클럽에서 내놓은 ‘성장의 한계’, 2015년 파리의 기후협약 등은 이 미래를 향한 전 지구적 전략의 예시
 - (변형사회의 시작)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 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빠르고 영뚱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배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기대감 존재. 기술 낙관론자들이 예측하는 신세계가 대표적 사례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우주공학 등이 융합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매우 변형적인 사회가 창조되고 있다고 예측

〈그림 III-56〉 다가올 4가지 미래 유형과 주요 요인



(2) 부산시민이 선택한 미래

- 사전·사후조사를 통해 부산시민이 선택한 미래상 확인
- 사전조사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능미래)’에 대해 시민들은 ‘사회의 붕괴(43.8%)’, ‘보존사회 등장(35.0%)’, ‘변형사회의 시작(14.2%)’, ‘경제의 계속 성장(7.0%)’ 순으로 선택
-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선호미래)’에 대해서는 ‘변형사회의 시작(51.0%)’, ‘경제의 계속 성장(24.5%)’, ‘보존사회 등장(21.0%)’, ‘사회의 붕괴(3.5%)’ 순으로 선택
- 숙의 과정 후 사후조사에서는 ‘가능미래’에 대해 ‘사회의 붕괴(62.0%)’, ‘보존사회 등장(29.0%)’, ‘변형사회의 시작(9.0%)’ 순으로 선택
- ‘선호미래’에 대해서는 ‘보존사회 등장(46.5%)’, ‘변형사회의 시작(36.3%)’, ‘경제의 계속 성장(15.5%)’, ‘사회의 붕괴(1.7%)’ 순으로 선택

〈표 III-19〉 부산시민이 선택한 미래

미래상	가능미래		선호미래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경제의 계속 성장	7%(4명)	0%(0명)	24.5%(14명)	15.5%(9명)
사회의 붕괴	43.8%(25명)	62%(36명)	3.5%(2명)	1.7%(1명)
보존사회의 등장	35%(20명)	29%(17명)	21%(12명)	46.5%(27명)
변형사회의 시작	14.2%(8명)	9%(5명)	51%(29명)	36.3%(21명)

주 : 사전 57명, 사후 58명 답변

-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가능한 미래는 ‘사회의 붕괴’로 이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 주거환경 낙후, 계층과 지역 간 갈등, 지역정부 부패, 자연재해의 높은 가능성, 새로운 바이러스의 빈번한 창궐 등의 이유를 원인으로 파악
-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가능미래는 ‘보존사회 등장’으로 대도시와 지역사회의 불균형 발전, 동남권 인프라가 부산에 집중됨에 따라 과거만큼의 성장은 이루지 못하지만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부산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현상은 인구감소와 청년 이탈로 이는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제 분쟁 및 세계 무역,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과 연계되어 주거환경 낙후와 돌봄 공백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
- 부산시민이 선택한 가장 선호하는 미래인 ‘보존사회의 등장’은 국가보다 개인의 삶의 질이 우선시 되고, 다양한 문화 공존, 환경보존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정신건강 중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선택
- 두 번째 선호하는 미래는 ‘변형사회의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른 대처, 휴양과 의료중심 도시로 발전,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하는 기술적 특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선택

〈표 III-20〉 부산시민이 선택한 미래 연관 키워드(언급 빈도)

(단위 : 번)

미래상	가능미래의 이유	선호미래의 이유
경제의 계속 성장	세계적 관광도시(1), 낮은 물가(1)	지속적 성장(3), 외국 투자 증가(1), 청년 증가(2), 발전(1)
사회의 붕괴	인구감소/저출산(15), 일자리 감소/산업쇠퇴(11), 고령화(8), 환경파괴(5), 공무원의 무능력(3), 자연재해(2), 지역격차(2), 바이러스 창궐(2), 계층 갈등(1), 전쟁(1), 청년공간 부족(1), 주거환경 악화(1)	경쟁 감소(1)
보존사회의 등장	지역 성장의 정체 또는 유지(5), 인구유지(4), 시민협력(2), 자연파괴(2), 탈세계화(1)	지속가능(11), 삶의질(2), 복지(1), 예술(1), 정신건강(1), 주거환경개선(1), 인간성(1), 자연과 조화(1), 관광산업 발전(1)
변형사회의 시작	새로운 성장동력/기술(2), 탄소중립(1)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혁신(10), 산업전환(2), 4차 산업혁명(2), 부산엑스포(1), 의료도시(1), 해양휴양도시(1), 제도 개선(1), 공동체 강화(1), 흥미(1), 대안(1)

- 마지막으로 사후조사에서는 부산의 ‘미래’ 앞에 붙이길 원하는 단어 및 문장을 요청하여 시민들의 바람 확인
 - 부산시민들은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안전한/평화로운’ 미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미래, ‘친환경적’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 ‘인간다운/인간이 존중되는’ 미래, ‘다양성 공존/존중’ 미래, ‘희망’ 미래, ‘건강한’ 미래, ‘첨단/혁신적/과학적’ 미래 등을 바람

〈표 Ⅲ-21〉 부산시민이 바라는 미래

(단위 : 번)

미래 수식어(○○○ 미래)	언급 빈도
함께 잘 살고 행복한	10
안전한/평화로운	6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5
친환경적	5
지속가능한	4
인간다운/인간이 존중되는	4
다양성 공존/존중	4
희망	3
건강한	3
첨단/혁신적/과학적	3
가족의 안녕, 학생들이 자유로운, 입가에 미소가 띠는, 미래세대를 위한, 시련이 있어도 강한, 천천히 성장하는, 여유로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

04

요약 및 시사점

1)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사회 구조적 위기로 인해 보유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 현재 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정학적 위치, 주거환경, 편의시설, 도시 인프라, 대규모 산업 기반, 도시브랜드 등 타 도시에 비해 많은 잠재력 보유
- 그러나 인구감소,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 부산이 가진 지역 위상 및 잠재력 약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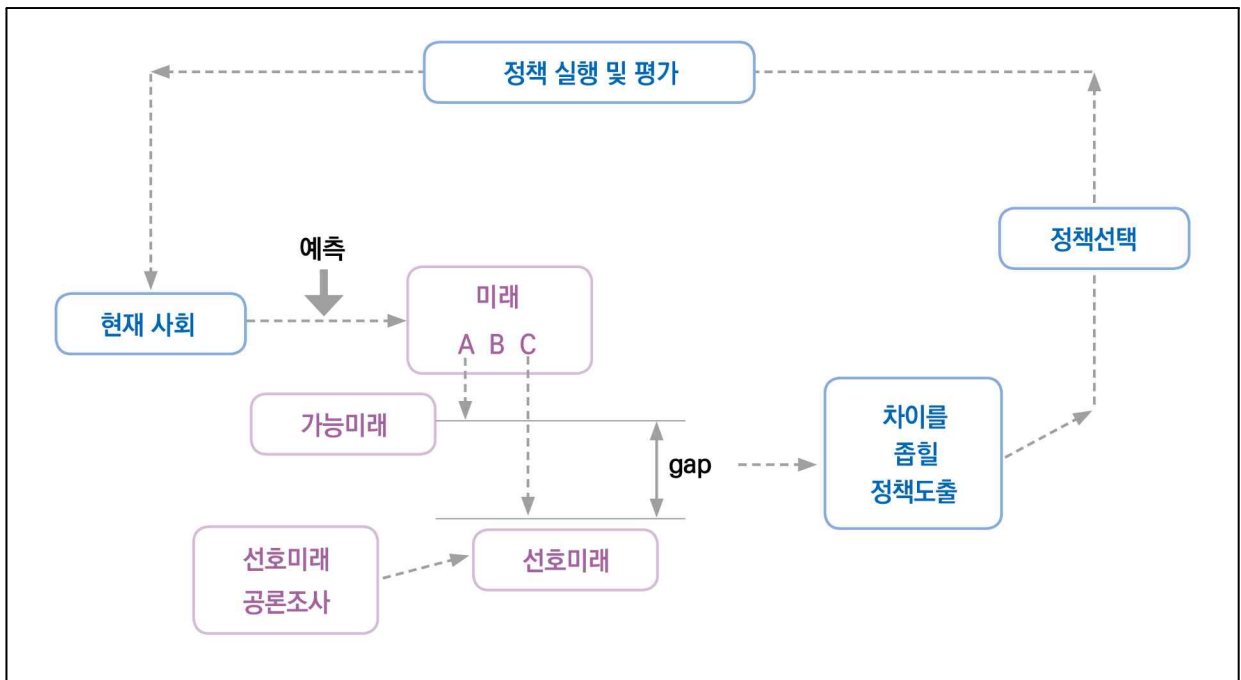
2) 부산시민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붕괴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보존사회로의 전환, 새로운 계기를 통한 성장 미래 희망

- 부산시민들은 인구감소 및 청년 이탈에 따른 사회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래사회에서 가족의 개념 및 구성원의 변화, 고독한 생활 만연, 극단적 개인주의화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시민들은 행복한 삶, 경제적 풍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2050년 부산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행복한 시민 공동체 도시', '아시아 5대 글로벌 도시', '인간적인 스마트 도시', '지역의 고유자원과 최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융합된 도시', '육지와 해양공간이 조화롭게 조성된 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자연환경 보존/도시공원 조성/대기환경 개선 등으로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시',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등을 미래상으로 희망

3) 부산시민이 바라는 선호미래와 예측되는 가능미래 간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정책적 노력 필요

- 부산시민과 전문가들은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도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며, 저출산/고령화 대비와 신재생/대체에너지 수준, 친환경/탄소중립 실천, 노동권리 보장, 시 기관에 대한 신뢰, 자기계발과 창의력 증진, 도시 재난재해 안전성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정책 필요
- 미래를 만들어 가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이 함께 숙의를 통해 선호하는 미래와 실제 가능한 미래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 필요

〈그림 Ⅲ-57〉 선호미래 도출 및 실현 과정



자료 : 박성원(2020.09.03)

IV.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1. 이머징 이슈 연구
2. 이머징 이슈 키워드 도출
3. 2050 부산 이머징 이슈 및 전략
4. 요약 및 시사점

01

이머징 이슈 연구⁵¹⁾

1) 이머징 이슈의 정의

-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는 현재로서 지배적 이슈는 아니지만, 장차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이슈로 정의
 - 이런 이슈들은 5~10년 후 지배적 트렌드로 성장하면서 사회 변화 추동
 - 과학기술의 발견, 신종종교의 등장,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 사회적 제도와 규범의 변화, 국가 간 경쟁체제의 균열 등이 대표적인 이머징 이슈
- 이머징 이슈 연구는 ‘미래는 과거, 현재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가정(미래의 의미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점)’, ‘달라지는 양태는 표면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구조적 변화’, ‘질적, 구조적 변화는 과거의 누적된 갈등, 대립, 고통이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환경, 경제, 정치, 과학기술적 조건과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 등을 가정
- 학술 문헌에서 발견되는 당대의 이머징 이슈 사례는 ‘1970년대 에너지의 무기화(Oil shock), 탈산업사회, 인터넷 등장’, ‘1980년대 환경오염, 고령화(선진국을 중심으로 문제화), 성차별’, ‘1990년대 세계화와 가족의 해체,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2000년대 베이비부머 은퇴와 연금, 사이버 불링, 감정노동의 번아웃’, ‘2010년대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파괴의 급속한 진전’ 등

2) 이머징 이슈 연구의 정책적 효과

- 첫째, 이머징 이슈 연구는 다양한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할 수 있는 반면 관점의 전환에 실패하면 변화에 역공 발생
 - 이머징 이슈 관점에서 1980년대부터 제기된 세계적 환경파괴, 기후변화 경고에 대응하지 못해 기후위기 시대 도래, 1990년대부터 한국 저출산 징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 인구변화에 빠른 대응 실패
- 둘째, 변화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조망하는 관점의 전환으로 정책 포트폴리오 재구성(우선순위의 재조정)에 기여
 - 1980년대 미래학자 이한빈(1983)은 ‘슬기 도시’, ‘전자(電子) 한국’으로의 사회발전을 예견하며, 인구과밀, 환경오염, 에너지 사용 폭증에 대비한 국가 전략으로 교통 인프라 중심 도시에서 통신 인프라 중심 도시로 전환 제시
- 셋째, 시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 및 실제 구현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 대안 마련 등에도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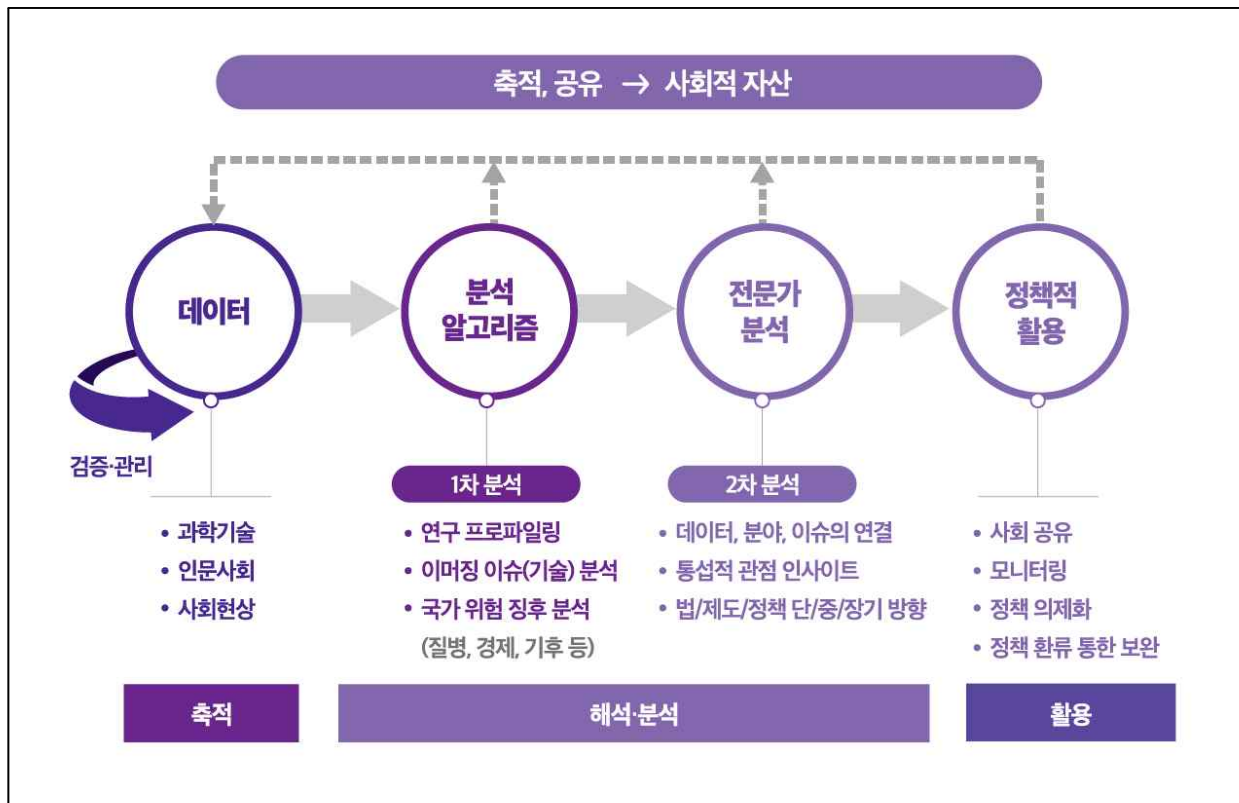
51) 본 장은 2050 부산 플랜 수립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작성, 박성원(2021)

3) 이머징 이슈 발굴을 위한 새로운 틀

- 이머징 이슈를 예측 및 식별하는 과정은 지식 또는 보편적 견해보다는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
 - 이머징 이슈는 현재는 큰 영향력을 보이지 않으나 조건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요소로 성장하기 때문
 - 그동안 이머징 이슈의 도출은 환경 스캐닝, 전문가 토론, SNS 데이터의 가공 및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도
- 미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서로 복잡하게 결합되고 있는 상황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관련 이슈를 발굴하는데 어려움 가중
 - 미래 변화의 신호에 대한 파악, 신호의 의미, 발전 방향, 결과가 미칠 영향의 포괄적 분석 필요성이 증대
 - 신문, 잡지, 방송, 전문서적, 연구논문, 특허, 보고서, 인터넷, 블로그 등 데이터 기반 매체 및 사회적 통계, 연구 데이터, 각종 센싱을 통한 데이터 등을 통해 이종(異種) 분야의 이슈를 융합하는 것이 중요
 - ‘pandemic’은 감염병 이슈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불평등, 격차, 사회취약계층과 같은 이슈를 비롯해 정서, 교육, 공공정책, 디지털 전환 등 서로 다른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이슈 생성
- 이머징 이슈의 효과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분야를 모두 고려하고, 각 분야 간 연계를 통한 분석과정 필요
- 전문가 협업을 통한 전망과 도출된 이머징 이슈의 타당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데이터 분석 기법의 병행은 전문가 편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 환경 스캐닝을 통한 전문가의 통찰에 의존했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1차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전문가 간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과정 도입 필요
-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따른 데이터 폭증으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의 자동화 필요성이 더욱 증가
 - IDC의 전망에 따르면 2016년 16ZB 수준의 데이터는 2025년 163ZB로 폭증 예상
 -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분석은 불가능하며,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의 통찰의 편향성도 강화

- 본 연구는 방대한 문헌을 활용한 데이터 알고리즘 분석과 전문가 통찰에 기반을 둔 분석 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머징 이슈 도출 시도
 - (데이터) 과학기술, 인문사회, 사회현상 등 다양한 미래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슈를 도출
 - (분석 알고리즘) 대량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해 처리하여 1차적으로 이머징 키워드와 약신호(weak signal)를 분석
 - (전문가 분석)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된 1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데이터, 분야, 키워드를 연결하여 최종 이머징 이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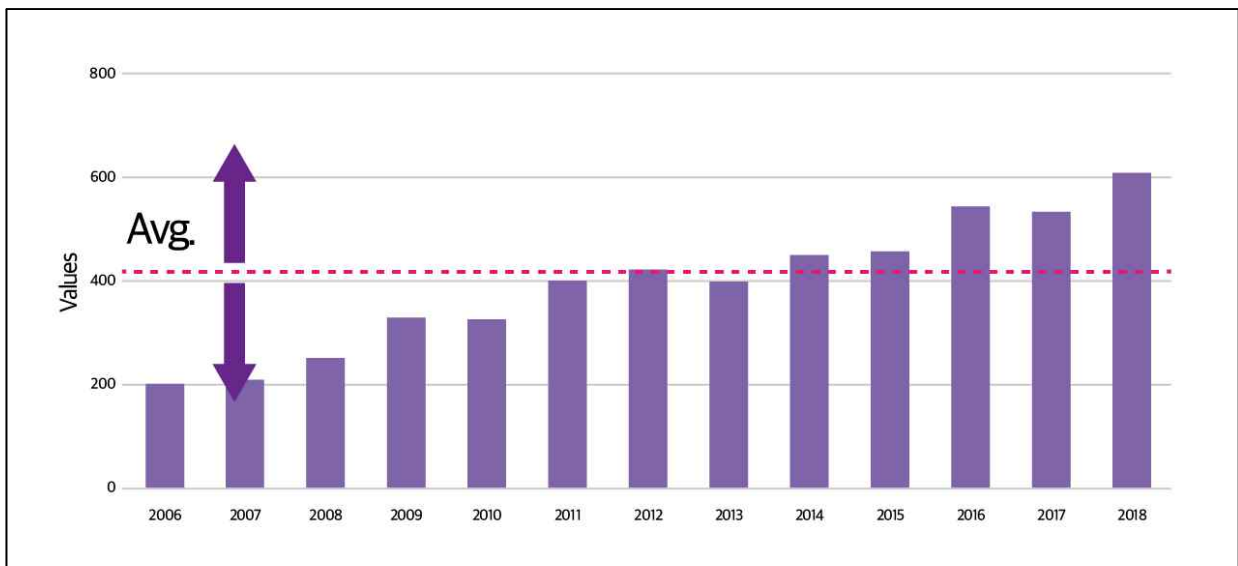
<그림 IV-1> 이머징 이슈 발굴을 위한 분석 틀



4) 이머징 이슈 도출 방법 및 과정⁵²⁾

- 앞서 제시한 이머징 이슈 발굴을 위한 새로운 분석틀에 입각하여 우선 문헌 기반의 이머징 이슈 도출
 -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포괄하고 있는 문헌 DB인 WoS(Web of Science) 활용
- 확보된 대량의 문헌에서 이머징 이슈 후보를 1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동화 알고리즘 적용
 - 대량의 정보 속에서 이머징 이슈의 후보가 될 만한 정보를 신속하게 관련 전문가에게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
- 자동화 알고리즘은 신규성(novelty), 확장성(fast growth), 타 분야 파급효과(impact)를 지표로 하여 구성
- (신규성)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출현 빈도는 높지 않으나, 시계열적 특성상 그 빈도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로 설정
 - 각 키워드에 대한 '분산' 개념을 도입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로 해당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여 평균 대비 급격한 변화 측정

〈그림 IV-2〉 분산을 활용한 신규성(novelty) 분석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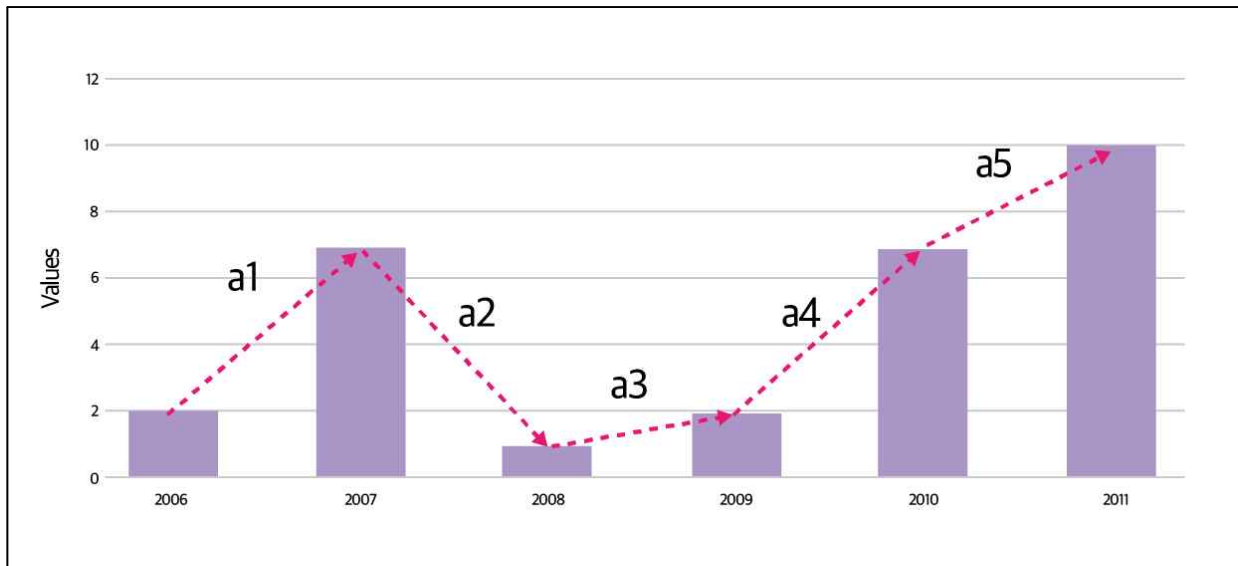


자료 : 김유빈(2022)

52) 김유빈 외(2020), 김유빈(2021), 박성원(2021), 박성원 외(2021), 박성원, 김유빈(2022), 김유빈(2022)

-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출현 빈도는 높지 않으나 시계열적 특성상 그 빈도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관찰 가능
- 평균은 입력된 문헌 키워드의 전체 평균 출현 수를 의미하며, 분석 시 평균값을 낮게 조정할 경우 출현 빈도가 낮은 키워드 분석 집중이 가능
- 이머징 이슈의 특성상 과거 잠재되어 있던 이슈가 특정 조건에 의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분산이 클수록 이머징 이슈 특성에 적합
- (확장성) 키워드의 시계열에 따른 출현 빈도수를 연도 구간별로 증감 변화를 산출하여 출현 가속도를 통한 확장성 분석
 - 각 연도별 키워드 출현 가속도 a_1, a_2, \dots, a_5 값은 증감 변화에 따라 +/-의 부호를 갖는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 산출
 - 최종적으로 $a_1+a_2+\dots+a_5$ 값을 계산하여 +값의 가속도가 높은 키워드가 향후 지속적 확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대체로 우상향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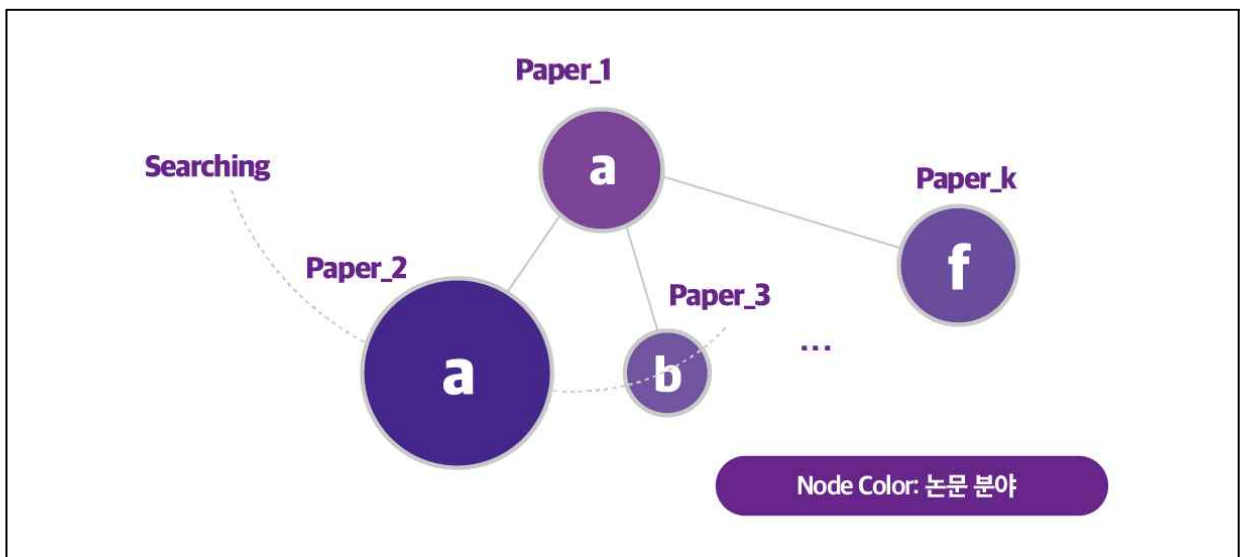
<그림 IV-3> 키워드의 출현 가속도를 활용한 확장성(fast growth) 분석 개념



자료 : 김유빈(2022)

- (파급효과) 신규성, 확장성 기준에서 이머징 이슈로의 가치를 갖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헌이 다른 분야로 얼마나 확산하는지 산출하기 위하여 인용 관계 분석
 - 분석 대상이 되는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논문을 순차적으로 검색하면서, 각 논문 간의 인용 관계와 서지 정보에서 제공하는 각 논문이 속한 분야를 계산
 - 인용 기반 타 분야로 많이 전파되는 논문과 해당 논문이 갖는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여 이들 이종 분야 간 관계를 통해 이머징 이슈 도출에 활용

〈그림 IV-4〉 타분야 파급효과(impact) 분석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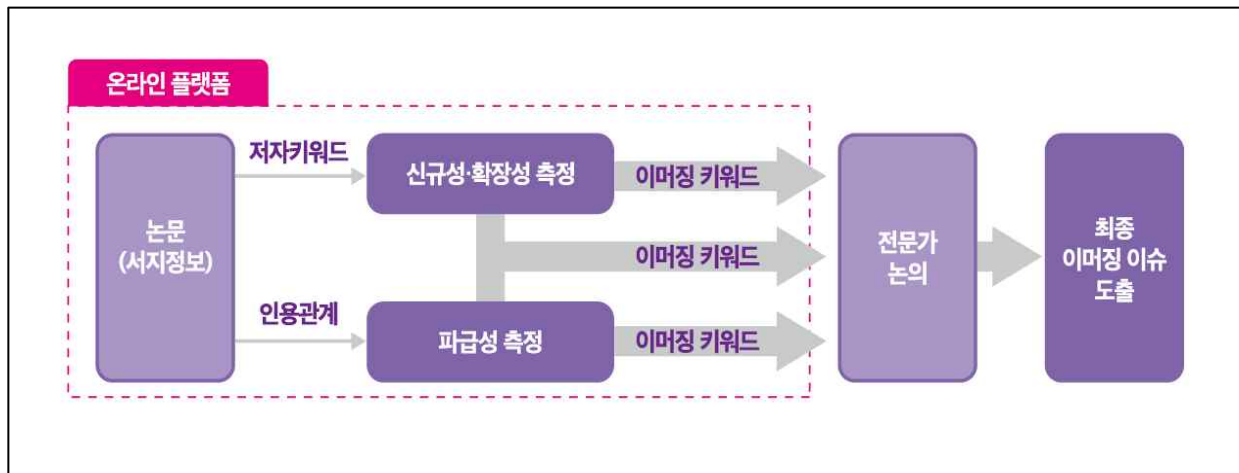


자료 : 김유빈(2022)

-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속 출현하고 있으며, 급격한 출현 경향을 보이고, 인용 증가 추세에 있는 키워드를 최종적으로 확인
 - 타 분야로 활발히 확산하고 있는 키워드 확인을 통해 그 키워드가 타 분야 키워드와 연계되어 있는지도 분석 가능

- 자동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머징 이슈가 최종 이머징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토론 및 추가적인 문헌 분석이 필수적
 -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 분석과정은 전문가 논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1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 이머징 이슈로서의 특징을 갖는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함께 제공하여 효과적인 논의 촉진
 - 전문가는 제공된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활용하여 최종 이머징 이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방법론들에서 보였던 전문가 편향성, 미흡한 근거 제시 등의 한계 극복

〈그림 IV-5〉 본 연구에 활용된 이머징 이슈 검출 절차



자료 : 김유빈(2022)

-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 2050 부산 플랜 수립을 위한 이머징 이슈를 도출
 - 국회미래연구원 및 부산연구원 연구진의 협업을 통해 부산의 이머징 이슈 도출을 위한 최적의 WoS 검색식 도출 과정을 반복 수행
 - WoS 검색식 확정 후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 기준에 따른 이머징 키워드 및 타분야 파급 키워드 도출
 - 부산연구원 연구진과 협업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 중 이머징 이슈로서 높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키워드를 선별 및 분류
 - 최종 선별 및 분류된 키워드를 정리하여 유관 분야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관점의 이머징 이슈 질의 및 응답
 - 전문가 응답 결과 분석을 통해 부산 2050 비전 수립 과정에 활용 가치가 높은 최종 이머징 이슈의 도출 및 정리

02

이머징 이슈 키워드 도출

1) 이머징 이슈 분석 과정

(1) 이머징 검출 플랫폼의 효과성 확인

-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 기반의 이머징 이슈 검출 방법론의 효과성 1차 검증, ‘해양’ 관련 검색식을 통한 이머징 키워드 도출 결과 확인

〈표 Ⅳ-1〉 해양 검색 데이터 개요

구분	내용
검색식	city AND (ocean OR marine OR beach)
검색기간	최근 10년
분석 문헌 수	WoS 30,000건

(2) 해양 키워드를 통한 이머징 키워드 및 타분야 파급 키워드 도출

- 도출된 전체 키워드를 활용하여 이머징 이슈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 조합을 1차적으로 시범 선별

〈표 Ⅳ-2〉 1차 키워드 조합

이머징 키워드	타분야 파급 키워드
air pollution	green port, decarbonisation shipping, ships emissions
urban areas	autonomous surface vehicles(asvs), marine vehicle, coastal cities
ecological risk	heavy metal contamination, ecological risk assessment, waste valorization
plastic pollution	coastal plain rivers, coastal metropolis, urban lakes, urban rivers
urbanization	biodiversity loss, fishing impacts, shoreline armouring, urban marine ecology, coastal ecosystem
marine litter	citizen-science, beach monitoring
heavy metals	-
growth	urban agglomeration, ecosystem based management, human pressures, electric car-sharing, shared mobility systems
tourism	usable beach area, social perception, covid-19
extreme precipitation	-

- 주목할 만한 키워드 중 air pollution 키워드 및 이와 연관된 타 분야 파급 키워드 green port, decarbonisation shipping, ships emissions를 활용하여 문헌의 역추적 및 최근 이슈 추가 분석을 통해 이슈를 시범적으로 제시

(3) 부산 2050 이머징 이슈 도출을 위한 최종 검색식 도출

- 해양을 통해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 기반의 이머징 이슈 검출 플랫폼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WoS 검색 키워드를 추가 논의
- 해양, 도시, 고령화, 삶의 질, 다양성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검색식을 조합하여 2차 데이터 분석 수행

〈표 IV-3〉 해양 검색 데이터 개요

구분	내용
검색식	("urban" or "city") and ("marine" or "ocean" or "caring" or "smart" or "community" or "aging" or "climate change" or "labor" or "well-being" or "mobility" or "energy" or "diversity" or "migration" or "compact")
검색기간	최근 10년
분석 문헌 수	12,023건

- 최종 검색식을 활용한 이머징 키워드 및 타 분야 파급 키워드 분석
 - 이머징 키워드 및 타 분야 파급 키워드 도출 과정을 통해 상위 20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여 정리

(4) 이머징 이슈 검출을 위한 추가 데이터 분석

- 최종 검색식 분석에 ‘전례 없는(unprecedented)’이라는 검색어를 추가 반영 함으로써 분석결과의 다양성 확보

〈표 IV-4〉 추가 분석 데이터 개요

구분	내용
검색식	("unprecedented") and ("city" or "ocean" or "caring" or "smart" or "community" or "ageing" or "climate change" or "labor" or "well-being" or "mobility" or "energy" or "diversity" or "migration" or "compact")
검색기간	최근 10년
분석 문헌 수	6,026건

- 추가 분석이 수행된 문헌에 대해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상위 10개의 이슈 정리
 - resilience, biodiversity, globalization, climate change, China, sustainability, conservation, policy, mobility, culture

2) 이머징 이슈 검출 플랫폼을 통한 이슈 후보 도출 결과

- 앞서 언급한 최종 검색식 및 전례 없는 키워드를 활용한 분석 사례를 종합하여 이머징 키워드 후보군 및 연관 키워드 그룹을 도출하여 정리
 - 내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부산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빠졌다고 판단되는 이머징 키워드를 추가, 또는 부산의 미래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키워드 삭제

〈표 Ⅳ-5〉 최종 선별한 이머징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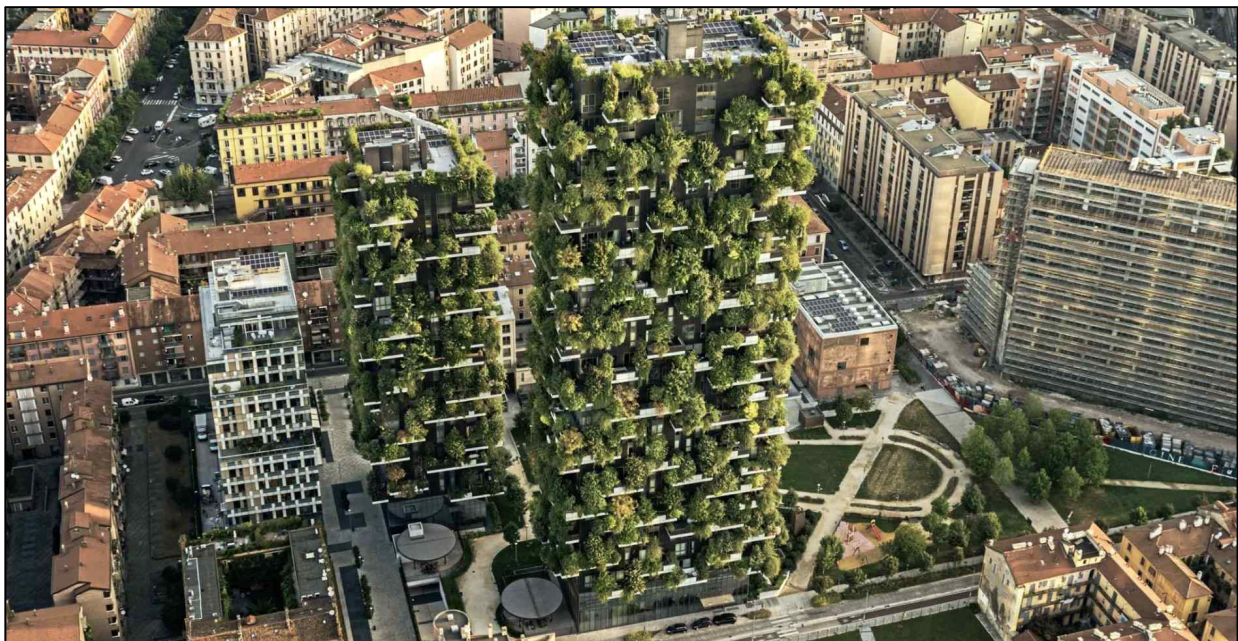
이머징 키워드	주요 연관 키워드 그룹
urban areas 도시공간, 인프라, 안전 등	urban greening, adaptive reuse, carbon offsets, adaptive governance, climate planning, decommissioned infrastructure, urban ecosystem, phylogenetic community structure, food security, environmental justice, urban agriculture
smart city 시민참여, 건강, 다문화, 의료 등	citizen-centric, symbiotic computing, green space, healthcare engineering, robot ethics, migrant minors, compact city paradox, social weaving model, feedforward, upscaling, playable cities, walkability, medical services, security, privacy
urban mobility 교통수단, 탈탄소 등	smart transport, ethics, low carbon urban energy action plans, floating cities, compact city, autonomous vehicles, virtual power plant, sustainable solar shading, smart grid, maas
energy efficiency 에너지 전환, 도시열섬 등	integrated urban regeneration, decarbonization, spatial join techniques, city breathability, human mobility networks, urban climate, urban heat island, distributed energy systems, green infrastructure, energy sovereignty, energy self sufficiency, microclimate, green walls, building energy efficiency
well-being 음식, 문화, 청년층, 정신적 안녕	food security, citizen science, cultural practices, urban agriculture, green space, urban biodiversity, younger population, public open space, mental well-being, sense of safety, walkability, local climate zone, travel satisfaction, neighborhood satisfaction
urban health 건강, 여행, 회복력 등	digital twins, economic inclusivity, digital trade, smart tourism, resilience, energy management, commercial tourism city, pandemic prevention and control, non-mobility, health care
resilience 로봇, 디지털격차, 사이버세계 등	neural networks, nudging, privacy leakage, geoinformatics, cybernetics, edge-computing, peripheral urbanization, medical services, robot swarm, digital divide, multi-sided platform, post-anthropocentric city, responsive city
urban regeneration 고령화, 복지, 치매친화 등	aging, robots, digital ecosystem, age-friendly, transit-oriented city, dementia-friendly, policy integration, productivist welfare regime, productive ageing, double ageing, urban old district, nitrogen deposition
inequality 경제양극화, 주거환경 등	age-friendly, mobility of older people, travel propensity, renewable energy source, gentrification, housing insecurity, urban health, e-health, dementia-friendly, robots, productivist welfare regime, double ageing
citizen participation 도시연계, 시민참여, 정치참여 등	well-being, collaboration networks, economic civil society, digital divide, city-to-city union, digital competencies trust (distrust), social sustainability, informal settlements, political efficacy, creative migrants, social weaving model

- 도출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원 문헌의 추적 및 추가적인 웹 서칭 등을 통해 이머징 이슈 후보 제시
 - 이머징 키워드의 쓰임새를 확인하고, 이머징 키워드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이머징 이슈가 도출되는지 파악

(1) 녹색/재생 도시 : 도시 모든 분야에서 녹색 전환, 폐기된 건물과 인프라에 새로운 기능

- (이머징 키워드 그룹) urban areas, urban greening, green walls, adaptive reuse
 - 영국의 수도 런던은 2019년 ‘런던 내셔널 파크 시티’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 더 푸르른, 더 건강한, 더 야생적인 도시가 되겠다고 선포. 이 비전 선포식에는 보건, 사회복지, 레저, 환경, 에너지를 담당하는 런던시의 부시장들이 참여해 서명
 - 2021년 호주에서는 애들레이드 국립공원도시를 발표하며 이들 도시는 “더 놀 수 있는 도시”를 추구하면서 도시 구석구석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골목길을 내고 자연환경을 확대한다고 선언
 - 브라질库里티바, 이탈리아 밀란의 수직 숲(Vertical Forest), 싱가포르의 Green Plan 2030, EU의 Urban Greening Plan 등도 주목
 - 싱가포르의 Green Plan 2030은 자연공간이 도시를 감싸는 비전으로 에너지 전환, 도시의 인프라와 건물의 녹색화, 친환경 자동차 확대, 지속가능한 삶, 녹색 교통수단, 녹색 경제, 지역 농촌의 보존과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춘 도시국가적 계획
 - EU의 Urban Greening Plan Guidance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그림 IV-6> 이탈리아 밀란의 숲 빌딩(Vertical 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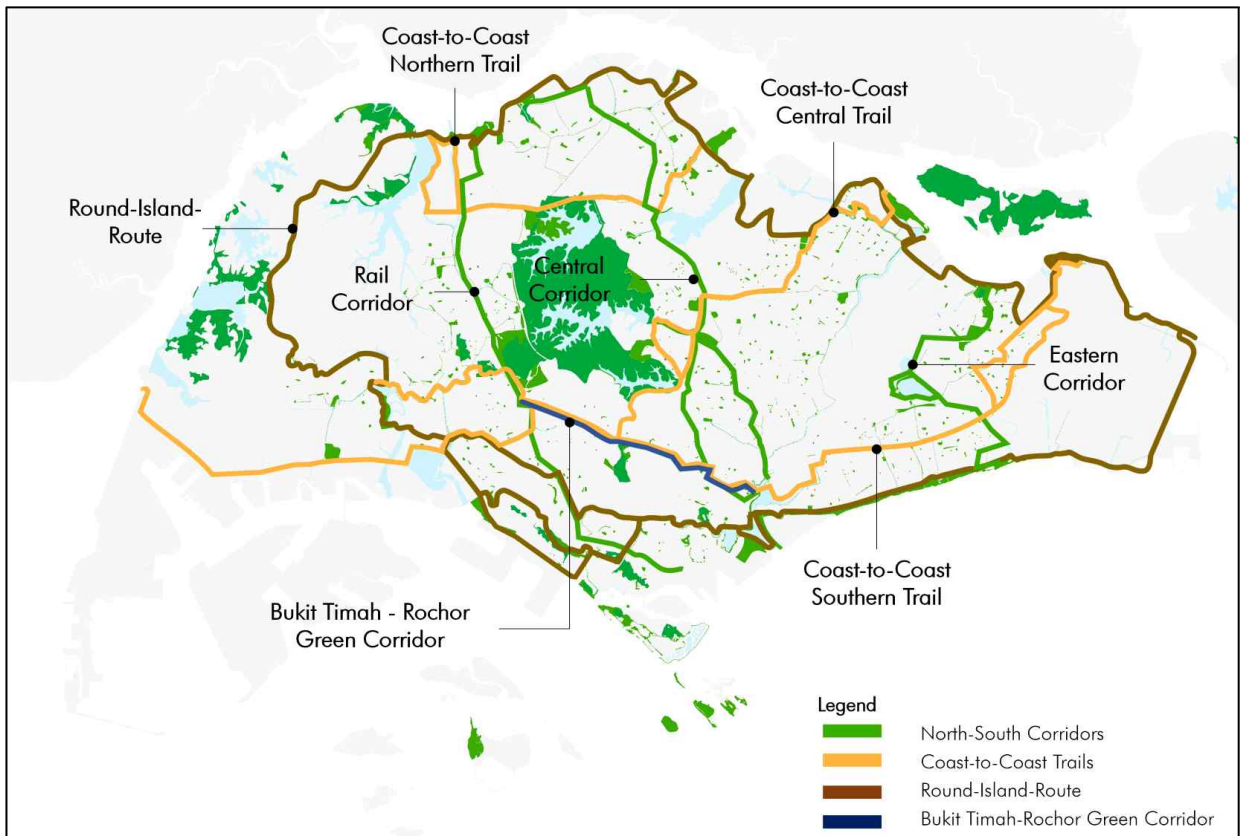


자료 : Habiba Nosair(2023.09.06)

(2) 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 : 자연과의 재결합

- (이머징 키워드 그룹) urban, crisis gardening, extinction of experience
 - 도시가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자연과의 접촉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시민들은 자연과 높은 유대감 경험. 예를 들면,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1992년부터 도시 전체의 공원과 자연을 연결하는 Park Connector Network(PCN) 추진. 2020년 360km, 2040년 400km 확장 계획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기회 제공. 하늘 정원과 건물의 수직 농장을 구축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 싱가포르의 미래는 '거대한 도시 정원'이 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이 꾸준히 실행
 -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2030년까지 도시 자연을 시민과 함께 보존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Pla Natura 2021-2030 추진. 기능적이고 생태적인 녹색 인프라, 공평하고 접근 가능한 녹색, 도시 구조 및 녹색 네트워크 등을 목표

〈그림 IV-7〉 싱가포르 전역의 Park Connector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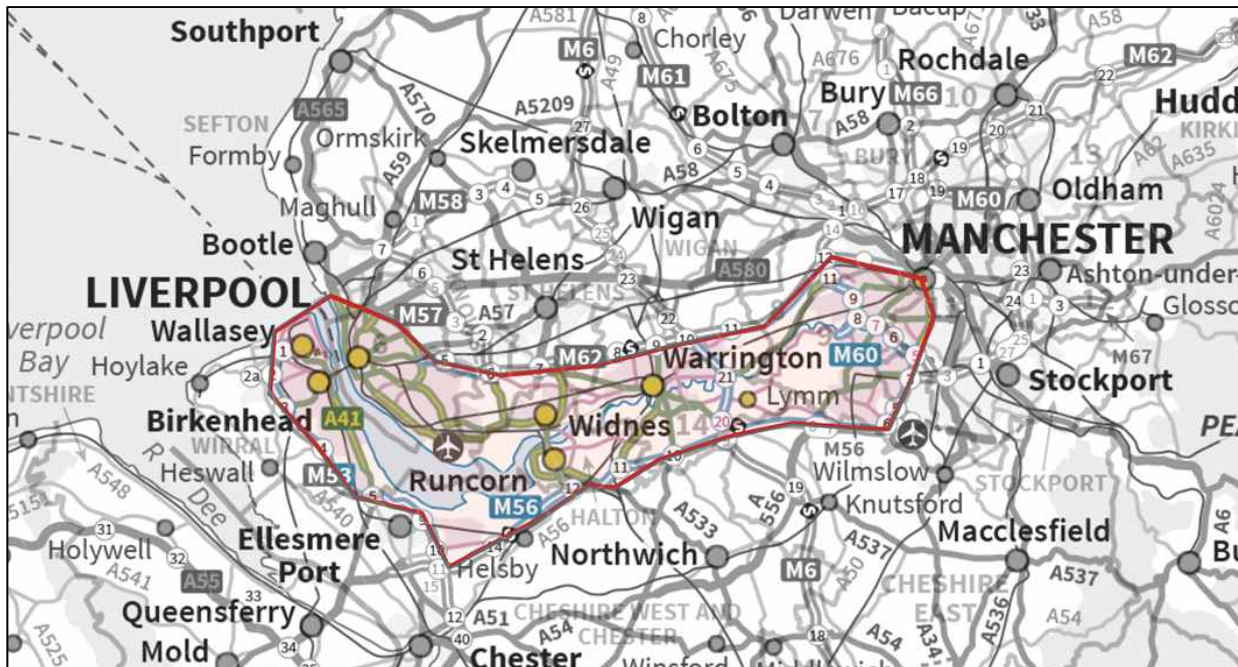


자료 : PCN

(3) 회랑(corridor) 생태도시 : 구시대와 새시대의 생태보존 연결

- (이머징 키워드 그룹) smart city, Manchester ship canal, learning cities
 - 회랑은 서로 다른 영토나 행정구역을 연결, 또는 도로나 강을 따라 바다에 도달하는 길고 폭이 가느다란 구역을 의미
 - 영국 맨체스터 선박 운하의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최근 36마일(57km)에 달하는 운하 지역을 스마트 생태 도시의 상징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추진
 - 이 운하의 끝에는 미디어 시티(Media City)가 형성되어 BBC, ITV, Ericsson, Kellogg's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미디어 및 디지털 비즈니스 회사 250곳이 들어서 운하의 혁신을 추동
 - 이 지역을 건강과 웰빙, 기후변화 적응 주택, 혁신적 기술과 그에 따른 신직업 등장, 농촌과 도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등을 컨셉으로 재개발할 계획
 - 구직업과 신직업, 구산업과 신산업의 교차에서 시민들의 시대 적응의 평생교육 체계 개발도 계획

〈그림 IV-8〉 맨체스터 선박 운하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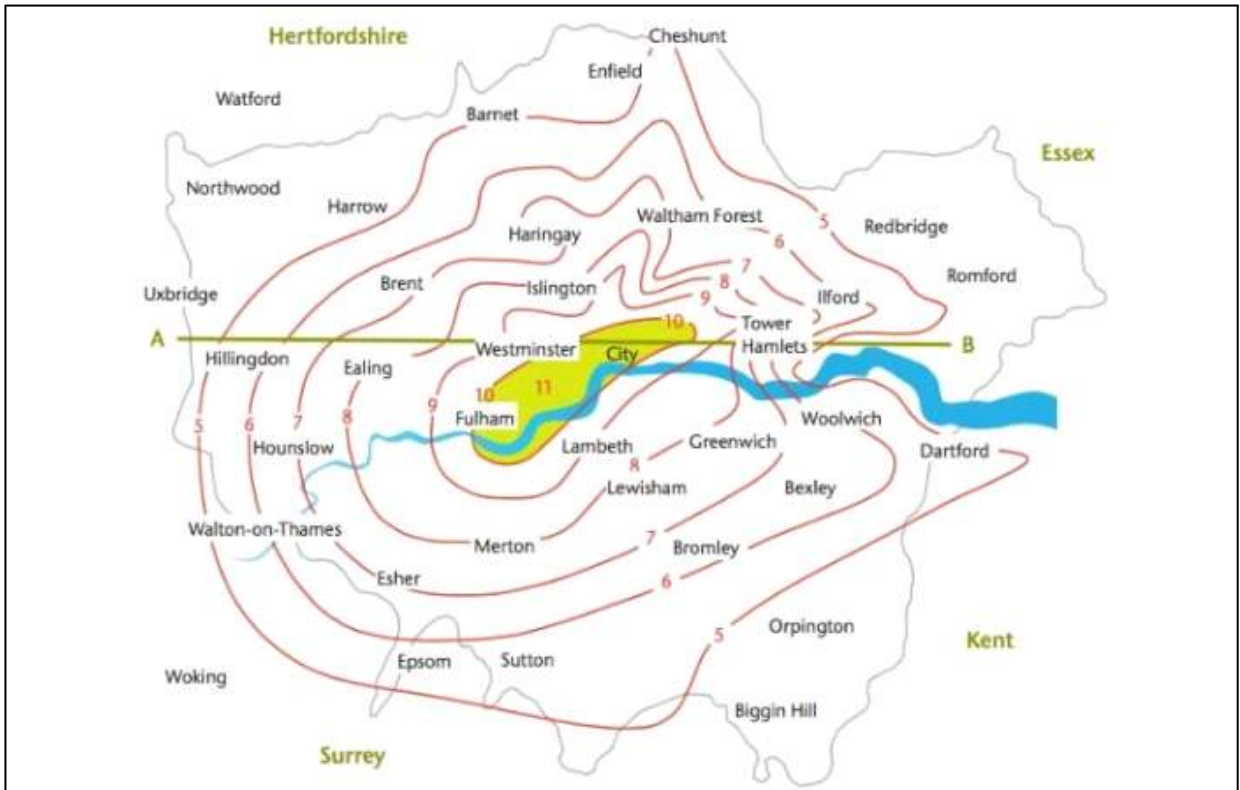


자료 : Biscaya & Elkadi(2021)

(4)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응 : 도시의 미세기후

- (이머징 키워드 그룹) energy efficiency, urban microclimate, decarbonization, integrated urban regeneration
 - 미세기후는 좁은 지역 내의 기후 차이를 가리키는 말로, 예를 들어 한여름에 나무 그림자에 들어가면 서늘하지만, 그림자 밖으로 나가면 더운 경우를 의미
 - 도시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교통량, 인구이동량,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미세기후 접근은 도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는데 활용

〈그림 IV-9〉 영국 런던의 미세기후 사례 (도시로 진입할수록 기온 상승)



자료 : Alwan et al.(2022)

(5) 사회적 포용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재생

- (이머징 키워드 그룹) urban regeneration, aging, energy potential, welfare regime, digital ecosystem, robots
 - 포용적 도시재생은 경제적 재생(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사회문화적 재생(예술, 건강, 웰빙, 교육의 성장을 지원), 환경적 재생(공원 확대, 차 없는 거리, 빈집의 재활용) 등을 의미
 - 적극적 시민참여형 도시재생이 최근 각광. 예를 들어, 보스턴 시는 경전철 확장 및 부동산 개발의 목적으로 개발자와 지역민들이 ‘커뮤니티 혜택 계약(Community benefits agreement)’을 체결, 저렴한 주택, 지역 일자리, 노동자 권리, 소기업 우선 정책, 지역사회 자원 보존, 열린 공간, 예술 및 문화, 공공안전, 재개발 참여에 합의
 - 최근에는 로봇과 도시재생이 연관된 사례들도 등장

<그림 IV-10> 커뮤니티 혜택 계약(CBA)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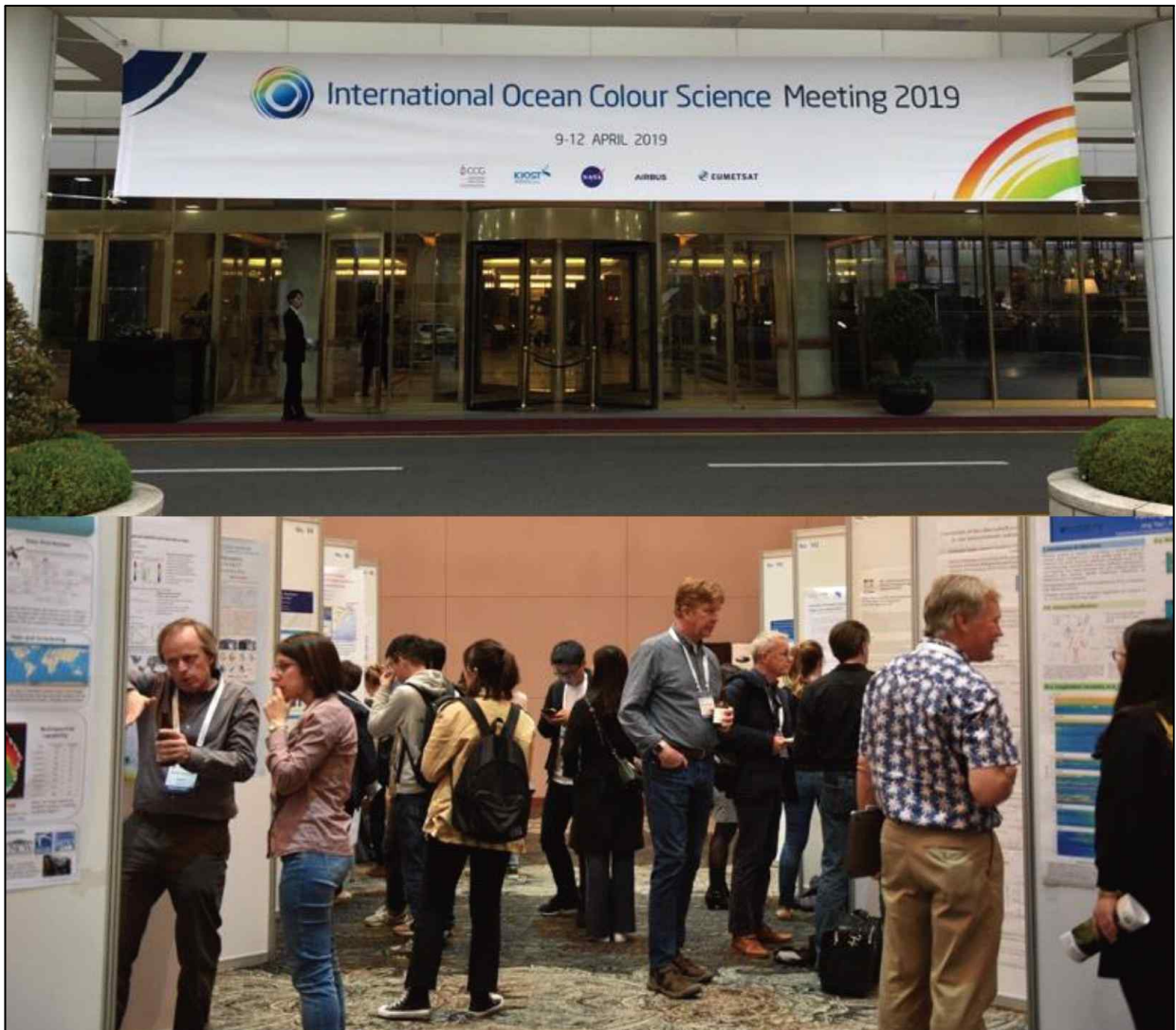


자료 : Nina Ignaczak(2014.01.28)

(6) 기후변화와 바다 색깔 연구

- (연관 키워드 그룹) extreme precipitation, ocean color remote sensing
 - 해양 과학계에서는 바다 색깔의 변화를 추적해 탄소순환, 기후변동, 식물성 플랑크톤의 역할 등 확인
 - IOCCG(International Ocean Colour Coordinating Group)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2019년에는 한국에서 제4회 총회 개최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박용제 박사가 키노트, 부산에서 개최)
 - 인공위성과 바다를 연결하는 접근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로 논의 필요

〈그림 IV-11〉 2019년 개최된 국제 바다 색깔 연구 관련 학회



자료 : IOCCG(2019)

03

2050 부산 이머징 이슈 및 전략

1) 전문가 그룹 분석 개요

(1) 참여 전문가(총 47명 응답)

-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부경대, 신라대, 동명대, 한국해양대 등 교수
 - 사회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국제관계학, 공공정책, 영문학, 해양경제학 등 인문사회계열,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인공지능 및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열에서 다양하게 참여
- 부산연구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
 - 디지털혁신, 정책, 성평등사회, 지역통합, 미래비전, 인재육성, 경제산업 분야에서 참여
- 부산환경운동연합, 한일해협미래연구소 등 민간 및 시민단체 전문가 포함
-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 기반의 이머징 키워드 그룹을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에 적용할 이머징 이슈 제안 요청

(2) 전문가 이머징 키워드 도출 과정

- 전문가 조사를 위해 도시(urban), 해양(marine or ocean), 고령화(ageing), 기후변화(climate change), 에너지(energy), 다문화(diversity or migration)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WoS 논문 중 최근 10년 이내 출간된 문헌 12,023건을 추출하고, 도출한 키워드를 여러 논의를 거쳐 최종 이머징 키워드 그룹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은 부산연구원과 2022년 9월부터 협업, 12월까지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이머징 이슈 연구에 착수
- 대량의 데이터를 국회미래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이머징 키워드 도출한 뒤, 그 결과를 부산지역 전문가들에게 제시하여 1차 이머징 이슈 발굴
- 1차 이머징 이슈 발굴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중 소수를 초청해 2차 이머징 이슈 발굴 회의 개최
 - 이머징 키워드의 재조정, 부산의 2050년 전망 공유 등을 기반으로 이머징 이슈에 기반한 미래 전략 도출

2)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머징 이슈

(1) 전문가들이 꼽은 이머징 키워드 그룹 순위

- 이머징 이슈 언급 시 전문가들이 선정한 키워드를 빈도순으로 나열

〈표 IV-6〉 많이 언급된 융합 미래 키워드(언급 빈도)

분야	가장 많이 언급된 미래 융합 키워드(횟수)
urban areas	climate planning(4), greening(3), adaptive reuse(2), ecosystem(2), agriculture(1), phylogenetic community structure(1), environmental justice(1), carbon offsets(1), adaptive governance(1), decommissioned infrastructure(1), food security(1)
urban regeneration	age-friendly(8) productive ageing(4), urban old district(3), dementia-friendly(3), double ageing(2), productivist welfare regime(1), social sustainability(1), ecosystem(1), robots(1),
energy	decarbonization(1), urban climate(2), urban heat island(2)
wellbeing	younger population(4), mental wellbeing(3), public open space(2), food security(1), citizen science(1), cultural practices(1), urban agriculture(1), green space(1), biodiversity(1), walkability(1)
health	resilience(2), health care(2), pandemic prevention and control(2), digital twin(1)
resilience	responsive city(3), medical service(1), multi-sided platform(1), digital divide(1), edge-computing*(1), privacy leakage(1)
inequality	age-friendly(4), e-health(3), robots(3), dementia-friendly(2), mobility of old people(2), gentrification(1), double ageing(1), housing insecurity(1)
citizen participation	collaboration network(8), political efficacy(6), social sustainability(5), social weaving model(2), digital divide(2), digital competency(2), city-to-city union(2)
smart city	security(3), healthcare engineering(3), citizen-centric(2), robot ethics(2), medical service(2), walkability(1), privacy(1), symbiotic computing(1)
urban mobility	low carbon(2), smart grid(1), maas**(1), resilience(1), smart transport(1), autonomous vehicl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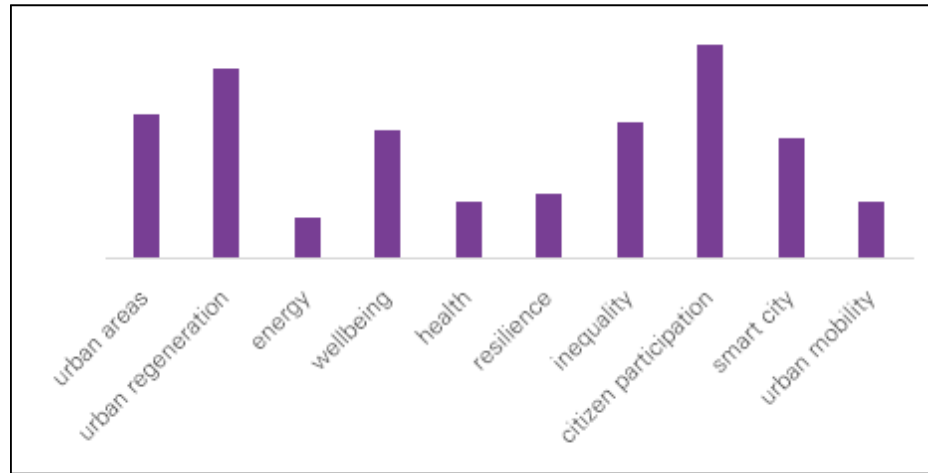
*edge-computing : 기기와 가까운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서 컴퓨팅

**maas : 교통통합서비스

(2) 전문가들이 선택한 키워드 그룹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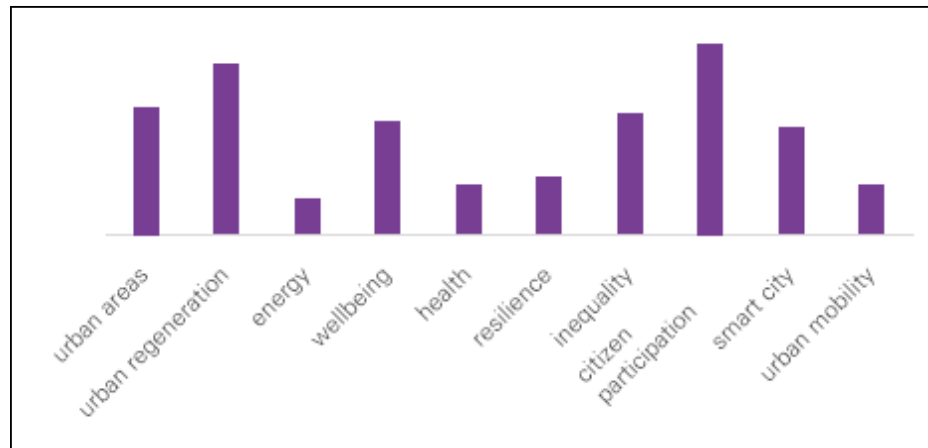
- 가장 많이 선택한 분야 1위 ‘citizen participation’
 - urban regeneration, inequality, wellbeing 등도 많이 선택
 - 부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 도시재생, 양극화 해소, 청년과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꼽은 것으로 분석

〈그림 IV-12〉 전문가들이 선택한 분야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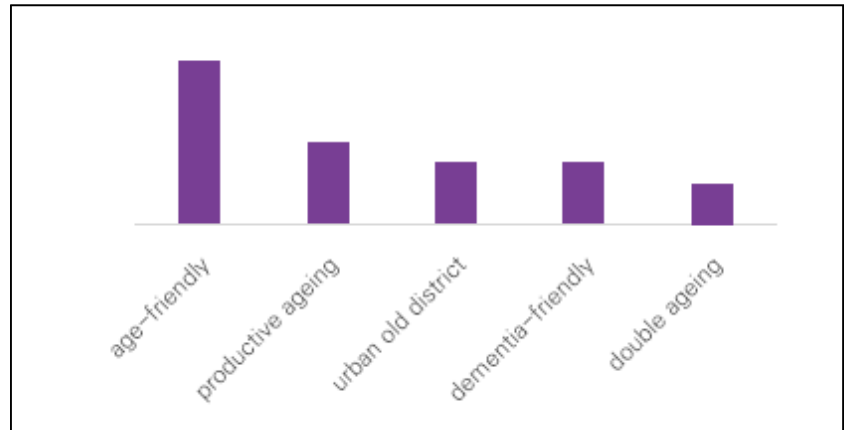
- ‘citizen participation’과 연계된 키워드 ‘collaboration network’이 가장 많이 선택
 - political efficacy, social sustainability 등도 많이 선택
 - 시민참여로 사회적 변화의 경험, 이를 통해 정치적 효용감이 상승하고 부산시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그림 IV-13〉 citizen participation과 2회 이상 연결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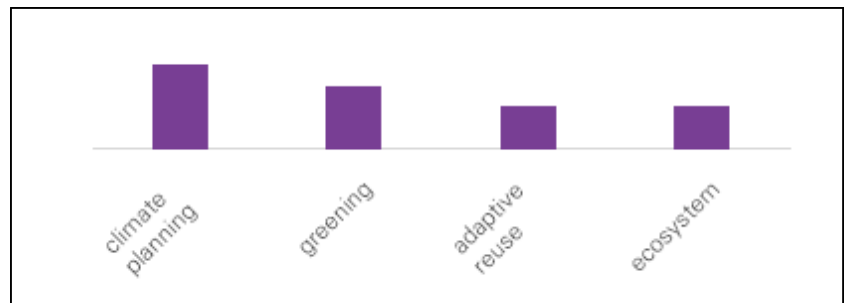
- ‘urban regeneration’과 연계된 키워드로 ‘age-friendly’가 가장 많이 선택
 - productive ageing, urban old district 등도 많이 선택
 - 도시재생의 목표는 노령친화도시여야 하며, 나이가 들어도 사회의 생산 및 재생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 변화해야 함을 시사

〈그림 IV-14〉 urban regeneration과 2회 이상 연결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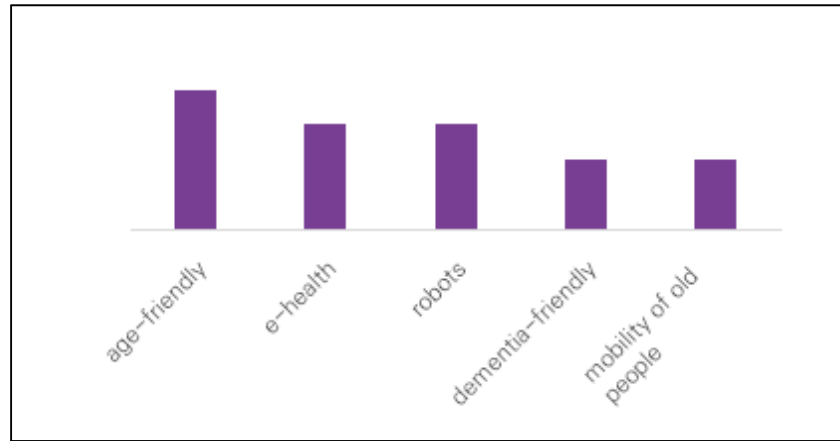
- ‘urban areas’와 연계된 키워드로 ‘climate planning’이 가장 많이 선택
 - greening, adaptive reuse, ecosystem 등도 많이 선택
 - 앞서 도시재생의 목표는 고령친화적 사회의 개발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도시 전체의 변화 목표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적응하는 계획의 수립 언급
 -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의 녹색화, 재활용, 생태적 도시의 구현을 언급

〈그림 IV-15〉 urban areas와 2회 이상 연결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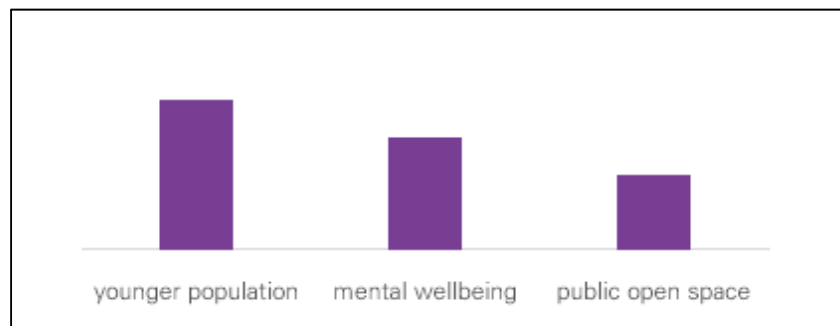
- ‘inequality’와 연계된 키워드로 ‘age-friendly’가 가장 많이 선택됨
 - e-health, robots, dementia-friendly 등도 많이 선택
 - 부산시가 맞이할 이머징 이슈로 양극화가 많이 꼽혔고, 연관 키워드로 선택한 단어들은 고령친화적, 기술로 증진하는 건강, 로봇의 활용, 치매케어중심 등 선택
 - 고령화에 따른 치매 문제 해결 등 계층에 따라 격차 심화, 대안으로 기술(ICT와 로봇기술의 결합 등)을 통한 해결 제시

<그림 IV-16> inequality와 2회 이상 연결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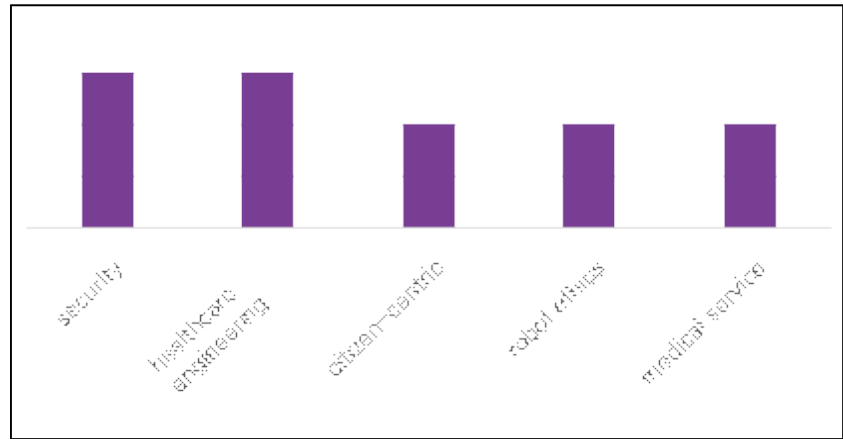
- ‘wellbeing’과 연계된 키워드로 ‘younger population’이 가장 많이 선택
 - mental wellbeing, public open space 등도 많이 선택
 - 웰빙, 삶의 질, 안녕감이 청년세대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정신건강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부산시가 추구할 정책의 초점을 시사
 - 공적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젝트의 필요성 암시

<그림 IV-17> wellbeing과 2회 이상 연결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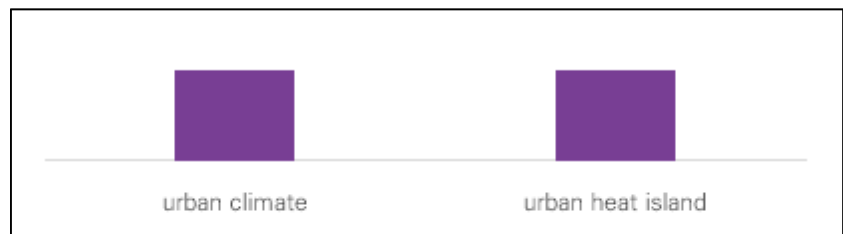
- ‘smart city’와 연계된 ‘security’와 ‘healthcare engineering’ 키워드 많이 선택
 - citizen-centric, robot ethics, medical service 등도 연결됨
 - 스마트시티에서 바라는 것은 안전과 건강이며 기술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
 - 로봇 등의 기술 이용 시 인간중심, 윤리적 관점을 견지해줄 것을 요청

〈그림 IV-18〉 smart city와 2회 이상 연결한 키워드



- ‘resilience’와 연계된 키워드로 ‘responsive city’가 가장 많이 선택
 - 회복력 또는 회복탄력과 도시는 데이터-스마트 기술과 연계
 - 도시 내 다양한 그룹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responsive city의 정의
- ‘health’와 연계된 키워드로 ‘pandemic prevention and control’ 등이 선택
 - resilience, health care 등도 같은 빈도로 연결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 내 건강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관심
- ‘urban mobility’와 연계된 키워드로 ‘low carbon’이 선택
 - 도시 내 교통수단에서 중점을 뒀야 하는 목표로 저탄소 실현을 시사
- ‘energy’와 연계된 키워드로 ‘urban climate’ ‘urban heat island’가 선택
 - 에너지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꼽혔다는 점이 주목
 - 에너지와 연결된 키워드는 도시의 기후변화와 열섬 현상
 -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감, 기후 완화를 위한 혁신적 솔루션 등장 기대

〈그림 IV-19〉 energy와 2회 이상 연결한 키워드



(3) 전문가들이 제기한 이머징 이슈 중 주목되는 내용

- XR+DT+D.N.A(Data,Network,AI)+Blockchain 기술 간 융합
-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방사성 물질 등을 피해 깨끗한 토양과 해양에서 자란 안전한 식품을 얻기 위한 도심형 농/수산업 발달
- 고령화, AI 진전에 따른 반려동물의 위생·복지 정립
-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는 은퇴 후의 상당 기간에 대한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은 필수적인 영역으로 E-Health의 진전
- EU 에라스무스+(Erasmus+) : 13~30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스포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동거가족의 확산, 포용 젠더
- 동남권 쇠퇴(조선, 기계 등 중공업 중심이어서 미래 공동화 예상) → 탈산업해양도시
- 일본 기타큐슈(에코타운 1호) 도시재생사업단 → 견학 도시
- green care, care farming, national park city(London, greener city fund 조성)
- 영국 스코틀랜드 의사, 2018년부터 환자에게 ‘약’ 대신 ‘자연’ 처방. 고혈압, 우울증, 정서불안, 심장질환 환자에게 자연 처방. 미국은 비영리단체 ‘미국자연처방기관(Park Rx America)’을 설립해 자연처방 제공, 만성질환 의료비용 저감. 독일의 자연 처방은 의료인 중 ‘휴양지 의사(Kurarzt/Badearzt, 스파 닥터)’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통해 진행
-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 People and Nature에 게재된 영국 생태 및 수문학 센터(UKCEH)의 연구자들은 자연 기반의 '시민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참가자의 웰빙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 safegrowth : 범죄에 저항하고 활기찬 동네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 safegrowth와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와 같은 방법은 문제가 있는 장소를 범죄로부터 보호
- edge computing과 자율주행차 시대의 연계
- codeconomy(지불은 물론 대부분 협약 및 문서의 QR code화)
- 시애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는 2015 Growth and Equity 일환으로 도시 전역에 대한 비자발적 이주의 위험도를 분석,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주민 취약성, 편의시설에 대한 차별, 토지이용규제에 근거한 개발역량을 이탈의 요인으로 판단,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각 도시의 위험지수를 분석, 취약성 지표, 편의시설 지표, 개발역량 지표 등을 도출하여 분석

결과를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성장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는 포용적 도시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반 이민자 정당의 출현
- 심리적 내전 상태(젠더, 세대, 일터의 불평등 심화)
- 걷기의 사회자본화 → 녹색기본소득⁵³⁾ 도입(walk score) : 걷기의 사회자본화 사례로는 유럽의 ‘오이코텐 프로그램(청소년 초장거리 도보 치유 프로그램)’, 프랑스 랑도네 길 속의 ‘한 길, 한 학교(청소년 능력개발 활동)’, 프랑스 ‘쇠이유(비행 청소년교화 도보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영 케어러⁵⁴⁾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문제 → ICT기반 실버산업, 바이오헬스 성장 가능성
- 성장 약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위기 등으로 위험 고착화,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 영구적 위기)
- 부산시 치매환자 지속 증가(2045년 노인인구 대비 약 14.56%)

(4) 9대 이머징 이슈 도출

-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머징 이슈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부산연구원 및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과의 논의를 통해 부산의 이슈와 연결된 9대 이머징 이슈 도출
- (이머징 이슈 1) **문화재생 융·복합 도시**
 - 소상공인, 문화, 환경, 재생의 융합적 추진
 - 저렴한 주택, 지역 일자리, 지역자원보존, 예술 공간, 공공안전 등을 엮은 도시재생
- (이머징 이슈 2) **다문화 주도의 걷기 편한 사회**
 - 국내 최대의 이민자 포용
 - 다문화 커뮤니티 100개 지원
 - 걷기 편한 문화 향유 도시
 - 걷는 환경 조성에 ‘녹색기본소득’ 지급
- (이머징 이슈 3) **회랑형(corridor) 스마트 평생교육**
 - 구시대와 새시대를 생태보존 컨셉으로 연결
 - 건강, 웰빙, 기후적응, 혁신기술 창업중심
 - 구산업과 신산업의 교차에서 평생교육 개발

53) walk score를 달성한 시민에게 녹색기본소득을 주는 등 걷기를 보편복지로 전환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전략

54) 장애, 질병, 약물 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 (이머징 이슈 4) 개방형 혁신 시대 도래
 - 시민과학자들의 전례 없는 대활약
 - 알고리즘 국가의 출현
- (이머징 이슈 5) 돌봄 거점 도시
 - 고령친화적, 연령 차별 없는 도시
 - 사회적 돌봄, 선택가족 등장
- (이머징 이슈 6)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응
 - 기후변화와 바다 색깔 연구 활성화
 - 도시의 미세기후 측정 및 개선
 - 탈탄소의 민주주의 시험
- (이머징 이슈 7) 식량 확보 불확실성의 확대
 - 가격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식량 거래
 - 블롭(Blob), 해양 폭염의 확산과 어획량의 감소
- (이머징 이슈 8)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새로운 공간
 -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새로운 공간 설계자
 - 재미, 즐거움, 놀이, 배움을 엮는 공간
 - 폭력에 희생 당한 해외 난민 치유
- (이머징이슈 9) 도시의 바닥을 바꾸는 기후 정책
 - 덴마크 코펜하겐, 타일로 도로 바닥 교체
 -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확보 용이
 -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 길거리 문화 융성

〈그림 IV-20〉 9대 이머징 이슈 및 부산의 시사점

 <p>9대 이머징 이슈</p>	<p>1 문화재생 융·복합 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문화, 환경, 재생의 융합적 추진 • 저렴한 주택, 지역 일자리, 지역자원보존, 예술 공간, 공공안전 등을 엮는 도시재생 	<p>2 다문화 주도의 건기 편한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의 이민자 포용 • 다문화 커뮤니티 100개 지원 • 건기 편한 문화 향유 도시 • 걷는 환경 조성에 '녹색기본소득' 지급 	<p>3 회랑형(Corridor) 스마트 평생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시대와 새시대를 생태보존 컨셉으로 연결 • 건강, 웰빙, 기후적응, 혁신기술 창업중심 • 구산업과 신산업의 교차에서 평생교육 개발
	<p>4 개방형 혁신 시대 도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학자들의 전례 없는 대활약 • 알고리즘 국가의 출현 	<p>5 돌봄 거점 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적, 연령 차별 없는 도시 • 사회적 돌봄, 선택가족 등장 	<p>6 기후변화와 새로운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바다 색깔 연구 활성화 • 도시의 미세 기후 측정 및 개선 • 탈탄소의 민주주의 시험
	<p>7 식량 확보 불확실성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식량 거래 • 블롭(Blob), 해양 폭염의 확산과 어획량의 감소 	<p>8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새로운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새로운 공간 설계자 • 재미, 즐거움, 놀이, 배움을 엮는 공간 • 폭력에 희생 당한 해외 난민 치유 	<p>9 도시의 바닥을 바꾸는 기후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코펜하겐, 타일로 도로 바닥 교체 •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확보 용이 •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 길거리 문화 융성

(5) 이머징 이슈 논의 심화

- 소규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2차 이머징 이슈 도출을 위한 워크숍 진행
 - 1차 서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를 선별, 이머징 이슈 속성을 위한 워크숍에 초청하여 기존 이머징 이슈에 대한 논의 및 미래전략 도출
-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구성한 이머징 키워드 그룹
 - 2050년이라는 부산의 비전을 염두에 두고 향후 30년 앞을 전망하면서 필요한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삭제
 - 기존의 키워드 중 ecosystem을 빼고 green care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digital divide를 빼고 디지털 세대를 추가
 -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 웹 3.0, 메타 콘텐츠, 양자컴퓨터 추가

〈표 Ⅳ-7〉 재구성된 이머징 키워드 그룹(이탤릭체)

urban areas	climate planning, greening, adaptive use
urban regeneration	age-friendly, productive ageing, dementia-friendly
energy	urban climate, heat island, <i>net zero</i> , <i>핵융합 에너지</i>
wellbeing	younger mental wellbeing, <i>놀이</i> , <i>public creative/cultural space</i> , <i>green care</i> , <i>반려 로봇</i> , <i>well-dying</i>
health	pandemic prevention and control, <i>재생의학</i>
resilience	responsive city
inequality	e-health, robots, mobility of people
citizen participation	collaboration network, political efficacy, city-to-city union, <i>디지털 세대</i> , <i>웹3.0</i>
smart city	security, healthcare, citizen-centric, medical service, <i>양자컴퓨터</i> , <i>메타 콘텐츠</i> , <i>AI</i>
urban mobility	Shared mobility, <i>지능형 자율 모빌리티</i>
+ 분야 추가	<i>Intelligent tutoring</i> , <i>양육 로봇</i>

- 2차 이머징 이슈 조사에 기반한 미래 전략 도출
 - 이머징 이슈 리스트를 도출하고 이 이슈들이 2050년까지 전개되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논의
 - 이런 논의를 통해 이슈들의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긍정적 효과를 미리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숙의

- 논의를 장기적 시계로 확장하면서 그에 따라 현재에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미래에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예측
- 창의적 발상(the out-of-the box approach)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4)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단어 검색
-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창의적 발상으로 부산의 미래 전략을 확인한 결과, Nexus, Nova, Hub, Extravaganza, Harmonia, Archipelago 등의 키워드를 제시, 이를 활용한 2050 부산의 미래 전략에 대해 전문가에게 요청

(6) 2050년 미래 전략 도출

- (미래전략 1) **Busan, the Living Nexus : 사람, 자연, 기술의 상생적 연계**
 - 디지털 시민과 정부의 민첩한 협업
 - 자연 처방전의 발급, 도시 농업의 확대, 탄소제로의 일상 확산
 - 재능, 소득, 돌봄, 교통, 교육의 공유 커뮤니티 활성화
 - 기존의 사람 중심 패러다임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도 기술도 사람과 연결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협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
 - 개인의 성공이 커뮤니티의 자원으로 축적되고, 이 자원은 다시 개인들의 성공을 위한 씨드머니(seed money)로 활용
 - 관련 이머징 키워드 : Younger mental health, Walkability, health, Green care, Net zero
- (미래전략 2) **The Nova Busan : 경외적 전환과 상상의 도시**
 - 사회적 금기를 먼저 깨는 도시
 - 양자컴퓨팅, 신 에너지 산업의 유치와 확산
 - ICT를 활용한 긍정적 감시 문화 확산으로 안전 사회 확립
 -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 프로젝트는 부산이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한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가 직면한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사회
 - 청년들에게 뭐든 시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 청년들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향유하고 실력을 쌓음
 - 관련 이머징 키워드 : Well dying, Security, 양자컴퓨터, 정보지배 사회, 핵융합에너지

- (미래전략 3) **Busan Aquacultural Extravaganza : 해양문화 창조와 향유의 도시**
 - 해양과 도시 생명의 풍부한 보존
 - 바다가 주도하는 음식 문화의 확산과 바다 연관 예술 문화 창조
 - 문화안전망 구축으로 소수약자들도 향유하는 삶 확대
 - 부산의 특징인 해양을 적극적으로 도시로 끌어들이며 해양문화와 예술을 개발하고 실험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정체성을 드러냄
 - 다양한 개인들이 모자이크 문화를 창조하며 독특한 정체성을 개발하도록 지원
 - 관련 이머징 키워드 : Public creative space, Invisible friends, Age-friendly, Mental health, 메타 콘텐츠
- (미래전략 4) **Busan-Longevity with Dignity : 장수와 존엄의 도시**
 - AI 기반 의료 서비스와 돌봄 사회의 구현
 - 로봇의 도움으로 생산적 고령 세대 확대
 - 인간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도시
 - 고령화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는 도시이며 역설적으로 ‘죽기에도 좋은 도시’가 ‘살기에도 좋은 도시’임을 증명하는 전략
 - 연령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서로 존엄을 지키며 존중하는 도시
 - 관련 이머징 키워드 : productive ageing, cultural diversity, age-friendly, medical service, responsive city, 지역 소외, 사회적 고립

04

요약 및 시사점

1) 이머징 키워드 발굴을 통한 부산의 이슈 도출

- 이머징 키워드 age-friendly, social caring 등은 가족해체와 고령화, 지역소멸로 노인층 일상의 위협 증가 시사
- 이머징 키워드 urban regeneration, walkability 등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증가, 도시 인프라의 낙후, 환경오염의 심화, 걷기 편한 도시의 등장 등을 강조
- 이머징 키워드 urban mobility, heat island 등은 탄소 저감 교통수단의 등장, 탈산업과 탈탄소 해양도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
- 이머징 키워드 mental health, wellbeing, medical city 등은 청소년, 시민의 정신건강 악화, 고령자를 위한 의료도시로의 전환 요구
- 이머징 키워드 inequality, codeconomy 등은 경제적 양극화, 지역 산업공동화와 폐산업지대의 증가에 따른 우려와 대안 요구
- 이머징 키워드 citizen participation, collaboration network 등은 지방분권 강화, 지역도시 연맹 추세에 맞는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등 필요
- 이머징 키워드 digital divide, AI ethics 등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전방위적 활용에 따른 지식, 정보 격차에 대한 우려

2) 이머징 이슈의 정책적 시사점

- 여러 이머징 이슈를 관통하는 키워드로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으로 시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부산의 전략 요구
- 특히, Green(녹색환경), Age-friendly(고령친화), Smart(첨단기술), Health(건강) 등을 담아낸 이머징 이슈 주목
- Green : 부산시 전체를 국립공원화, 기후적응 및 완화 도시로 전환
 - 부산시 내 전체의 도로바닥을 타일로 교체(덴마크 코펜하겐 사례),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확보 등
 - 부산시 전체를 걷기 편하고 사람들이 어울리기 좋은 도시로 전환(런던 National Park London 사례)

- Age-friendly : 고령친화적, 연령 차별 없는 도시, 경쟁 도시에서 돌봄 도시로 전환
 - 고령친화적인 부산을 기대하는 이머징 이슈도 제기
 - 늙어가는 부산을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나이 들어가는 휴양과 삶의 도시, 세대별로 차별받지 않는 도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도시로 전환
- Smart :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효율성 증가
 - 기술과 사람,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의 등장
 - 인공지능, 생명공학, 메타버스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 제시
 - 여러 센서를 통한 정보의 실시간 수집, 디지털 시민들의 활약 등을 통해 변화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도시 구현
- Health : 어디든 걷기 편하고 즐거운 도시, 다양한 언어 커뮤니티 포용도시
 - 시민들의 걷기를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고 ‘녹색소득’ 지급
 -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도시의 등장 제기

3) 이머징 이슈를 통한 부산의 불안 해소와 미래 가치 도출

- 이머징 이슈 탐색을 통해 도출된 부산의 미래 이슈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및 수도권 일극화로 청년 인구 유출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또한 공동체와 가족해체, 외로움 증가, 사회적 고립 인구 등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며, 시민 주도의 사회 혁신 동력의 감소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구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풍부한 근대산업유산의 장점을 활용하는 정책도 고려
- 무엇보다 하천 및 해양오염으로 물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원전 노후화 및 폐기물 처리 문제에도 관심 제고
- 응급의료체계 부족과 특성화 병원 부족 문제 해결과 도심 녹지공간의 확대와 원도심 노후주택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V.

꿈을 위한 2050 BUSAN PLAN의 비전 체계

1. 미래 가치 및 비전 도출
2. 2050 BUSAN PLAN 비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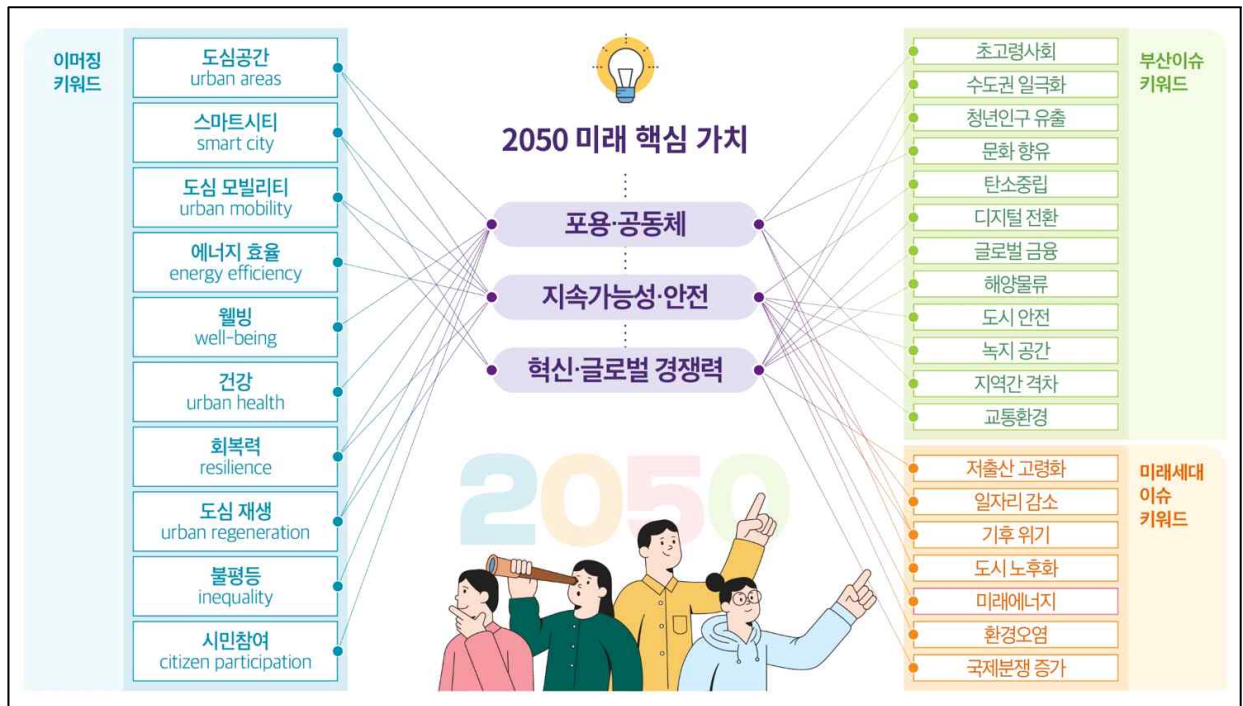
01

미래 가치 및 비전
도출

1) 2050 꿈을 위한 Big 가치 도출

- 부산의 이머징 이슈, 현재 주요 이슈 및 미래세대 이슈 키워드를 통한 2050 핵심 가치 발굴
 - 이머징 이슈를 통해 도출한 키워드는 도심공간, 스마트시티, 도심 모빌리티, 에너지 효율, 웰빙, 건강, 회복력, 도심 재생, 불평등, 시민 참여
 - 현재 부산이 가진 이슈 키워드는 초고령사회, 수도권 일극화, 청년인구 유출, 문화 향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글로벌 금융, 해양물류, 도시 안전, 녹지공간, 지역 간 격차, 교통환경
 - 부산의 미래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이슈 키워드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감소, 기후위기, 도시 노후화, 미래에너지, 환경오염, 국제분쟁 증가
- 국내외 동향과 이머징 이슈, 미래세대 이슈 키워드를 관통하는 2050 Big 가치 최종 도출
- 2050 부산의 미래는 시민공동체 누구나 차별 없이 포용하는 행복 공동체를 지향하고(포용·공동체), 도시의 기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지속가능성·안전), 경제·산업적으로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자유로운 글로벌 도시를 지향(혁신·글로벌 경쟁력)하도록 설정
- **(포용·공동체)**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
 - 포용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기본 소양으로 나고 자라서 늙어갈 수 있는 내 삶터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가치
 - 미래 부산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포용 도시를 꿈꾸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 지향
- **(지속가능성·안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가치 지향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시민 안전 및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 제공
- **(혁신·글로벌 경쟁력)** 성장과 혁신의 기회 도시
 -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도시의 혁신성을 높여 청년이 모여드는 성장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산업의 혁신적 체질 전환 가치

〈그림 V-1〉 2050 미래 핵심 가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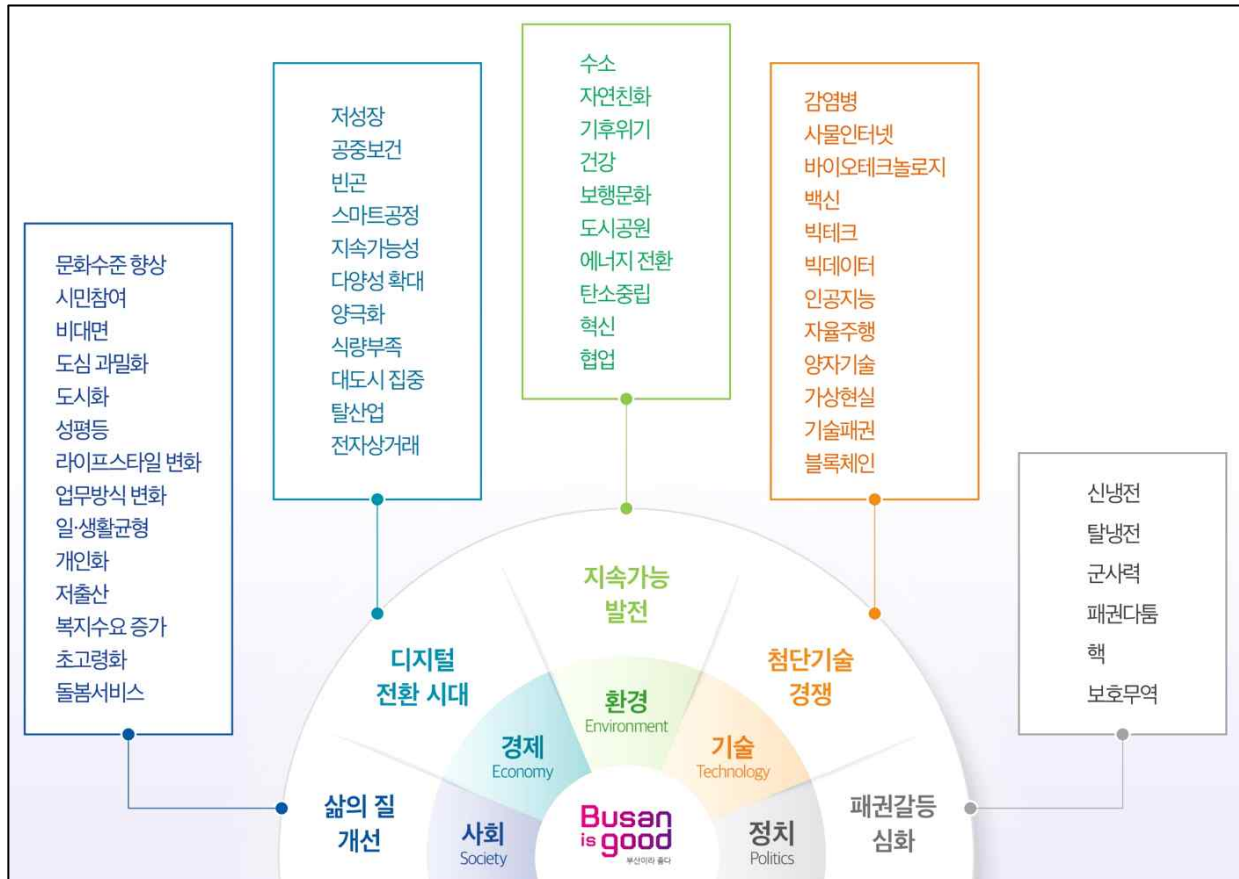
2) 2050 꿈을 위한 Big 비전 도출

- 부산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우리나라 최고 해양도시로서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해 조선, 해양, 물류 그리고 금융 허브도시를 지향
- 한때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고 동남권 경제·산업을 뒷받침한 제2의 수도였으나, 수도권 일극체제의 확대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장기간의 침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
- 전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매력적인 도시이자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미래 도시 부산을 위한 2050 Big 비전 「모두의 부산, 글로벌도시 부산」 제시
 - ‘모두의 부산’은 부산을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해양을 뚫어 나가는 개방형 도시로의 지향을 나타내는 비전으로 세계인이 살고 싶은 도시 지향
 - 이를 통해 달성할 도시는 국제 자유도시, ‘글로벌 도시 부산’으로 단순히 선언적인 용어가 아닌 경제, 산업, 인재, 문화, 복지, 환경, 관광, 인프라 등 도시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 수준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표명

3) 2050 꿈을 위한 Big 목표 및 실행전략 도출

- 도시 전 분야에 대한 글로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와 부산의 주요 이슈를 고려한 목표 및 실행전략 수립
- 2050 부산 플랜에서는 사회, 경제, 환경, 기술, 정치 등 분야 전반을 고려한 도시 전략 도출
 -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에 중심 둔 전략 제시
 - (경제·환경)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경제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환경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
 - (기술·정치)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글로벌 패권다툼이 심화되는 국제사회 속에서 지역의 특색 및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 제시

〈그림 V-2〉 2050 미래 도시 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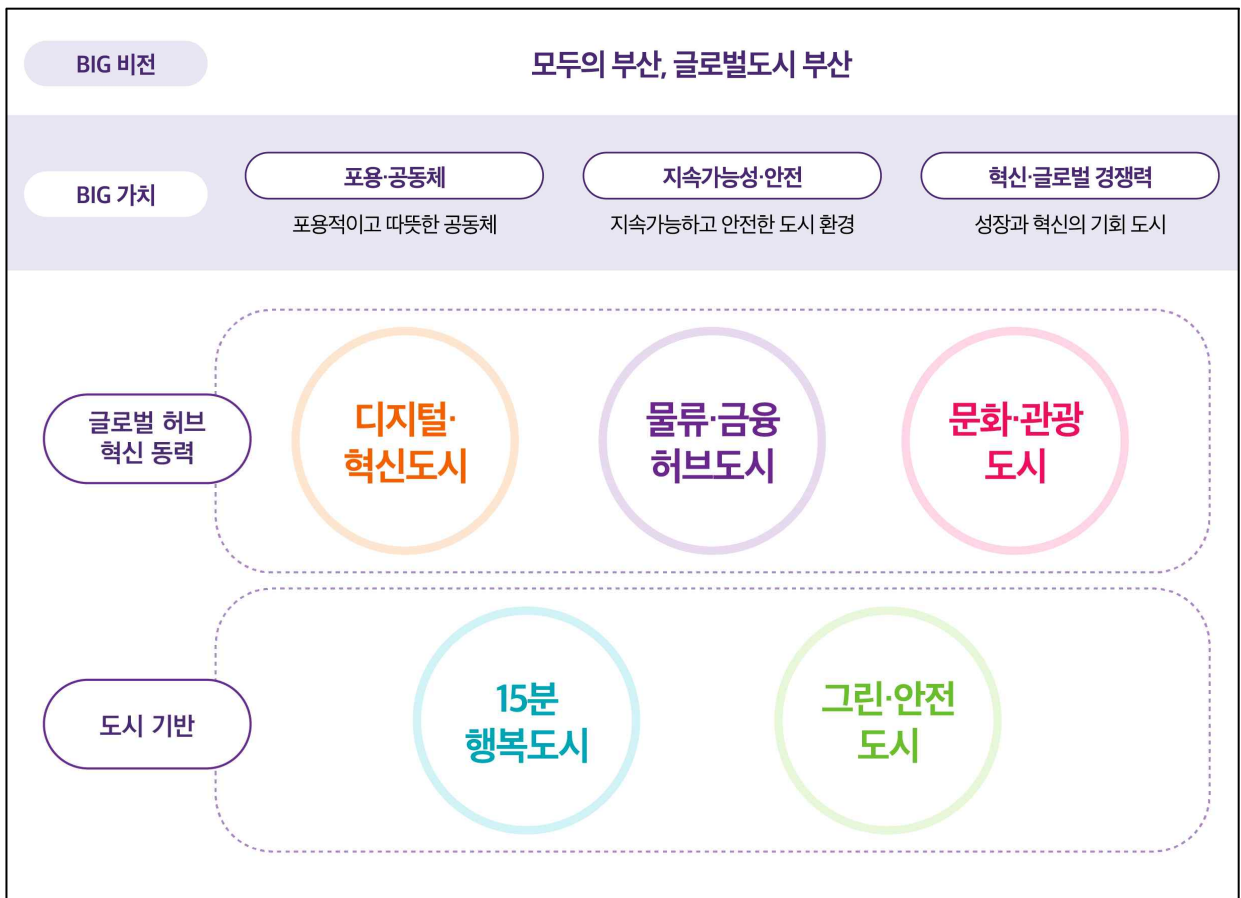
02

2050 BUSAN PLAN 비전 체계

1) 2050 BUSAN PLAN 비전 및 전략 체계

- 2050 부산 플랜은 「모두의 부산, 글로벌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에 따라 3가지 Big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달성할 부산의 미래상 5개 목표 제시
- 궁극적으로 글로벌도시 부산으로 가기 위해 ‘15분 행복 도시’와 ‘그린·안전 도시’를 통한 도시 기반 구축, ‘디지털·혁신 도시’, ‘물류·금융 허브 도시’, ‘문화·관광 도시’를 통한 글로벌 허브 혁신 동력 마련

〈그림 V-3〉 2050 BUSAN PLAN의 Big 비전·가치·목표



- Big 목표 달성을 위한 15대 실행전략 및 30대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부산은 글로벌도시로서 시민행복도시 지향
- **15분 행복 도시의 실행전략 및 프로젝트**
 - ① **부산형 복지로 돌봄 공동체**
 - 01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도시 / 02 노후가 활기찬 액티브 에이징 도시
 - ② **행복한 평생 배움 도시**
 - 03 꿈과 희망의 아이 놀이터, 부산 / 04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 도시
 - ③ **15분 연결 콤팩트 생활권**
 - 05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는 15분 부산 / 06 안전하고 편안한 신교통 도시
- **디지털·혁신 도시의 실행전략 및 프로젝트**
 - ④ **첨단산업 남부권 허브 도시**
 - 07 첨단 서비스 융·복합 산업도시 / 08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 ⑤ **지산학 중심 기술창업 도시**
 - 09 도전과 성공의 창업도시 / 10 지산학으로 만드는 인재 도시 부산
 - ⑥ **혁신·융합 글로벌 인재 도시**
 - 11 외국어가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 도시 / 12 제도적 울타리 없는 개방형 인재 교육
- **그린·안전 도시의 실행전략 및 프로젝트**
 - ⑦ **친환경 넷-제로 도시**
 - 13 규제 프리형 에너지 산산업 선도 도시 / 14 자연과 산업이 조화되는 순환경제 도시
 - ⑧ **지속가능한 그린 생태도시**
 - 15 먹는 물 걱정 없는 맑은 물 도시 / 16 푸르른 부산, 한국의 에메랄드 시티
 - ⑨ **스마트 안전 도시**
 - 17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시티 / 18 첨단기술로 지키는 안전 도시
- **물류·금융 허브 도시 의 실행전략 및 프로젝트**
 - ⑩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19 혁신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허브도시 / 20 미래도시 건설
 - ⑪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허브**
 - 21 전 세계로 뻗어가는 미래공항 / 22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글로벌 허브
 - ⑫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 23 디지털 기술 기반 블록체인 수도 / 24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
- **문화·관광 도시 의 실행전략 및 프로젝트**
 - ⑬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
 - 25 하이엔드 문화·예술 도시 / 26 일상 속 문화가 살아있는 부산
 - ⑭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도시**
 - 27 세계인의 열정이 만나는 메가이벤트 도시 / 28 문화가 관광이 되는 품격있는 도시
 - ⑮ **경관이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
 - 29 부산다운 건축으로 세계가 매료되는 도시 / 30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경관 도시

〈그림 V-4〉 2050 BUSAN PLAN의 비전 체계



VI.

2050 부산의 꿈을 위한 Big 프로젝트

1. 15분 행복 도시
2. 디지털·혁신 도시
3. 그린·안전 도시
4. 물류·금융 허브 도시
5. 문화·관광 도시

1

2050 Big 프로젝트

Big 목표 01

15분 행복 도시는 부산형 복지를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공동체를 지향하고, 일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 노후가 행복한 액티브 에이징 도시를 꿈꾸며,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어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 삶의 공간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도시 프로젝트



15분 행복도시

○ Big 실행전략

01 복지

부산형 복지로 돌봄 공동체

- 01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도시
- 02 노후가 활기찬 액티브 에이징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이 행복하며, 노후의 삶이 활기찬, **생애 전 주기 동안 돌봄 걱정없는 도시 공동체 조성**

02 배움

행복한 평생 배움 도시

- 03 꿈과 희망의 아이 놀이터, 부산
- 04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 도시

빠른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 습득이 원활하며, 아이와 함께 놀면서 배우는 공간이 넉넉한 도시, 은퇴 후에도 인생 다모작 준비가 가능한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도시 육성**

03 공간·연결

15분 연결 콤팩트 생활권

- 05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는 15분 부산
- 06 안전하고 편안한 신교통 도시

도시 인프라로 단절된 도심 공간을 연결하고, 15분이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이 연결된 도시, 도보·자전거 및 대중교통 체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축되어 **시민들의 삶이 회복되는 15분 생활권 도시 완성**



성과지표 ○

》 2050 부산 플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될 **15분 행복 도시** 프로젝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 긴 시간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지수를 활용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정책 최적화

》 **15분 행복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성과평가를 위해 도시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활용

-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현재(2023년, 서울 60위) 부산은 순위권 밖에 있으며, 단계적 노력을 통해 2050년 30위를 목표로 설정

- **세계 삶의 질·생활환경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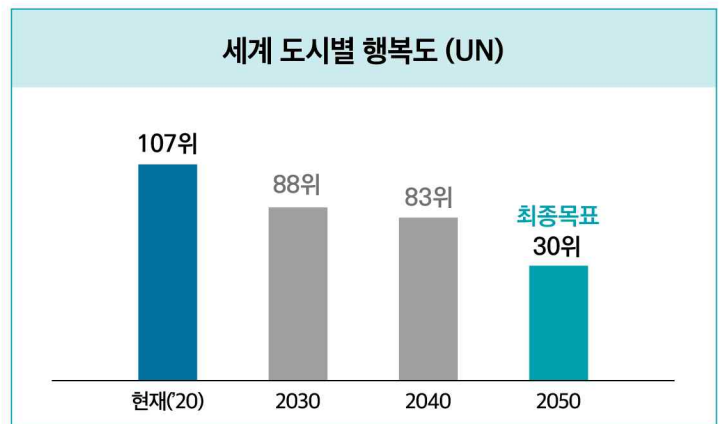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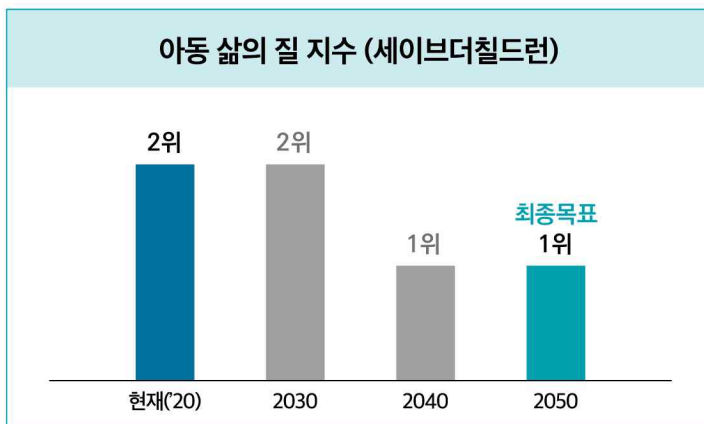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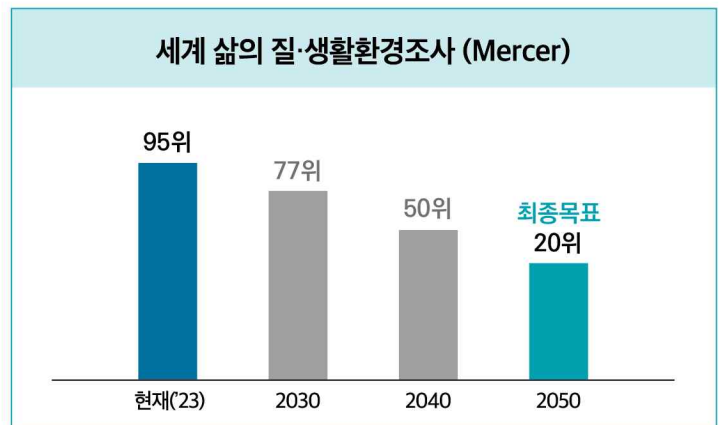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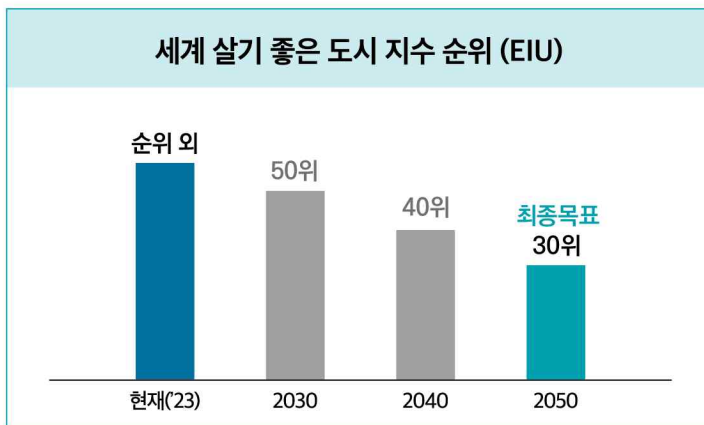
현재(2023년, 서울 81위) 부산은 전체 95위, 아시아 10위로 2050년까지 전체 순위 20위까지 상승을 목표

- **아동 삶의 질 지수**

현재(2020년) 부산은 1위 세종에 이어 2위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유지 및 개선하도록 목표 설정

- **세계 도시별 행복도**

현재(2020년, 서울 83위) 부산은 107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는데 2050년 30위권 내 진입을 목표



전략 01

부산형 복지로 돌봄 공동체(1)

1)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도시

■ 사업목적

-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및 정책에 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제공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등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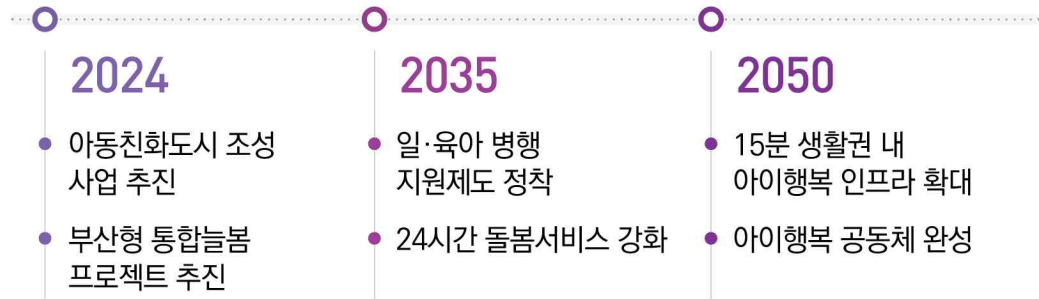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부산형 임신·출산·양육 단절 없는 부산형 돌봄체계 구축
 - 0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부산형 육아지원체계 구축·지원
 - 임신부·영유아 스마트 케어를 통해 편리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강화
 -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여성경제활동 지원
-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행복마을 조성
 - 아동권리사업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놀 권리 보장
 - 아동·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시행
 - 타운워칭을 통한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개선 대책 마련
- 공공형 돌봄 플랫폼 '부산형 통합늘봄' 완성
 - 맞춤형 놀이 및 체험 중심의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과 연계한 통합방과후학교, 우리동네자람터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협력하여 통합돌봄 체계 완성

■ 기대효과

- 부산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안전, 돌봄 등 부산형 통합체계 구축
- 행복한 공동체 완성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

» 단계적 계획



자료 : freepik

전략 01

부산형 복지로 돌봄 공동체(2)

2) 노후가 활기찬 액티브 에이징 도시

■ 사업목적

- 베이비붐세대 등 기존 노년 세대와 다른 새로운 신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인생 다모작 개념 도입
- 신중년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재취업, 창업, 상담,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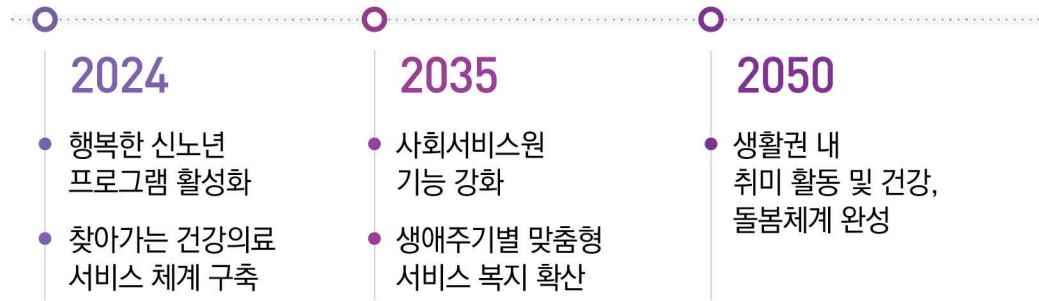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기」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신노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자조적 모임 활성화
 -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 여가·커뮤니티활동 공간 조성
 - 장년층 생애재설계 교육을 통해 인생2막 준비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공헌 및 사회적 경제 등 참여 유도
- 안녕한 부산 돌봄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시스템화
 - ‘안녕한 부산 돌봄 추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복지 프로그램 확산
- Smart Mobility 기반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의료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검진·상담, 건강교실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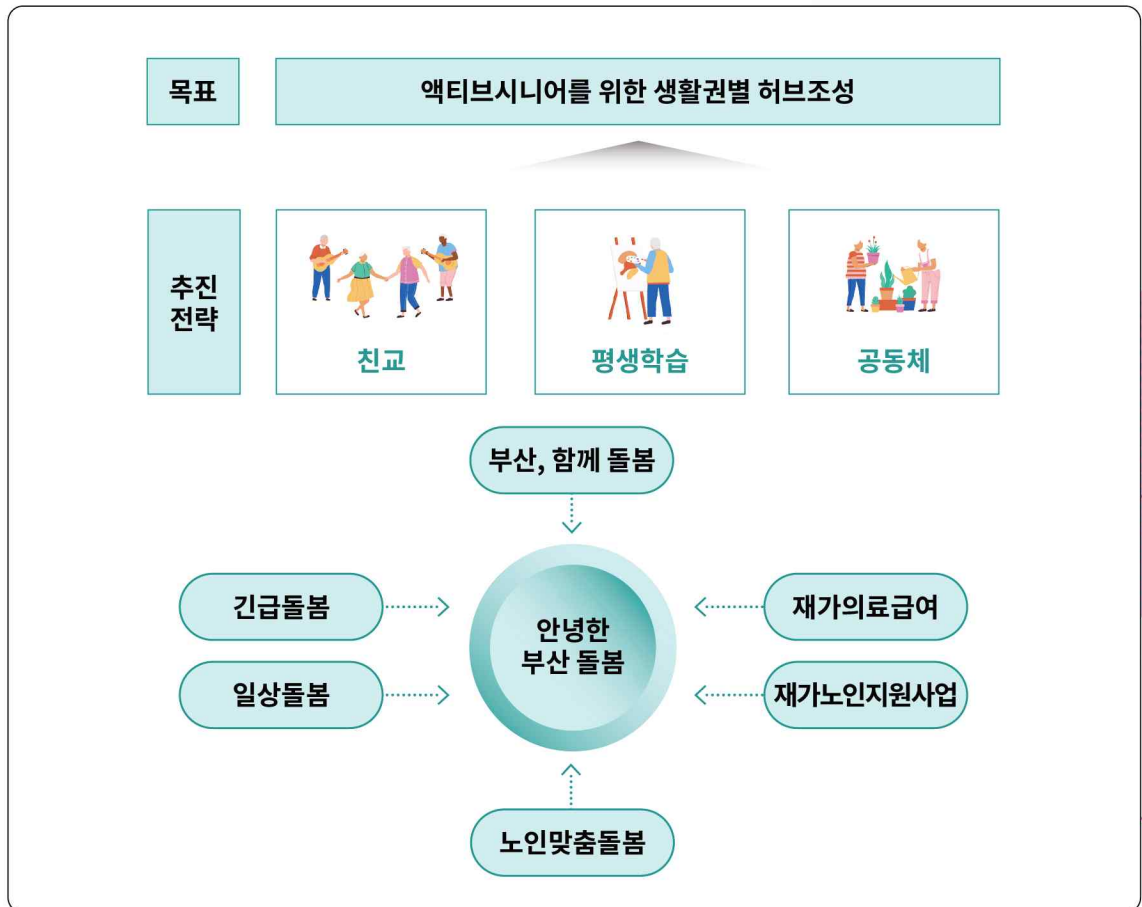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신중년에서 신노년을 넘어 노인 계층까지 사회참여, 건강증진, 안전, 교육 등을 통한 삶의 활력 제고
- 새로운 가치를 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복지증진

» 단계적 계획



자료 : freepik



자료 : 부산시

전략 02

행복한 평생 배움 도시(1)

3) 꿈과 희망의 아이 놀이터, 부산

■ 사업목적

- 지역 사회의 놀이 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마련과 놀이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
- 도서관, 복지관, 박물관, 구청·동사, 체육시설, 재활용센터 등 시설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셉트로 조성 중이며 들락날락을 대표하는 콘텐츠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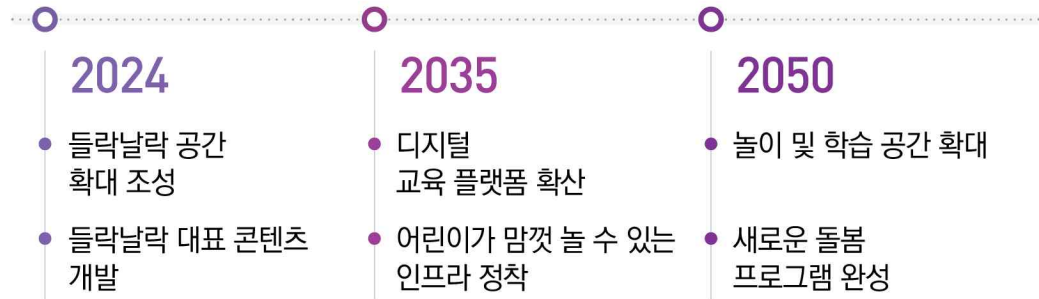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학습 공간 확대 조성
 - 15분 생활권 내 도서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체험·학습, 영어학습, 문화·예술·디지털 교육 등 가족친화공간 조성
- 내집 근처 어디에나 놀이터가 있는 놀이 및 학습 15분도시 조성
 - 부산시청 및 구·군 소재 들락날락 활용한 ‘맘껏놀자’ 사업 확대
 - 생활권 내 어린이 놀이 및 학습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
- 배움과 문화적 향유를 위한 디지털 소외계층 아동 지원 강화
 - 디지털 소외계층 아동들의 학습 및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별 교육서비스 격차 해소

■ 기대효과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브랜드 정착을 통한 어린이 학습과 놀이가 함께하는 도시환경 구축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적합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단계적 계획



자료 : 부산시

전략 02

행복한 평생 배움 도시(2)

4)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 도시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발전 등 사회적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지식습득이 중요하게 인식
- 또한 은퇴자의 사회적 공헌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평생학습 연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필요

■ 사업내용

- 일상 속 평생교육을 위한 생활권 내 평생학습 공간 확대 조성
 - 평생학습 거점 기관 조성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보수집 및 주민 상담 등 구·군 평생학습의 종합적 기반 마련
 -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학습센터 확충 및 대학 기능과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일상 생활 속 도서관 기능 강화와 함께 독서와 공부하는 문화 확산
-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은퇴 후 전문인력의 사회적 공헌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중개 플랫폼 구축
 - 신중년 사회공헌 연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밀착형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디지털 배움 인프라 조성
 - 디지털 배움터,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 기대효과

- 생활권 중심 대학, 기업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
- 배움과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 단계적 계획



2024

- 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 지역대학 연계 온오프라인 부산시민대학 운영 활성화
- 15분 평생학습 특화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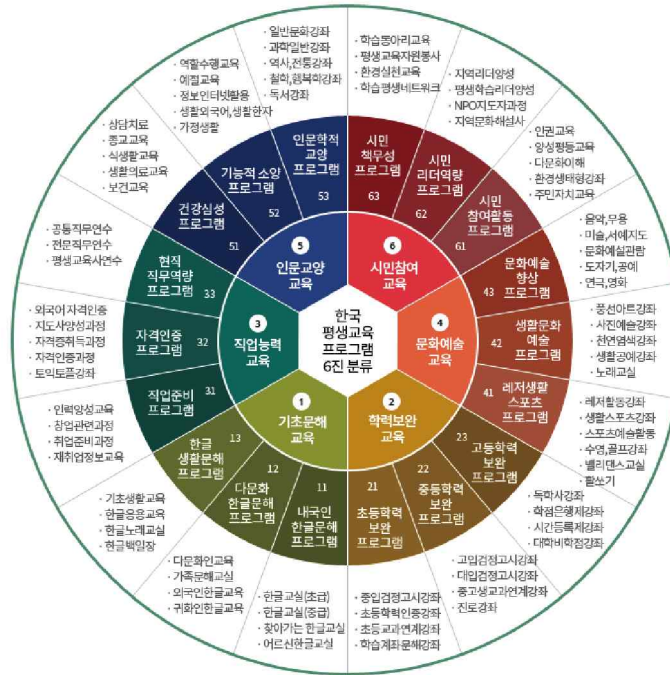
2035

- 온시민 평생학습 이력관리 체계(플랫폼) 고도화
- 찾아가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

2050

- 생활권 내 평생학습 지원체계 완성

부산에는 나에게 맞는 평생학습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료 : 부산시

전략 03

15분 연결 컴팩트 생활권(1)

5)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는 15분 부산

■ 사업목적

- 부산의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는 1905년 개통한 이래로 지역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데 최대 걸림돌
- 경부선 도심구간 노선의 지하화로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고, 지상 구간의 공원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제고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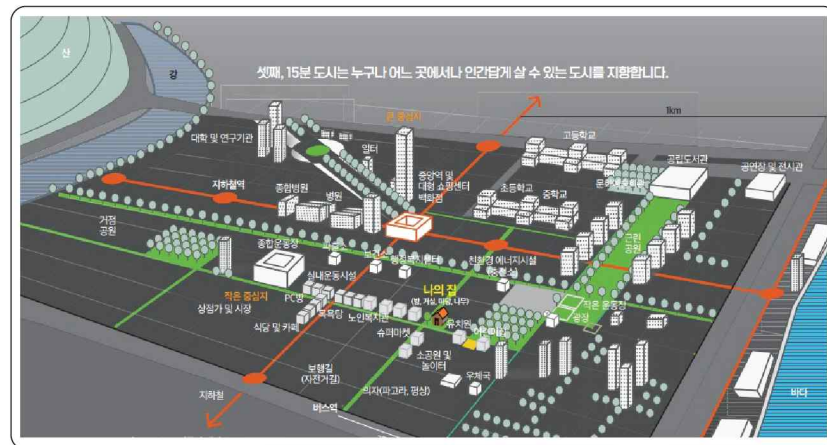
- 교통시설로 단절된 도심 공간의 연결
 - 경부선 화명역~부산진역 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 범천철도차량정비단 재개발을 통한 도심공간 활력 제고
 - 가야철도차량정비단 시설 재배치를 통한 도심 내 단절 공간 활용
- 노후화된 생활인프라로 단절된 생활공간 연결
 - 산복도로 지역 급경사 골목길 등 단절된 보행 공간의 연결을 통한 15분 보행도시 조성
 - 급경사지 이동성 향상을 위한 모노레일 등 이동장치 설치 확대
- 도로로 단절된 이동공간 연결
 - 수변공간을 단절하는 도로 상부공간 연결통로 설치 확대

■ 기대효과

- 시민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도시재생을 통한 새로운 공간 창출로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도심권 성장동력과 장래 발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단계적 계획

- | | | |
|--|--|---|
| <p>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특별법 발의 후속 시행령 및 기본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 • 선도사업 착수 | <p>20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 <p>20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공간 공원화로 삶의 질 제고 • 단절된 공간 연결로 공동체 회복 |
|--|--|---|



자료 : 부산시

전략 03

15분 연결 컴팩트 생활권(2)

6) 안전하고 편안한 신교통 도시

■ 사업목적

- 지역 간 중심의 대량 수송인 대중교통은 도시내 교통수요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며, 탄소중립 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필수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개인형 자율주행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모빌리티 도입과 함께 노선형 대중교통의 최적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 사업내용

- 2050 대중교통 중심의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수소·전기버스) 대중교통 구축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15분 도시 대중교통 노선체계 전면 개편
 - 권역별 AI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시내버스 도입
 - 도시 거점 버디포트 조성(도심항공모빌리티, 하이퍼루퍼 등 연계)
-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중심 부울경 1시간 내 생활경제권 완성
 - 부산 도심구간(가덕도신공항~오시리아) 및 동남권 광역연계구간
- 스마트한 교통신호 운영체계 완성
 - 교차로 모든 방향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교통신호 운영

■ 기대효과

- 부산지역 내 생활권은 15분, 부울경은 1시간 생활권 조성
- 교통신호 최적화를 통한 교통정체 감소로 15분 도시 완성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

» 단계적 계획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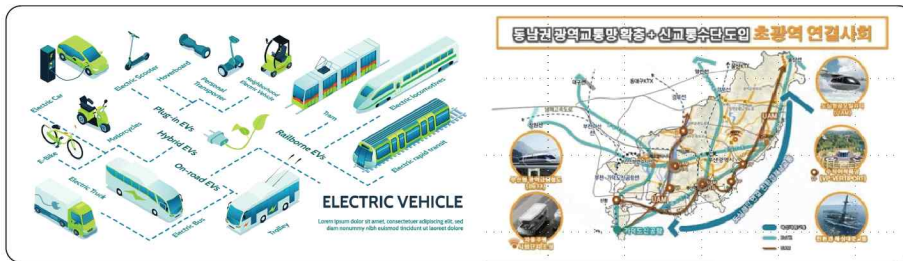
- 탄소중립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 15분 도시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

2035

-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 완전 연계
- 권역별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시내버스 도입

2050

- 도심항공모빌리티 허브 조성
- 하이퍼루프 구축



자료 : 부산시, freepik

디지털·혁신 도시는 미래 산업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력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부산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산업 육성과 지자체 주도의 산학협력 인력 양성으로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도전과 혁신이 활발한 기술창업 도시, 글로벌 인재의 도시로 성장하는 프로젝트

디지털· 혁신도시

○ Big 실행전략

04 산업

첨단산업 남부권 허브 도시

- 07 첨단 서비스 융·복합 산업도시
- 08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주력산업의 육성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고려하여, 부산 경제산업의 미래를 위해 첨단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중추도시**로 자리매김

05 창업

지산학 중심 기술창업 도시

- 09 도전과 성공의 창업도시
- 10 지산학으로 만드는 인재 도시 부산

새로운 산업의 이식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함께 기술창업 인력 양성,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기관, 클러스터 등의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산학 중심의 창업 특화도시** 완성

06 인재

혁신·융합 글로벌 인재 도시

- 11 외국어가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 도시
- 12 제도적 울타리 없는 개방형 인재 교육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인재 육성 체계와 맞춤형 교육 서비스,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으로 **혁신과 성장의 중심인 글로벌 인재 도시**로 전환



성과지표 ○

» **디지털·혁신 도시**는 부산이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창업과 인재양성이 특화된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함에 따라 관련된 프로젝트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수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도시지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 「최고의 학습 도시 순위」를 설정

●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글로벌 도시지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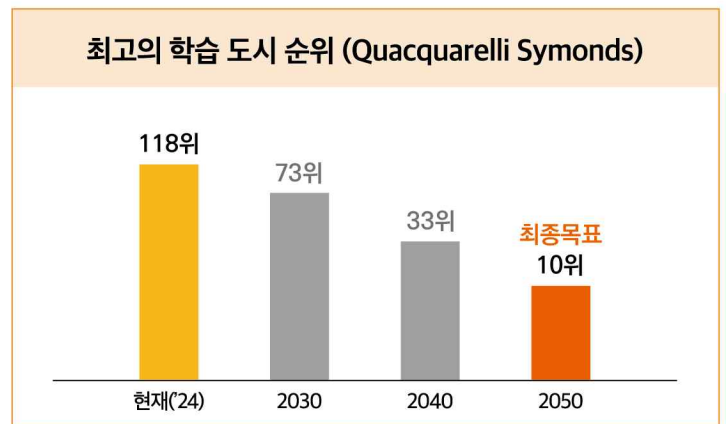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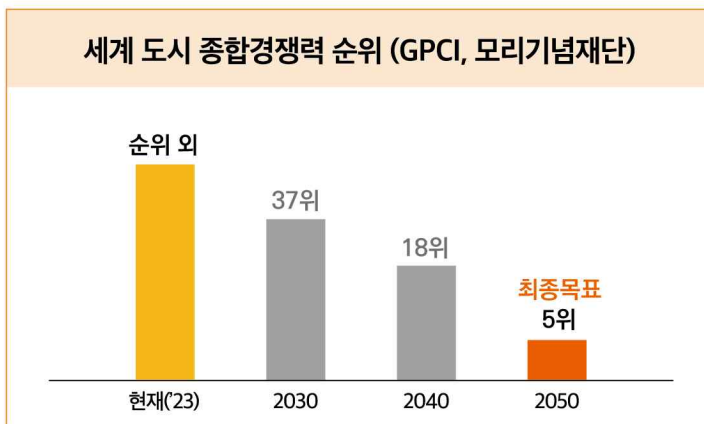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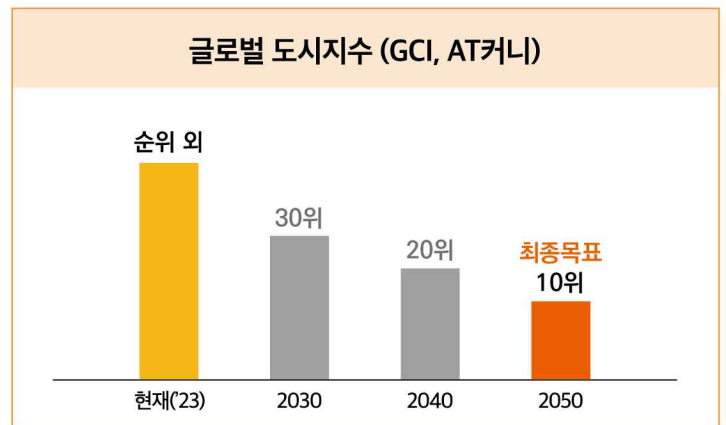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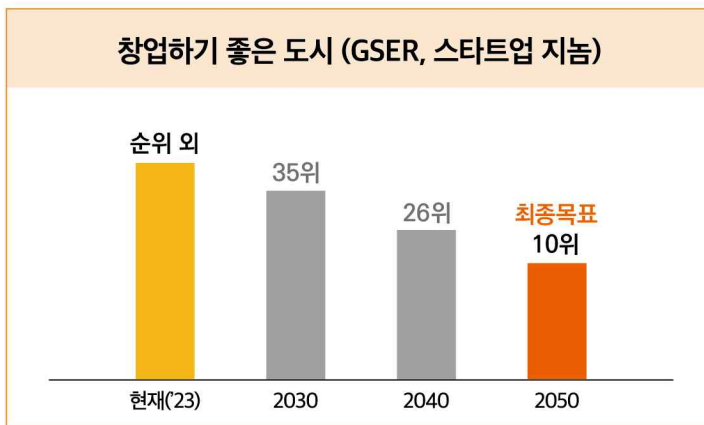
현재 부산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지수와 글로벌 도시지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에서 순위권 밖에 있으므로 2050년까지 상위권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전략들을 고려할 때 세계인이 모여들 수 있는 도시 수준을 위한 전략적 모니터링 필요

● 최고의 학습 도시 순위

현재(2024년, 대전 73위) 부산은 118위이며, 2050년 현재 싱가포르(15위) 수준을 뛰어 넘는 10위권 목표

- 인재양성은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정책이므로 글로벌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목표 필요



전략 04

첨단산업 남부권 허브 도시(1)

7) 첨단 서비스 융·복합 산업도시

■ 사업목적

- 부산은 지역주도 첨단 ICT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신기술을 선제 발굴 및 육성 중
- 산업단지 기능의 복합화 및 스마트화, 인접 도시기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도심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필요

■ 사업내용

- 도심 내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추진
 - 역외(국제)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 디지털융합 산업 특화단지 육성
 - '센텀지구' 중심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으로 기업 활용 가능 연구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 인력 양성
 - 양자 관련 원천기술 발전에 대응한 지역 인재 양성, 산업 활용사례 발굴 및 기업 육성지원 등 지역 기반 양자정보기술 실증 및 생태계 조성

■ 기대효과

- 동남권 ICT지식산업 수요를 충족하는 세계적 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
- 양자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전략산업 솔루션 강화 및 디지털 산업 경쟁력 제고

» 단계적 계획

2024

- 센텀2 도시첨단산단 조성
- 디지털 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 쿼텀 기술개발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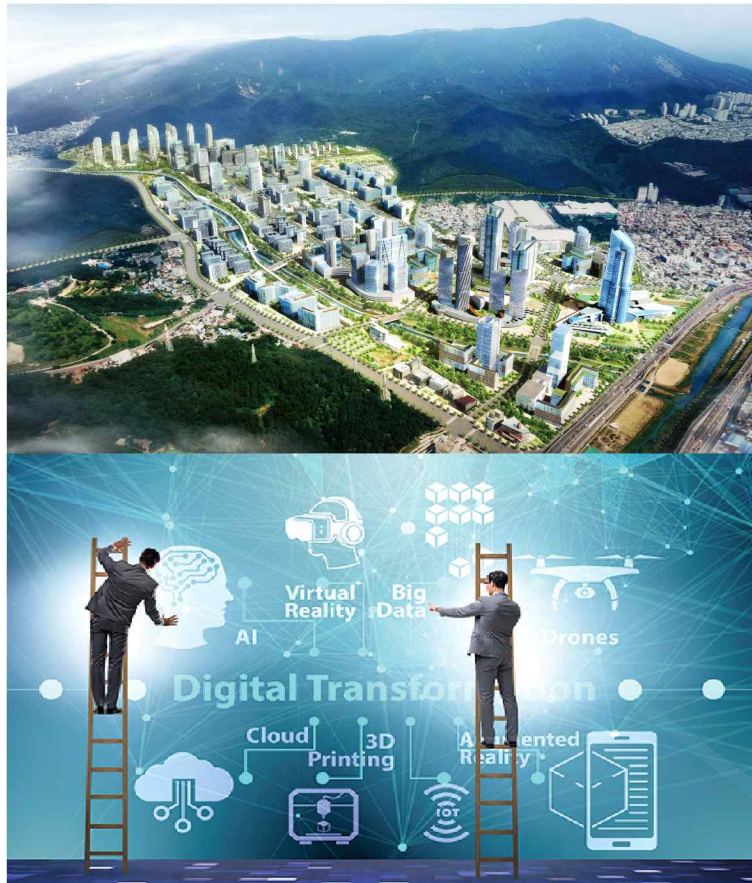
2035

- 양자 혁신클러스터 조성
- 첨단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 협력 추진

2050

- 디지털 서비스 융복합 도시 전환
- 양자 등 첨단기술 글로벌 기업 유치

센텀2지구 조감도



자료 : 부산시, LG CNS

전략 04

첨단산업 남부권 허브 도시(2)

8)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 사업목적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부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을 전기차 부품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필요
- 또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도심연결 친환경 항공교통체계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적극 육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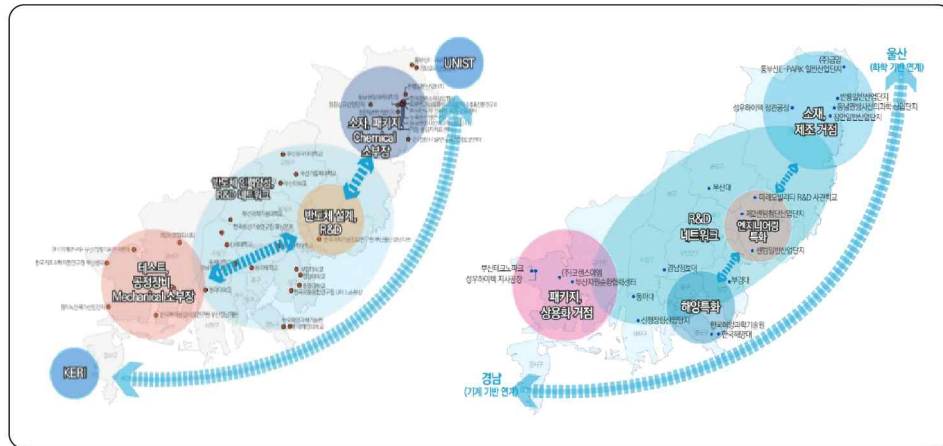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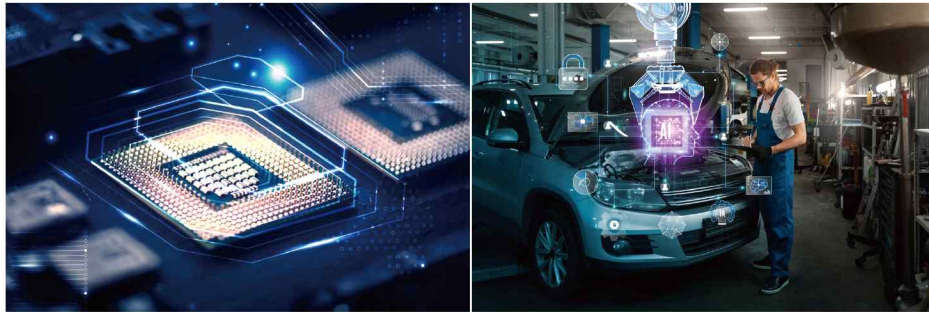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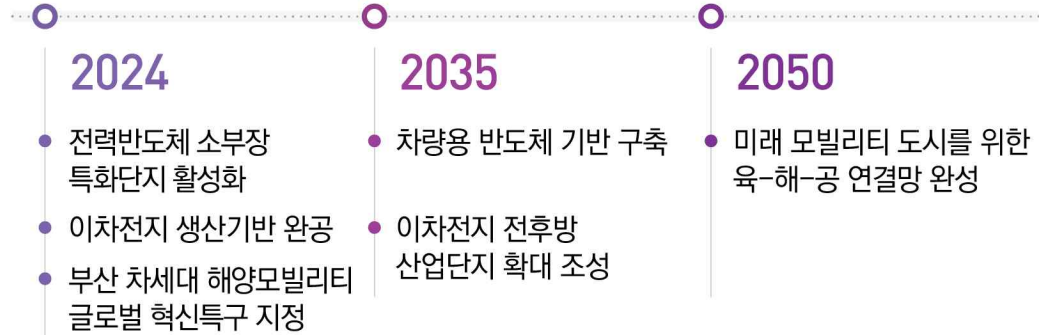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
 -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전력반도체를 부산의 미래먹거리로 육성
 - 이와 함께 차량용 센터 및 반도체까지 확대하여 부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
- 이차전지 생산기반 조성 기반 미래차 특화 육성
 - 동부산 E-PARK 산단 조성을 통한 이차전지 생산 기반 구축
 - 이차전지 재활용 특화단지인 미래자원 빌리지 조성
- 3S(Sky-Sea-Shore) 통합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모빌리티 특화
 - 통합 연계형 교통 혁신을 위한 Seamless 미래 교통 실현
 -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활성화를 통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 기대효과

-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시장 및 기술 지배력 증대를 통한 내수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효과 기대
- 신공항 정책 연계 하늘, 바다, 땅을 연결하는 스마트 UAM시스템 운영

» 단계적 계획



자료 : freepik, 부산연구원

전략 05

지산학 중심 기술창업 도시(1)

9) 도전과 성공의 창업도시

■ 사업목적

- 동북아 물류중심지 부산의 입지여건 활용,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Global Startup Hub로 조성
- 스타트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으로 수도권에 이어 제2의 성장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 견인
- 도심형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 글로벌 Startup 및 투자자 (AC/VC) 유치로 창업·투자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생태계 플랫폼 조성
 - 디지털금융 클러스터 연계 북항 일원 글로벌 스타트업 타운 조성
 - 저탄소·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지원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 스타트업 성장 촉매제 글로벌 창업펀드 조성
 - 금융중심지 연계, 글로벌 벤처투자 거점 구축
 - 스타트업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자금 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혁신적인 성장 촉진
 - 글로벌기업, 지역대학과 협업, 맞춤형 성장 지원
 - 글로벌 창업도시 네트워크 확충 및 인재 교류

■ 기대효과

- 지역전략 산업과 금융서비스 기능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 글로벌 창업 Hub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균형발전 도모

» 단계적 계획

2024

- 북항 글로벌 스타트업 타운 조성
- 저탄소·녹색성장 Hub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2035

- 아시아 창업 플랫폼 확대 조성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사 유치

2050

- 부산발 예비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 배출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조감도



자료 : 부산시, freepik

전략 05

지산학 중심 기술창업 도시(2)

10) 지산학으로 만드는 인재 도시 부산

■ 사업목적

- 지역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입학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2046년에는 지역대학 70%가 소멸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 부산에는 22개의 우수한 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과 대학 간 유기적인 연결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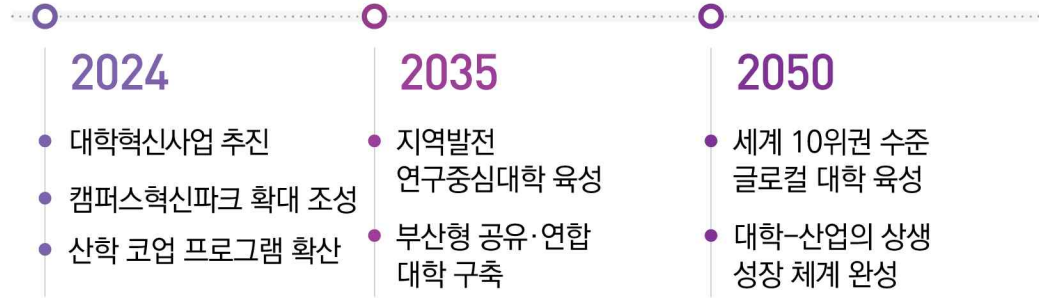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대학과 기업 협력형 기술개발·사업화 및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
 - 지역대학 내 유희부지를 활용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형 인재양성 체계 강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안착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학공동 연구 개발 체계 완성
 -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 분야와 연계하여 대학별 특화형 교육체제로 개편
- 글로벌 대학 지속 육성을 통한 세계적 대학 배출
 - 지역의 수요에 맞는 교육 및 연구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글로벌대학이 부산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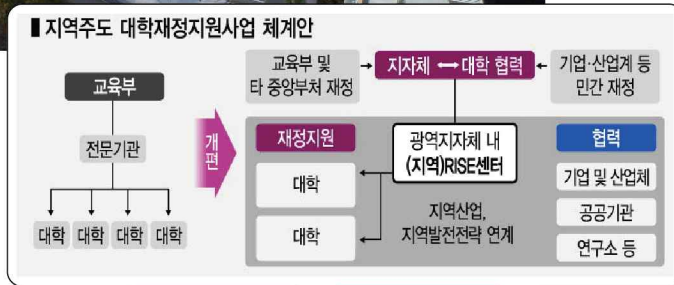
■ 기대효과

- 대학과 기업이 함께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여 지역 기업 성장과 지역 인재 정착 유도
-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 육성으로 지역정주 인재 증가 및 지산학협력 활성화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 제고

» 단계적 계획



부경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자료 : 부산시

전략 06

혁신·융합 글로벌 인재 도시(1)

11) 외국어가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 도시

■ 사업목적

-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2024년을 글로벌 허브도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
- 미래사회에서 글로벌 연대 강화를 위한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강화

■ 사업내용

- 외국인이 사랑하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
 - 영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아이들의 영어교육 걱정 없는 부산 구현
 -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외국인이 정주·관광·사업 등을 하기 좋은 영어소통 환경 조성
 - 외국인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환경 구축
- 글로벌 국제기구 부산 유치 및 글로벌 포럼 확산
 - 국내 소재 국제기구 적극 활용, 권위 있는 글로벌 국제기구 포럼 창설
 -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 누구나 찾아오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 교육, 의료, 문화, 레저, 주거 등 글로벌 생활여건 조성

■ 기대효과

- 영어 사교육비 절감 등 시민 영어교육 부담 완화
- 해외 우수인재 및 기업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단계적 계획

2024

- 구군별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
- 국제기구 초청 포럼 개최

2035

- 시민 외국어 역량 강화
-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 부산 글로벌 포럼 개최

2050

- 외국계 교육시설 및 기업 유치 확대
- 외국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



자료 : freepik, 부산시

전략 06

혁신·융합 글로벌 인재 도시(2)

12) 제도적 울타리 없는 개방형 인재교육

■ 사업목적

- 균형잡힌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양성과 정착이 중요하므로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일자리와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모델 필요
- 지역 특성에 맞춘 운영 모델 발굴과 이에 맞는 맞춤형 특례 적용 및 예산 지원을 통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일할 수 있는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역·학생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
 - 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수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AI 기반 맞춤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및 플랫폼 조성
- 지역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특별 혜택 제공
 - 지역내 의·치·한·약·수의대 계열 지역인재 전형 확대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확대
-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관련 규제 완전 해소
 - 자유로운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학교 설립을 통해 부산형 교육기관 신설

■ 기대효과

-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유아부터 초중등 및 대학까지 지역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교육 혁신생태계 활성화

» 단계적 계획



2024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 글로벌 대학 추가 유치

2035

-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확대 추진
- 글로벌 초중고교 및 대학 유치 확대

2050

- 부산형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 글로벌 10대 교육도시 달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융합
인재교육
STEAM

변화의 장		기회의 장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small;">도정 혁신</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도정의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인재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8기 도정 비전 공유·확산 교육 추진 · 소통 교육 확대로 공직문화 혁신 지원 · 경기도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역량 함양 지원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small;">교육 혁신</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엔데믹 시대 교육 변화의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학습 플랫폼을 통해 인나는 위형저적 인재개발 · 들는 교육에서 참여하는 교육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 찾고 싶은 인재개발원 환경 조성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small;">성장 기회</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및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의 확대 ·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 교육 추진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small;">연결 기회</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인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만들어가는 인재개발 문화 조성 · 사람·경험·연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자료 : 교육부

3

2050 Big 프로젝트

Big 목표 03

그린·안전 도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순환경제 체제 구축, 그린 인프라 및 안전 도시 인프라 조성 등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 그린·안전 도시 조성 프로젝트



○ Big 실행전략

07 탄소중립

친환경 넷-제로 도시

- 13 규제 프리형 에너지 신산업 선도 도시
- 14 자연과 산업이 조화되는 순환경제 도시

산업화로 인해 도래한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을 통해 모든 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으로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

08 녹색환경

지속가능한 그린 생태도시

- 15 먹는 물 걱정 없는 맑은 물 도시
- 16 푸르른 부산, 한국의 에메랄드 시티

성장 중심의 도시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한 생활권 내 도심공원 확대, 낙동강 중심의 생태 친화형 정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그린 인프라 확산**

09 안전

스마트 안전 도시

- 17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시티
- 18 첨단기술로 지키는 안전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도시 재난·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 ICT와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을 통한 **스마트한 안전 관리**가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전환



성과지표 ○

》 **그린·안전 도시**는 스마트 관련 정책과 안전을 위한 환경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부산,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도시를 만들고자 글로벌 도시들과의 비교 분석,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 **그린·안전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성과평가를 위해 도시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활용

- **세계 스마트시티 순위**

현재(2023년) 부산은 50위권 내 진입해 있으나 2050년 서울(16위) 수준의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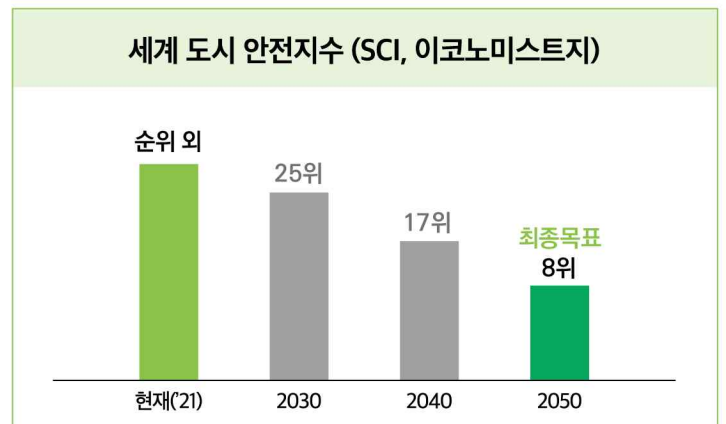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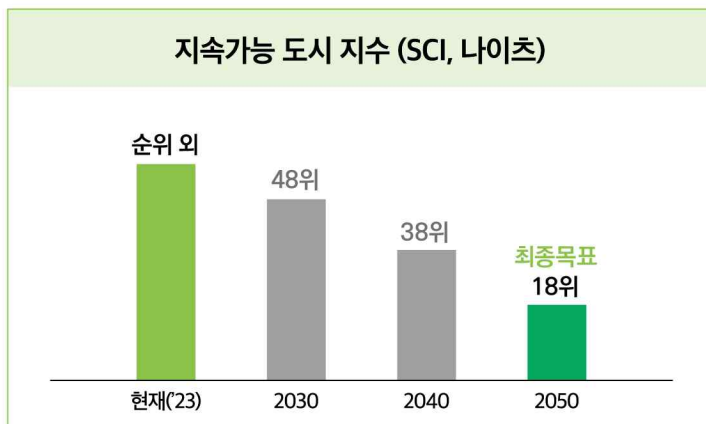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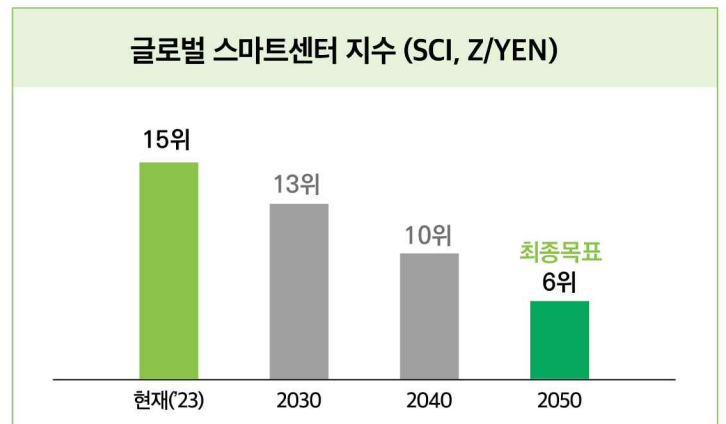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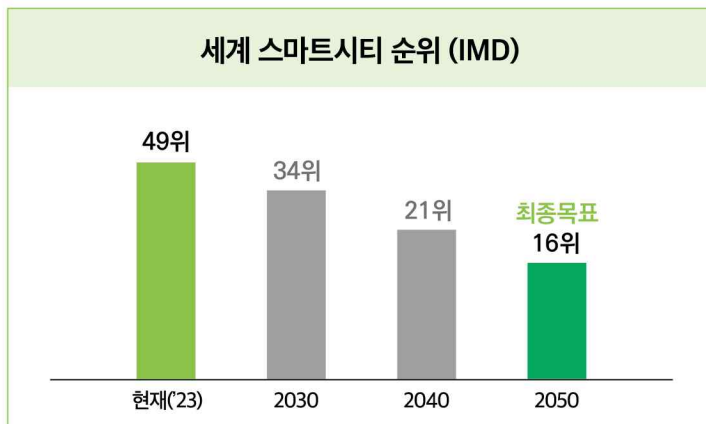
- **글로벌 스마트센터 지수**

현재(2023년) 부산은 15위에 올라 있으며, 2050년 홍콩(10위) 수준의 10위권 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책 추진

- **지속가능 도시 지수, 세계 도시 안전지수**

두 지수에서 부산은 현재 순위권 밖으로 2050년까지 상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관리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도시가 미래의 도시라는 관점에서 순위권 밖에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지수와 세계 도시 안전지수를 상위권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전략이 필요



전략 07

친환경 넷-제로 도시(1)

13) 규제 프리형 에너지 신산업 선도 도시

■ 사업목적

- 규제없는 미래형 산업도시 구현에 에너지 산업이 선도적 역할 제고
- 친환경 기술 적용,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 확대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0(Zero)으로 만드는 기후테크 산업 중점 육성
- 넷-제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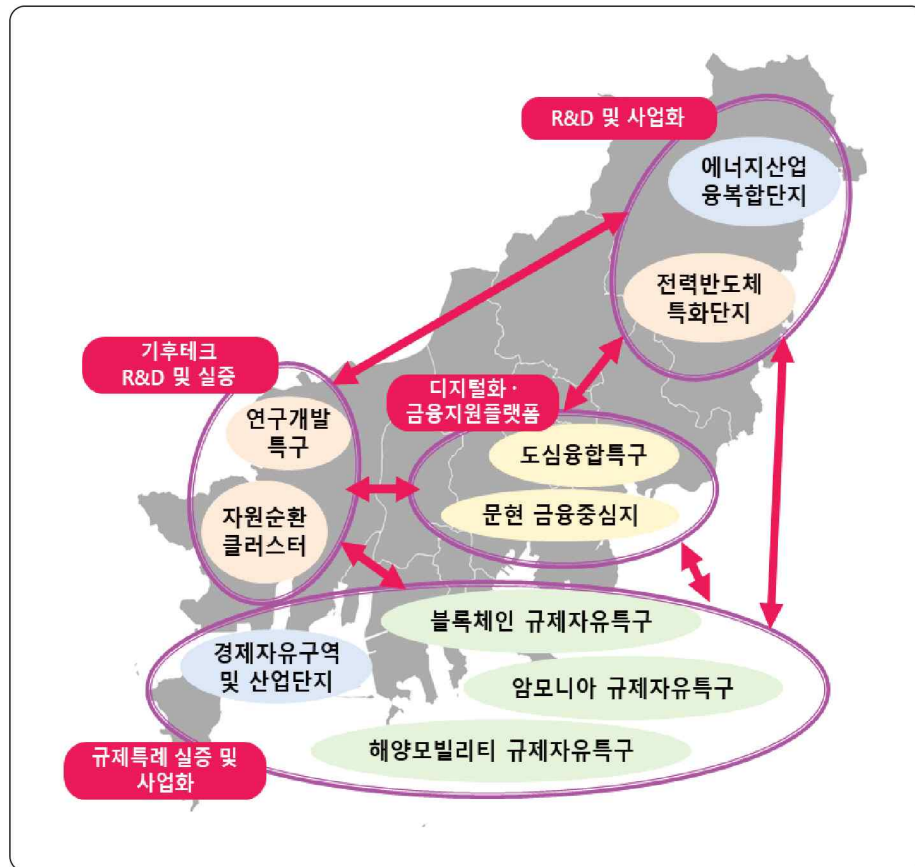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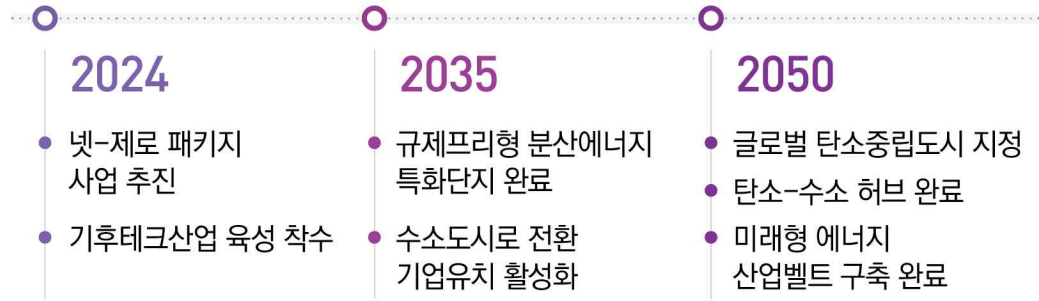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넷-제로 달성을 위한 도시 및 산업 생태계 전환
 - 산업단지 에너지 자족, 탄소흡수원 확충,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생태계 보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넷-제로 달성
- 분산에너지 특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 규제프리로 다양한 분산에너지 솔루션 확보와 신산업화로 연계 추진
 - 신공항 및 항만, 산업단지 등 대상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개발
- 에너지 신기술 활용 에너지 테크 기업 육성
 - 산업단지, 항만(선박) 지역 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 중점 추진
 - 클린에너지 기술 혁신 기업 집중 육성, i-SMR 연구단지 조성, 이차 전지 재사용 ESS 특화 사업화, CF100, RE100 기술 지원 및 확산

■ 기대효과

- 생활 속 체감 가능한 탄소중립 공간 조성 및 환경의 질 개선을 통한 친환경 넷-제로 도시 구현
- 분산에너지 연관 초격차 기술 연구 및 개발, 상용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

» 단계적 계획



자료 : 부산연구원

전략 07

친환경 넷-제로 도시(2)

14) 자연과 산업이 조화되는 순환경제 도시

■ 사업목적

-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 추진 중
- 선도적으로 자원순환형 소재산업을 육성하여 순환경제 체제 구축, 친환경 미래도시 부산 구현

■ 사업내용

- 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 재활용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
 - 가연성 쓰레기 직매립 ZERO 고효율 자원에너지시설 설치, 열분해를 통한 폐플라스틱, 폐비닐 처리 등이 가능한 자원순환 복합 타운 활성화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내 자원순환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홍보,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 자원순환형 소재산업 허브 조성
 - 폐자원의 효율 증대를 위한 전처리 및 업사이클링
 -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시스템 구축
 - 산업 폐자원 및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소재 전환
 - 자원순환형 소재산업 Value Chain 구축

■ 기대효과

- 폐기물 정책의 탄력성 확보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
- 복합문화공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랜드마크화 실현

» 단계적 계획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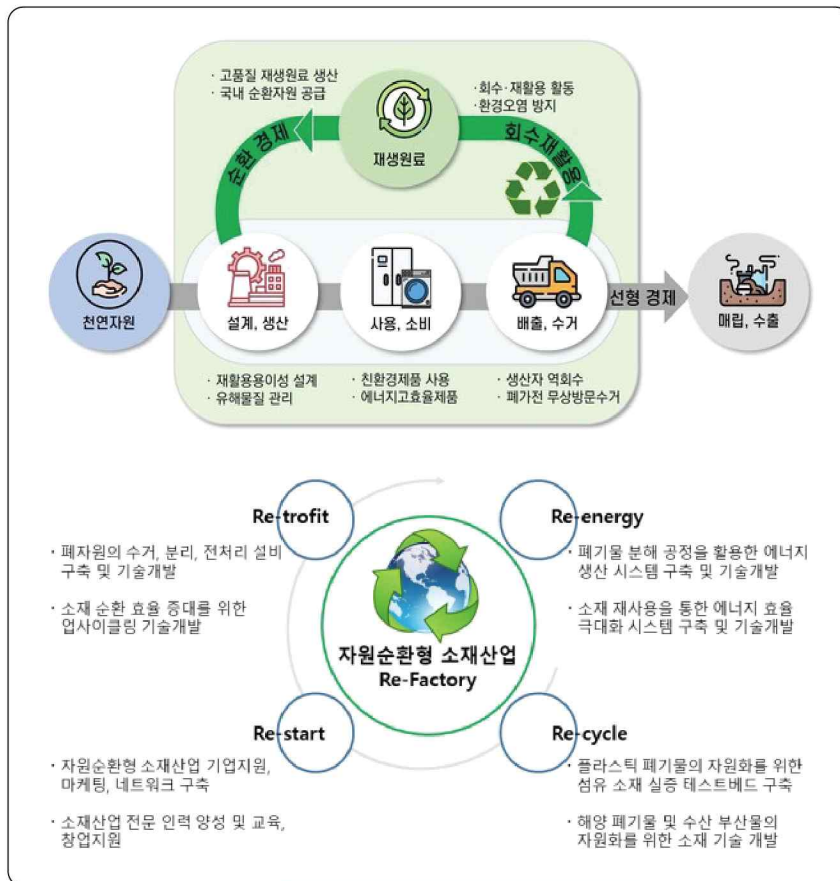
- 자원순환 복합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 폐자원 전처리 기술개발
- 업사이클링 기술개발

2035

- 자원순환형 소재산업 지원센터 구축
- 해양 부산물 자원화 사업 추진

2050

- 폐자원 에너지 및 자원화 선도 도시
- 순환경제 도시로 전환



자료 : 환경부

전략 08

지속가능한 그린 생태도시(1)

15) 먹는 물 걱정 없는 맑은 물 도시

■ 사업목적

- '91년 낙동강 페놀사고 및 '18년 과불화화합물 검출, '22년 녹조 최대 발생에 따른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먹는 물 불안은 매우 심각
- 미량유해물질 검출 등 시민 불안 가중에 따른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 필요
- 취수원수인 낙동강 수계에 미량유해물질 및 고농도조류 발생으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 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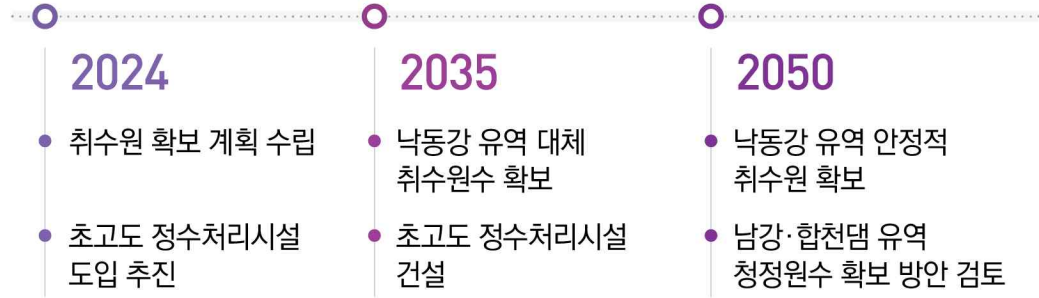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취수체계 확보
 - 낙동강 상·하류 광역상수도 개발, 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 등 하류지역 수원 활용
 - 물금취수장에 낙동강 본류 수심 8m 이하에서 선택적 취수 가능한 취수시설 설치 등 낙동강 취수방식 개선
- 초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한 맑은 물 생산 체계 완성
 - 부산지역 정수장 내 초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
 - 부산지역 정수장 현대화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생산

■ 기대효과

-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로 낙동강 하류 부울경 시민의 생존권 확보에 기여
-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맞게 적기에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의 형평성 제고

» 단계적 계획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수돗물 「순수365」 생산·공급

1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01. 원·정수 수질관리



- 취수원 수질감시 : 다수지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원·정수 수질검사 강화 : 원수 267종→277종, 정수 286종→296종
- 미량유해물질 분석강화 : 취수원 주변 6개 지점, 낙동강수계 22개 지점
- 공급과정 수질 모니터링 : 배·급수과정 186개소, 수도꼭지 309개소

02. 원수 수질대응 취·정수시설 고도화



- 지방광역상수도(취수시설) 건설
- 미량유해물질 제거 보조시설 설치
- 명장제1정수장 재건설 추진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자료 : 부산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전략 08

지속가능한 그린 생태도시(2)

16) 푸르른 부산, 한국의 에메랄드 시티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생활권역 내 휴식 및 쾌적한 공간 마련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치유공간으로서의 정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저감 및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 확충

■ 사업내용

- 부산 도심 전역 녹색생활권 구축 및 수준 높은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
 - 15분 생활권과 연계하여 생활권역별 차별성 있는 신설 공개공지를 확충하고, 기존 노후화된 편의시설을 개선, 열린 공간 및 도심 속 쉼터 제공
 - 공공시설 실외정원 조성, 스마트가든, 옥상정원 등 생활밀착형 도심 정원 확대를 통한 미세먼저 저감
- 낙동강 유역 5개 정원·공원의 통합디자인으로 생태·경관·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정원도시 조성
 - 대규모 공원을 기반으로 탄소중립(Net-zero) 및 미래형 스마트녹색 도시 구현을 위한 맥도그린시티 조성
 -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을숙도~맥도생태공원간 연결성을 강화한 기본구상을 수립
 - 낙동강 유역 5개 공원의 통합적 연결과 특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생태정원 조성

■ 기대효과

- 일상 속 휴식공간 창조를 통한 도시의 공간가치 향상 및 도시 경쟁력 제고
- 낙동강 권역 5개 정원 공원의 통합디자인 구상을 통해 부산을 생태와 경관,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조성

» 단계적 계획

- | | | |
|--|--|---|
| <p>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 시설 개선 •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 •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 <p>20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속 쉼터 공간 확충 • 생활밀착형 정원 확대 • 맥도그린시티 조성 | <p>20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네트워크 완성 |
|--|--|---|



자료 : 부산시, freepik

전략 09

스마트 안전 도시(1)

17)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시티

■ 사업목적

-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대표 모델 구현하고자 빈 부지에 다양한 혁신 기술을 집적하여 시범도시 조성
- 부산의 제2에코델타시티 및 국내외 메가시티의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 거점으로 시범도시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편리한 생활과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선도
 - EDC스마트시티 내 시민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제공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적 고도화를 위해 민간 제안 서비스 도입 추진
 - 국가시범도시내 일부지역 대상 제로에너지 건축, 로봇 등이 적용된 스마트건축물 조성, 혁신서비스 확산과 서비스 간 연계에 활용
- 스마트한 기술로 편리한 스마트 주거단지 확대 조성
 - 부산EDC 북측에 10.5km² 규모(318만평)로 조성
 - 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명지신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스마트시티 개념 도입 검토

■ 기대효과

- 도시문제 해결 및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의 혁신과 미래성장 플랫폼으로 역할
- 청년주택, 청년혁신센터 조성 등 청년의 삶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 09

스마트 안전 도시(2)

18) 첨단기술로 지키는 안전도시

■ 사업목적

- ICT 기술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안전 통합 시스템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광역도시 부산에 실증·구현되고, 각 분야 스마트 서비스가 융·복합되는 선도형 스마트 안전도시의 실증모델 구축 추진

■ 사업내용

- 시민안전을 위한 통합된 스마트 관리 체계 강화
 - 시민안전 전담조직을 통합하여 긴급 상황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재난·교통정보 연계 24시간 실시간 대응 가능한 스마트 시민안전 통합 체계 구축
- 스마트 서비스를 융합한 스마트 안전도시 플랫폼 완성
 - 재난·교통정보와 치안상황정보 통합을 통한 긴급상황 실시간 감지 및 분석
-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 ICT 기술을 재난·재해 관리에 도입
 - 실종자 수색, 다중운집행사 관리, 재난·재해 시 현장에서 총괄 지휘 통제 가능한 영상관제차량 도입 및 운용
-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특화
 -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고도화 및 AI 플랫폼 구축
 - 재난안전산업협회 본부 및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유치

■ 기대효과

-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으로 도시관리 및 시민안전 확보, 도시 경쟁력 강화
- 안전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대 가능

» 단계적 계획



2024

- 스마트 안전 융합서비스 도입
- 스마트 안전도시 플랫폼 구축

2035

- 스마트 시민안전 통합체계 완성
-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유치 및 단지 조성

2050

- 세계 10대 안전도시 진입
- 재난안전산업 특화도시 육성



자료 : 국토교통부, 부산시

4

2050 Big 프로젝트

Big 목표 04

물류·금융 허브 도시는 과거 한국을 대표한 경제·산업·문화·정치 1번지로 성장가도를 달렸던 제2도시 부산이 수도권 일극체제가 견고해짐에 따라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관문 부산의 특성을 살려 물류와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기반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



○ Big 실행전략

10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19 혁신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허브도시
- 20 미래도시 건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국제적 인지도를 살리고 해양도시의 개방성을 강점으로 세계인을 향해 열려 있는 글로벌 도시라는 국제적 브랜드를 강화하여 해외 기업 및 인재들이 유입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11 물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허브

- 21 전 세계로 뻗어가는 미래공항
- 22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글로벌 허브

부산신항의 조성이 완료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설립되면 부산은 국내 대표 트라이포트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물류를 강점으로 한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도시로 도약

12 금융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 23 디지털 기술 기반 블록체인 수도
- 24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

1차 금융공공기관 이전 이후 산업은행 등 2차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문현 금융단지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육성하고 문현에서 북항까지 디지털 및 해양 금융으로 차별화된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



성과지표 ○

》 **물류·금융 허브 도시**는 부산의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글로벌 도시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 기능을 하는 도시라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분야인 금융, 물류 등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경쟁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

부산 금융지구의 글로벌 위치를 알 수 있는 지수로 현재 27위에 올라 있는 순위를 2050년 10위권으로 진입 목표

- **세계 선진 해양도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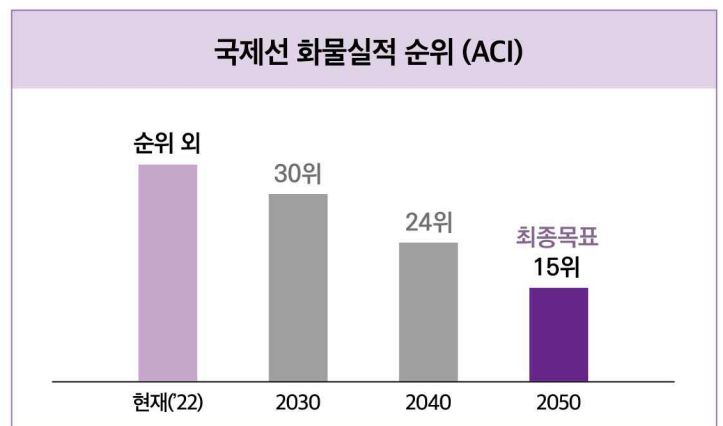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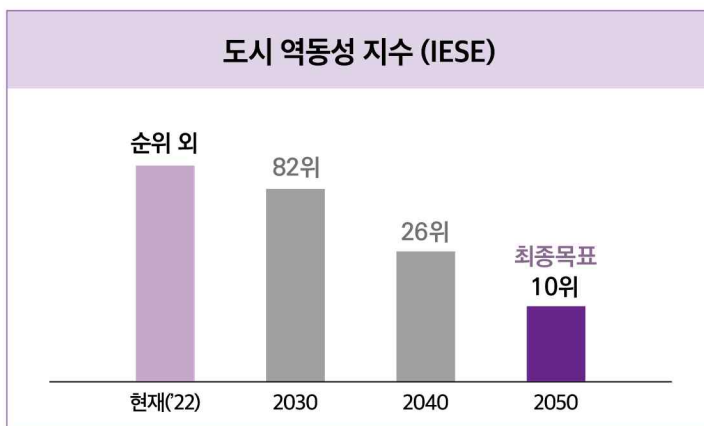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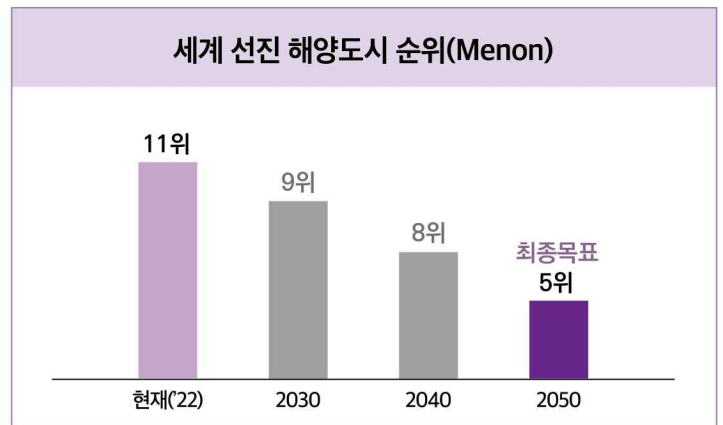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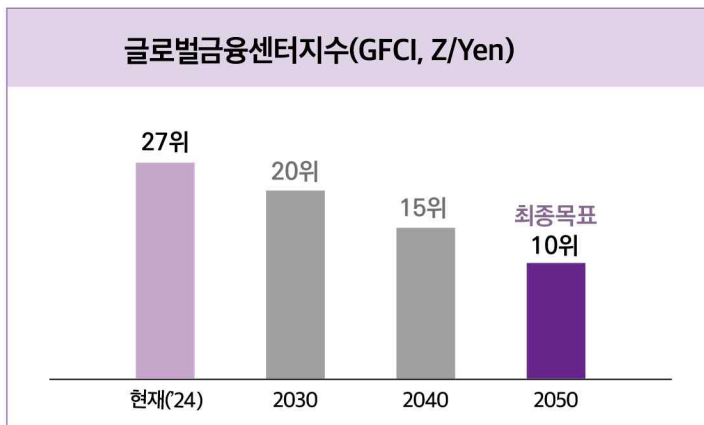
해양도시 부산의 세계적 수준은 현재 11위를 2050년 5위 내로 진입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도시 역동성 지수**

도시의 역동성 수준이 곧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의미함에 따라 현재 순위권 밖에서 2050년 10위 진입을 목표

- **국제선 화물실적 순위**

물류 분야의 경우 국제선 화물실적 순위가 순위권 밖에 있는데 2050년 15위 진입을 목표로 설정



전략 10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1)

19) 혁신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허브도시

■ 사업목적

- 비즈니스 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
- 부산은 유라시아의 주요 도시와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우수한 관광 인프라, 국제적 수준의 항만 및 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제자유도시 구현의 최적지

■ 사업내용

- 남부권의 혁신거점, 국제자유도시, 실현적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범정부 추진단 운영
 - 관련 특별법 제정
 - 무사증, 무규제, 파격적 세제 혜택 등 각종 산업지원, 창업, 신기술에 대한 무규제 등 규제프리 존 도입
 - 외자 유치, 국제기구 유치 등 글로벌 도시 활성화 추진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글로벌 도시 조성
 - 외국어 친화 업무지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싱가포르형 글로벌 기업 유치 및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부산 거주 외국인 및 방문 외국인의 생활 편의성 제고

■ 기대효과

-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 보장하는 개방화, 자유화 정책의 남부권 거점도시로 성장
-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국가발전전략의 요충지이자,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육성

» 단계적 계획



2024

- 특별법 제정
- 무비자 정책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

2035

- 수입자유화, 무관세 등
무역장벽 완화
- 국제기구·교육기관 유치

2050

- 외환거래 자유화 등
국제자유경제 도시 추진



비즈니스 도시 싱가포르, 홍콩

전략 10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2)

20) 미래도시 건설

■ 사업목적

- 세계 주요 대도시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으로 자연재해 및 식량 부족 등의 위험에 직면
- 해상도시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에너지, 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의 도시화 모델로 해양으로의 영토 확대 가능

■ 사업내용

- 부산항내 지속가능한 부유식 친환경 해상도시 구현
 - 항만 재개발 연계 국내 최초 해상 스마트시티 건설
 - 탄소중립 생태 기후적 도시환경 구축 및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제공
- 인류의 미래 및 글로벌 이슈와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건설, 북항재개발
 - 부산항, 가덕도, 강서구 일원 등 해상공간을 활용한 해상 스마트도시 건설
 - 탄소중립·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첨단 신산업 및 디지털 물류 중심의 미래형 신도시 조성
 - 블록체인 기술로 도시 전체 운영, 디지털 물류 플랫폼, 자가용 운행 없는 자율교통·물류망, 해양수소 등의 에너지 자립 등 친환경 첨단기술을 실험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
- 환경과 건강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블루푸드(수산식품) 허브 도시 구현
 - 수산식품의 생산 유통 물류 구조의 첨단화 → K블루푸드 허브

■ 기대효과

- 부산의 차세대 랜드마크로서 글로벌 리딩 해양수도 이미지 확립에 기여
-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도시로의 도약에 기여

» 단계적 계획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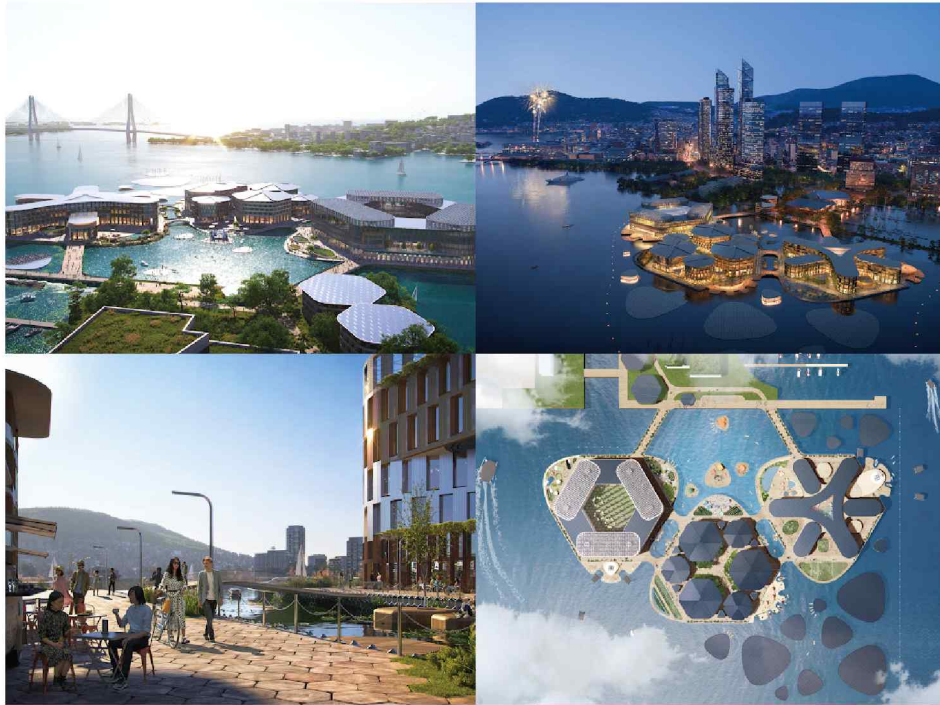
- 해상도시 기본계획 수립
- 북항 2단계 재개발 본격 추진

2035

- 지속가능한 해상 스마트도시 조성
- 해양신산업 및 K블루푸드 거점 활성화

2050

- 북항 C-벨트 재개발 완성
- 탄소중립 스마트해양도시 플랫폼 도시
- K블루푸드 허브 도시



자료 : 부산시

전략 11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허브(1)

21) 전 세계로 뻗어가는 미래공항

■ 사업목적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공항 배후지원도시 및 주변개발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에어시티 개발 필요
- 신공항과 주변 개발사업 및 물류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2차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을 배치한 글로벌 공항복합도시 조성으로 동남권 중추도시 기반을 구축

■ 사업내용

- 글로벌 항공 허브 구축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김해공항 활성화
-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완료
 - 주거·상업·국제업무시설 및 관광·위락시설, 물류시설 등 에어시티 지구 조성
 -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등 해양신산업 지구 조성
 - 자연 경관을 활용한 해양 관광 거점 조성
 - 트라이포트 구현 가능한 글로벌 항공물류 지구 조성
- 가덕도 일원 경제자유구역 확대
 - 신공항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핵심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내·외 앵커기업, 교육·연구기관 및 전후방 기업 유치
- 항공 물류 서비스 산업 연계 육성

■ 기대효과

- 서부산권 산업벨트 연계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
-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한 글로벌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도약

» 단계적 계획

2024

- 가덕도 배후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 가덕도 배후지역 확대

2035

- 가덕도신공항 활성화
- 가덕도신공항 배후지 투자 유치 및 개발

2050

- 아시아 트라이포트 허브 완성
-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완성



자료 : 부산시

전략 11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허브(2)

22)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글로벌 허브

■ 사업목적

- 부산은 약 10년간 두 배가 넘는 물동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없어 항만물동량 처리에 한계 봉착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산항 신항, 철도와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의 운영 효율화 및 스마트항 구축을 통한 미래 기회 확보

■ 사업내용

-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
 - Sea & Air 환적화물 유치 활성화
 - 스마트 해운 물류 체인 구축, 스마트 통합물류서비스 운영
 - 전자상거래 증가 대응, 해상특송 서비스 확대로 동북아 전자상거래 허브 기반 마련
- 트라이포트 연계, 지하물류 시스템 및 관련 기술 개발
 - 지하물류망 거점구역 조사 및 네트워크망 설계, 이송인프라 조성 등 지하물류망 구축
- 스마트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 해운항만·배후물류 통합 디지털트윈 플랫폼 개발로 부산항 물류시스템 정보화·지능화

■ 기대효과

- 트라이포트 기반의 고부가 융복합 물류허브 실현
- 화물이동차량 감소에 따른 배출가스 감소로 넷-제로 실현에 기여

전략 12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1)

23) 디지털 기술 기반 블록체인 수도

■ 사업목적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프라 구축 및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부산금융 인지도를 향상하고, 미래성장동력 기반
- 금융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금융생태계 조성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 등이 미흡하여, 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 사업내용

-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
 - 귀금속 등 디지털상품으로 출범, 토큰증권(STO), 가상자산거래로 서비스 확장
 - 투자자들의 투자안정성 보장을 위한 분권형거버넌스 구축
- 디지털 금융도시 전초기지 「D(Digital)-Valley」 완성
 -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오피스 공간 조성으로 기술금융기업 200개사 및 업무지원 기능 확충으로 디지털 밸리 완성
 - AI·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디지털 금융기업과 업무 지원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최대 디지털 금융밸리 구축
- 시정서비스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활성화
 - (디지털시민증) DID 신원인증으로 공공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정책자금) 원스톱 신청·관리(다자녀교육지원포인트, 청년문화패스 등)
 - (15분도시생활권맵) 공공시설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 (공동체플랫폼) 부산 시정뉴스, 주민의견 수렴, 주민소모임 생성 등

■ 기대효과

- 금융특구 형태, 핀테크 생태계 허브 구축, 복수 금융중심지 조성 등 국가 주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 단계적 계획

-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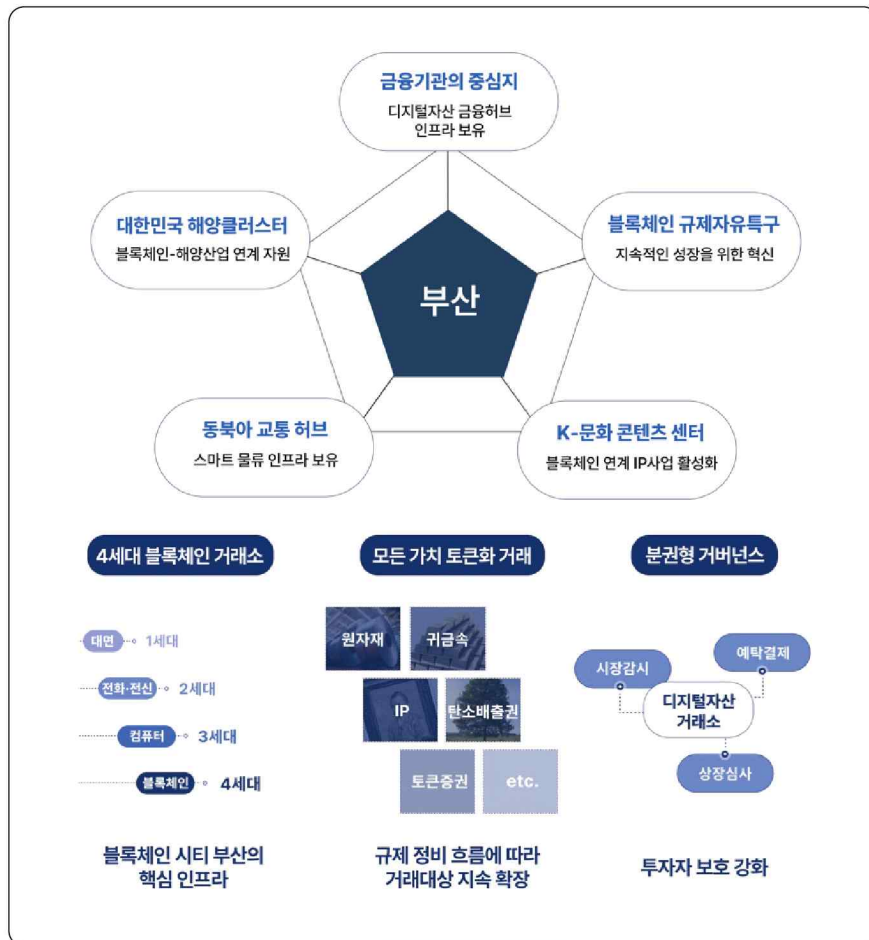
 - 디지털자산거래소 구축
 - 디지털자산거래소 연계 생태계 구축
 -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시범사업

2035

 - 디지털 기반 금융-산업-물류 선순환생태계 조성
 -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운영

2050

 - 디지털금융 혁신플랫폼 체계 완성
 - 국내 블록체인 수도로 육성



자료 : 부산시

전략 12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2)

24)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

■ 사업목적

- 28개 공공·민간 금융회사 집적화를 통해 부산이 서울과 더불어 최대 금융공공기관 중심지역으로 세계적 금융중심 도시로 도약
- 한국산업은행 본사 및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정책 금융기관 추가 유치와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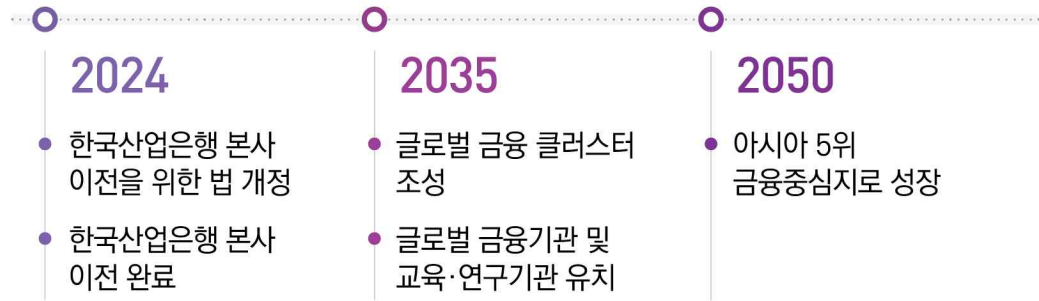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국내외 정책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금융 생태계 강화
 -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 절차 추진, 법률개정, 사옥 건립·이전
 - 기 유치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투자 지원기관, 창업 지원 기관, 해양·선박산업 지원 기관 등의 추가 유치를 통한 금융생태계 강화
- 문현금융단지를 글로벌 경제금융특구 도약 추진
 - 서면에서 문현, 북향을 잇는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벨트 구축
 -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및 해양, 파생, 핀테크 관련 아시아 금융기관 유치
 - 글로벌 금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유치

■ 기대효과

- 금융의 수도권 일극화 탈피, 수도권과 남부권을 양축으로 나눠 국가균형발전 및 글로벌 금융 허브도시 육성
-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정책금융기관 추가 유치를 통해 남부권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단계적 계획



자료 : 부산연구원

5

2050 Big 프로젝트

Big 목표 05

문화·관광 도시

문화·관광 도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국제영화제, K-POP 콘서트, 불꽃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메가이벤트를 즐기며, 원도심 문화유산과 부산의 대표 먹거리, 해양레저 관광 등의 경험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니크한 도시로 도약하는 프로젝트

○ Big 실행전략

13

문화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

- 25 하이엔드 문화·예술 도시
- 26 일상 속 문화가 살아있는 부산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단순 볼거리를 넘어 글로벌 관광객의 예술 관광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국제관광 도시**로 발전

14

관광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도시

- 27 세계인의 열정이 만나는 메가이벤트 도시
- 28 문화가 관광이 되는 품격있는 도시

부산은 바다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해 어떤 이벤트 개최도 성공적인 국내 대표 메가 이벤트 도시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국제 이벤트 유치 및 부산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매력도시**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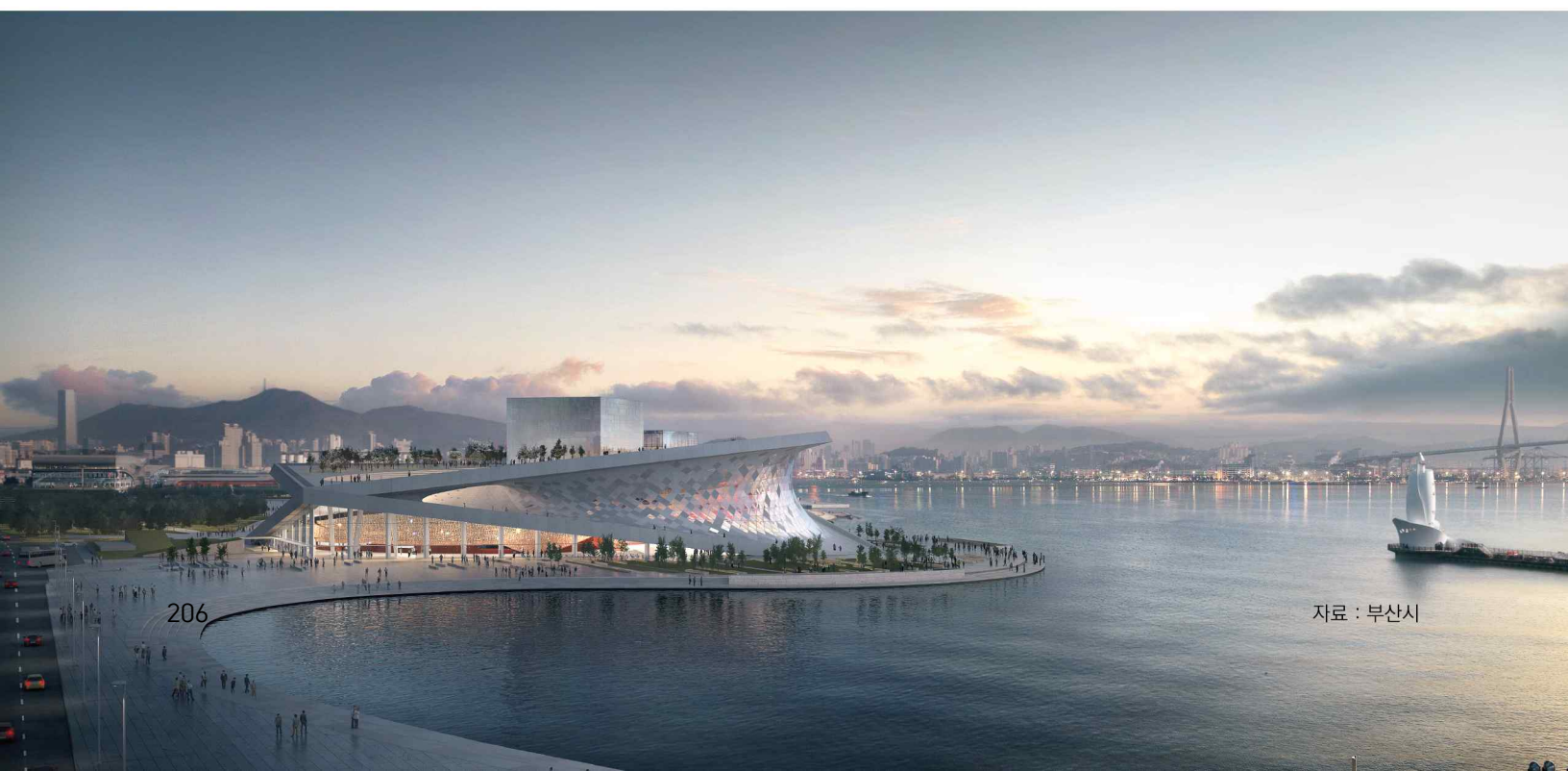
15

도시디자인

경관이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

- 29 부산다운 건축으로 세계가 매료되는 도시
- 30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경관 도시

자연 경관 뿐 아니라 도시의 건축물은 그 도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자산으로 부산의 도심경관을 부산만의 유니크한 경관으로 개선, **부산을 찾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디자인 도시**로 전환



성과지표 ○

>> **문화·관광 도시** 는 부산이 가진 매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부산은 관광·MICE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필요

- **세계 100대 관광도시 순위**

현재(2022년) 부산은 71위에 올랐는데 2050년에는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필요

- **세계 최고의 MICE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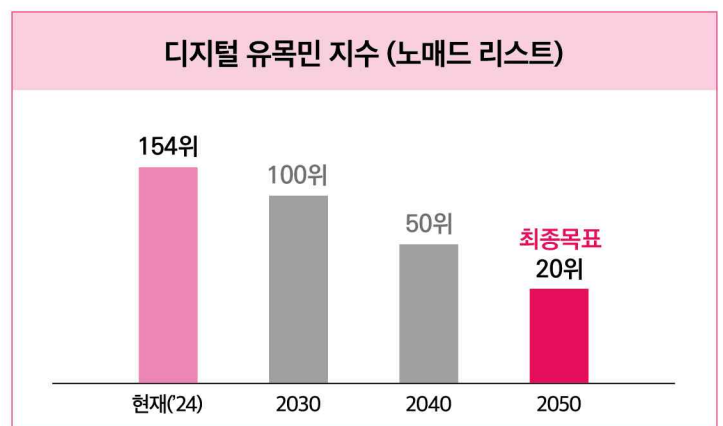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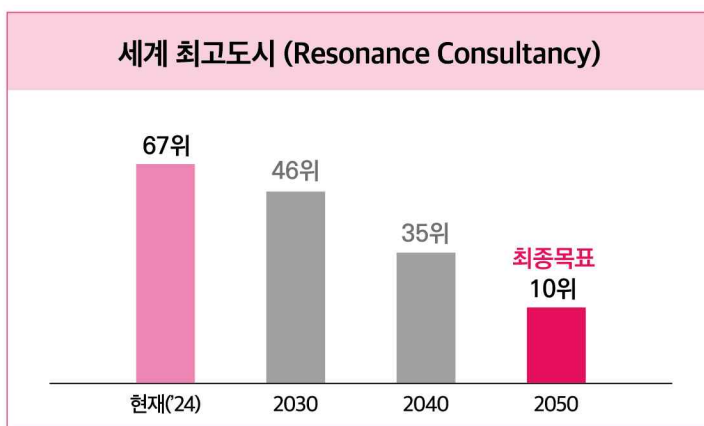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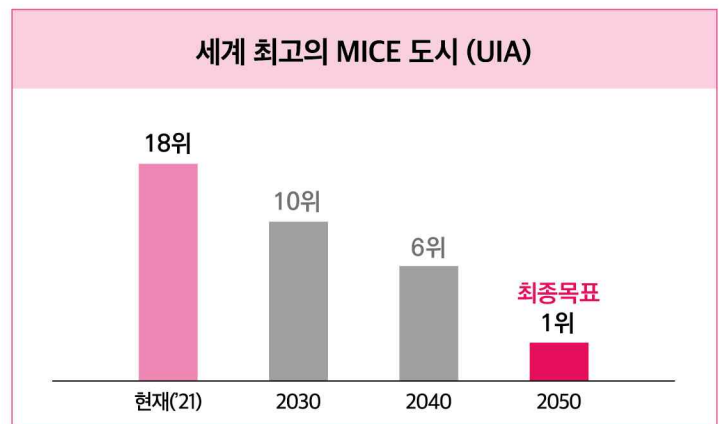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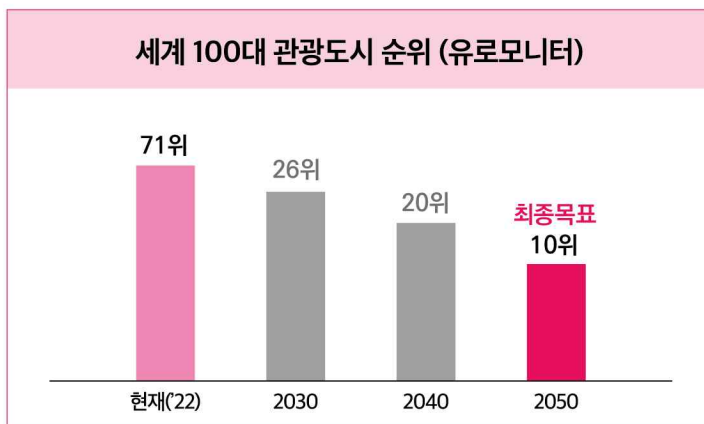
MICE 지수의 경우 18위에 위치해 있으며 2050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 정책 확대

- **세계 최고도시**

관광·MICE 분야의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 최고도시 순위를 10위권 내 진입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매력을 가진 부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

- **디지털 유목민 지수**

최근 관광과 업무를 연결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이슈가 됨에 따라 부산도 외국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로의 육성 필요, 현재(2024년) 154위로 2050년 2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적극적 정책 추진



전략 13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1)

25) 하이엔드 문화·예술 도시

■ 사업목적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과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세계적 미술관 유치 필요
-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문화 향유 욕구 증가
- 전문 공연장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작품(K-클래식) 판매를 통한 공연예술의 산업화 및 k-클래식의 선도 도시로 부상

■ 사업내용

- 문화예술 도시의 상징인 세계적 미술관 유치 및 건립 등 하이엔드 콘텐츠 시민 향유
 - 세계적 미술관 분관 개관, 통합수장고 건립, 수준 높은 글로벌 콘텐츠 개발 등
-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공연예술 창작 인프라 확대
 - 예술인, 공연장 운영 인력, 공연산업 인력 등 양성을 위한 국제 공연 예술학교 유치·설립
 - 공연 교류, 창·제작, 유통·시연 등 공연 제작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연예술 창작 허브 조성 및 운영
- 기존 문화공간을 시민 활용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시민이 문화를 배우고, 연습하고 나눌 수 있는 생활권 내 복합문화 공간 조성

■ 기대효과

- 예술·문화 수준 상승으로 부산의 위상 및 품위 격상으로 인한 도시 브랜드 강화
- K-클래식 콘텐츠 상품 제작, 지역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생태계 구축

» 단계적 계획



2024

- K-클래식 콘텐츠 제작 지원
- 부산오페라축제 개최
- 국제 공연마켓 개최

2035

- 국제 공연예술전문학교 유치·설립
- 공연예술 창작 허브 조성·운영

2050

- 국제오페라축제 활성화
- 부산오페라공연단 창작공연 확대



자료 : 부산시

전략 13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2)

26) 일상 속 문화가 살아있는 부산

■ 사업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15분도시와 연계한 문화시설과의 접근성 제고 필요
- 부산을 문화·콘텐츠-창작-향유의 도시로 조성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생활 속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 활성화
 - 영화의전당 등 야외 공연 인프라를 활용한 영상음악축제 개최
 - 지역 소극장 중심 찾아가는 시민 밀착형 공연 개최로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
- 생활공간이 예술이 되는 미디어아트 도시 조성
 - 일상 속 문화 확대를 위한 부산지역 명소 곳곳에 퍼블릭 미디어아트 존 설치
 - 부산만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용 콘텐츠 개발
 - 디지털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디지털 아트 허브 센터 구축
- 폐교 및 도서관을 활용한 마을 속 문화 창작 및 공연 문화 확대
 -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지역민의 문화 창작 및 공연 공간으로 활용 및 일자리 창출

■ 기대효과

- 예술전용 공간에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을 추가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대시민 문화체험뿐 아니라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 단계적 계획

2024

- 시민복합문화 허브 조성
- 인터랙션 아트 제작
- 지역 소극장 활성화
- 생활속 콘서트 확대

2035

- 지역 특색 신규 콘텐츠 발굴
- 미디어아트 제작 전문인력 양성

2050

- 퍼블릭 미디어 아트 존 조성
- 디지털 아트 허브센터 설립



자료 : Kocis, 뮤지엄원, BNK, 부산일보

전략 14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도시(1)

27) 세계인의 열정이 만나는 메가이벤트 도시

■ 사업목적

-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메가이벤트 도시로 성장
- 디지털 미디어 대중화 및 수요 증가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육성 및 글로벌 마켓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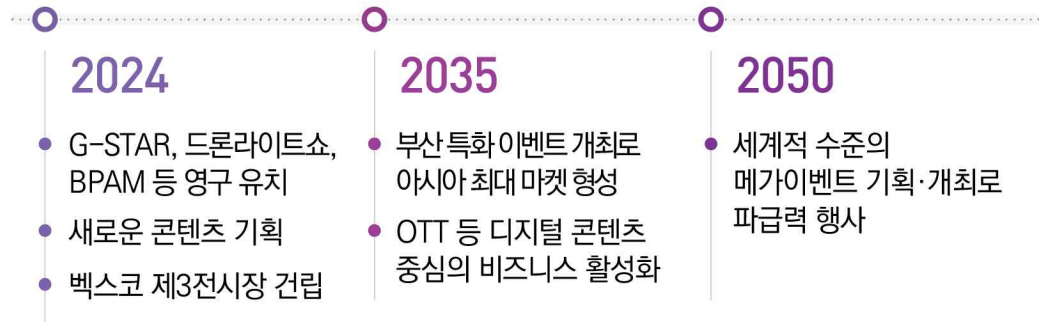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부산 특화 이벤트를 토대로 글로벌 메가이벤트 도시로 성장 및 아시아 콘텐츠 마켓 선도
 - 부산국제영화제(BIFF),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G-STAR, 불꽃 축제 등 부산의 대표 이벤트 고도화
 - 드론라이트쇼,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등 새롭게 시도되는 이벤트 단계별 육성
- 국제 스포츠 이벤트, 글로벌 수준 공연 유치 등 365일 세계인의 이벤트 도시 조성
- 글로벌IP 연계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 '아르떼뮤지엄', '태양의 서커스', '씨클차트 뮤직어워즈' 유치 사례 등 글로벌IP 활용 지역 관광콘텐츠 및 랜드마크 관광자원 확대
- 벅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한 글로벌 MICE 도시로 도약
 - 민간 주도의 지역특화 신규전시회 개발을 지원하여 부산 대표 전시회 개최

■ 기대효과

- 글로벌 이벤트 개최를 통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제고
- 메가이벤트를 활용한 영화, 콘텐츠, 게임, 관광·MICE 등 연관산업 육성

» 단계적 계획



자료 : 벡스코, 비짓부산, 부산관광공사, BPAM

전략 14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도시(2)

28) 문화가 관광이 되는 품격있는 도시

■ 사업목적

-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특화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필요
- 원도심의 독창적인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집적하는 역사와 공존하는 통합 공간 조성 필요

■ 사업내용

- 근현대 문화의 중심 원도심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경무대, 임시중앙청, 국립중앙관상대,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등 피란수도 유적지 관광 콘텐츠화
- 부산을 퓨전 문화 및 국제 미식관광 도시로 육성
 - 먹거리 문화의 퓨전 도시인 부산의 음식을 미식관광으로 활성화(미쉐린 가이드 부산 발간 등)
 -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의 세계화 추진, 커피 문화·산업 활성화
-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 및 친수문화 확산
 -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조성,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부산형 글로벌 인공서핑장 조성 등으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 기대효과

- 원도심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도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 바다와 강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별 특화된 해양레포츠 체험 기회 제공

» 단계적 계획

2024

- 피란수도 잠정목록 등재
- 근현대역사관 운영
- 마리나비즈센터 조성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 글로벌 인공서핑장 조성

2035

- 세계유산연구센터 설립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부산항 제1부두 시설 문화 자원 개방

2050

- 글로벌 해양레저 도시로 육성
- 세계 최고도시 상위권 진입



자료 : 부산시, 국제신문, BAZAAR

전략 15

경관이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 (1)

29) 부산다운 건축으로 세계가 매료되는 도시

■ 사업목적

- 도시의 삭막함, 안전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도시 건축물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도시의 건축 비전 제시 필요
- 글로벌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 공간이 일상속 여행지가 되는 부산에 특화된 건축물 건설 필요

■ 사업내용

- 부산형 공공건축의 혁신 선도
 - 창의적 건축 디자인의 고품질 공공주택 건립 등 공공주택의 디자인 혁신
 -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미래형 주택모델 제시
 - 주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등 가이드라인 기반 차별화 유도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제도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 확대
- 아름다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조성
 -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건축과 도시 확대
 -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자연 및 문화자원의 활용
-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 체계 도입 확대
 - 노후주택 이력 관리를 위한 스마트형 관리 플랫폼 구축
 - 건축물 안전 플랫폼 기능의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

■ 기대효과

- 건축과 도시 분야의 변화된 도시계획 패러다임 제공과 체계적인 도시 조성 기여
- 부산형 랜드마크 건축물의 확대 건립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강화

전략 15

경관이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 (2)

30)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경관 도시

■ 사업목적

- 구릉성 산지와 해안이 공존하는 계획되지 않은 선형 도시의 자연·지형적 특성, 급격한 도시화로 형성된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로 중심의 도시경관 한계를 극복하는 품격 있는 디자인 및 관리 필요
- 도시경관 한계를 극복하는 균형 있고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한 부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

■ 사업내용

-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가진 살아있는 도시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한 도시 경관 관리 효율화
 - 개발계획 시 건축물 높이, 자재, 색채와 가로경관, 공공디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도시 재구성
- 열림과 어울림 속 매력있는 디자인도시 구성
 - 가로 시설물 최소화, 미관 저해 간판 정비 등 과감한 도시 비우기 실현
 - 공공디자인 개발,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등 부산형 공공디자인 확산
- 국제적 수준의 야간경관 창출을 통한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도약
 - 글로벌 야간경관 명소화 추진
 - 디지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통해 부산다운 야간경관 형성

■ 기대효과

- 부산의 잠재적 경관자원의 특성과 조망점을 고려하여 부산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부산의 정체성 부각과 번영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단계적 계획

- | | | |
|---|--|---|
| <p>2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형 도시디자인 개발 시민 체감형 도시디자인 도입 확대 | <p>20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관 산업 생태계 조성 부산 특화 경관 자원 발굴 및 특화 | <p>20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자원 연계 경관 자원 활성화 야경이 아름다운 세계 10대 도시 선정 |
|---|--|---|



자료 : 부산시

VII.

2050 부산의 꿈을 위한 MEGA 프로젝트

1. MEGA 프로젝트
2. MEGA 프로젝트가 바꿀 부산의 미래

01

MEGA 프로젝트

1) 개요

- 2050 부산의 미래는 Big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매력도시이자 산업의 허브도시 성장
-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축을 구축하기 위한 MEGA 프로젝트 계획 필요
 - 글로벌 도시들은 인구 및 경제권 확장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 도시권(Mega Region) 계획수립 중
- 부산은 과거 인구 최고 389만 명에 도달, 민선1기 부산시장 선출 및 시청 이전 등 도시의 규모 및 행정 체계 구축, 지하철 개통,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개최, 광안대교 개통, 부산항 신항 개장, 오시리아관광단지 착공, 부산시민공원 개장 등의 MEGA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와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

〈그림 VII-1〉 부산의 과거·현재·미래 MEGA 프로젝트

과거	현재	미래 (2050)
01. 부산인구 최고 389만명 도달(1995년) 02. 민선1기 부산시장 선출(1995년) 03. 지하철 1호선 서대신-신평 개통(1994년) 및 2호선 개통(1999년) 04. 부산시청 연산동 시대 개막(1998년) 05. 부산 아시안게임&월드컵 개최(2002년) 06.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개통(2003년) 07. 수영공항 폐항 & 센텀시티 완공(2005년) 08. 부산항 신항 개장 (2006년 개장, 2020년 완공) 09. 오시리아관광단지 착공(2010년) 10. 부산시민공원 개장(2014년)	01. 가덕도신공항 개항(2029년) 02. 전략반도체 특화단지 조성(2026년) 03.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2027년) 04. 가덕 에어시티 조성(2030년) 05. EDC스마트시티 완공(2030년) 06. '오션닉 부산' 건설(2030년) 07. 글로벌 대학 육성(2026년) 08. 범천차량기지 이전(2027년), 경부선지하화(2035년) 09. 북항 재개발 완료(2030년) 10. 양자기술 선도 도시 조성(2027년)	01. 가덕도신공항 세계 1위 공항 되다 02. 부산, 글로벌 모빌리티 전시장 되다 03. 전 세계가 모여드는 금융·비즈니스 도시 04. 부산, 환적화물 물동량 세계 1위 달성 05. 스마트시티 아시아로 수출 06. 부산, 해양으로 국토를 넓히다 07. 부산 글로벌 대학,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08. 부산 철도로 단절된 도심이 살아났다 09. 아시아의 해양수도, 북항 혁신클러스터 10. 세계적 석학들이 찾는 양자기술 선도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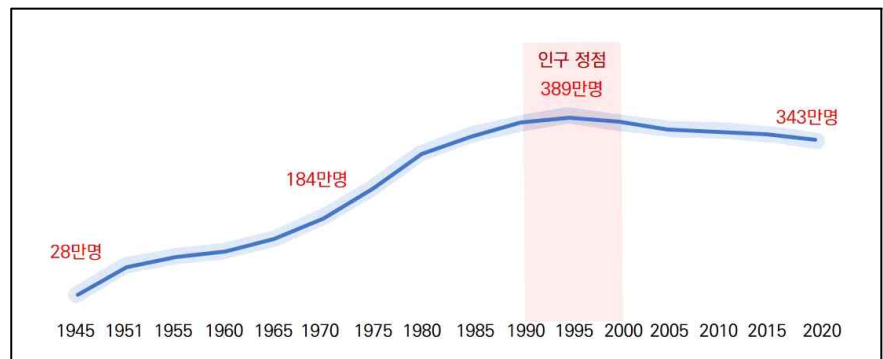
2) 과거 MEGA 프로젝트

- 지난 30년간 부산은 인구증가에 따른 광역시 승격과 대중교통 체계 구축,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광안대교 개통, 글로벌 이벤트 개최 등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을 위한 MEGA 프로젝트 수행

(1) 부산인구 최고 389만 명 도달(1995년)

- (부산인구 증가 및 정점) 한국전쟁 및 산업화로 부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5년 부산 인구 약 389만 명으로 정점 도달

〈그림 VII-2〉 부산의 인구 변화 (1945-2020년)



자료 : 통계청

(2) 민선1기 부산시장 선출(1995년)

- (지방자치제 시행과 부산 민선1기 시장 선출)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적 실시로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승격되며 민선1기 시장 선출

〈그림 VII-3〉 민선1기 부산시장 선출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

(3) 지하철 1호선 서대신-신평 개통(1994년) 및 2호선 개통(1999년)

- (지하철 1호선 서대신-신평 개통)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은 1985년 개통하여 1987년 2단계(범내골역~중앙동역) 개통, 1990년 3단계(중앙동역~서대신역) 개통, 1994년 4단계(서대신역~신평역)가 개통되었으며, 현재는 5단계(다대포해수욕장역)까지 개통 완료
- (지하철 2호선 개통)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은 1999년 1단계(호포역-서면역)를 시작으로 2002년 2단계(서면역-장산역) 개통, 2008년 3단계(호포역-양산역) 구간 개통
- (지하철 3~4호선 개통) 2005년 3호선(수영역-대저역) 개통 및 2011년 4호선(미남역-안평역) 개통으로 현재의 지하철노선도 완성

<그림 VII-4> 부산지하철 개통



자료 : 부산교통공사

(4) 부산시청 연산동 시대 개막(1998년)

- (부산광역시 청사 이전) 62여 년의 중앙동 시대를 마감하고, 1998년 1월 연산동으로 이전 개청하여 연산동 시대 개막

<그림 VII-5> 부산시청 이전



자료 : 부산광역시

(5) 부산 아시안게임 & 월드컵 개최(2002년)

- (부산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 부산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

〈그림 Ⅶ-6〉 부산 아시안게임 개막식



자료 : 부산광역시

(6)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개통(2003년)

-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개통) 부산시 남구 대연동과 해운대구 우동을 잇는 교량으로 2003년 개통된 이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었으며,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음

〈그림 Ⅶ-7〉 광안대교



자료 : Visit Busan

(7) 수영공항 폐항 및 센텀시티 완공(2005년)

- (수영공항 폐항)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당시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되다 1963년 '부산국제공항'으로 승격하였으며 1976년 김해국제공항 개항으로 1996년 폐항
- (센텀시티 완공) 수영공항이 폐항한 부지에 2005년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쇼핑·영상·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산업단지로 조성

〈그림 VII-8〉 수영공항 및 센텀시티



자료 :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부산광역시

(8) 부산항 신항 개장(2006년 개장, 2020년 완공)

- (부산항 신항 개장) 1995년 부산신항만 개발계획에 따라 2006년 부산항 신항 3선석 개장

〈그림 VII-9〉 부산항 신항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

(9) 오시리아관광단지 착공(2010년)

-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반영되어 2010년 부지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테마파크, 국내외 대표 호텔 및 쇼핑몰 등이 입점하여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

〈그림 Ⅶ-10〉 오시리아관광단지



자료 : 기장군

(10) 부산시민공원 개장(2014년)

- (부산시민공원 100년만에 시민 품으로) 부산시민공원 부지는 과거 군 용지, 경마장, 하야리아부대 등으로 사용되다 2006년 한·미간 협정을 통해 2006년 부대 폐쇄, 2010년 부산시로 소유권 이전, 2011년 부산 시민공원 기공식 등의 과정으로 2014년 부산에 반환

〈그림 Ⅶ-11〉 부산시민공원



자료 : 부산시민공원

3) 부산 10대 MEGA 프로젝트 및 미래 변화

- 2050 BUSAN PLAN에서는 15대 Big 프로젝트와 10대 MEGA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부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미래상 제시
 - 현재 부산이 주요하게 시작하는 가덕도신공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북항 재개발, 철도지하화, 해상도시 등 대규모 사업들이 2050년 부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을 예정

(1) 가덕도신공항 개항(2029년)

- (가덕도신공항 개항)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으로 부산시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
- (미래 변화) 2개의 활주로로 세계 50대 메가 허브공항 완성

〈그림 VII-12〉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

(2)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2026년)

-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정부·지자체 집중 지원으로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생태계 특화 조성
- (미래 변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전력반도체 산업 선도 부산으로 집결

〈그림 Ⅶ-13〉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

(3)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2027년) 글로벌 금융중심도시 조성

- (글로벌 금융중심도시 기반 구축)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중추 마련, 금융발전특구 지정 및 금융기관 유치, 금융중심지 확대 등 성장 모멘텀 확보
- (미래 변화) 부산 금융도시 브랜드 홍콩 앞서,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 10위권 진입

〈그림 VII-14〉 국제금융도시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

(4) 가덕 에어시티 조성(2030년)

- (가덕 에어시티 조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기업수요에 맞는 가덕 에어시티 조성으로 국제물류거점 위상 정립
- (미래 변화) 부산, 환적화물 물동량 세계 1위 달성

〈그림 VII-15〉 가덕 에어시티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

(5) EDC스마트시티 완공(2030년)

- (EDC스마트시티 완공)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EDC스마트시티 완공을 통해 세계적 선도 도시 모델 제시
- (미래 변화) 스마트도시 지수 아시아 1위, 스마트시티 아시아로 수출

〈그림 Ⅶ-16〉 EDC스마트시티 조감도



자료 : 국토교통부

(6) '오션닉스 부산' 건설(2030년)

- ('오션닉스 부산' 건설) 세계 최초 해상도시 '오션닉스'의 부산 건설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 모델 구축 및 세계적 선도 도시 이미지 구축
- (미래 변화)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한 부산, 해양으로 국토 확장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제시

<그림 VII-17> 오션닉스 부산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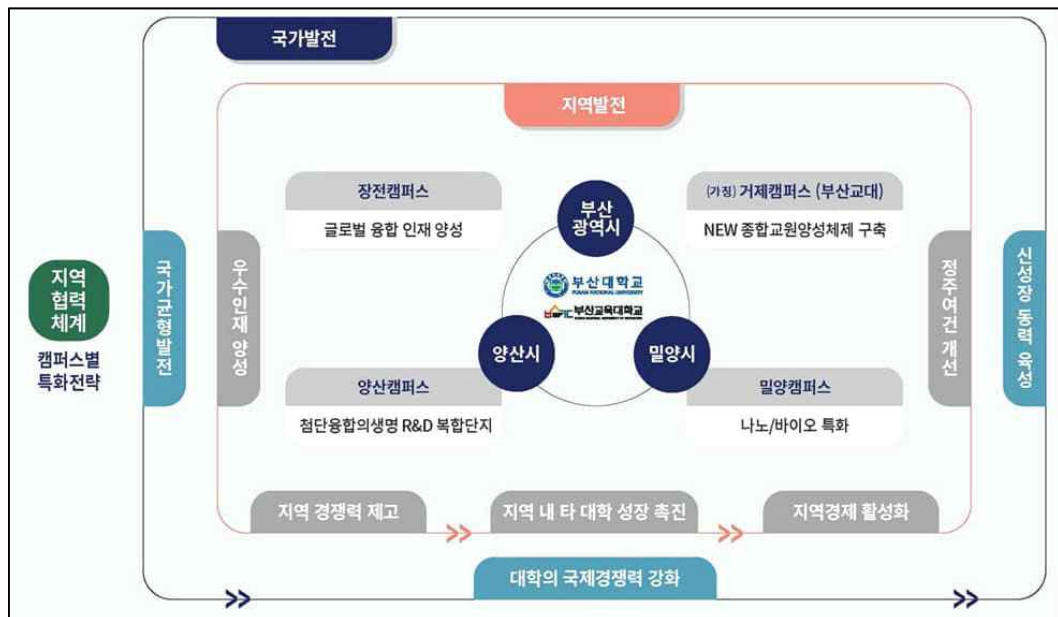


자료 : Oceanix

(7) 글로벌 대학 육성(2026년)

- (글로벌 대학 육성) 부산대-부산교대 글로벌 대학(2023년) 및 추가 대학 선정을 통해 지산학 협력 모델 구축·글로벌 인재양성 등의 글로벌 교육 도시로 발돋움
- (미래 변화) 부산 글로벌 대학,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육성

<그림 VII-18> 부산대-부산교대 글로벌 대학 육성 체계



자료 : 부산대학교

(8) 범천차량기지 이전(2027년), 경부선지하화(2035년)

- (범천차량기지 이전 및 경부선지하화) 철도시설 이전 및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원도심 회복 및 혁신 성장공간 조성
- (미래 변화) 부산 철도로 단절된 도심의 부활

〈그림 Ⅶ-19〉 부산 철도 지하화 계획



자료 : 부산광역시

(9) 북항 재개발 완료(2030년)

- (북항 재개발 완료)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국제적 관문의 친수 복합공간 조성 및 연관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해양도시 조성
- (미래 변화) 아시아의 해양수도, 북항 혁신클러스터

〈그림 VII-20〉 북항 재개발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

(10) 양자기술 선도 도시 조성(2027년)

- (양자기술 선도 도시 조성) 양자정보기술 활용지원센터 등 양자정보기술의 거점으로 차별화된 글로벌 연구 역량 확보 및 산업생태계 조성
- (미래 변화) 부산, 세계적 석학들이 찾는 양자기술 선도 도시

〈그림 VII-21〉 부산 글로벌 쿼텀 콤플렉스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

02

MEGA 프로젝트가 바꿀 부산의 미래

- 10대 MEGA 프로젝트가 바꿔 놓을 부산의 미래를 2050 BUSAN PLAN을 통해 전망
 - ① 가덕도신공항은 세계 1위 공항으로 트라이포트 허브를 완성, 에어시티 및 배후지역의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
 - ② 신항이 환적화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신공항과 신항을 잇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관문도시 부산으로 성장
 - ③ 동부산은 전력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
 - ④ 센텀은 새로운 미래 산업인 양자 분야 R&D 거점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동연구를 위해 부산으로 집중
 - ⑤ 석학들이 찾는 부산은 글로벌 대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개의 대학이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선정
 - ⑥ 지난한 법적 갈등을 풀고 부산으로 이전한 산업은행은 부산이 금융 특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었고, 남부권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펀딩사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 부산은 남부권의 수도와 같은 역할로 금융·물류 등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곧 홍콩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도시로 순항
 - ⑦ 북항에 성공적으로 조성한 해양스마트도시는 남항과 신항지역까지 확대하여 조성 중
 - ⑧ EDC 스마트시티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전세계 정책 수출의 선두 주자. 부산은 EDC를 넘어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 중
 - ⑨ 도시공간의 재배치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았다. 100년 이상 도심을 단절시켰던 철도시설 지하화 계획에 따라 연결의 도시, 소통의 도시로 탈바꿈. 특히 철도시설 이전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 내 공원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편리해짐에 따라 서면을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이 빠르게 전환
 - ⑩ 영도와 북항을 잇는 C-BELT는 세계적인 해양신산업 클러스터로 성장. 침체된 조선기자재 산업을 대신하여 해양금융, 해양 R&D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신산업 거점으로 성장함에 따라 R&D를 넘어 부산의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

부산 글로벌 대학,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부산, 글로벌 모빌리티
전시장 되다!

세계적 석학들이 찾는
양자기술 선도 도시

전 세계가 모여드는
금융·비즈니스 도시

아시아의 해양수도,
북항 혁신클러스터

부산, 해양으로
국도를 넓히다!

2050
BUSAN

VIII.

2050 BUSAN PLAN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1.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한 추진주체별 역할
2. 모니터링 관리체계

01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한 추진주체별 역할

1) 2050 부산 플랜 총괄 및 자문

- 부산시는 비전계획의 총괄 주체로서 지역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부산의 중장기 시정 추진을 위한 관련 구군,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단은 부산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시장 공약과 부산시 중장기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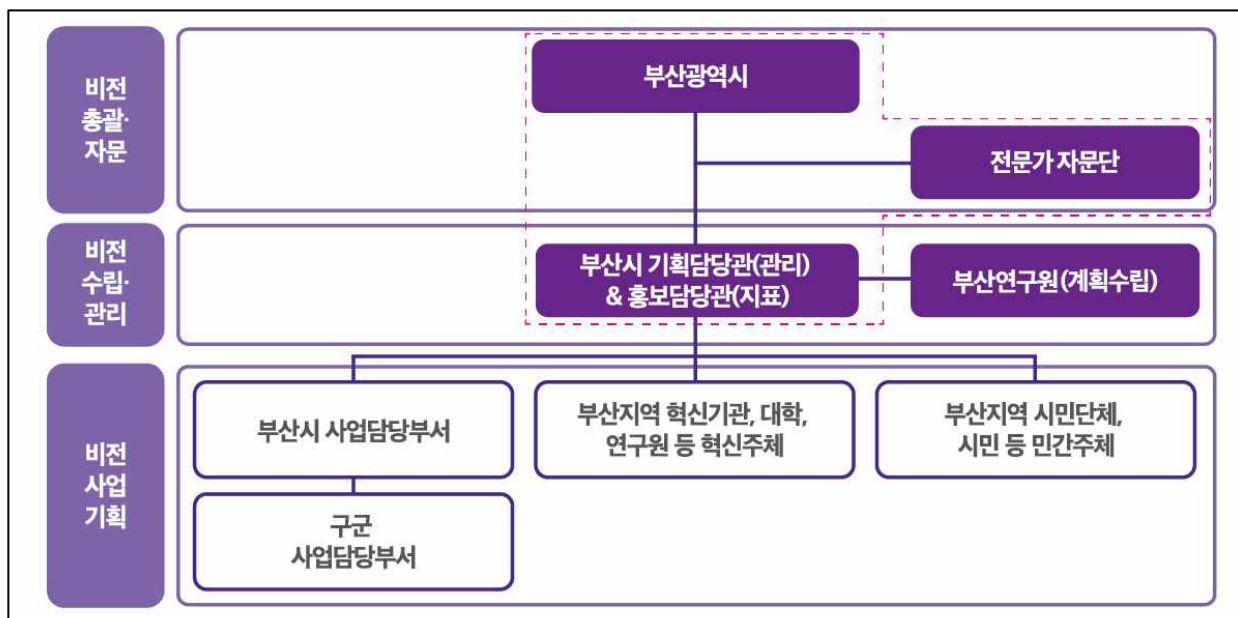
2) 2050 부산 플랜 수립 및 관리

- 부산시 비전계획의 실무 총괄은 부산시 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고 계획 수립은 부산연구원 등 지역 혁신기관이 주도
- 비전계획의 성과지표 관리는 홍보담당관의 도시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3) 2050 부산 플랜 사업 기획

- 추진 사업 등의 기획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구군 실무부서가 참여하고 지역의 혁신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비전계획의 최종 수요자인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공청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비전계획 수립 체계 구축

〈그림 VIII-1〉 2050 BUSAN PLAN의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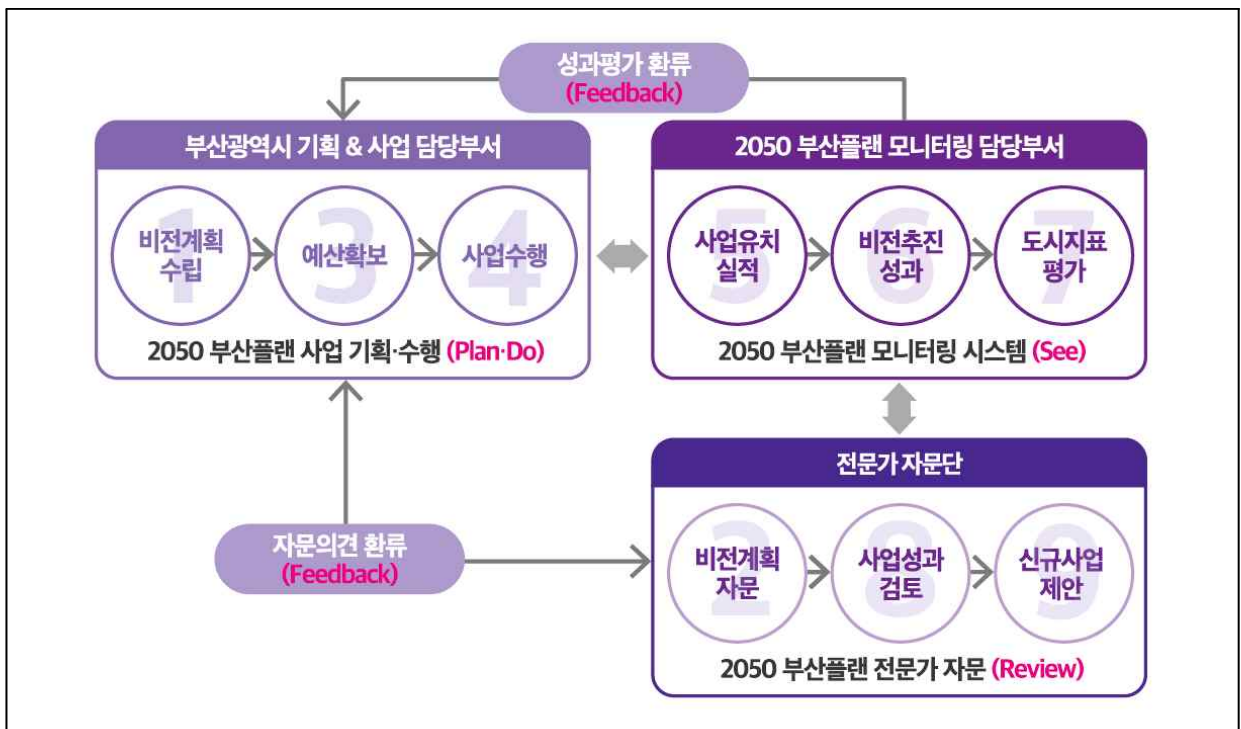


02

모니터링 관리체계

- 2050 부산 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터 성과 모니터링까지 전문가 자문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
- 비전계획의 주요사업에 대한 결정과 세부 내용에 대한 자문,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실적,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 무엇보다 추진성과를 사업유치나 추진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지표를 통한 정책의 간접적인 효과도 반영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비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 정책기여도, 성과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체계화
- 비전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의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수장 보완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환류 체계 마련
- 궁극적으로 성과평가 환류와 자문의견 환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체계 구축을 통해 비전계획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계획으로 추진

〈그림 VIII-2〉 2050 BUSAN PLAN의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부 록

추진경과

일자	참여	내용
2021.09.~2022.09.	부산시/부산연구원	부산시 미래비전 TF 운영(자료수집 및 기초연구 등)
2022.09.	부산연구원	2050 부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과제 착수
2022.11.~12.	동남리서치	부산 시민·전문가 설문조사
2022.11.~12.	부산연구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논의 글로벌 트렌드 및 도시 비전 분석
2022.12.	국회미래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이머징 이슈 연구) 착수
2023.01.	부산연구원	부산 시민·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및 검토
2023.01.11.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개원 세미나 ‘시민이 바라본 부산의 미래’ 발표
2022.12.~2023.02.	부산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이머징 이슈 발굴(문헌 분석 등)
2023.02.14.	부산연구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회의
2023.02.24.~03.17.	부산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시민모집(공공·민간단체 등 배포) 1·2차 사전회의(사전 기획 및 퍼실러테이터 교육 등)
2023.03.18.	부산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시민(60여명)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개최
2023.03.24.	부산연구원/시민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후 평가회
2023.03.	부산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이머징 이슈 연구 1차, 2차 전문가 자문
2023.04.~06.	부산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이머징 이슈 분석 및 검토

일자	참여	내용
2023.05.25.	부산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외부 자문위원	‘2050년 부산의 미래 이슈 및 전략 도출’ 전문가 워크숍
2023.02.~05.	부산시 및 출자·출현 기관/부산연구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실행전략 제안 및 검토
2023.06.02.	부산시/부산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2050 부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2023.07.25.	부산연구원	경과보고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
2023.07.~2024.01.	부산연구원/부산시	장기발전계획 가치·비전·목표 및 세부과제 도출 검토 및 수정·보완
2024.02.	부산연구원	보고서 자문위원 검토 및 의견 수렴
2024.02.20.~2.24.	부산시/부산연구원	부산시 실·국·본부별 검토 및 의견 수렴
2024.02.26.	부산시/부산연구원	부산시 실국·본부장 합동 검토회의
2024.02.27.~3.12.	부산시/부산연구원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실·국·본부별 추가 검토 및 의견 수렴
2024.03.14.	부산시	2050 부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2024.03.	부산연구원	최종 의견 수렴 및 완료

참고문헌

보고서 및 논문, 단행본

- 강명수.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국토이슈리포트 62호. 국토연구원,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KIOSK 제100호. 2022.11.
관계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07.
김묵한.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t Cities), 세계와도시 7호. 2018.
김선희. 국토2040 메가트렌드와 국토 장기구상. 국토, 2010, 14-21.
김유빈.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23. 국회미래연구원, 2021.07.22.
김유빈.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53. 국회미래연구원, 2022.09.19.
김유빈, 박진서, 양수임, 울디벨롭. 이머징 이슈 분석 및 온라인 플랫폼 개발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0.
김인희, 윤서연, 진화연, 변미리, 맹다미, 홍상연, 한지혜, 우영진. 뉴노멀시대 미래도시 전망과 서울의 도시공간 발전방향. 서울연구원, 2021.
박성원.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Futures Brief 제4호. 국회미래연구원, 2021.
박성원.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02. 국회미래연구원, 2020.09.03.
박성원, 김유빈.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Futures Brief 7호. 국회미래연구원, 2022.07.18.
박성원, 김유빈, 여영준, 송민, 전준, 장나은, 김기환. 이머징이슈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1.
박성원, 박현석, 이상직, 김태경, 전준, 오재환, 조근희.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이머징 시티즌을 찾아서. 국회미래연구원, 2023.
박창현, 이재민, 전해인.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물 확산 연구(3차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2006.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 2015.
부산발전연구원. 세계도시 부산 2010. 1999.
부산연구원. 동북아해양수도 비전 및 전략. 2020.
윤정중, 최상희, 김태균, 박종배, 양동석, 송태호, 권오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주거변화와 LH의 역할 및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9.
이은석, 지석환. 기후위기시대 폭염·홍수 복합재해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전략. auri brief No.217. 2020.
이지현. 다보스 포럼(WEF)을 통해 내다본 세계화의 미래 - 향후 4가지 세계화(Globalization) 시나리오와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2.
임은선, 황명화, 이보경, 김다슬, 이영주, 손재선, 최선정, 현준용, 변필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07.
조성수, 백효진, 한정훈, 이상호. 미래도시 전망 분석. 지역연구, 2019, 35(3), 59-76.
정의진, 임현, 박노언, 박창현, 지수영.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이슈 심층분석. KISTEP Issue Paper 2021-08(통권 제308호). 2021.

Alwan, A. A., Brimicombe, A. J., Ciupala, M. A., Ghorashi, S. A., Baravalle, A., & Falcarin, P. Time-series clustering for sensor fault detection in large-scale Cyber-Physical Systems. *Computer Networks*, 2022, 218, 109384.

Biscaya, S., & Elkadi, H. A smart ecological urban corridor for the Manchester Ship Canal. *Cities*, 2021, 110, 103042.

CEIS & Baltic Exchange. *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ers Development Index Report 2023*. 2023.

Centre for London. *Greater London: A new vision for a better city*. 2021.

CIDEG & Nature Research Intelligence. *Global Innovation Hubs Index 2023*. 2023.

City of Boston. *Imagine Boston 2030*. 2021.

City of Portland. *2035 Comprehensive Plan*. 2023.

City of Sydney. *Sustainable Sydney 2030-2050*. 2022.

City of Vienna. *Vienna 2030 Economy & Innovation*. 2019.

Corporate Knights. *2023 Sustainable Cities Index Report*. 2023.

Deloitte. *2021년과 그 이후를 지배할 메가트렌드*. Deloitte Insights No.17, 2021.

Economics, M., & DNV, G. *The Leading Maritime Cities of the world 2022*. 2022.

EIU.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2023*. 2023.06.

Euromonitor International. *Top 100 City Destinations Index 2022*. 2022.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 De Neve, J. E. *World Happiness Report 2020*. 2020.

IMD. *IMD Smart City Index Report 2023*. 2023.

IOCCG. *2019 International Ocean Colour Science Meeting (IOCS-2019)*. 2019.

IPCC.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21.

IPCC.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2022.

Japan Association for the 2025 World Exposition. *EXPO 2025 Master Plan*. 2020.

Mairie de Paris. *Paris Smart and Sustainable*. 2020.

Manchester City Council. *Our Manchester Strategy Forward to 2025*. 2020.

Mao, C., Koide, R., & Akenji, L. *Society and lifestyles in 2050: Insights from a global survey of expert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2019.

Mercer. *Quality of Living City Ranking 2023*. 2023.

NIC.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1.

NYC. *OneNYC 2050*. 2019.

Pla Estratègic Metropolità de Barcelona. *Barcelona Metropolitan Strategic Plan*. 2020.

Port of Rotterdam. *Port Vision Rotterdam*. 2019.

Resonance Consultancy. *2024 World's Best Cities*. 2023.

Startup Genome.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3*. 2023.

Stockholms Stadshus. *Stockholm City Plan*. 2021.

The Economist. *Safe Cities Index 2021*. 2021.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Tokyo Sustainability Action*. 2021.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2021.

U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United Nations New York, 2022.

WEF.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22*. World Economic Forum, 2022.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23. 2023.
 Z/Yen. The Smart Centres Index 8. 2023.11.
 Z/Yen & CDI.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5. 2024.03.
 北京市人民政府. 北京市促进未来产业创新发展实施方案. 2023.09.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격자를 넘어 초격차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성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 2024.02.01.
 부산광역시. - "서핑 성지" 송정해수욕장으로 전국 서퍼 모인다 - 2023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 24일 송정해수욕장에
 서 개막. 2023.06.23.

신문 및 잡지

권건호. [이슈분석]LG그룹 창립 70주년 '화학·전자산업 개척자서 혁신 기업으로 도약'. 전자신문, 2017.03.27.
 김은영. '지역·무용' 키워드로 치르는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부산일보, 2023.11.01.
 연지연. 현대건설, UAM 버티포트 컨셉디자인 최초 공개. 조선일보, 2022.11.10.
 이선정. [피란수도 부산] 근대유산 중 국내 처음...상반기 심사서 '조건부' 꼬리 떼야. 2018.01.08.
 이한구. [이한구의 한국재벌사·51]삼성-3 제일제당 설립. 경인일보, 2018.03.20.
 최정현. 동천 재생 4.0 부산의 미래를 흐르게 하자 <1-3> 동천 스토리- 한국 경제의 산실. 국제신문, 2013.01.02.
 탁경륜. 부산 청년극단의 '삼색' 무대... '블루' '레드' 남았다. 부산일보, 2024.01.03.
 ARCinfo. Transports de marchandises: Berne consulte l'économie et le politique sur le projet Cargo sous terrain. 2019.
 Barker, N. Ten futuristic cities set to be built around the world. Dezeen, 2022.08.01.
 Habiba Nosair. Il Cuore Verde, the first vertical forest building in the Middle East. SustainArabia, 2023.09.06.
 Nina Ignaczak. How to Negotiate a Community Benefits Agreement. SHAREABLE. 2014.01.28.

참고 사이트

비짓부산 홈페이지
https://www.visitbusan.net/index.do?menuCd=DOM_000000302008001000&uc_seq=1769&lang_cd=en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https://m.sc.or.kr/news/noticeView.do?NO=70784>
 행복한 BNK 홈페이지
http://www.happybnk.co.kr/User/Welfare07_View?msgIdx=2495&selectType=2&pageIndex=23&pageSize=9&rowNumber=212&SEARCH_TYPE=1
 ACI 홈페이지
<https://store.aci.aero/>

BAZAAR 홈페이지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78350>

Dubai 2040 Urban Master Plan 홈페이지

<http://dubai2040.ae/en/dubai-2040-urban-master-plan/>

IESE Business School 홈페이지

<https://rankings.ft.com/schools/130/iese-business-school/rankings/2866/mba-2022/ranking-data>

Nomad List 홈페이지

<https://nomadlist.com/>

Kocis 한국문화홍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kocis.go.kr/koccc/view.do?seq=1045792&page=1&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menu0023&searchText=>

PCN 홈페이지

<https://pcn.nparks.gov.sg/know-our-pcn/island-wide-routes/>

Smart Nation Singapore 홈페이지

<https://www.smartnation.gov.sg/>

Resource for the Future 홈페이지

<https://www.rff.org/publications/data-tools/global-energy-outlook/>

연구진

- **총괄** : 신현석 원장(부산연구원)
- **연구책임** : 오재환(부산연구원)
- **공동연구**
배수현, 허윤수, 손현일, 김경수, 이상국, 이정석, 김민경, 김세현, 이화연, 최윤정, 유한솔, 이예진, 하경준, 남호석, 고영근, 박혜림, 이용인(부산연구원)
- **외부연구진**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김유빈(명지대학교), 이진숙, 하정화(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 **연구자문**
권태상, 김기욱, 김도관, 김두례, 김종욱, 구윤모, 남지안, 서옥순, 양진우, 여운상, 오동하, 우석봉, 이동현, 이선영, 이요바, 이원규, 이재정, 박경욱, 박금식, 박충훈, 백경훈, 이신정, 이자연, 장하용, 주수현, 최윤찬, 최지은 (부산연구원)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국회미래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사회서비스원(구 부산복지개발원)
- **조사기관**
동남리서치

자문진

- 부산광역시

박형준(부산광역시장), 이준승(행정부시장), 김광회(경제부시장), 송경주(기획조정실장), 이경덕(기획관), 김다운(기획담당관), 김병권(기획담당관 기획팀장), 석응균(기획담당관 주무관), 김대홍(기획담당관 주무관)

- 전문가

강동진(경성대학교), 김경우(부산대학교), 김경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김균(부산대학교), 김수영(경성대학교), 김영일(신라대학교), 김영하(동아대학교), 김용규(부산대학교), 김은혜(부산대학교), 김준수(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창수(부경대학교), 김태란(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김현석(동아대학교), 노윤정(동명대학교), 도한영(부산경실련),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박경돈(부산대학교), 박명흠(부산외국어대학교), 박창희(스토리랩 수작), 배연한(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배유일(동아대학교), 서재호(부경대학교), 송길태(부산대학교), 신지은(부산대학교), 유재우(부산대학교), 윤성환(부산대학교), 윤은기(동아대학교), 이경현(부경대학교), 이재원(부경대학교), 이주석(한국해양대학교), 정명주(부산대학교), 정형구(부산산업과학혁신원), 조환규(부산대학교), 차용범(경성대학교), 천세진(동아대학교), 초의수(신라대학교), 최승욱(부산테크노파크), 한세억(동아대학교), 허용훈(부경대학교), 홍지훈(부산대학교)

부산발전 비전 및 전략

2050 BUSAN PLAN

발 행 인 신현석

발 행 일 2024년 04월

발 행 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TEL. 051-860-8600 / FAX. 051-860-8619

제작·인쇄 캡스앤디컴퍼니 TEL. 051-911-9890

I S B N 979-11-6886-159-6 93300